



## 제2차 부산미래유산 심화연구

## 제 출 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미래유산 조사·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2차 부산미래유산 심화연구

연구기간 : 2021.04.10. – 2021.11.20.

연구지원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연구기관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

강동진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공동연구

박훈하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

이경일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부교수

박창희 ·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김한근 ·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

이성훈 · 부산학당 대표

홍순연 · (사)삼진이음 이사

한영숙 · (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

조미성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연구원

### 연구간사

박리디아 · 경성대학교 도시재생학과 박사과정

### 보조연구

조효은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

김명준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황소정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정다원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과정





# 목차

## 1장. 유산별 심화연구

1. 부산시민공원 • 09
2. 40계단 • 18
3. 백산기념관 • 25
4. 부산세관 • 33
5. 동래기영회 • 39
6. 조선방직 총파업 • 47
7.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 55
8. 부산부두 총파업 • 62
9. 어묵 • 68
10. 기장 대멸치 • 75
11. 구포은행 • 82
12. 근대 조선업 발상지 • 91
13. 남선창고 • 99
14. 금강공원 • 107
15. 동해남부선 • 115
16. 제뢰등대 • 123
17. 녹산 제1수문 • 130
18. 부산터널 • 136
19. 송도해수욕장 • 142
20. 장기려기념관 • 150
21. 금정산성 누룩방 • 159
22. 동래파전 • 170
23. 낙동강 재첩국 • 177
24. 구덕운동장 • 187
25. 청학성당 • 195
26. 동광동 인쇄골목 • 202
27. 부전동 공구골목 • 210
28. BIFF광장 • 218
29. 요산문학관 • 227

## 2장. 유산별 활용방안

1. 유산별 형태 및 보존 여부 분류 • 238
2. 유형별 활용 방안 • 240



## 1장

# 유산별 심화연구

1. 부산시민공원 • 09
2. 40계단 • 18
3. 백산기념관 • 25
4. 부산세관 • 33
5. 동래기영회 • 39
6. 조선방직 총파업 • 47
7.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 55
8. 부산부두 총파업 • 62
9. 어묵 • 68
10. 기장 대멸치 • 75
11. 구포은행 • 82
12. 근대 조선업 발상지 • 91
13. 남선창고 • 99
14. 금강공원 • 107
15. 동해남부선 • 115
16. 제뢰등대 • 123
17. 녹산 제1수문 • 130
18. 부산터널 • 136
19. 송도해수욕장 • 142
20. 장기려기념관 • 150
21. 금정산성 누룩방 • 159
22. 동래파전 • 170
23. 낙동강 재첩국 • 177
24. 구덕운동장 • 187
25. 청학성당 • 195
26. 동광동 인쇄골목 • 202
27. 부전동 공구골목 • 210
28. BIFF광장 • 218
29. 요산문학관 • 227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공원 조감도

©부산광역시

### 1) 개관

대상	부산시민공원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21호
건립시기	2014년	형태	유형 - 도시공원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0~1945년 서면경마장, 제71병참경비대, 군속훈련소, 외국인포로수용소 등으로 사용</li> <li>· 1945~1950년 미군 부대기지사령부</li> <li>· 1950~2006년 유엔지원단의 캠프, 주한미군사령부(캠프 하야리아)</li> <li>· 1990년대 이후 서면일대의 급속한 개발과정 중, 군사기지보호법으로 묶여있던 캠프 하야리아 인근 지역의 낙후 문제가 대두</li> <li>· 1995~1999년 시민단체 '우리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 결성하여 부지반환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 인간띠 잇기 운동, 종이비행기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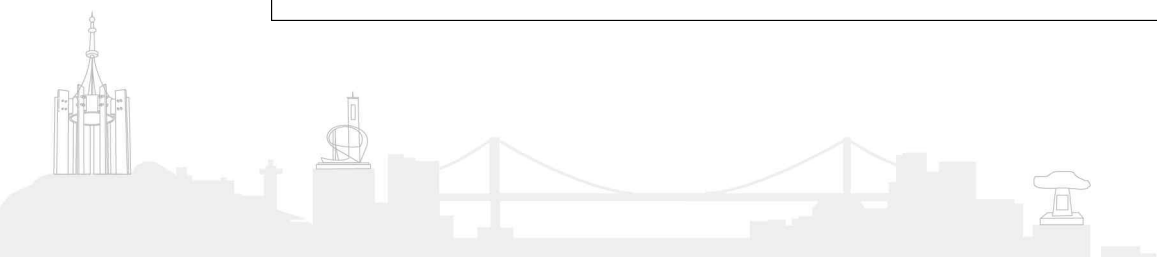


	<p>풍선 날리기, 각종 토론회 및 강연회 실시, 매주 목요일 캠프 정문집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캠프 하야리아 이전 추진</li> <li>· 2004년 총 7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추진 ·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부지 무상양여운동 전개</li> <li>· 2006년 캠프 하야리아 기지 폐쇄</li> <li>· 2006년 (가칭)부산시민공원 명칭 제정을 위한 시민제안공모 실시</li> <li>· 2008년 캠프 하야리아 부지 전체에 대한 공원 결정</li> <li>· 2009년 지역전문가들과 지역언론이 참여한 '하야리아공원포럼' 결성</li> <li>· 2009~2013년 하야리아공원포럼을 중심으로 캠프 하야리아 내 역사자산 및 건축물 보존운동 전개</li> <li>· 2010년 캠프 하야리아 부지 반환</li> <li>· 2010년 4월~10월 캠프 하야리아 부지의 시민 공개</li> <li>· 2010년 공원 명칭 선호도 조사 시행 : '부산시민공원'으로 명칭 결정</li> <li>· 2011년 부산시민공원 기공식 개최</li> <li>· 2013년 부산시민공원 관리업무 위탁 계약(부산시설관리공단)</li> <li>· 2014년 5월 1일 부산시민공원 개장</li> </ul>
<p><b>보존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피란수도기, 50~60년대 피란수도기를 거치며 침략과 강제동원, 전쟁과 피란, 국제구호와 분단 등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민족적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인 현장임</li> <li>· 부산시민의 지속적인 부지반환운동과 역사보존운동으로 부산시민의 주체적 역량을 드러내었고 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장소임</li> <li>· 2014년 시민 모두에게 열린 부산시민공원으로 재조성되어 도심(서면)의 대규모 공원으로서의 도시문제의 해소, 자연성 회복, 시민정신의 치유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li> <li>· 부산시민공원은 20세기에 대한민국이 겪어 온 근현대사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미래의 바탕이 되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li> </ul>

### [설명문]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과 연지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경마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일제의 전쟁 준비와 관련된 강제동원을 위한 훈련장과 야영지, 그리고 외국인포로수용소로 사용되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주한미군기지사령부가, 1950년 한국전쟁 중에는 유엔 산하의 기구들과 콜롬비아, 에디오피아 등의 유엔군이 주둔하였다. 휴전 후 2006년까지 주한미군부산기지사령부 산하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로 사용되었다.

1995년에 ‘우리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반환운동을 시작하였고, 다양한 시민운동의 촉발점이 되었다. 2002년 3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이 체결되었고, 2004년 8월 제11차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한 협의를 통해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 및 폐쇄를 결정하였다. 2010년 1월 부지가 부산시로 반환된 후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부대 일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였고, 8월 부산시는 하야리아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대 내 건축물과 수목들, 경마장 트랙 등의 옛 흔적을 보존하기 위한 하야리아공원포럼 중심의 시민운동이 전개되었고, 부산시는 지방도시 최초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며 22동의 건축물과 경마장 트랙 등의 보존에 합의하였다.

2011년 3월 28일 시민주체들(라운드테이블)과 공원 설계자인 제임스 코너(James Corner)와의 합의 결과가 반영된 마스터 플랜이 최종 확정되었고, 같은 해 8월 11일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착공되었다. 2014년 2월 부산시민공원을 임시 개장을 거쳐 5월 1일 정식 개장하였다.

부산시민공원의 총면적은 47만 1518㎡이며, 1,108,077그루(교목 46종 13,665그루, 관목 43종 1,094,412그루)가 식재되었다.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라는 5가지 주제의 숲길이 있으며, 부전천 수변 산책로, 전포천 친수공간, 랜드마크 폭포, 잔디광장, 참여의 벽을 비롯하여 공원역사관, 부대시설을 보존한 문화예술촌 등 11개소의 장소들, 역사의 길, 기억의 기둥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원 편의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민공원은 침략과 지배, 전쟁과 피란, 분단이라는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현장이자, 시민들의 주체적 노력을 통해 80여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웅장한 시민공간으로, 새로운 시민참여와 만남의 장소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브랜드이자 랜드마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2) 관련 내용

1930년대 이해 80여 년 동안 빼앗긴 땅이어야 했던 곳이자 캠프 하야리아의 주둔지는 부산시민공원(이하 ‘공원’)으로 대변신을 했다. 공원이 있는 이 지역은 원래 전형적인 농지였다. 부산에서는 드물게 넓은 평지를 이루면서 그 사이를 전포천과 부전천이 흘러, 농사짓기에 적합한 천혜의 땅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1930년 일본의 재력가들에 의해 3만여 평의 부지에 서면경마장(부산경마구락부)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부산진지역의 매축지에서 매년 경마대회를 진행하다가, 부지의 부족의 이유로 이곳에 경마장을 건설하여 1931년 봄부터 서면경마장에서 경마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주민은 “경마가 있을 때면 일본인들이 버스나 인력거를 타고서 경마를 보러 올라왔지. 그날은 임시 전차도 운행하고, 버스요금도 할인해주고 했어.”라 한다. 그만큼 경마장은 연일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다. ▶<sup>1</sup> 일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중심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이곳을 찾는 많은 일본 관광객들의 환호성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될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인들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반대운동을 펴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의 주요 사업이었기에 중단될 리가 없었다.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전국의 말을 동원하는 조선마정계획이 시행되며 전시체제로 돌입했고, 그 후로는 서면경마장에서 더 이상 경마를 시행할 수 없었다. 1941년 이곳이 일본군 군수물자 보급시설로 사용되면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부전역이 부지와 연결하여 설치되었고, 주변 마을 땅들도 군사시설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서면경마장 부지에는 일본군 부대와 훈련소가 들어서고, 태평양전쟁 때는 철도 경비 업무와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경비대가 주둔하면서 대륙침략의 주요한 전초기지로 변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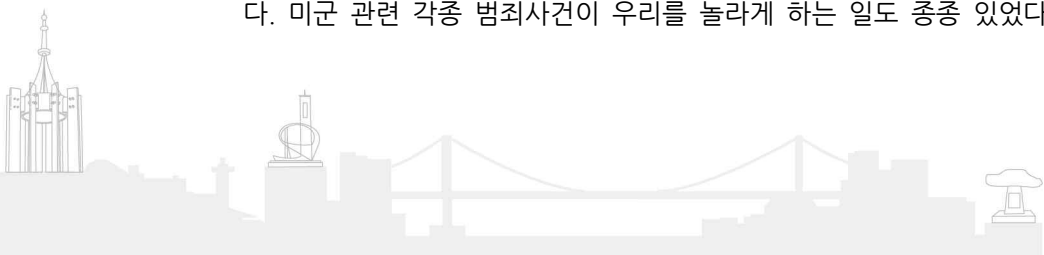
1942년 2월부터 이곳은 포로수용소로 사용되었는데,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전쟁(태평양전쟁)에서의 필승을 위하여 백인들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곳에 포로수용소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조선군 사령관 이타가키세이시로가 '조선군포로수용계획'을 도조히테키 육군대신에 보고한 속기록 146호(1942.3.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로수용소 설치의 목적이 조선인이 가진 영미숭경(英美崇敬)의 관념 타파와 전쟁 필승 신념의 확립, 그리고 백인 포로의 약한 모습을 통한 선전효과 등이었다. 같은 해 5월부터 8월 사이에 약 1,100명의 백인 포로가 조선으로 이송되어 이곳에 수용되었다. 백인 포로가 부산에 도착한 시기가 강제동원된 조선인 군속들이 훈련을 마치고 남방 각지로의 파견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임시 포로수용소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이곳에는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깡음을 내는 탱크를 앞세우고 들이닥쳤다'고 말한다. 이것이 '캠프 하야리아'의 시작이었다. 다른 한쪽에는 다시 경마장이 개설되었다(그래서 1950년 항공사진 속에 경마 트랙이 2개소로 나타난다). '하야리아(Hialeah)'라는 말은 원래 인디언 말로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뜻을 지녔던 말이며, 이곳의 경마장인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하야리아(Hialeah)에 있는 경마장(Hialeah Park Casino)과 닮았다고 하여 부대 이름이 캠프 하야리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캠프 하야리아는 자급자족의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진 곳이었다. 사령부 건물과 헬기장, 미군 숙소 등 군 기반시설 뿐 아니라, 영화관, 클럽 등 대중문화 시설과 축구장, 농구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과 대형마트까지, 모든 것을 갖춘 '한국 속의 작은 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50년 이후 캠프 하야리아를 통해 다양한 미국문화가 부산에 전해졌다. 마을 아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얻은 깡통('깡'은 '캔 can'을 일본어로 '칸(缶)'으로 부른 데서 나온, '통'은 물건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의 우리말)으로 깡통차기 놀이를 하거나, 자동차 베어링으로 구슬치기를 하면서 놀았다. 추잉검, 초콜릿, 짬뽕밥, 씨레이션(C-Ration) 등 먹거리도 구할 수 있었다. 미국인과 미국문화는 당시 한국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이 무렵 마을 주민들은 미군들을 대상으로 세탁업을 하거나 미군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캠프 하야리아로 향하는 출입구 주변에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상가가 형성되었다.

캠프 하야리아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이 사용할 보급품을 보관하고 배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부대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흘러나오면서 서면 공구상가와 국제시장, 깡통시장이 형성되었다. 미군 물자는 미군이나 한국인 근무자들에 의해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부대 물자를 불법으로 훔치는 방법으로 '암생이 몰러 간다.'는 말이 유행했는데, 미군 부대 울타리 안으로 암생이(염소의 경상도 사투리)를 몰래 밀어 넣은 뒤 이를 잡으러 왔다고 경비병에게 이야기하면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에서 나온 표현이었다. 당시 불법 물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미군 헌병의 감시 대상이었지만 여전히 부산 시내에는 미군 군복, 담배, 화장품, 식료품, 의약품, 전자제품 등 미국식 문물들이 유입되었다.

또한 부산사람들이 직접 부대 안에 들어가 미국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캠프 하야리아는 미국의 축제일에 맞춰 부대를 개방했다. 부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부대에서 미국식 식사를 맛보고, 영화를 보며, 팝송을 들을 수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문화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적지 않았다. 미군 관련 각종 범죄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처럼 부산사람들이 경



험한 미국 문화는 다양하였다.

한편 또 다른 관점에서 미군의 철수와 공여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점차 높아져 시민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캠프 하야리아 반환운동은 초기에 대학생과 재야민족민주운동세력이 점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대중적인 시민운동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대중화의 과정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자주의식이 고양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 외 33개 단체로 구성된 ‘우리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는 1993년 11월 29일, 캠프 하야리아 반환운동의 이론적 검토를 위해 ‘부산 땅 하야리아 되찾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부지 반환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 자체가 큰 성과였으며, 이후 지역주민운동과의 결합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5년에 즈음하여 캠프 하야리아 이전 및 부지 반환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면서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비롯한 시민공원 조성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sup>2</sup>

캠프 하야리아를 둘러싼 각계의 열정은 자연스레 ‘포럼 결성’으로 모아졌다. 2009년 부산일보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하고 기획취재 과정에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됐다. 비교적 젊은 세대로 구성된 이들은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으로 부산의 미래를 밝히며, 매너리즘에 빠진 지역사회에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 내자는 취지였다. 그렇게 도시·조경·건축·사회복지·여성·언론계·문화계 출신의 학계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부산시 공무원(행정), 부산시의회 의원(정치), 외국 언론인까지 참여한 시민들이 만드는 ‘하야리아공원포럼’이 발족되었다. 부산시민공원의 올바른 조성을 염원하는 전문가 모임인 하야리아공원포럼은 2010년 1월 27일 역사적인 캠프 하야리아 부지반환을 계기로 ‘부산시민공원 시민들의 손으로’를 기치로 하여 ‘시민참여형 공원만들기 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캠프 하야리아 부지의 반환운동을 주도해왔던 부산시민공원조성 범시민운동본부 등과 공동 세미나와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공조했다. 특히, 2010년 7월 13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산시민공원의 바람직한 조성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참여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부산시민공원은 하야리아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캠프 하야리아 부지의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면서 부대 내 건축물들과 시설물, 경관, 식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결국 다양한 방면에서 분출된 이 열망들을 부산시민공원 조성과정에서 수렴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돼 갔다. ▽<sup>3</sup>

이러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확정하기 위해 부산시는 부산시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하야리아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이 탄생되었다. 지방도시 최초의 시도였던 이 라운드테이블은 바람직한 부산시민공원을 향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이 행정을 변화시켜 이뤄낸 결과물이었다. 각계분야에 활동하는 30여명의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에 모였다. 수차례의 진통 끝에 2010년 11월 11일, 22동의 건축물과 경마장 트랙을 포함한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기로 합의하고, 제임스 코너의 2차 설계안을 확정하는 등 2011년 3월에 종료될 때 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2011년 8월, 부산시민공원 조성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2014년 5월 1일 부산시민공원이 개장되었다.

일본인들이 강제로 조선인 땅을 매입하여 경마장을 만들고 이후 일본군과 미군의 군사시설로 바



귀는 과정 속에서 그곳 주변에 살았던 선조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 캠프 하야리아와 관련한 기억은 보존된 일부 건물들과 공원내 곳곳의 장소들과 경관 속에 남아있다. 이제 이곳은 부산시민들의 진정한 쉼터로 새로운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sup>4</sup>

- ▼1 부산진구청, 2016,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진구청, pp.24-31.
- ▼2 임시수도기념관, 2015, 「2015 학술연구총서 낯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임시수도기념관, p.150.
- ▼3 하야리아공원포럼, 2012, 「부산의 꿈(캠프 하야리아의 시민공원 만들기)」, 미세움, pp.22-41.
- ▼4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pp.194-197.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일부)보존된 사병숙소와 황령산 풍경



나무 전봇대를 모아 만든 기억의 정원



부산시민공원의 모습 ©Field Operation



부산시민공원의 남측 입구



부산시민공원을 즐기는 시민들





## ▷ 사진 기록 자료



2개의 트랙이 보이는 1950년대 초반 모습  
©부산광역시



2015년 부산시민공원 항공사진  
©부산광역시 우리고장의 역사



캠프 하야리아의 열쇠 인수식  
©연합뉴스



캠프 하야리아 부지의 반환 순간  
©연합뉴스



2005년 캠프 하야리아 부지 반환 서명운동  
©포투뉴스



부산땅 되찾기 범시민대책위의 가두 캠페인  
©부산시민공원



라운드테이블에서의 합의(2010.11.11.)  
©부산일보



하야리아공원포럼 결성의 시작점(2009.5.12.)  
©부산일보



## ▷ 논문 및 저서

- 안미정, 2013, “부산 미군 하야리아부대의 공간적 변용과 의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16권 1호.
- 유현, 2019, “리틀아메리카에서 부산시민공원으로 -캠프 하야리아를 둘러싼 기억과 시선들”, 『항도부산』, 38호.
- 부산진구청, 2016,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진구청.
- 임시수도기념관, 2015, 「2015 학술연구총서 낯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임시수도기념관.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하야리아공원포럼, 2012, 「부산의 꿈(캠프 하야리아의 시민공원 만들기)」, 미세움.

## ▷ 신문기사

- 2010.01.27. 연합뉴스, 「"'하야리아' 다시 품었다"..반환 현장」
- 2013.11.26. 국제신문,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17> 하야리아 부대」
- 2020.11.01. 오마이뉴스, 「미군기지였던 부산공원... 이렇게 멋지게 바뀌다니」

## ▷ 기타 자료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부산시민공원’, ‘새롭게 태어난 부산시민공원’
-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https://www.citizenpark.or.kr/>)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부대를 통해 본 부산’, ‘서면경마장’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 40계단



#### 1) 개관

대상	40계단	소재지	부산 중구 중앙대로 73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22호
건립시기	근대	형태	유형 - 계단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2년~1908년에 걸친 북항의 매축으로 인한 해안선 변형</li> <li>· 1908년 옛 부산역 앞 공지에 새마당을 건립</li> <li>· 1909~1912년 동광동에서 옛 부산역과 국제여객부두 간의 왕래 편의를 위해 40계단 조성을 추정, 계단 층수가 40개라 40계단으로 불리게 됨</li> <li>·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 이후 남쪽으로 약 25m 이격하여 개설</li> <li>· 1993년 40계단 기념비 건립</li> <li>· 2003년 40계단 문화관 개관</li> <li>· 2004년 부산시와 중구청에서 40계단 일대를 정비하여,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약 450m)로 조성</li> <li>· 2004년 부산광역시 종합평가 최우수 거리로 선정, 제1회 '40계단 문화축제'</li> </ul>		



### 보존 필요성

#### 개최

- 2006년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지정
- 2010년~40계단의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역민들과 예술인들의 교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원도심 문화공동체 프로젝트인 '또따또가' 운영

- 한국전쟁 당시 40계단 주변으로 판자촌이 이루어져 피란민들의 생계를 위한 구호물자 장터, 이산가족 상봉 장소 등으로 유명하였음
- 영주동 뒷산, 동광동, 보수동 일대에 흩어져 살았던 피란민들에게 가장 친근했던 장소이며 피란의 현장과 피란민들의 애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임
- 40계단을 이용했던 부산시민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지 않고 40계단 남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후세대에 기억과 가치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함
-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로 조성되면서 40계단과 조형물들을 통해 전쟁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50~1960년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 40계단은 부산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장소로 이에 대한 테마거리의 조성 및 40계단문화관의 건립, 또따또가의 운영 등은 40계단이 지역문화의 전통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복합역사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역사 학습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설명문]

‘40계단’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9-51번지 일대에 조성된 계단이다. 현 부산경남세관본부 부근의 공유수면(북항)이 매축(1902년~1908년)되고, 1908년 중앙동에 부산역 광장이었던 새마당이 탄생된 후인 1909~1912년 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매립된 해안가와 북병산 일부를 깎아 주택지를 만든 동광동 5가로 통하는 언덕 뒤편과 매립지를 잇기 위한계단들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피란수도 시기에 40계단 주변에 피란민들이 몰려 판자촌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피란민들이 모여든 40계단은 피란민들의 생계를 위한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로, 또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는 장소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후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40계단은 원래 자리에서 25m 떨어진 현 위치에 다시 만들어졌다. 현재의 40계단은 원래의 계단이 아니며, 원 계단은 약 1m의 폭으로 계단골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 전반의 도시화가 가속하며 원도심 일대의 쇠퇴가 본격화되던 2004년 6월, 1950~1960년대의 리트로한 분위기를 복원하는 40계단 문화관광 테마사업이 추진되었다. 1993년 40계단 기념비가 만들어졌고, 2004년 40계단 일대를 정비해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가 조성되었다. 40계단 위쪽 길을 따라 100m 쯤 가면 동광동주민센터가 있고, 센터 5층과 6층에 40계단 문화관이 있다. 5층 전시실에는 40계단과 한국전쟁을 주제로 하는 부산시 중구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종합평가의 결과, 2004년 40계단 테마거리는 최우수 거리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40계단 문화축제’ 등의 개최로 40계단의 역사성과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40계단 문화관에서 40계단과 일대를 관리하고 있다.

## 2) 관련 내용

40계단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사거리의 북병산 이면가로에서 동광동 주민센터 쪽으로 올라가는 40단을 가진 계단으로, 부산 원도심의 모습을 간직한 채 한국전쟁 피란 시절의 애환과 향수를 담고 있는 역사문화적 장소이다.

40계단의 윗길 동광길은 조선 후기 만해도 동래 쪽에서 용두산 언저리의 초량왜관 수문으로 가던 길이었다. 왜관의 일본인들이 영선고개 넘어 임소(任所)로 일본어 통역관(왜학역관)을 만나러 넘나드는 길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영주시장 남쪽 문을 지나 영선고개로 이어지는 이 길은 영선산을 넘어야만 했었다. 오다 이쿠고로가 쓴 「초량화집」은 왜관에서 임소로 향하던 이 고갯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당시를 잘 알게 한다. 조선시대 당시 동래부에서 초량왜관이 있던 용두산 지역이나 사하, 다대 방면으로 가는 주요 통로 가운데 하나가 해안까지 뻗은 영선산(쌍산)의 좁은 고갯길 즉 영선고개이다. 그러나 1900년대 초 일제가 경부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의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항과 초량에 위치한 부산역 간의 연결을 위해 두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영선산을 깎아 내어 항만을 매립하는 공사(쌍산착평 공사, 1909~1912)를 벌이면서 영선고개는 사라진다. 대신 북병산의 항만 방향 비탈에는 뛰어난 조망을 가진 고급주택가가 형성되고, 이 지역을 포함하여 당시 일본인 거류지(지금의 영주동, 동광동, 대청동 일대)와 부산항, 부산역을 왕래하는 도로를 정비하면서 북병산 이면로에서 항만 쪽의 도로를 연결하는 계단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40계단이다. 이 계단을 언제부터 40계단이라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계단의 층수가 정확히 40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라고 한다.<sup>▼<sup>1</sup></sup> 그러나 개항 후 부산을 조계지로 만든 일본인이, 대륙침략의 교두보로서의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항을 매축하여 땅을 넓힐 때 만들어진 계단임에는 틀림없다.

부산의 최고 주택가이자 상업중심지이던 40계단과 주변 일대는 1945년 8·15 해방 직후에는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들이, 또 한국전쟁 동안 당시에는 각처에서 모여든 피란민들이 일본인 가옥의 빈 공간 또는 계단 주변의 언덕에 모여 움막과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대규모 판자촌으로 변한다. 이 때 유입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1920년대와 30년대부터 부산의 산자락 곳곳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sup>▼<sup>2</sup></sup> 이때부터 40계단은 피란민들이 생업을 위해 시가지 쪽의 일터를 찾아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거쳐야만 하는 통로이자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온갖 생활 물자의 노점이 열리는 장터가 되기도 했다. 특히 피란민들이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원조물자와 곳곳에서 유입된 구호물자를 사고팔기 시작하면서 장터의 규모가 커져 흔히 '도떼기시장'으로 불린 국제시장과 더불어 그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귀향민과 피란민들의 애환이 가득한 공간이기 때문일까, 한국전쟁 시기 또는 그 이후 만들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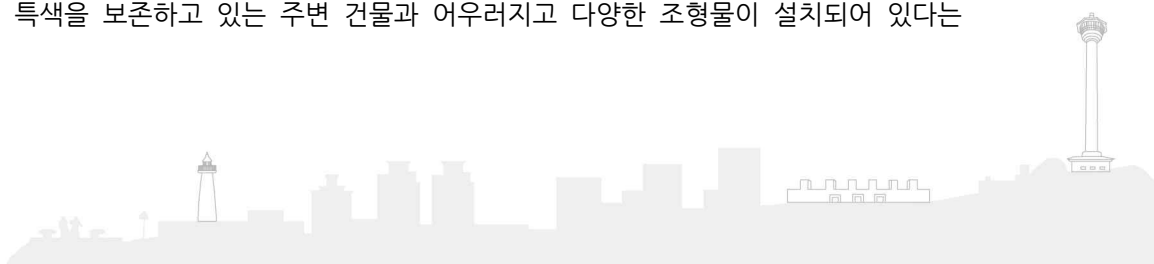
고 불린 대중가요의 제목이나 가사에는 유독 이 40계단과 계단에서 바라보는 부산향이 많이 등장한다. 1953년 휴전 직후 손인호는 <함경도 사나이>에서 "여수 통영 님을 싣고 떠나만 가는 똑딱선, / 내 가족 내 자식 싣고 내 아내 싣고 / 내 품에다 내 가슴에다 반겨주게 하려마, / 하루 종일 부두노동 땀방울을 흘리면서 / 40계단 판잣집에 오늘도 우는구려." 라고 노래하고, 경기도에서 피란 온 박재홍은 1954년의 <경상도 아가씨>에서 "40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 울지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 피란살이 처량스레 동경하는 판잣집에 /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구나 /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라고 망향의 한을 노래한다. 40계단이 전국적으로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이 「경상도 아가씨」가 널리 불리면서부터이다. 부산 피란 당시 가수 박재홍은 전기술자여서 전기소켓과 전기줄 등을 파는 장수였다. 대중가요의 노랫말이지만 이보다 피란의 서러움과 아픔이 절절할 수 없이 이어지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무뚝뚝하게 보였던 경상도 아가씨의 애처로운 정겨움을 이렇게 잘 그려낼 수 없을성 싶다. 당시의 40계단 앞에는 지금처럼 건물군이 들어서 있지 않은 때여서 멀리 영도다리 불빛을 지척처럼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피란길에 무작정 부산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살아서 부산을 찾은 실향민들은 영도다리에서 무턱대고 가족을 기다렸다. 기다림에 지친 다리를 끌고 그들의 보금자리로 통하는 동광동 40계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영도다리 가로등을 쳐다보며 가족들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기를 기약없이 바라보곤 했던 피란 실향민들의 간절함이 40계단에 묻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향에 정박해 있는 술한 배들이 휘황하게 밝히고 있는 불빛을 내려다 보면서 향수를 달랬을 것이다. 때문에 40계단에는 「경상도 아가씨」 노래가 적힌 표지석과 아코디언을 켜는 연주자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 ▼<sup>3</sup>

그러다 1953년 11월 밤, 영주동, 동광동, 중앙동, 대청동 일대를 집어삼킨 부산역전 대화재가 발생하여 피란민 판자촌은 물론 주요 상업지구가 소실되어 버리고, 40계단 일대도 폐허로 변해 버린다. 60년대의 복구 과정에서 옛 40 계단 앞 일대 도로는 대화재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로로 바뀌고, 40계단도 남쪽으로 약 25m 자리를 옮기게 된다. 원래의 40계단은 지금의 40계단에서 약 25m 북쪽에 위치한 1m 남짓한 폭을 가진 계단이라고 추정한다.

이후 40계단은 다시 조금씩 잊히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영화에 힘입은 바 크다. 1965년에는 신성일, 황정순 주연의 <무정의 사십계단>에 나오는 40계단에서의 결투 장면과 최희준이 부른 동명의 주제곡이, 특히 1997년에는 대히트를 쳤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도입부 장면에서 비지스의 명곡 「홀리데이」가 잔잔히 깔리는 가운데 비 내리는 40계단이 배경으로 등장한 것은 관람객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었다.

중구청은 1993년 8월에 40계단을 정비하고 40계단 기념비를 계단 밑에 세웠다. 이후 40계단 문화회가 발족되고 1999년 이후는 매년 40계단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02년 12월에는 40계단 위쪽 동광동 주민센터 내에 '40계단 문화관'을 건립했다. 40계단을 주요 테마로 6층에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광복을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는 부산의 시대상을, 5층에는 피란민이 넘치던 한국전쟁 피란시절의 애환과 향수를 담고 있는 생활상을 각각 살펴볼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전시하고 있다.

또한 40계단을 포함한 주변 약 450m에 이르는 거리에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옛 부산역과 부산항을 상징하는 기차길, 바닷길을 주제로 한 40계단 광장 등 쉼터를 만들고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근대 부산의 거리를 재현하였다. 더욱이 이 거리는 아름다운 가로수가 근대 시기의 특색을 보존하고 있는 주변 건물과 어우러지고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40계단과 주변 공간이 추억과 향수의 공간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부산의 정체성 상실, 상권 침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중구 중앙동과 동광동 일대 40계단 주변에 모두 20개에 가까운 문화 창작 공간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현재도 진행 중인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街)' 운영 지원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영역에 걸친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과 상점이 마련되고 있음은 물론 원도심과 연계된 각종 열린 문화 기획을 통해 이 일대가 문화 교육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거리공연과 전시, 강연 등 갖가지 문화행사 만날 수 있다. 현재 40계단 일대는 부산 시내에서도 근대역사적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부산 인쇄 산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40계단을 올라 위쪽으로는 고불고불한 작은 계단들이 가가호호 이어져 있고, 판자집들은 없어졌지만 다가구 주택들과 같은 1970년대 서민주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sup>4</sup> 40계단은 회화와 향수의 공간에서 부산의 신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재생되고 있는 중이다.

▼1 주경업, 2017, 「골목, 부산사람 1 중구편」, 부산광역시 중구, pp.145-149.

▼2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290-293.

▼3 부산발전연구원, 2011, 「2011 부산학 교양총서 부산의 길을 읽다」, 부산발전연구원, pp.74-75.

주경업, 2017, 「골목, 부산사람 1 중구편」, 부산광역시 중구, pp.145-149.

부산광역시, 2020,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pp.167-170.

▼4 최정윤·강영조·강동진, 2005, “부산시 중구 40계단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한국조경학회지」, 33권 1호, p.83.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40계단 전경



40계단길의 옛 풍경



산복도로의 옛 추억(40계단 일대)



실제 40계단의 흔적

#### ▷ 사진 기록 자료



1952년 부산 중구 중앙동  
옛 40계단 앞 대로변 거리 모습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산역전대화재 후 1953년 겨울 40계단 주변  
©40계단문화관



▷ 논문 및 저서

- 부산광역시, 2013, 「부산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2020,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 부산발전연구원, 2011, 「2011 부산학 교양총서 부산의 길을 읽다」, 부산발전연구원.
- 주경업, 2017, 「골목, 부산사람 1 중구편」, 부산광역시 중구.
- 최정윤·강영조·강동진, 2005, “부산시 중구 40계단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한국조경학회지」, 33권 1호.

▷ 신문기사

- 2014.03.30. 국제신문, 「40계단 걸으며 부산 역사 배워요」
- 2017.02.10. 영남일보, 「[류혜숙의 여행스케치] 부산 중구 40계단과 인쇄골목」
- 2021.01.05. 부산일보, 「오래된 미래 원도심, 다양성 채워 '진행형 미래'로」
- 2021.06.14. 부산일보, 「스토리인 도심갈맷길-세 가지 이야기 <하> 피란역사문화길」

▷ 기타 자료

- 근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http://archive.much.go.kr/>) '40계단 문화광장'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40계단 문화축제',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또따또가'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40계단', '40계단 기념비', '중구의 토박이가 기억하는 부산', '40계단 문화관'



## 1. 유산별 심화연구

### 1.3 백산기념관



#### 1) 개관

대상	백산기념관	소재지	중구 백산길 11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23호
건립시기	1995년	형태	무형 - 인물(백산 안희제) 유형 - 기념관
이력사항	<p>〈백산 안희제 선생 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85년 8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에서 출생</li> <li>· 1905년 보성전문학교 경제과 입학</li> <li>· 1907년 구명학교 의신학교 설립</li> <li>· 1908년 창남학교 설립</li> <li>· 1909년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 결성</li> <li>· 1910년 양정의숙 경제과 졸업</li> <li>· 1911년 러시아 망명</li> <li>· 1914년 중국을 거쳐 귀국, 백산상회 설립(현 백산기념관이 자리한 곳)</li> <li>· 1919년 3월 3·1운동 영남일대 독립선언서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9년 11월 기미육영회(己未育英會) 조직</li> <li>· 1920년 4월 동아일보 창립발기인 참여(동아일보 부산지국장 역임)</li> <li>· 1927년 자력사(自力社) 설립, 협동조합운동 전개</li> <li>· 1929년 9월 중외일보 사장 취임</li> <li>· 1930년 전조선 수재 구제회 조직</li> <li>· 1933년 국외독립운동기지로 발해농장 경영(중국 연안현 동경성)</li> <li>· 1941년 1월 대중교서적간행회 회장</li> <li>· 1942년 임오교변(壬午敎變)으로 일경에 체포</li> <li>· 1943년 8월 순국(중국 목단강 영제의원)</li> <li>· 1962년 3월 건국훈장독립장 추서</li> <li>· 1998년 6월 고려대 명예학사 학위 수여</li> </ul> <p>〈백산기념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옛 백산상회 자리에 백산기념관 개관</li> </ul> <p>〈백산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년 12월 백산상회 주변거리를 백산 거리로 명칭 확정</li> <li>· 2011년 새 도로명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백산길로 개칭</li> </ul>
보존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전개되었던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li> <li>·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분야, 특히 민족교육과 민족자본 육성을 통해 자주독립 사상의 고취를 중시했던 백산 안희제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li> <li>· 해마다 3·1절, 광복절 등과 관련된 특별전 등을 개최하여 백산 안희제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li> </ul>
비고	<p>※ 백산 안희제 선생의 정신 계승을 위해, 단순 기념관이 아닌, ‘백산 안희제 유적’으로의 미래유산의 명칭 수정 고려</p>

## [설명문]

‘백산기념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3가에 있는 백산 안희제를 기리는 기념관이다.

백산 안희제(安熙濟, 1885~1943)는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민족교육, 민족자본, 민족언론 육성에 앞장선 인물이다. 1909년 10월경 영남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된 항일비밀결사단체인 대동청년단을 결성하였고,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하자 1911년 북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최병찬(崔秉瓚)과 「독립 순보」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1914년에는 고향의 전답을 팔아 부산에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곡물·면포·해산물 등을 취급하면서 해외 독립 자금을 조달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연락망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백산상



회는 영남지역 대지주들의 참여로 1919년 백산무역주식회사로 성장하였다.

1919년 11월경 백산상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부산부와 인근에 거주한 유지들을 뭉쳐서 해방 운동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미육영회를 조직하고 한국 청년들 중 수재를 선발하여 유학비와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백산은 1919년 12월 부산예월회를 조직하여 민족 자본가들의 결속을 다졌다. 이외 민립대학설립운동의 발기인으로 각 학교의 설립 및 확장 운동, 교육산업 개선 청원운동, 조선인 자본가를 위한 특수금융기관 설치 운동 등에 진력하는 등 부산지역의 사회운동과 민족 자본 육성에 노력하였다.

1928년 1월 자금 압박과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백산무역주식회사가 해산된 이후에도 「중외일보」를 경영하고 1933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발해의 고도인 동진청(東京城)에 독립운동 기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발해농장을 경영하고 이주 한인 300여 호를 정착시켜 대중교 간부가 되어 서적 간행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고, 부산시는 안회제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94년 4월에 백산상회가 있던 거리를 백산거리로 지정하였고, 1995년 백산기념관을 조성하여 유품과 관련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다.

백산기념관 건립에 앞장섰던 백산기념사업회는 광복 51주년이던 1996년에 백산 안회제선생 독립정신 계승사업회로 계승되었고, 이후 사업회를 중심으로 유물 전시 위주에서 벗어나 백산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념관으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백산기념관의 대지 면적은 324㎡, 연면적은 430.52㎡이며, 1층에 상설 전시실인 제1전시실이 있고, 2층에 특별 전시실인 제2전시실이 있다. 80여 종의 문헌 자료와 유품, 관련 영상 자료들을 통해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게 민족의 선구자로서 삶을 살았던 백산 안회제의 정신을 전하고 있다.

## 2) 관련 내용

백산은 1885년(고종 22년) 경남 의령군 부림면 설외 마을에서 지주 향반가(鄕班家)에서 태어났다. 일곱 살 때 친척인 서강(西崗) 안익제한테서 유학을 익혔으며 강경한 위정척사파에서 개신유학자로 옮겨간 전 홍문관 교리 수파(守坡) 안효제의 감화를 받았다. 그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 이듬해인 1906년 사립 흥화(興化)학교(1985년 민영환이 설립)를 다니고, 1907년 보성전문학교 경제과에 입학했다가 이듬해인 1908년 3월 양정의숙으로 전학한다. 이 시기에 그는 국권회복운동의 한 갈래인 자강운동에 참가한다. 먼저, 1908년 3월에 조직된 교남교육회(嶠南敎育會)에 참가하여, 평의원으로서 지방 순회 강연에 나섰다. 또한 의령군 의령면 중동에 의신(宜新)학교(1907년), 고향 설외마을에 창남(枋南)학교(1908년)를 세운다.

또한 윤상은과 더불어 동래 구포에서 구명(龜明)학교 설립에 참여하는데, 이때 윤상은이 설립한 구포저축주식회사에도 발기인과 주주로 참가한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계기로 그 해 10월에 서상일, 박중화, 김동삼, 윤세복, 남형우, 윤병호 등 80여 명과 함께 비밀결사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을 조직한다. 이 조직은 영남 지역 서른 살 안쪽 청년 민족주의자들의 결집체로서 그 구성원들은 교남교육회 안에서 전투적 성향을 띠었던 인물들이었으며, 신민회와도 연





결되고 있었다. 이것은 영남 지역 비밀결사로서는 시초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제 강점 이후 영남 지역을 무대로 한, 여러 갈래의 비밀결사운동에 젖줄을 대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단원들은 이후 안희제의 항일투쟁 내내 그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활동하였다.

1908년 3월에는 당시 조직된 교남교육회에 참가하여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1909년에는 영남지역의 비밀결사단체인 대동청년단에 참여하였으며, 1911년에는 북간도, 시베리아 등지로 망명하였다가, 안창호, 이갑, 신채호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면서 독립운동에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1914년 9월 부산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그는 고향의 전답을 팔아 초량 객주 이유석, 추한식과 함께 부산 중구 동광동에 백산상회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한다. 이때 그는 나라 안팎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자금 조달과 연락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실제로 동경 2·8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이를 몸에 숨기고 부산에 내린 김마리아가 백산상회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신한청년당 이사장인 서병호를 만났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국내에 3·1운동의 불씨를 지피려는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백산상회에서 만나고 여기서 다시 전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사실은 특기해도 좋을 것이다. ▼<sup>1</sup>

그는 백산무역주식회사를 경영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으므로 늘 자금난에 허덕였다. 그래서 백산무역주식회사의 두 번째 큰 주주이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처럼 평가받던 최준(崔浚)을 귀엽게 위협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백산은 무역상점 백산상회를 설립 경영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운동자금을 조달한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1910년대 중후반 1920년대 초 백산상회뿐만 아니라 주일상회주식회사의 주주였으며, 또한 경남인쇄주식회사의 창립을 주도했고 조선주조주식회사의 설립 및 경영에 앞장섰던 부산 지역의 대표적 자본가이기도 했다. 또한 1929년 중외일보를 인수하여 언론계에 8면지 발간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경영인이기도 하다.

1919년 5월, 최준 등 영남지역의 대지주들을 주주로 확보하여 백산무역주식회사로 확대·개편하였다. 백산은 이 회사가 해산되는 1927년까지 해외독립운동세력의 연락과 독립운동자금의 조달을 맡았던 주요한 자금줄이었으며, 1919년 2월 파리평화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된 김구식 일행에게도 여비 일체를 지원하였다.

1919년 8월에는 송대관·김종범 등과 함께 조선주조주식회사를 부산 동구 수정동에 설립하여 1928년까지 운영하였으며, 1926년 4월부터 1928년 3월까지는 부산상업회의소의 부회두(副會頭)를 지내기도 했다. 부산지역에서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1919년에는 장학재단인 기미육영회, 1921년에는 부산예윌회를 조직하는 등 민족교육과 문화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중외일보」를 인수하여 항일언론투쟁을 펼치기도 하였다. 1931년부터는 대중교의 이상 실현과 국외독립운동기지의 개척을 위해 만주지역에 망명하여 발해의 옛 도읍지에서 발해농장을 세워 운영하다가 1942년 11월 일제 경찰에 체포, 구금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이듬해 8월에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동생 안영제가 경영하던 지금의 해이롱장성 무단장시 닝안시(寧安市) 영제위원회에서 순국하였다.

백범(김구)은 안희제의 죽음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하며, 해방 이후 조국으로 돌아와서는 유가족의 안부부터 물었다 한다. 해방 이후 최준은 김구와 만났을 때 안희제가 김구에게 전달한 자금이 자신의 회사한 금액과 일치하였으므로, 안희제의 무덤을 향해 대성통곡하였다고 한다. ▼<sup>2</sup>

현재 동광동에 위치한 백산길은 이름 그대로 백산 안희제(安熙濟)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길이



다. 이 길 위에 백산기념관이 있다. 백산기념관은 백산 안희제를 기념하기 위해 1995년 개관한 곳으로 이 장소는 원래 일제강점기 백산상회(1914~1919년)·백산무역주식회사(1919~1928년)가 있었던 곳이다. 백산상회가 있던 곳은 일제강점기 혼마치(本町)로 1917년에서 1936년까지 이곳에 설립된 조선인 회사는 8개소였다.

백산상회를 비롯하여 동성상회(주), 윤병준상점(합명), 공립운동(합자), 영신혁포점(합자), 계림만년필제작소(합자), 부산금융(주), 금강피혁상점(합자) 등이 설립되었다. 그 중 백산상회(백산무역주식회사)는 자본금 100만원 규모의 회사로 혼마치에 있었던 조선인 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였다. 용두산 일대의 시가지 형성 이후 지도들에 보이는 혼마치(本町) 3초메(丁目)로 표시되는 곳이 백산상회가 있었던 곳이다. 백산상회는 처음에 주로 곡물, 면포, 해산물 등을 판매하였다. 이후 국내외 물산의 무역 및 위탁 매매, 부동산 매매, 금전 대부업 등 사업 영역이 확장되었다.

▼<sup>3</sup>

1995년 8월 15일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옛 백산상회 자리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백산길에 면적 130평의 백산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제1전시실에는 백산의 흉상과 함께 유품을 전시하였으며, 제2전시실은 전시회 등 문화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에 관련된 자료로는 ‘나라사랑’ 제19집(백산 안희제선생 특집, 1975년)을 비롯하여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의 논문 및 자료, 그리고 백산선생의 항일독립운동이야기를 동화로 엮은 ‘겨울만들레’(김홍주 글, 1993년) 등이 있다.

대종교에서는 순국 10현의 한 사람으로 추존하였으며, 1962년 3월에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용두산공원에는 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1 오미일, 2015,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민영휘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p.301.

▼2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안희제’

▼3 부산광역시, 2020,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pp.145-149.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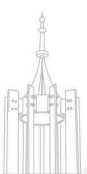
백산기념관 전경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백산기념관과 광장



백산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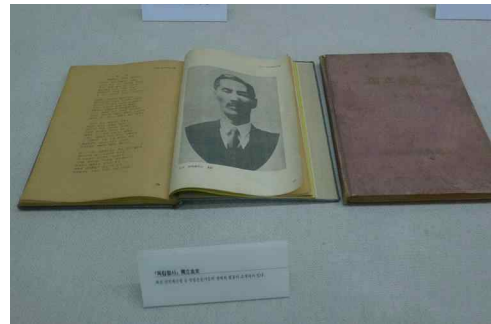


▷ 사진 기록 자료



백산 안희제 선생

©한국학중앙연구원



백산의 기록물



백산기념관 내부 전시



©한국관광공사



백산상회 모습

©우리문화신문



백산상회가 한 광고

©우리문화신문



▷ 논문 및 저서

- 오미일, 2015,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민영휘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 부산광역시, 2020,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2004,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 (1)」, 부산광역시.

▷ 신문기사

- 2020.09.21. 천지일보, 「[지역사 이야기2-부산] 사익(私益)보다 공익(公益)을 생각했던 기업인, 백산 안희제(1)」
- 2020.09.23, 천지일보, 「[지역사 이야기2-부산] 사익(私益)보다 공익(公益)을 생각했던 기업인, 백산 안희제(2)」
- 2020.10.19. 매일노동뉴스, 「[독립운동가 열전 <삶과 녀> 80] 민족기업가 독립투사, 백산 안희제」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백산 기념관’, ‘안희제’, ‘백산상회’, ‘백산무역주식회사’, ‘백산길’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안희제’
-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tour/index.junggu>)



## 1. 유산별 심화연구

### 1.4 부산세관



1928년 부산세관 모습

©한국저작권위원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 1) 개관

대상	부산세관	소재지	중구 충장대로 20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24호
건립시기	근대(옛 청사 1911년 준공)	형태	유형 - 건조물 (일부 보존됨)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76년 부산항 개항</li> <li>· 1878년 두모진해관 설치(해관은 세관의 중국식 명칭), 12월 폐쇄</li> <li>· 1883년 해관 재설치</li> <li>· 1907년 세관관제 개정에 따라 부산세관 개칭</li> <li>· 1908년 부산세관은 철근콘크리트 공법에 의한 기초공사를 시공. 1906년 해관공사의 일부로 짓기 시작함.</li> <li>· 1911년 부산세관 준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6년 2월 미군정청 교통국 해관과 소속</li> <li>· 1946년 4월 재무부 소속 부산세관으로 환원</li> <li>· 1973년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받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1976년 해제)</li> <li>· 1979년 6월 부산대교 건설로 인한 부두도로 확장을 위해 철거</li> <li>· 1984년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보존 중이던 원 벽돌을 2m 높이의 탑대를 쌓은 후 종탑을 설치</li> <li>· 2001년 11월 부산세관박물관 개관</li> </ul>
<b>보존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 첫 개항장이라는 점과 국제무역항이라는 부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상징물임</li> <li>· 옛 부산세관 건물은 붉은 벽돌과 화강석을 사용한 영국풍 르네상스식 건축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콘크리트 기초공법 등이 적용되었음</li> <li>· 1979년 철거 당시 시 지정 유형문화재(제22호)였음에도, 건물이 철거되어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 그러나 옛 청사의 설계도와 청사 탑부에 자리 잡았던 종탑도 현 청사 남쪽 뜰에 보관되어 있어 복원이 가능함</li> <li>· 지속적으로 복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li> </ul>
<b>비고</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옛 청사에 초점을 맞출 경우) 현재의 부산본부세관과 혼동 우려, ‘옛 부산세관 청사’ 등으로 명칭 수정 고려</li> <li>2. (부산해관에서 이어져 온 역사에 주목하는 경우) 명칭 유지</li> </ol>

### [설명문]

‘부산세관’은 옛 부산세관을 말하며, 관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정부기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하였다.

부산세관은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 업무를 주로 하는데 그 시작은 개항기 부산해관에서부터였다. 1905년 부산해관의 사무가 일본에 넘겨지고 1907년에는 각 해관의 명칭을 세관으로 변경하였다.

현재의 부산세관 청사는 1970년 준공된 건물로, 옛 부산세관 청사는 현재의 부산세관 청사가 준공된 후 철거되었다. 옛 부산세관 청사는 1911년 준공되어, 1973년 6월 7일에는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법에 화강암과 적련와(붉은 벽돌, 여기에 사용된 적련와는 러시아에서 한 장씩 종이로 포장하여 운반하여 왔다고 전함)를 사용한 사라센풍의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져 역사적·건축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종탑까지 총 4층으로 구성되었으며, 1층 159평, 2층 159평, 3층 9평(탑), 4층 9평(탑), 총 334평의 규모였다.

그러나 1979년 당시 부산대교 진입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부둣길(충장로) 확장공사로 인해 부산세관 건물은 헐리게 된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부산세관은 옛 청사의 설계도를 그대로 남겼고, 청사 탑부에 자리 잡았던 종탑도 현 청사 남쪽 뜰에 보관하고 있다. 옛 부산세관



청사의 모습은 부산세관 1층 현관 한가운데 위치한 건축물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개청 135주년이던 2018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이 모형을 세웠고, 옛 청사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2) 관련 내용

부산세관은 부산항의 역사와 함께한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자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자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반해 이들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해관업무는 1883년 7월 3일에서야 비로소 시행된다. ▼<sup>1</sup> 오늘날 부산경남본부세관의 효시인 부산해관(청나라식 명칭)은 1883년 11월 지금의 중구 동광동인 혼마치(本町) 2가 3번지의 선류장(船留場)에 있던 일본 사람의 가옥을 빌려 부산해관을 열고 수출입 화물의 점검과 관세 업무를 보았다. 그러다가 이웃집에 불이 나서 잠시 이전했다가, 1885년 오늘날 신한은행 자리에 목조 2층 청사와 단층의 보세창고 1동을 지어 이전했다. 최초의 부산해관장에는 영국 출신, 로바트(William Nelson Lovatt, 盧外椎)였다. 이흥장의 압력으로 1885년 해임되어 1901년 4월 20일 중국 Ningbo(寧波)에서 사망하기까지 3년간 이곳에서 근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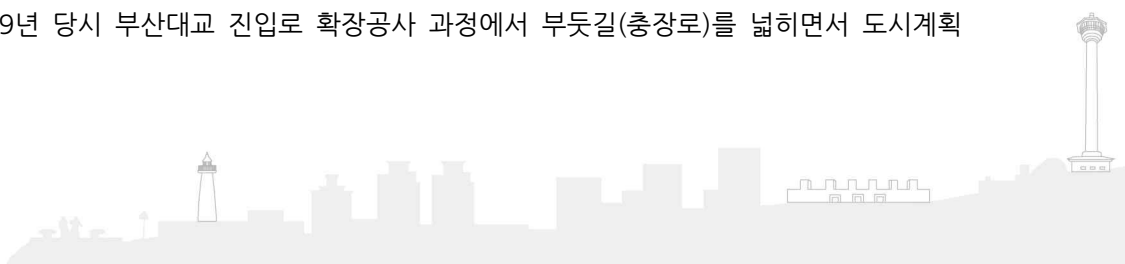
1905년 부산해관의 사무가 일본에 넘겨지고 1907년에는 각 해관의 명칭을 세관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부산항 북항매축공사로 얻은 땅에 1906년부터 5년간 공사비 약 140여만 원을 들여 2층의 건물을 지었다. 제1잔교 설비가 갖추어지던 무렵인 1911년에 세관은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이 무렵 철도의 종점은 초량에서 부산본역(현재 중앙동 옛 부산역 터)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제 1잔교와 이어져 해륙물자와 여객이 일본-조선-만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방 후 제1부두는 귀환동포, 한국전쟁 피란민들뿐만 아니라 유엔군과 군수물자, 피란민 원조물자가 유입되던 곳이었다. 1952년에는 대한민국 최초 수출화물선이 출항하기도 하였다. 부산항은 1960년대 1·2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결과 수출입 물량이 급증했다. 1970년대 이후 수출화물의 증가로 항만시설이 확충되었다. 부산항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표 무역항이 되어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하였다. ▼<sup>2</sup>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나오면 왼쪽으로 바로 부산세관(부산본부세관)이 보인다. 지금의 부산세관과 그 옆 부두는 옛 부산세관과 옛 잔교 부두가 자리한 곳이었다. 옛 잔교 부두는 바로 부산 국제페리부두(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지금 국제페리부두는 옮겨갔지만 세관은 북항이 매축되고 1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서 관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05년의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식민 지배를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내정에 적극 개입하며, 새로운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설계는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심기관이 탁지부 건축소였다. 부산세관은 이 탁지부 건축소에 의해 설계되었다. 옛 청사는 1906년(광무 10년)부터 시작한 해관 공사의 일부로 1908년에 철근콘크리트 공법에 의한 기초공사 후, 1909년 본관 청사 건축에 착공하여 1911년 8월에 준공되었다. ▼<sup>3</sup>

부산세관 청사는 철도정거장과 본관에 인접하고 주변에 목조 2층의 세관감시부 청사와 잔교 등이 입지한 변화한 거리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붉은 벽돌의 2층 건물이지만 모서리에 위치한 탑으로 인해 오랫동안 주변에서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당시 부산대교 진입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부둣길(충장로)를 넓히면서 도시계획





구간에 있던 세관 건물을 헐었다.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음에도 쉽게 철거하도록 결정된 것은 세관 건물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이유에서였다. ▼<sup>4</sup>

부산의 상징적인 근대 건축물이었던 부산세관 옛 청사는 르네상스 양식으로 부산시 지방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68년간 관문을 지켰다.

부산세관은 탁지부 건축소에서 설계 시공한 건축물 중 유일한 비대칭적 구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고전주의 건축에서 건축물이 대칭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미학적인 이유 이외에도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배려한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닷가 매립지에 세워지는 부산세관 건물이 위치한 곳이 지반이 연약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평면구성과 매스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면과 매스구성으로 인한 건물의 부동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세관에서는 다른 건물과 달리 하중이 집중되는 모서리의 탑이 위치한 곳의 하부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다. ▼<sup>5</sup> 건물의 중앙 현관문 좌우측에 있는 창출부는 우측에 비하여 좌측이 작은데, 그 상부에 좌보다는 2배 높이의 탑을 얹음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건물모퉁이의 탑신은 별다른 장식도 없이 쌓여있는 한편 아치 창문을 내달아 아담한 모습이 돋보였다. ▼<sup>6</sup> 종탑까지 총 4층으로 구성되었으며, 1층 159평, 2층 159평, 3층 9평(탑), 4층 9평(탑), 총 334평의 규모였다. 평(탑), 총 334평의 규모였다. ▼<sup>7</sup>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부산세관은 옛 청사의 설계도를 그대로 남겼다. 청사 탑부에 자리 잡았던 종탑도 현 청사 남쪽 뜰에 보관하고 있다. 옛 부산세관 청사의 모습은 부산세관 1층 현관 한 가운데 위치한 근대 건축물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개청 135주년이던 2018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이 모형을 세웠고, 옛 청사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산세관 3층에는 부산항과 세관의 역사 등을 소개하고 있는 부산세관박물관이 있다. 세관 박물관에는 세관의 역사와 함께 시기별 밀수 사건, 청사의 변화 등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다.

이용득 부산세관박물관장은 “부산시가 피란수도 부산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부산항 제1부두의 원형 보존을 결정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옛 부산세관 청사를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북항 일원에 복원한다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볼거리가 될 것이다. 부산항과 부산을 더욱 널리 알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sup>8</sup>

▼ 1 주경업, 2017, 「골목, 부산사람 1 : 중구편」, 부산광역시 중구, p.130.

▼ 2 부산광역시, 2020,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pp.114-117.

▼ 3 안창모, 2013, “제국의 황혼과 탁지부(度支部) 건축소(建築所)의 건축”, 「건축사」, 6호, p.85.

▼ 4 2019.01.10. 국제신문, 「르네상스식 옛 부산세관 건물 북항에 복원을」.

▼ 5 부산본부세관, 2018, 「(사진으로 보는) 부산세관 135년史 = Busan Main custom」, 부산본부세관, pp.27-28.

▼ 6 표용수, 2010,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pp.465-467.

▼ 7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busan/>).

▼ 8 이용득, 2019, 「부산항 이야기」, 유진퍼스컴.



### 3)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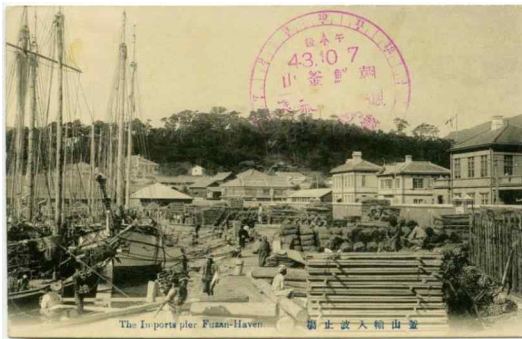
#### ▷ 현장 및 기록 사진 자료



남아있는 탑두



옛 부산세관의 탑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1979.6.2 (자료:이용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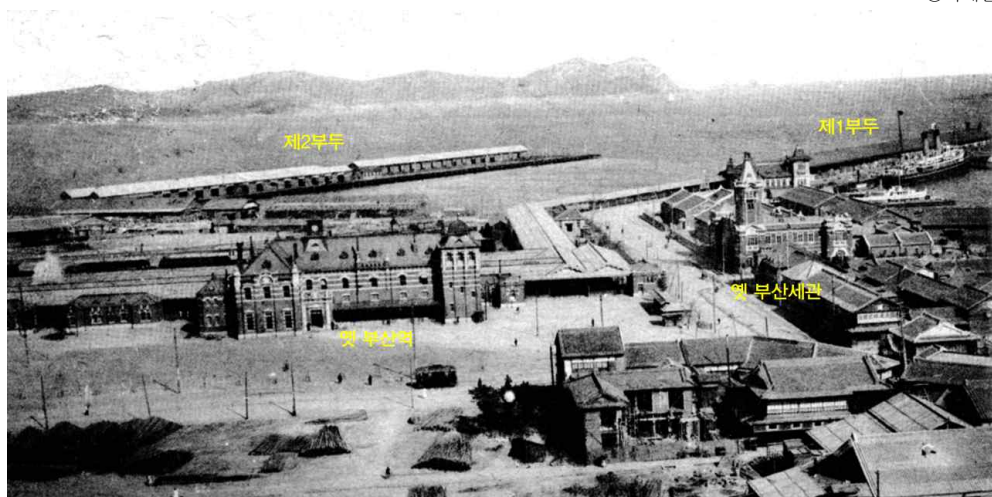


1910년경 부산 중구 부산세관 앞  
©한국저작권위원회



옛 부산세관 청사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이용득 부산세관박물관장

©국제신문



옛 부산세관의 전경(1920년대 초반)

©부경근대사료연구소



### ▷ 논문 및 저서

- 부산본부세관, 2018, 「(사진으로 보는) 부산세관 135년史 = Busan Main custom」, 부산본부세관.
- 부산광역시, 2020,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 안창모, 2013, “제국의 황혼과 탁지부(度支部) 건축소(建築所)의 건축”, 「건축사」, 6호.
- 이용득, 2019, 「부산항 이야기」, 유진퍼스컴.
- 주경업, 2017, 「골목, 부산사람 1 : 중구편」, 부산광역시 중구.
- 표용수, 2010,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 ▷ 신문기사

- 1978.12.09. 매일경제, 「68년의 風霜(풍상)겪은「開港(개항)백년(연)의 遺物(유물)」釜山稅關(부산세관) 舊廳舍(구청사)가 헐린다」
- 2011.03.22. 다이내믹부산, 「옛 세관건물 복원하여 부산항 박물관으로 활용하자」
- 2013.08.26. 부산일보, 「북항 재개발, 옛 세관건물 복원될까」
- 2019.01.10. 국제신문, 「르네상스식 옛 부산세관 건물 북항에 복원을」
- 2019.04.28. 연합뉴스, 「40년 전 철거된 근대 르네상스 양식 부산세관 복원한다」

### ▷ 기타 자료

-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busan/>)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부산본부세관’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부산개항과 부산세관’



## 1. 유산별 심화연구

### 1.5 동래기영회



#### 1) 개관

대상	동래기영회	소재지	동래구 명륜로94번길 36-6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25호
형성시기	1846년	형태	무형 - 조직 (조선후기 동래부 아전과 서리, 무임들이 조직한 기영계 → 현재 장학사업·사회사업 목적 재단법인)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46년(헌종 12) 기영회의 전신인 기영계 조직</li> <li>· 1853년(철종 4) 입회자격, 계금 관리 등 규정 마련(기영계 조직 부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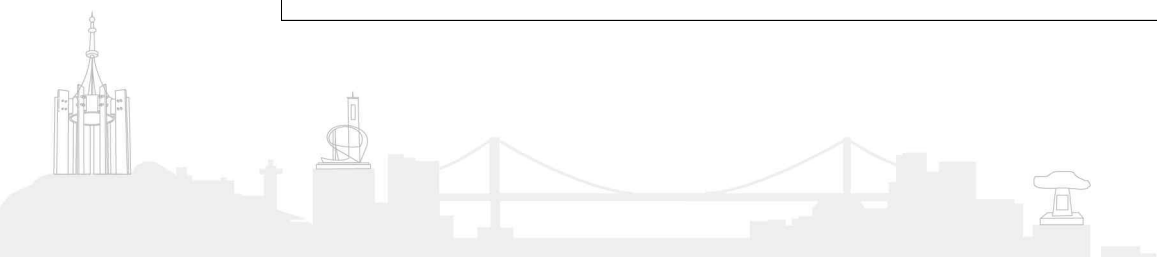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76년(고종 13) 내산 기영회로 이름 개정</li> <li>· 1883년(고종 20) 동래부사 모임 가입</li> <li>· 1898년(광무 2) 기영회 회원 심명록은 동래군 한문소학교 설립(이후 개양학교)</li> <li>· 1899년(광무 3) 기영회 규약 개정</li> <li>· 1906년(광무 10) 기영회와 주민들은 삼락학교 설립</li> <li>· 1907년(융희 1) 삼락학교에 개양학교를 흡수하여 동명학교 설립</li> <li>· 1907년(융희 1) 기영회 회원 주도로 동래부 국채보상일심회 설립</li> <li>· 1909년(융희 3) 사립동래동명학교 인가(현 동래고등학교)</li> <li>· 1922년 관립동래고등보통학교로 학교명 변경</li> <li>· 1930년 송공단, 임진의총, 거사단, 관황묘, 영보단 향사 인수, 집행</li> <li>· 1963년 재단법인 동래기영회 발족</li> <li>· 1970년 동래유치원 인수</li> <li>· 1984년 『동래기영회 140년사』 출간</li> <li>· 1985년 동래문화회관 건립(준공)</li> <li>· 2016년 『동래기영회 170년사』 출간</li> </ul>
<p><b>보존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존하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계조직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li> <li>· 조선후기 동래부 동헌에서 근무한 하급 관리[서리와 아전, 무임(군인)] 및 그 후예들의 조직으로, 이들은 조선후기 국방과 외교,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동래부에서 활동을 하였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li> <li>· 전통적 계모임에서 출발하여 현재 문화사업, 교육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음</li> <li>· 19세기 중반에 설립된 조직이 근대사회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동래지역을 이끌어 왔고 지역성을 형성시켜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li> </ul>

### [설명문]

‘동래기영회’는 1846년 동래부의 퇴임 이서와 무임들이 조직한 기영계의 후신인 재단법인이다. 1846년(헌종12) 3월 동래부에 거주하던 50세 이상의 노인 40명이 동래 학소대(鶴巢臺) 아래 윤언서(尹彦瑞) 집에 모여 기영계(耆英契)라는 친목 시회(詩會)를 만들었다. 1876년(고종13)에 ‘내산(萊山)기영회’로 이름을 고쳤고, 1883년(고종20)과 1897년(광무1)에는 동래부사가 모임에 가입하며 기영회는 동래지역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동래기영회는 임진왜란 때 순국자들을 모시는 송공단, 임진 동래의총을 비롯하여 거사단(去思壇), 영보단(永報壇), 관황묘(關皇廟) 등의 각종 제사를 담당하였고, 교육운동, 국채보상운동 등 개항기 동래지역의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1898년(광무2) 기영회 회원 신명록(辛明錄) 등이 동래군 한문소학교(동래부학교)를 설립하고, 1907년 동래기영회가 삼락학교에 개양학교를 흡수하여 새로 사립동래동명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현재 동래고등학교이다.





현재 동래기영회 회원은 동래 토박이 기영회 후손 외에 타지역 출신들도 가입하고 있으며, 장관청, 동래문화회관, 동래유치원 등을 소유하며 각종 지역의 장학사업, 사회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동래교육지원청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동래구청, 동래교육지원청, 동래문화원,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등 기관, 단체와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동래기영회의 전통을 170여 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동래기영회는 살아있는 동래의 역사이다. 1864년에 소소하게 시작한 친목모임이 21세기 현재에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사로운 것이 공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동래기영회는 ‘동래’라는 지역과 사회계층적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물인 것이다. 기영회 조직은 현재까지 알려진 현존하는 부산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계 조직으로 부산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사, 지역사 등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 2) 관련 내용

동래는 근세이후로 지역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타 지역과는 다른 이 지역의 토착세력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한 토착세력은 이서충·무임충으로서 근세~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실세를 가지고 리드해 왔다. 19세기에 이들 계층이 조직한 공동체 모임이 동래기영회였다. 사회 집단 속에서 수양단체·친목단체 등 여러 형태의 조직(계)이 존재하지만 동래기영회처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지속되어 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동래는 식민거점이자 세계도시로 부상한 부산의 자장권에 위치하면서 외래문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접촉지대로서의 ‘경계지대’가 되었다. 그런 공간에서 중흥을 이룩하고 활동을 전개한 동래기영회는 식민통치 상황에 대응하는 동래지역민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sup>1</sup>

동래기영회는 처음에 친목을 목적으로 내걸고 1846년(헌종 12) 3월 동래부에 거주하던 50세 이상의 노인 40명이 동래 학소대(鶴巢臺) 아래 윤언서(尹彦瑞) 집에 모여 기영계(耆英契)라는 친목 시회(詩會)를 만들었다. 기영계를 만든 사람은 동래부의 퇴임 이서(吏胥)[서리, 이속, 아전 등]인 이임(吏任)과 무임(武任)들이었다. 동래 지역 이임직과 무임직 퇴임자들은 각각 별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중국 송대 부필(富弼)과 사마온공(司馬溫公) 등이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를 조직하여 시 짓고 술 마시며 즐기던 낙양 고사를 따서 회 이름을 기영계라고 지었다. 기영계는 1853년(철종 4)에 입회 자격과 계금 관리 등 여러 규정을 마련하는 조직의 정비를 하였다. 1876년(고종 13)에는 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내산(萊山) 기영회’로 이름을 고쳤다. 1883년(고종 20)과 1897년(광무 1)에는 동래 부사가 모임에 가입하였다. 동래 부사가 가입함으로써 기영회는 동래 지역의 대표적인 모임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 1963년 재단법인 동래기영회가 발족되어, 이희보(李熙輔)가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1970년 동래유치원을 인수하였고, 1985년 동래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래지역은 조선후기 이후 군사·국방이 중시된 관방도시이면서 특히 왜관의 존재로 외교·무역 또한 활발하게 전개된 무역도시로서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개항 이후는 서양·일본의 근대문물을 수용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타지역과는 달리 문물과 정보를 빨리 수용할 수



있었던 요인은 향반이나 이서·향임 출신 및 대일역관이나 상인 등 사회경제적 리드그룹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동래 기영회는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송공단·임진 동래 의충을 비롯하여 거사단(去思壇)·영보단(永報壇)·관황묘(關皇廟) 등의 각종 제사를 담당하였다. 기영회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교육 운동, 국채 보상 운동 등 개항기 동래 지역의 애국 계몽 운동을 주도한 점이다. 부산에는 1895년 최초의 근대 학교인 개성학교가 설립된 이후 동래 지역에도 각종 학교가 설립되었다. 1898년(광무 2) 기영회 회원 신명록(辛明錄) 등이 동래군 한문 소학교[동래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1904년 개양학교에 흡수되었다. 1906년 기영회 회원과 주민이 삼락학교를 설립하였다. 1907년 기영회가 삼락학교에 개양학교를 흡수하여 새로 사립동래동명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현재 동래고등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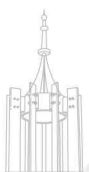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동래지역에서는 1907년 ‘동래부 국채보상일심회(國債補償一心會)’가 설립되었다. 정한정(鄭漢禎)·송상종(宋尙宗)·이상흔(李相昕)·신명록 등 기영회 회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세기부터 동래부에서 지내 오던 향사(享祀)가 일제강점기 초기에 폐지되었다가 1930년부터 동래기영회에서 매년 송공단, 칠총제(七塚祭), 거사단, 관황묘, 영보단 향사를 인수하여 집행하였다. 식민지 권력의 억압 때문에 향사를 지낼 수 없었던 것을 1930년대부터 기영회가 수행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기영회의 위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1970~1980년대 이후 향사의 주체가 바뀌었다. 송공단 의례는 동래기영회가 주최하되, 동래시장번영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임진동래의충 제향은 1974년 임진의충이 금강공원으로 이전되면서 80년대 중엽까지 민간인이 주도하다가, 지금은 동래구가 주최하고 동래문화원 의충제향회가 주관하고 있다. 관황묘 제향은 60년대부터 일부 마을주민이 지내다가 다시 동래경로당에서 향사를 이어 오다가 2011년에 폐지되었다. 동래기영회 건물 입구 대문에는 중앙에 ‘기영당’이란 현판과 함께 그 양쪽에 ‘재단법인 동래기영회’, ‘동래송공단향사계’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조선시대부터 유지되는 전국의 단체들은 대부분 강릉 김씨, 동래 정씨 등 문중 조직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동래기영회는 각 성의 사람들이 모인, 즉 배경을 달리하는 동래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모임이며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예전에는 동래 지역이라고 하면 부산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기에 기영회에는 부산지역의 내로라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동래지역 군반층이 중심이 되고, 아전이라고 하는 이서층(吏胥層)이 함께 하는 형식이었다. 그렇게 동래에서 활동하는 관인들의 친목 단체로 시작하였다. 50여 명이 초기 회원으로 결성을 했는데, 그저 친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활동도 전개했다. 학문이 깊은 회원들이 많아 시도 읍고 친목도 하면서 상부상조하는 단체로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단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동래기영회의 회원 자격은 ‘유자유손(遺子遺孫)’이라고 하여, 선조가 회원이면 그 아들이 회원이 될 수 있는 형식이었다. 수백 년 동안 ‘유자유손’의 원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되 조금은 변화를 주었다. 회원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마냥 원칙만 고수할 수는 없었다. 유자유손을 원칙으로 했지만 자격이 차마 안 되는 유자유손이 있을 수도 있고, 유자유손은 아니지만 충분히 회원이 될 만한 인물도 있을 수 있었다.

이제는 동래기영회의 정신에 찬성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래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물이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한다면 누



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 회원들의 심사를 거친다. 자격이 된다고 여겨지면 입회를 허락한다.

현재 동래기영회 회원으로는 동래 토박이 기영회 후손 외에 다른 지역 출신들도 가입하고 있다. 인원수도 줄고, 연령이 노령화하는 추세이다. 장관청, 문화회관, 동래유치원 등을 소유하면서 각종 장학사업, 사회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동래교육지원청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동래구청, 동래교육지원청, 동래문화원,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등 기관, 단체와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현재도 약 17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거 동래기영회의 원래의 참 창설할 때의 정신. 이것을 계속 우리의 후손들이 회원들이 끝까지 정신을 살리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유지가 돼야지. 앞으로 계속 뭐 영원히 유지가 될까야.”<sup>▼2</sup> 이러한 이들의 미덕은 지역사회에서 기영회 조직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공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sup>▼3</sup>

기영회는 이서 직임 중 요직을 거친 사람과 상급 무임직을 역임한 자가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기영회 조직은 무임 집단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여 무임과 이서, 두 집단이 상호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그 후 근대 이행기에 두 집단의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

동래 기영회는 살아있는 동래의 역사이다. 모임 자체는 1864년에 태어났지만, 그 모임을 주도한 이서와 무임의 ‘항리’ 집단은 고려와 조선을 두루 통한다. 또한 동래 기영회를 주목하는 것은 모임 자체가 아닌 ‘동래’라는 지역과 사회계층적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텍스트라는 점이다. 19세기 소소하게 시작한 친목모임이 21세기 현재에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사로운 것이 공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전환하는 갑오개혁과 일제강점기는 이런 전환을 요구한 시대의 부름이었고, 동래 기영회는 적극 그에 대응하였다. 의례, 교육, 사회·경제, 문화 등 한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 두루 역할을 감당했다. 바로 이런 조직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또 국가나 지역사회의 공식적 인정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sup>▼4</sup>

기영회 조직은 현재까지 알려진 현존하는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계 조직으로 부산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사, 지역사 등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 ▼1 김정하, 2021, “동래기영회 활동의 혼존성 -19세기 말~20세기 초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73호, p.92.
- ▼2 손숙경, 2017,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기영회의 사회활동과 경제기반”, 『석당논총』, 68호, p.220.
- ▼3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170년 간 지속된 동래 터줏대감들의 계모임 - 동래 기영회를 드나들던 사람들’, 2013년 당시 사무국장 정원규 옹 인터뷰.
- ▼4 김형근, 2020,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에 따른 <동래 기영회>의 무형문화재적 가치”, 『항도부산』, 39권, p.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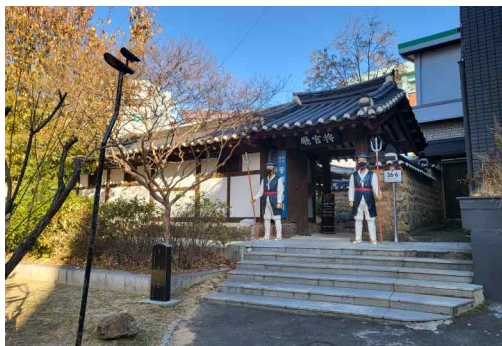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동래기영회 전경



동래기영회 입구



동래기영회 마당과 내부



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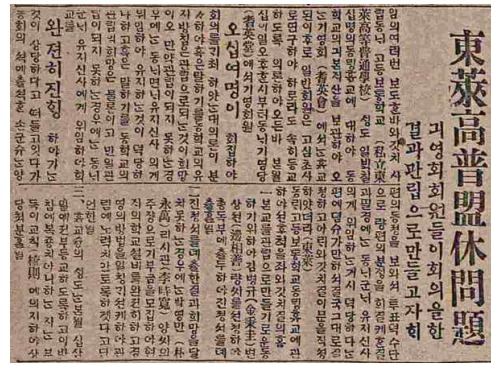


## ▷ 사진 기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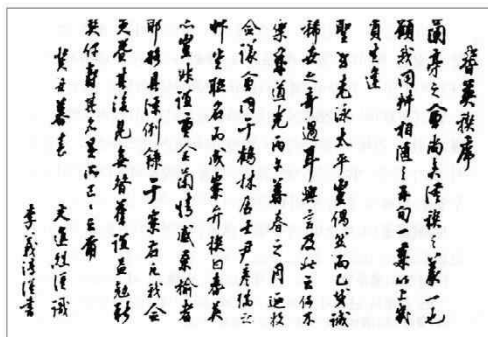
임진동래의충 순절용사 제향

©국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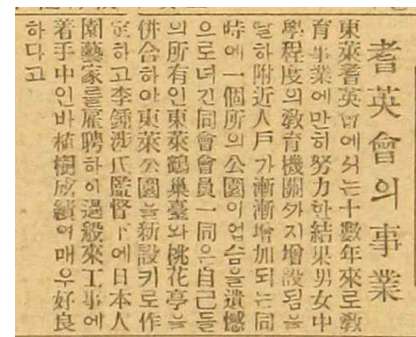
동래고보맹휴문제(1921.7.14.) 기사

©매일신보



1853년 동래기영회 관련 고문서

©동래기영회



기영회 사업 관련 기사(1924.10.24.)

©시대일보



동래기영회의 각종 사회복지활동



### ▷ 논문 및 저서

- 김정하, 2021, "동래기영회 활동의 혼존성 -19세기 말~20세기 초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73호.
- 김형근, 2020,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에 따른 <동래 기영회>의 무형문화재적 가치", 「항도 부산」, 39권.
- 동래기영회, 1996, 「동래기영회 150년사」, 동래기영회.
- 동래기영회, 2016, 「동래기영회 170년사」, 동래기영회.
- 민선희·이훈상, 1993, "조선 후기 동래의 지배 엘리트와 이에 관한 고문헌 자료", 「항도 부산」, 10권.
- 변광석, 2012, "동래기영회의 활동과 변화를 통해본 지역성", 「역사와 경계」, 84권.
- 손숙경, 2017,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기영회의 사회활동과 경제기반", 「석당논총」, 68호.
- 손숙경, 2021, "19세기 중반 동래 지역 기영회의 결성과 그 역사적 의미", 「역사와 경계」, 83권.

### ▷ 신문기사

- 2009.09.26. 부산일보, 「'노블레스 오블리주' 160년 전통 '기영회'를 보세요」
- 2012.04.07. 부산일보, 「[포토뉴스] 동래기영회 장학금」
- 2019.05.19. 국제신문, 「재단법인 동래기영회, '임진동래의충 순절용사 제향' 행사 거행」
- 2021.03.23. CNB뉴스,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동래기영회, 교육 기부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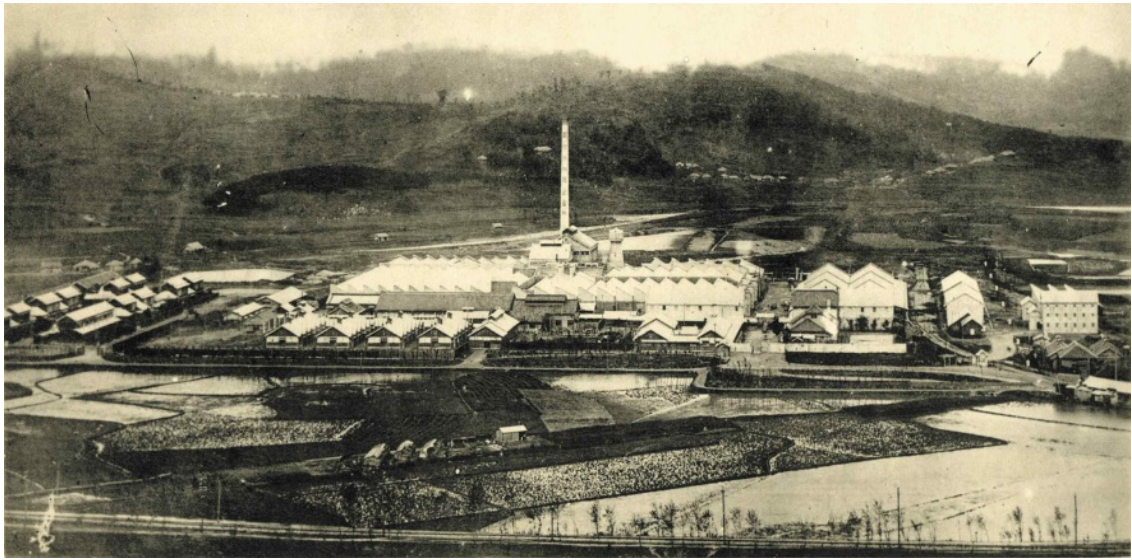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동래기영회', '170년 간 지속된 동래 터줏대감들의 계모임 - 동래기영회를 드나들던 사람들'



## 1. 유산별 심화연구

### 1.6 조선방직 총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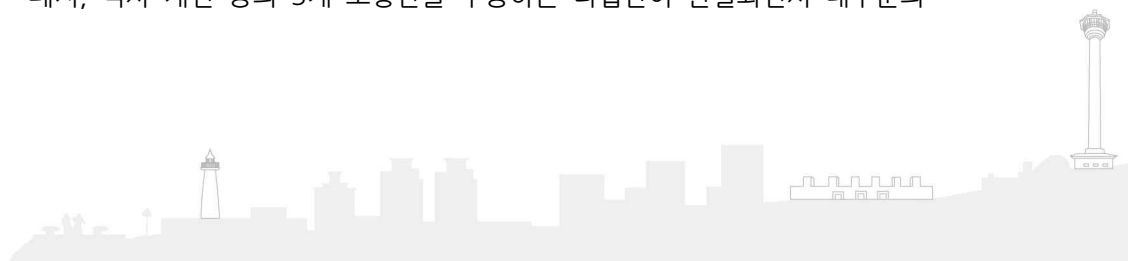


1926년 부산 동구 범일동 조선방직(주)

©한국저작권위원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 1) 개관

대상	조선방직 총파업	소재지	동구 범일동 700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26호
발생시기	1930년	형태	무형 - 노동쟁의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7년 11월 조선방직주식회사(이하 '조선방직')는 조선의 저렴한 공업 원료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집약형 기업으로 설립</li> <li>· 조선방직은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근대식 방직공장이었으나,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노동쟁의가 자주 발생함</li> <li>· 1922년부터 1923년까지의 1년 동안 6차례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전개됨</li> <li>· 1930년대에 들어 세계 대공황의 타격으로 임금이 깎이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짐</li> <li>· 1930년 1월 10일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중락회(衆樂會)'를 조직하고 총파업을 꾀기; 조선방직의 노동자들은 임금 80전으로 인상, 하루 8시간 노동제 실시, 승급제의 확립, 해고제 폐지, 식사여건 개선,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대우 폐지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움</li> <li>· 1930년 1월 21일 조선방직 측에서 제시한 작업 도구의 무료 지급, 벌금제 폐지, 식사 개선 등의 3개 조항만을 수용하는 타협안이 관철되면서 대부분의</li> </ul>		



### 보존 필요성

- 노동자들은 업무에 복귀함
-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중 400여 명 이상이 해고되고 주동자들은 검거됨
- 1930년 1월 부산 지역의 조선방직 노동자들이 노동력 수탈과 민족적 차별에 항거하여 벌인 총파업임
- 민족차별과 계급 착취, 인권 유린이라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일제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 사건임
- 일제강점기 부산 여성노동자들의 주체성 확립과 역량을 크게 드러낸 쟁의임

### [설명문]

‘조선방직 총파업’은 1930년 1월 부산지역의 조선방직 노동자들이 노동력 수탈과 민족 차별에 항거하여 벌인 총파업을 말한다.

총파업의 배경이 되는 조선방직은 1917년 11월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방직공장으로써, 조선의 저렴한 공업 원료와 저임금을 기반으로 탄생된 대표적인 노동 집약형 기업이다. 조선방직은 일본 미쯔이(三井) 계열의 중외산업(주)과 우마코시(馬越恭平), 야마모토(山本條太郎) 등이 자본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현 자유시장 일대 13만 2000㎡에 세워졌다.

조선방직에서는 1922년부터 1923년까지 약 1년 동안 6차례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파업의 주된 원인은 12시간이 넘는 혹독한 노동 시간과 낮은 임금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방직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같은 노동을 하는 일본인 남성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그나마 벌금제와 강제 저축, 기숙사비 등으로 임금은 다시 줄었으며, 1920년대 후반부터 세계 대공황의 타격으로 그나마 임금마저 깎이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다.

조선방직 총파업은 1930년 1월 10일 오전에 시작되었다. 파업을 주도한 것은 조선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중락회(衆樂會)였고, 12개의 항의 요구 조건을 주창하며 2,000여 조선방직 노동자들이 일시에 파업에 동참하였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임금을 80전으로 인상할 것, 하루 8시간 노동제 실시, 해고제 폐지, 취업 중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 직공에 대한 벌금제 폐지, 식사 개선,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 대우 폐지 등이었다.

파업이 발생하자 일제 경찰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탄압하여 지도부를 즉각 검거하였다. 이에 파업 노동자들은 새로이 파업 지도부를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신간회 부산지회, 부산청년동맹 등 지역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노동 단체·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격문 배포, 위문금과 격려문 전송, 비판 연설회 개최, 동정 파업, 조업 단축 등 조선방직 파업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제 경찰의 대응은 강경하여, 수백 명의 노동자를 검거해고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대와 굶주림을 견디며 단식으로 저항하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소식으로 지역 사회에는 동정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여성 노동자 기숙사는 일약 조방 파업의 메카로 떠오르기도 했다.

조선방직 총파업은 일제 경찰과 조선방직 자본가의 악랄한 술수와 강력한 탄압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 2차에 걸친 교섭에서 조선방직 측에서 제시한 작업 도구의 무료 지급, 벌금제 폐지, 식사 개선 등의 3개 조항만을 수용하는 타협안이 관철되면서 파업 10여 일 만인 1월 21일 대부분 노동자가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대가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가운데 400명 이상이 해고되고, 주동자들은 검거되거나 격리되어 김소임 등은 강제 귀향 조치되었다.

조선방직 총파업은 1929년 이후 세계 대공황의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일어난 국내 최대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민족 차별과 계급 착취, 인권 유린이라는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일제의 악랄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방직 총파업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민족 차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일제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조선방직 총파업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강한 단결력이 부각되었다. 파업 투쟁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의식이 고양되면서, 조선방직 총파업은 일제 강점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리 매김되었다.

## 2) 관련 내용

'조방'이라는 장소는 오늘날 부산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과 평화시장, 부산은행 (구)본점 주변 음식점 거리를 가리킨다. 조방(朝紡)은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줄임말이다. 일제강점기 조선방직의 정문은 지금의 평화시장 공구상점 골목 입구에 있었고, 후문은 부산시민회관 쪽에 있었으므로 조방 앞은 문화병원·현대백화점 일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후문이 있었던 부산시민회관 부근, 서쪽 자성대 앞 부산은행 (구)본점까지를 통칭 조방 앞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방 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조방은 1917년 11월 범일동 700번지에 창립(1919년에 완공되었으나 화재로 실제 공장 가동이 이루어진 것은 1922년임)되어 1968년 청산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존재했다. 일본 독점자본 미츠이(三井)계열의 인맥이 설립한 이 회사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 면방직공장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공칭자본금 500만 원, 공장부지 4만 평(1968년 해체 때에는 8만 평), 건물 54동, 종업원 2000명~3200여 명에다 공장 내에는 병원과 숙소사까지 갖추고 있었다. 구내 병원이 종업원들의 간이진료소가 아니라 외부인들의 치료와 입원도 가능한 병원이었다는 점에서 조방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최초의 대규모 방직공장이 1917년 무렵 부산에 입지한 것은 세계 1차대전에 따른 호황으로 일본 내 독점자본의 식민지 이전이 요구되는 경제 변화와 일제의 육지 면재배사업에 의해 생산된 남부지방의 면화 공급에 기인했다. 그런데 방직공장이 범일동에 입지한 것은 도시공간의 편성과 산업공간의 배치란 맥락에 근거했다.

조방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것은 공장의 규모보다도 여공들이 전개한 치열한 노동운동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들은 항일투쟁의 하나로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 쟁의를 시도했다. 특히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일제 독점자본 공장이어서 운동의 파급력이 강한 조방은 사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공작' 대상이 되었다.

조선방직 여공 중에는 경상북도나 충청도의 농촌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은 출장 온 여공모집원이 '공장에 가기만 하면 매일 수십 원의 수입이 있느니 갖은 호강을 다하느니'라고 유혹하는 감



언이설에 속아 입사한 이들이었다. 신입여공은 일급 최대 15, 16전을 받으며 6, 7년 후 숙련공이 되면 30~40전을 받았는데, 4원가량의 기숙사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처음 입사하는 날부터 여비 때문에 빚을 진 여공들은 도망을 우려하여 기숙사 외출이 통제되었다. 작업용구는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련해야 했는데 스페너는 거의 두 달 월급에 해당하는 9원이나 했다.

벌금제도가 있어서 기계 고장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품에 흠이 나거나 혹은 12시간 2교대제의 고된 노동으로 잠깐 졸아서 실수하더라도 벌금을 물고 때로는 일본인 감독으로부터 난타당하기도 했다. 조방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연간 20만 원의 산업보조금을 받고 주주배당률도 높았지만, 직공에 대한 처우는 최악이었다.

1922년 조선방직의 쟁의는 3월 1일 남녀 직공 500여 명(당시 700명 고용 규모)이 일시에 동맹파업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쟁의에서 노동자들은 12시간노동 철폐, 24~5전에서 30전에 지나지 않는 극히 낮은 임금의 인상 등을 요구하였는데 별다른 실익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복귀할 수 밖에 없었다.

1923년 8월 6일에도 700명이 참여한 파업이 있었다. 요구사항은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여감독 불친절과 구타 시정, 기숙사 여직공 일요일 외출금지 폐지 등으로 22년의 요구보다도 훨씬 다양한 요구조건이 제시되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과 관계된 사항들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처음 이슈화되지 않은 것들이 전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업의 중심이 상당히 여성노동자로 옮겨가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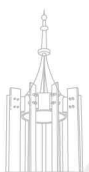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당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인 노동공제회와 조선노동연맹회가 설립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노동단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노동자들도 파업투쟁에 참여하여 계급의식을 성장시켜 가고 있었다.

1922, 23년의 조선방직의 파업 역시 당시 다른 쟁의와 마찬가지로 자체 내의 요구가 커지면서 일어난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는데, 차츰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순히 경제투쟁에 그치지 않고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을 인식하여 갔다.

이때의 노동운동은 전반적 사회운동의 전환과 맞물려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개량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투적 노동자에 의한 새로운 노동조합의 결성과 기존의 노동조합 개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중락회는 바로 그러한 맹아에 해당된 조직이었다. 중락회는 1929년 설립된 청년운동의 통일체 부산청년동맹과 신간회 부산지회와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단체였다.<sup>▼1</sup>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에 모순을 느끼고, 1930년 1월 10일 남자 직공들의 모임인 중락회(衆樂會)가 중심이 되어 파업을 일으켰다. 중락회 회장인 이종식(李鍾植)과 부회장 김만기(金萬基)가 회사에 대한 12개 항의 요구 조건을 주창하자 2,000여 조선방직 노동자들이 일시에 파업에 동참하였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임금을 80전으로 인상할 것, 하루 8시간 노동제 실시, 해고제 폐지, 취업 중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 직공에 대한 벌금제 폐지, 식사 개선,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 대우 폐지 등이었다.

파업이 발생하자 일제 경찰은 신속하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탄압을 자행하였다. 파업 초기에 이종식과 김만기 등 파업 지도부를 검거하는 한편 노동자의 절반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이들을 감금함으로써, 파업 대열을 분리시켰다. 이에 파업 노동자들은 자성대 아래에 파업 본부를 마련하고 새로이 파업 지도부를 꾸렸다. 이때부터 화요계 조선공산당재조직준비위





원회의 부산 책임자 이영조(李永祚)와 조선방직 노동자 윤태준(尹泰俊)이 파업을 주도하였다. 파업 지도부는 신간회 부산지회, 부산청년동맹 등 지역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노동 단체·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호응하여 동래, 김해, 마산, 경성, 원산, 평양, 홍원 등 전국 각지에서 격문 배포, 위문금과 격려문 전송, 비판 연설회 개최, 동정 파업, 조업 단축 등 조선방직 파업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1930년 1월의 파업은 지역운동가와 현장노동자들이 연계하여 파업을 전개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의 노동단체·청년단체에서 열렬하게 성원하였다. 그러나 파업의 실제 주역은 여공들로, 이들은 여공파업단본부를 따로 설치하고 단식투쟁을 감행하며 회사에 맞섰다. 파업에 참가한 조방의 여공들 역시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더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와 경찰은 공장 밖으로 진출하려는 여공들에게 영하 3도의 기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세례를 퍼붓는가 하면, 파업에 적극적인 맹렬 여공들을 해고하고, 단식으로 탈진한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 기차에 태워 본적지로 돌려보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단식투쟁에 놀라 시골에서 온 부모들은 굳게 닫힌 정문에 매달려 울부짖었으나 딸을 만나지도 못했다. 임금 인상, 8시간 노동제, 작업도구 무료지급, 벌금제 폐지, 기숙사 여공 출입증 폐지 등 12개 요구조건을 내건 파업은 결국 경찰의 탄압과 파업단의 준비 부족으로 실패로 끝났다. 파업 이후에도 그들은 묵묵히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갔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역운동가로 변신하는 등 근대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sup>2</sup>

해방 후 조선방직은 적산(敵産)으로 미 군정에서 관리했는데, 1946년 1월부터 본격 조업에 들어가 비교적 양호한 가동률을 보였다. 1946년 한국에서 첫째가는 방직기업이란 의미에서 한일 실업공사(韓一實業公社)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으나, 1년여 만에 원래의 이름으로 복귀했다.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공장인 조선방직은 이승만의 정치자금 문제와 연계되면서 파란을 겪었다. 사장 강일매(姜一邁)의 정실인사와 부당해고, 노동조합 어용화와 분열 책동, 방만한 경영에 항의하여 조선방직 여공들은 1951년 12월부터 4개월간 쟁의를 전개했다. 국회의원 전진한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파업 단행을 선언하고 이에 반박하는 특별담화를 대통령 이승만이 발표할 정도로, 이 조선방직 쟁의는 "대한민국 수립 후 가장 치열하고 또한 가장 대규모의 쟁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었다. 이 파업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쟁의 전개방식이 조직적이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노동운동의 성장을 뜻한 것이다. ▼<sup>3</sup>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방직은 결국 강일매에게 불하되었으며, 1959년 10월 강일매가 사망하자 삼호방직(정재호)에 인수되었다. 그러나 정재호는 부정축재환수금 납부에 급급하여 조선방직의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했다. 결국 1968년 부산시가 조선방직을 인수하여 8만 평의 부지를 불하함으로써 범일지구재개발사업이 기공되어 무허가건물과 공장이 철거되고 자유시장과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과 한양아파트 등이 들어섰다. 당시 남포동에 있던 부산시청을 이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수립하기 하였다.

조선방직 공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조방 앞'이란 지명은 남았다. 조선방직은 부산의 대표적 기업이었고 따라서 한국 노동운동사의 획을 긋는 쟁의들이 이곳에서 발생함으로써, '조방 앞'은 여공들의 치열한 투쟁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대결하던 역사적 공간이었다. ▼<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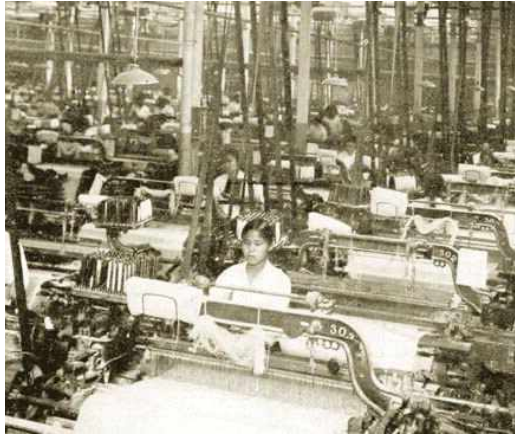


- ▼ 1 이송희, 2003, “일제하 부산지역 방직공장 ·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쟁의”, 『이화사학연구』, 30호, pp.374-375.
- ▼ 2 김용욱, 2001, 『부산의 역사와 정신2』, 전망, p.479.
- ▼ 3 부경역사연구소, 1999,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늘함께, p.183.
- ▼ 4 2013.07.09. 국제신문,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3> 범일동 일대 ‘조방 앞」



### 3) 관련 자료

#### ▷ 사진 기록 자료



조선방직주식회사 여공들의 작업 현장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국제신문



조선방직 총파업으로 경계가 삼엄한 공장 입구

©조선신문



부산 조선방직주식회사 파업 참가 모습

©부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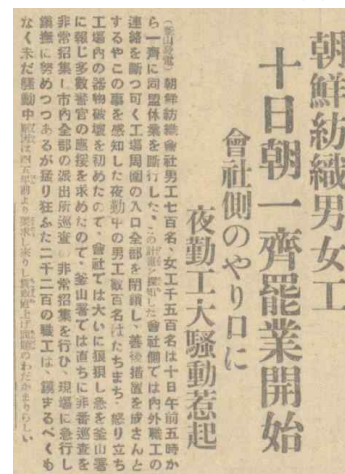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투쟁

©사회변혁노동자당



1960년대 초 조선방직 전경

©부산진구청



조선방직 총파업(1930.1.11.) 기사

©조선신문



▷ 논문 및 저서

- 김용욱, 2001, 「부산의 역사와 정신2」, 전망.
- 부경역사연구소, 1999,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늘함께.
- 이송희, 2003, “일제하 부산지역 방직공장 ·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쟁의”, 『이화사학연구』, 30호.
- 오미일, 1993, “1920년대 말~1930년대 부산·경남 지역 당 재건 및 혁명적 노동 운동의 전개와 파업 투쟁”, 『한국 근현대 지역 운동사』 I-영남편, 여강.

▷ 신문기사

- 1930.01.2. 조선신문, 「임금인상과 대우개선 이천칠백직공의 절규」
- 1930.01.11. 조선신문, 「조선방직 남녀공 10일 아침 일제 파업개시」
- 2012.03.07. 부산일보,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 ‘조선방직·부두 노동자」
- 2013.07.09. 국제신문,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3> 범일동 일대 ‘조방 앞」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조선방직 총파업’, ‘독립운동’



## 1. 유산별 심화연구

### 1.7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협동서점 전경

©부산민주공원

#### 1) 개관

대상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소재지	중구 보수동 1가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27호
형성시기	1978년	형태	무형 - 협동조합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7년 10월 중부교회 친교실에서 양서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li> <li>· 1978년 4월 2일 부산 YMCA강당에서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창립(조합원 107명)</li> </ul>		



### 보존 필요성

- 1978년 4월 22일 보수동 책방골목에 직영 서점 '협동서점' 개점
  - 1979년 2월 부산 YMCA강당에서 2차 정기총회 개최
  - 1979년 3월 5일 사무실 이전(대청동 1가 38번지)
  -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배후로 지목
  - 1979년 11월 19일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산
  - 1981년 9월 부림사건으로 부산양서협동조합 핵심 세력 검거
  - 1987년 6월 6월 항쟁 이후 부산지역의 도서관 운동으로 계승 발전
  - 2015년 4월 발기인대회 개최
  - 2015년 9월 부산양서협동조합 재창립
- 부산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공간적·사회적인 사건
  - 부산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민문화운동의 거점으로써의 역할
  - 양서를 매개로 한 협동조합과 시민문화운동의 결합이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협동과 상생의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음

### [설명문]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이하 ‘부산양협’)은 1978년 4월 부산에서 설립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좋은 책을 통해서 지적·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인재를 발굴하고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귀면서 사회의 어둡고 병든 곳을 개혁하여 참다운 인간애가 넘치는 복지 부산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문화적 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77년경 부산 중부교회의 김형기가 양서를 매개로 한 협동조합 운동을 제안하였고 기독교 청년, 대학생, 지식인 등이 호응하여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78년 4월 2일 부산양협의 창립식이 거행되었다.

부산양협의 운영 원칙은 문호 개방의 원칙, 이용과 비례 배당의 원칙, 민주적 관리의 원칙, 경제적 민주주의의 원칙, 중립의 원칙, 교육의 원칙, 이자 제한의 원칙, 시가 판매의 원칙, 현금 거래의 원칙 등이었다. 그리고 1978년 4월 11일 보수동 책방골목에 13.2㎡ 규모 2층 가게를 전세로 얻어 4월 22일 협동서점(현 알파서점과 청산서적 중간지점)을 개설하였다. 1층은 서점으로, 2층은 사무실 겸 모임 장소로 사용하였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은 조합원 2명 이상의 추천과 가입금(당시 2,000원)과 출자금(매월 1구좌 1,000원 이상)을 내고 가입할 수 있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교육을 받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을 조직하였다. 어학연구, 지역사회개발, 학술연구, 종교연구, 예술연구 등의 모임이 있었다.

부산양협은 양서를 매개로 책만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 등 의식 있는 대학생들과 청년층들이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팽창시키는 마당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이로써 서울, 마산, 대구, 울산, 수원 등지로 양서협동조합운동은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1979년 9월 부산양협의 조합원 수는 501명, 출자금은 500만 원을 넘었고 경영 수지는 흑자를 달성하였다.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자 계엄 당국은 부산양협을 배후로 의심했는데,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피살되자 조합장에게 강한 압력을 가했다. 결국 11월 19일 부산 양협은 해산되고 말았다. 부산양협은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 시민문화 운동, 민주화 운동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부산양협의 취지와 성격은 마산, 서울, 대구, 울산, 수원 등지에서 설립된 양서협동조합의 모델이 되었다.

## 2)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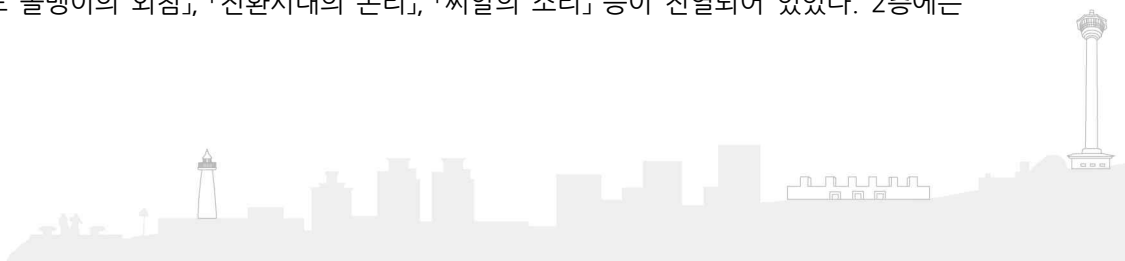
박정희 유신정권은 독재 체제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유례없는 초법적 조치를 내놓았다. 그중에서 악법 중의 악법인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벌써 몇 년째 유지하고 있었다. 모든 정치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사전 신고나 허가되지 않은 모임은 할 수 없는 초법적인 조치였다.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얼어붙은 ‘겨울 공화국’이었다. ▼<sup>1</sup>

중부교회 대학생부 전도사로 있던 김형기는 1977년 이 곳에서 교회를 드나들던 청년운동가들과 함께 양서협동조합을 구상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의 형식을 빌려 책을 매개로 시민운동과 문화운동을 결합하려던 김씨의 구상은 1978년 4월 107명의 조합원으로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이하 '부산양협')'을 출범시켰다. ▼<sup>2</sup> 당시 부산양협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합원들끼리 책만 나눠 보는 것이 아니라, 서점도 함께 운영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조합원들이 보고자 하는 양서를 직접 수집 유통까지 함으로써 최소 운영자금 마련과 함께 출판문화운동에도 직접 관여를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978년 설립된 부산양협은 협동서점을 근거지로 하여 십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여 처연 학생과 시민과의 접점을 형성하고, 민주생존권투쟁을 비롯한 각종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체 역할을 하였다. 이에 진보적 청년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대거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민주세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양협은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또 하나의 산실이 되었다. ▼<sup>3</sup>

“..... 우리 양서협동조합은 첫째, 좋은 책을 벗 삼아 살고자 하는 시민들이 신뢰와 협동의 인간관계를 기초로 모여서, 좋은 책을 판매, 보급, 출판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둘째, 좋은 책을 매개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시민 문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면서 문자 공해를 추방하고 새로운 지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문화공동체’다.”

조합원들은 매달 1천원 이상 출자를 하고 '전환시대의 논리', '뜻으로 본 한국역사', '씨알의 소리' 등을 돌려 읽고 토론했고 조합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다. 곧이어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에 2층짜리 비좁은 헌 건물을 세내어 <협동서점>을 열었다. 책 냄새가 물씬 나는 헌책방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다. 2층짜리 건물 1층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서점이었다. 당시 불온도서로 찍혀있던 「어느 돌맹이의 외침」, 「전환시대의 논리」, 「씨알의 소리」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2층에는





세미나나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일단 합법적인 공간이 열리자 부산지역의 지식과 정보에 목말라 있던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부산양협은 양서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어느새 책을 매개로 한 모임의 범위를 넘어 여름과 가을엔 ‘농촌현장활동봉사단’까지 꾸리게 되었다. 사회 변혁을 위한 뜨거운 혁명의 불씨가 소리 없이 안으로 타오르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보수동 책방골목 내에 자리 잡은 부산양협은 70년대 말 부산민주화운동의 학교와 같은 존재로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대거 배출하기도 하였다. ▼<sup>4</sup> 당시 핵심인물 중의 한 명인 차성환은, “다른 운동방식에 비해 양서조합운동의 장점은 대중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운동가를 만날 수 있고, 양서를 통해 사회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데 있어요. 당국에서도 조합이 대외적으로 온건했기 때문에 대놓고 탄압하기 어려웠죠.” 하고 회고했다.

부산양협은 사회현상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스터디를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나아가 부산의 민주운동 세력을 한데 모아 민주역량을 강화시키는 구심체의 역할을 하였다. 이후 양서조합은 전국적으로 7개의 지부가 결성되었으며, 수많은 조합원을 확보하였다. 이후에 양서조합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당국으로부터 ‘부림사건’으로 조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등 갖은 억압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로써 80년대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부산양협의 정신에 동감하는 같은 형태의 조합들이 전국 여기저기에 들불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마산, 대구, 서울, 울산, 광주, 수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양서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책방골목은 역사·민중저항의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곳이었다. ▼<sup>5</sup>

좋은 책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려했던 부산양협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마산 대구 울산 서울 수원 광주 등에서의 도서관 운동과 대학가의 사회과학서점 개소 등으로 이어졌다. 90년대 창원의 마을문고 운동, 사립 문고운동,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동, 2000년대 기적의 도서관 운동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도서관 운동과 독서문화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sup>6</sup>

1987년 부전시장 입구 상가에 설립된 아롬도서관은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노동 도서관이었다. 부산양협의 회원이었던 전중근에 의해 ‘책을 매개로 한 시민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알다’의 고어인 ‘아롬’을 도서관의 이름에 붙였다. 도서관은 약 4,300권의 교양 및 노동 운동 관련 장서를 소장하고, 서면과 중앙동 지역의 사무직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였다. 1989년에는 부산진구 가야우체국 맞은편에 태화고무 등 신발공장과 금속부품 공장의 노동자들 100여명을 회원으로 하는 일꾼도서관이 탄생했다. 이후 남구 대연3동의 늘푸른도서관, 북구 감전동의 햇살도서관, 사상 덕포동의 들불도서관, 사하구 감천1동의 광장도서관, 사하구 괴정동의 한돌도서관, 영도구의 삶터도서관 등이 연이어 탄생했다. ▼<sup>7</sup>

이러한 움직임이 이끌어낸 부산양협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운동 모델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다. 억압적인 시대에 운동에 공포감을 가진 대중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운동가들을 한 데 모으고 교육하는 마당이었던 셈이다.

부산양협은 2015년 재창립되었고, 현재 해운대 우동에 ‘부산양서협동조합 문화공간<인>’의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 ▼ 1 김선미, 2018,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 부산대 시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7권, p.368.
- ▼ 2 오픈 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 ‘양서는 양심을 낳고, 양심은 정의로운 사회를 낳는다. \_ 부산 양서협동조합’.
- ▼ 3 2005.10.26. 부산일보, 「[민주부산 공간의 재발견] 길 8, 양서는 나의 힘 ‘양서협동조합’」.
- ▼ 4 노봉호, 2010, “공공디자인 거리조성을 위한 사례 연구 : 부산 보수동 헌책방골목을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8권 2호, p.152.
- ▼ 5 이재민, 2017,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보수동 책방골목의 기능 분석”, 『인문사회21』, 8권 6호, p.743.
- ▼ 6 최진욱, 2008, “지식 : 한국사회 작은 도서관 운동사 -양서협동조합 활동부터 90년대 작은도서관 운동까지-”, 『디지털 도서관』, 49권, pp.67-69.
- ▼ 7 2005.10.26. 부산일보, 「[민주부산 공간의 재발견] 길 8, 양서는 나의 힘 ‘양서협동조합’」  
이정희, 1990, “노동 도서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과 노동 8』.  
김영기, 1993, “도서관 현상을 통해 본 공공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3) 관련 자료

#### ▷ 사진 기록 자료

4·8운동기념사업회  
Democracy Foundation

제1권 제3호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양서조합소식</p>	
발행처 : 서울특별시 발행처 : 서울특별시	발행처 : 부산 양서 양서 양서 조합 직영점 : 부산 양서 양서 조합	1978.6.14 발매 1978.6.15 발매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105 T-46-9175		

■ 원문면 ■

광심을 갖자

이사·윤 정국

부산 양서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또 직접 원문서점이 개점된 거 어떤 한달이 채 못됐다. 가볍게 생각하면 조합 만들고 책방 열거 무슨 잘못 열의나 갖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의 전통을 차근 차근 실행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는 사람은 우리 협동조합의 결성과 개점 뒤에 숨은 고충을 알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조합장 이 공복 년월사의 열혈대도 겨우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자정상태의 한 열거는 무의미한 것이 필사의 소중이다. 그분들도 우리는, 목표를 향해 허드러짐 없이 전진하자면 결국에 귀찮은 것 이상으로 조합원 모두가 출자 의무한 의무의무를 성실히 다해야만 해서 열거가 생각된다. 결동에서 우리 조합의 취지를 전해서 조합원들 보다 많이 확보하고 또 양서를 구입하는 모든 시민의 발걸음이 협동서점으로 향하게 함 안내인의 역할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평소 느껴왔던 몇가지 소회를 밝히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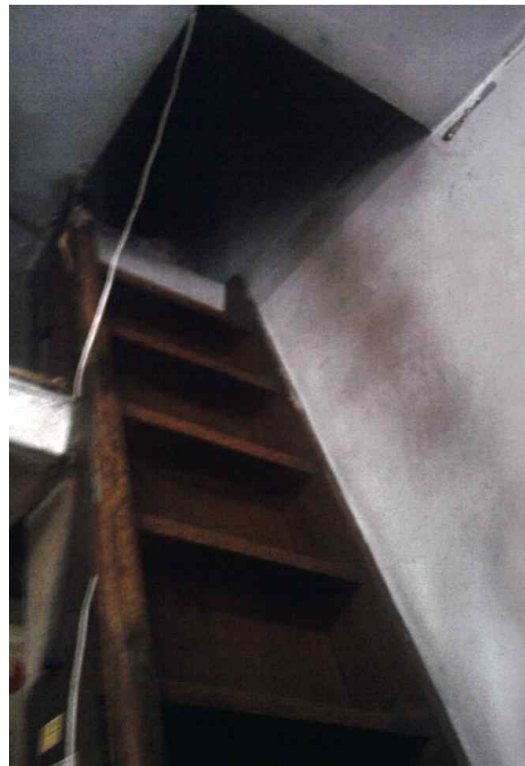
우리 조합원 발간 이래가 우리 시민 모두가 공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다름의 양면은 가늠해 볼 가격기준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양면은 박물관에 보배 비싼 시립의라면 수다할 법은 가지고 있고 독을 양에서 호환하게 되면 된다는 그 나중대도의 가격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물가가 환금하는 배후주의에 적어 있는 이유로 해서, 양심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행동 기준을 굳게 가질 수 없고, 양사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은 반다 미약성은 다수에 의해 묵살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화면 양심적인 자적인이 그 외로운 시대가 지음은 아닌가 한다.

양심적인 자적인이 가진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적 인간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해 보려는 것이고 그런 의도 때문에 문화적 창조에 몰두하게 되는 것으로 안다.

말자는 우리의 협동조합이 바로 이러한 양심적인 자적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모두 그 나중대도의 창조적 방법으로 조합에 접근해 왔으며 그 같이 한 다수의 창조가 모여서 비로소 부산 지역이 새롭고도 양심적인 문화의 큰 흐름이 창조되어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양심이 양심 배반 당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림 개작>

-1-

AI 40912



양서조합소식 제1권 제3호

©오픈아카이브

협동서점 2층으로 연결된 가파른 계단

©희망세상





부산양서협동조합 회보와 40년사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에 재현된 협동서점



부산양서협동조합 재건 발기인대회(2015)

©부산일보



부산양서협동조합의 산실이었던 중부교회



## ▷ 논문 및 저서

- 김선미, 2018,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 부산대 시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7권.
- 김영기, 1993, “도서관 현상을 통해 본 공공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노봉호, 2010, “공공디자인 거리조성을 위한 사례 연구 : 부산 보수동 헌책방골목을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8권 2호.
- 이정희, 1990, “노동 도서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과 노동』, 8호.
- 이재민, 2017,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보수동 책방골목의 기능 분석”, 『인문사회21』, 8권 6호.
- 차성환, 2004,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1 - 부산양협운동의 전말”, 『기억과 전망』, 8권.
- 차성환, 2004,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2 - 각 지역 양협 운동의 전말”, 『기억과 전망』, 9권.
- 최진욱, 2008, “지식 : 한국사회 작은 도서관 운동사 -양서협동조합 활동부터 90년대 작은 도서관 운동까지-”, 『디지털 도서관』, 49권.

## ▷ 신문기사

- 2005.10.26. 부산일보, 「[민주부산 공간의 재발견] 길 8, 양서는 나의 힘 ‘양서협동조합’
- 2015.04.23. 부산일보, 「부산양서협동조합 36년 만에 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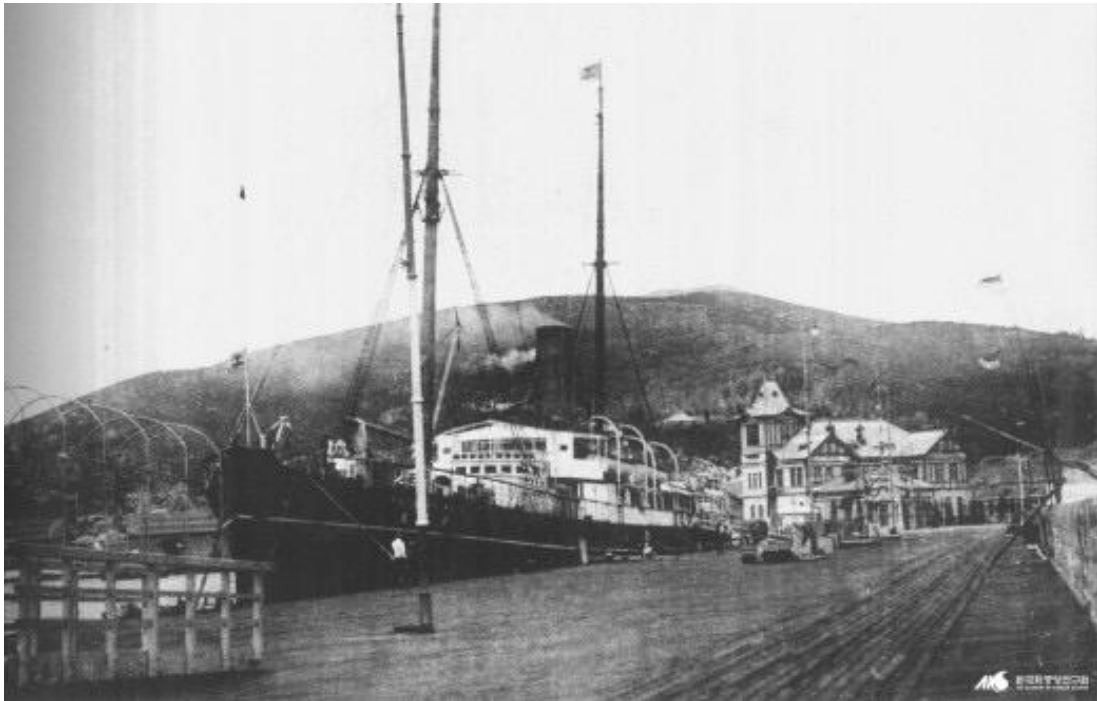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 ‘양서는 양심을 낳고, 양심은 정의로운 사회를 낳는다\_부산 양서협동조합’



## 1. 유산별 심화연구

### 1.8 부산부두 총파업



부산항 제1부두 ©한국항토문화전자대전

#### 1) 개관

대상	부산부두 총파업	소재지	중구 중앙동 4~6가 일대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28호
발생시기	1921년	형태	무형 - 노동쟁의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1년 1월 부산항의 하역 담당 일본 회사들의 예고 없는 임금 3할 인하 시행</li> <li>· 1921년 9월 12일 부산부두노동자 1천여 명은 집단투쟁 시작</li> <li>· 부산부두노동자들은 각 운송 및 하역회사에 3할 내지 4할의 임금인상 탄원서를 제출, 15일까지 회답해 줄 것을 요구함.</li> <li>· 회사 측이 아무런 회답을 내놓지 않자 노동자들은 16~17일 양일간에 일제히 파업 단행</li> <li>· 1921년 9월 20일 부두노동자들의 대표자 1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회사 측과 교섭 개시</li> </ul>		





보존  
필요성

- 이후 노사 쌍방은 몇 번의 회담을 진행하였지만 번번이 결렬되자 부산 전 지역의 5천여 명의 부두 노동자가 총파업을 단행
  - 자본가, 관료측은 경찰의 힘을 빌려 노동자의 집회를 철저히 압박하고 파업주도자 및 다수의 참가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
  - 부산 총파업으로 인해 부산항의 화물 수송이 마비되자 1할 내지 1할 5분의 임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타협하면서 파업은 종결됨
  - 1920년대 초 다른 곳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대규모적으로 통제된 투쟁이 전개될 수 있었음.
- 도시 내 동일 부문의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전체 고용주를 대상으로 전개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노동쟁의(파업)임
  - 일제강점기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1920년대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형태로 구현된 민족해방운동의 시작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부산부두 총파업은 1920년대 이후 노동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침(이후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가 조직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함)

## [설명문]

‘부산부두 총파업’은 1921년 9월 25일 부산부두·운수업 종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일으킨 국내 최초의 총파업으로 한국노동운동의 시작을 알린 투쟁으로 일컬어진다.

19세기말까지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던 부산은 일제 상품의 반입과 조선 식량·원료 반출의 집산지로서 한일 합병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와 더불어 주로 부두·운수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수도 급증하였다.

이들 노동자들은 영신사(永信社)와 같은 노동력 공급 회사에 속해 십장(什長/일꾼들을 감독·지시하는 우두머리)을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으며, 일제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에 시달려 왔다. 1921년 들어 전후 공황의 여파로 민중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본 자본가들이 임금의 50%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반대해서 9월 16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석탄 운반 노동자 1,000여 명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발단으로 26일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부두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뒤를 이었다. 파업이 일어나자 부산 시내 거의 모든 운수 노동자들이 가담해 총 5,000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 회사인 경남인쇄(주식회사)에서 파업 선전물을 인쇄해 줄 정도로 조선인 자본가들도 파업에 호의적이었다. 이를 막기 위한 일본인 자본가와 경찰들의 갖은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30일까지 지속되었다. 파업 과정에서 김종범(金鍾範) 등 일부 진보적 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탄원서와 선언서를 작성하였다. 파업은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와 부산 지역 유지들의 중재로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약간의 임금 인상에 타협함으로써 5일 만에 끝났다.



그러나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자·청년·지식인 사이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부산 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대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 2) 관련 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이전부터 조운제도(漕運制度)가 있었으며, 세곡(稅穀)을 보관하는 조창(漕倉), 세곡을 운반하는 조선(漕船), 하역을 담당하는 조군(漕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조군이 항만노동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부터는 경강상인이 사선(私船)에 의해 조미(粗米) 운송을 담당하면서 당시 세습신분인 조군은 자유신분인 격군(格軍)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객주(客主)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기업형태의 하역업체도 탄생했는데 이러한 업체에 종사했던 하역인부들이 최초의 ‘임금노동자’로 간주된다. 객주하의 항만노동은 객주 → 조두(組頭, 노무공급의 boss) → 조(組) → 담군(擔軍, 항만하역노동자가 속한 장갑집단)으로 위계화되어 있었다. 개항이후에는 관의 통제 하에 노무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일본기업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관의 통제는 약화되었다. 일제식민지하의 항만노동은 일본 하역기업 → 수신조·창신조(守信組·昌信組) → 십장(什長) → 하역노동자로 위계화된 통제질서를 갖고 있었다. 이후 식민지말 전시동원체제에서 기존 하역업체들은 조운(漕運)으로 통합·독점되었고 하역노동자들은 하역용역단(부두하역노동자+강제징용자)으로 편입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다시 국가개입이 약화되면서 하역업체는 난립하였다. 항만노동은 하역업체 → 십장 또는 향수 → 하역노동자로 재구축되었다. 십장 또는 향수는 하역노동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담당했으며 하역노동자들은 15명~20명 단위로 집단적 생활을 했다.

일제하 부산에서의 저항운동은 이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항구도시라는 특성에서 기인하여 일제하 내내 지속된 항만 노동자들의 운동이 있었다. 부두노동은 우리나라 근대적 노동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한말의 1907년 6월과 1909년 4월의 부산부두노동자 동맹파업, 일제하의 1921년 부산부두총파업, 1937년 부산항 개축공사장 인부파업 등을 들 수 있다.▼<sup>1</sup>

제1차 세계대전(1914~1917년) 이후 일본이 겪게 된 불경기는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21년 1월 부산의 택산(澤山)형제상회, 내국상선만철회사, 일본상선회사 등 하역업 회사들이 예고도 없이 부두 하역 노동자의 임금을 한꺼번에 3할이나 인하하였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 조건 아래 있던 조선인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으므로, 노동자들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업주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하여 무시하고 임금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노사 양측의 마찰이 시작되었다.

1921년 1월의 임금 인하 조치가 시정되지 않은 채 또 다시 임금 인하가 거론되면서 9월 초 부두 노동자들은 파업을 결의하였다. 9월 12일 제1 부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두 노동자들은 이들 하역업자에게 임금의 4할 인상을 요구하고 15일까지 수락하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할 것을 알렸다. 그러나 하역업자들이 이를 묵살하면서, 9월 16·17일 양일간 노동자들은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당황한 하역업자들이 25일까지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노동자들은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이 때 석탄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안을 하역업자들에게 전달하고 25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국 하역업자들이 노동자 측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부산항 하역 관계 노동자 5,000여 명은 25일 파업을 결의하고 26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파업이 시작되자 경찰은 비상 경계망을 펴 주도자를 체포하고 집회를 방해했으며, 하역업자들도 경찰의 힘을 믿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파업이 시작되자 며칠 만에 부산항의 화물 수송이 마비되어 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결국 일본인 하역 업주들은 조금이나마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1할 내지 1할 5분의 임금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일제 경찰은 파업 기간 중 배후로 지목한 노동 야학의 교원 손명표(孫命杓), 김경직(金璟直), 최태열(崔泰烈)과 이들의 친구라는 이유로 잡은 조동혁(趙東赫) 등은 파업을 끝내면 풀어주겠다는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결국 처벌하였다.

1921년 9월에 일어난 부산 부두 노동자들에 의한 파업은 20년대 쟁의 양상을 특징 지우는 대규모 연대 파업의 효시였다. 이후 노동쟁의는 주로 파업 형태를 띠고 진행되는데 파업의 양상 또한 20년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해볼 수 있다. 이는 노동 운동이란 조직과 이론의 통일물로서 그 양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며 그것은 바로 노동자 계급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년대 전반기 노동 쟁의의 특징은 반봉건적 노무 관리 구조에 대한 불만이 쟁의 요구 사항의 중심을 이룬다는 점이다. 20년대초 경기 하락에 따른 임금 인하 등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업 노동자의 경우 악질적 일본인 감독의 학대와 구타가 빈번히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 ▼<sup>2</sup>

부산 부두 총파업은 한 도시의 동일 부문의 노동자 전체가 전체 고용주를 상대로 전개한 초유의 대규모 항쟁으로, 일제의 폭압과 사용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 큰 성과를 가져다 준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항만하역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대상이 일제자본가였다는 점에서 민족적·계급적 성격을 띠었다. 물론 일제는 식민지정책에 반하는 민족적·계급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한 반면 이와 같은 정책적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용’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육성·보호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런 이유로 부산 부두 총파업은 1920년대 조선 전체의 노동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던 항만하역노동자들은 1921년 부산총파업, 1929년 원산총파업 등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sup>3</sup>

1921년 부산 부두노동자들의 총파업은 한국노동운동 역사상 최초의 총파업으로 기록된다. 특히 노동조합 없이 단지 집단적으로 같은 작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일제히 단결하여 수일간 파업을 유지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1 박재환, 2004,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부산인의 신 생활풍속」, 부산발전연구원, p.15.

▼2 유현, 1990, “1920년대 노동 운동의 발전과 원산 총파업”, 「사회와 역사」, 19권, p.159.

▼3 윤영삼, 2004, 「부산항의 노사관계」, 부경대학교출판부, pp.75-76.



### 3) 관련 자료

#### ▷ 사진 기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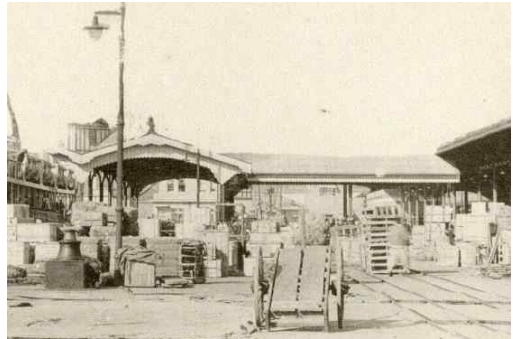
부산부두 총파업이 시작된 제1부두 전경

©拓殖新報社(釜山案内記,1915.)



부산부두의 노동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부두 잔교의 노동 현장(1934년)

©釜山出版協會



부산부두 총파업 관련 동아일보의 기사들(1921년 10월)

©동아일보



### ▷ 논문 및 저서

- 박재환, 2004,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부산인의 신 생활풍속」, 부산발전연구원.
- 윤영삼, 2004, 「부산항의 노사관계」, 부경대학교출판부.
- 유현, 1990, “1920년대 노동 운동의 발전과 원산 총파업”, 「사회와 역사」, 19권.

### ▷ 신문기사

- 1921.09.22. 동아일보, 「부산노동자의 파업」
- 1921.10.01. 동아일보, 「삼십일도 계속 파업」
- 1921.10.02. 동아일보, 「부산 노동자 복업(復業), 십일에 쌍방이 협의한 결과 일할 내지 일할 오분식 임금을 올리기로 운송업자의 의견이 일치되야 즉시 복업, 검거된 네 명은 검사국에 압송」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부산 부두 총파업’, ‘부산 부두를 밟고 다닌 부두 노동자’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https://i815.or.kr/>) ‘국내사적지 : 부산항-부두노동자 파업투쟁지’



## 1. 유산별 심화연구

### 1.9 어묵



#### 1) 개관

대상	어묵	소재지	부산 전역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29호
형성시기	근대	형태	유형 - 음식 무형 - 제조기술, 업체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 여러 기록에서 어묵의 유래가 전해짐</li> <li>·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식 어묵인 '가마보코' 제조를 위한 공장들이 생겨남</li> <li>· 한국전쟁을 전후해 중구 부평동, 영도 등지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며 부산에서의 어묵 생산이 본격화 됨</li> <li>·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공업진흥 정책이 추진되었고 어묵제조 업체들이 기계화 공정을 도입하면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li> <li>· 1980년대 후반 어묵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부산지역 어묵제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음</li> </ul>		



### 보존 필요성

- 부산 지역의 어묵제조 업체들은 협동과 단결을 통해 어묵제조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였고 1990년대 초반 무렵 전국적으로 ‘부산어묵’이 어묵의 대명사가 되었음
- 2013년 부산어묵제품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어묵제조업체들은 부산어묵의 산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통브랜드를 만들어 로고와 기업이미지통합을 특허청에 등록하였음
- 한국전쟁 중 어묵은 피란민들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었고, 이후 산업화 시기에는 서민들의 주요 반찬거리 중 하나였음
- 어묵 함유량 70% 이상, 어육 중 살 함유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조건을 기본으로 하는 부산어묵은 국내 어묵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음
- 부산어묵이라는 브랜드는 지역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대표 산물 중 하나이며, 부산 사람들의 혼이 깃든 부산의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음

### [설명문]

‘부산어묵’은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선살을 원료로 하는 향토음식이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주재료인 수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인이 경영하는 어묵 공장이 생겨났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중구 부평동과 영도 등지에 소규모 어묵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 100여 곳의 어묵 업체 가운데 45개 업체가 부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부산지역 생산량의 70%를 서울 등 외지로 판매할 만큼 부산은 어묵 시장에서 강력한 위상을 갖고 있다. 부산어묵 업체의 공동 브랜드인 ‘부산어묵’은 여타 어묵보다 가격이 10~20% 비싸다.

어묵은 사계절 사랑을 받지만 특히 겨울철의 대표적인 먹을거리로, 부산에서는 ‘오뎅’, 또는 ‘깡또(간또)’ 등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어묵과 오뎅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사전에서 ‘오뎅’은 어묵의 잘못된 표기로, 어묵이 올바른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식품 업계에서는 어묵과 오뎅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뎅은 어묵을 주재료로 하고 곤약·달걀·유부·두부 등을 멸치 또는 가쓰오부시 등을 우려 낸 장국에 함께 넣어 익힌 요리(예를 들어 ‘오뎅탕’)를 말한다. 반면 어묵은 생선의 살고기만을 도려내어 소량의 식염을 넣고 갈아서 얻은 연육을 기름에 튀겨 만든 연제품을 말한다.

부산어묵의 주재료는 생선으로, ‘새끼 갈치’로 통하는 풀치와 조기 새끼처럼 생긴 일명 ‘깡치’ 등을 주재료로 삼아 가공한다. 조기·도미 등 고급 어종도 섞고 갈치 역시 소량이지만 포함된다. 조기·도미 등은 탄력을 높이는 데 좋고, 갈치는 맛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연근해 어획량이 줄면서 어획량이 많고 가격이 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산을 비롯해 미국 또는 캐나다산 생선을 쓰기도 한다.





1940~1950년대에는 맷돌에 생선을 뼈째 갈고 기름 솥에 튀기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뼈를 완전히 제거하고 살코기만 사용한다. 생선뼈를 제거한 어육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잘게 갈고, 소금·설탕·전분·물엿 등 다양한 원료를 첨가한다. 고기를 갈 때 소금을 첨가하면 맛은 물론이고 어육 고유의 탄력성이 생겨난다. 고기를 갈고 나면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하고 ‘가열’한 후 ‘마무리’하면 어묵이 완성된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무렵부터 전국적으로 부산어묵이 어묵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부산 어묵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너도나도 부산 어묵 행세를 하였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부산 업체들은 1998년부터 고유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였다. 2005년 8월 17일 부산 명품 수산물에 2개의 어묵 생산업체가 등록되었고, 전국 단위인 한국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 산하 부산시지부에 머물러 있던 부산어묵 업체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을 출범시켜 재도약을 선언하였다.

부산 명품 수산물에 해당하는 부산어묵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료 어육은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혈액·지방·수용성 단백질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배합 공정 중 냉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얼음 및 냉각 처리수도 음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성분 배합 비율은 어육 함유량 70% 이상으로 어육 중 어육 살 함유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합성 감미료, 합성 착색료, 합성 보존료, 산화 방지제 등은 사용하지는 안 되며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 등의 보존료는 2g/kg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타르 색소는 비검출, 대장균군은 음성, 식용유에 튀긴 제품은 산가 5mg-KOH/g 이하, 과산화물가 60meq/kg 이하이어야 한다.

부산어묵은 다양한 유형의 어묵으로 생산이 다변화 되면서 지역 정체성의 증진과 함께 생산자들의 자부심의 대상이자 지역전략 식품으로써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 2) 관련 내용

어묵은 일본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조선시대의 여러 기록에서도 어묵과 유사한 음식들이 발견된다. 생선숙편, 완자탕, 준치만두 등이 그것인데, 이 요리의 기록들은 우리 조상이 생선의 가시를 먹기 좋게 제거하고 이를 다시 뭉쳐서 갖은 양념을 더해 익혀 먹는 요리에 이미 익숙해있던 것을 반증한다. 다만, 궁중 혹은 양반가의 음식이던 이것들이 이후 외부의 영향과 합쳐져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sup>1</sup>

어묵이 부산에서 시작된 데에는 일본의 영향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가마보코(かまぼこ)라는 생선 어묵을 즐겨 먹고 있었는데, 이는 생선살을 으깨고 반죽해서 튀기거나 찌거나 구운 생선묵 형태의 음식을 말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어묵의 주재료인 수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산에 소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일본인들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가마보코는 부평시장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15년 부산부청 발간 '부평시장월보'에 따르면, 주요 거래 점포 중 '가마보코' 전문 점포 3곳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1924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시장'에서는 '부평시장은 쌀, 가마보코, 채소, 청과물 등이 주종'이라고 소개한다. 일제강점기 부평시장서 시작된 가마보코는 부평동 부근에 들어선 대좌부(貸座敷)란 요정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고급 식재료였다. 대좌부는 일본식 유곽으로 술과 요리, 일본인 창기(娼妓) 등을 윈스톱으로 제공하던 곳. 이곳 대표 요리가 가마보코를 재료로 한 오뎅이었다.





해방 후에 일본인은 떠났지만 공장은 계속 유지되었고 일본 어묵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부평동과 영도 등지에 어묵공장을 세웠다. 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어묵설비와 기술로 우리 실정에 맞게 어묵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본인이 남겨두고 간 어묵설비와 기술로 우리 실정에 맞게 어묵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것. 1945년 한국인으로는 부산 최초로 부평동시장에서 어묵을 생산했던 동광식품(창업자 이상조)이 그 시작이었다. ▼<sup>2</sup>

김동리의 소설 '해방' 속에 이런 문단이 있다.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앞으로 조선이 독립되면 일본말뿐 아니라 옷이던 음식이던 일본 것은 모조리 못쓰게 된다는 소문이였다. (중략) “아니, 정말이여. 신문에까지 났는디. 저 가마보꼬는 참 일본 음식이 아니겠지? 조선 사람들도 잘만 먹으니까.”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여! 아니, 우리는 가마보꼬가 없으면 밥을 먹는 갑잖은디.”(중략) “그것도 본데는 다 일본 음식이지.” “아니, 그럴 리가 있을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도 만 가지 요리에 다 쓰고 있는디. 잔치에 안 쓰나 제사에 안 쓰나?”’

당시에도 어묵이 이미 우리 음식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부산어묵 형태는 그 시절 일본식 기술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생산됐다. 시대 배경은 한국전쟁기. 부산이 피란수도로 피란민의 의식주를 책임지던 시절과 연계된다. 당시 다양한 피란음식이 부산에서 탄생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와 밀면, 곰장어, 부산어묵 등이었다.

부산어묵은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됐다. 당시 시장에서 위판되고 남았거나 상품가치가 없는 생선을 '대수리'라는 돌절구에 함께 넣고 통째로 갈아, 정어리기름이나 고래기름 등에 튀겨내 어묵을 만들었다. 때문에 부산어묵의 원형은 한국전쟁 시절 '막갈이'와 '덴뿌라'로 크게 구별된다. '막갈이'는 생선을 통째로 '갈아내는 것'을 말하고, '덴뿌라'는 갇치(조기 새끼)나 풀치(갈치 새끼) 등 잡어를 갈아 미군 드럼통으로 만든 기름 가마에 넣고 '튀겨내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피란민이 몰려들면서 부산에는 튀김 중심의 값싸고 영양가 높은 어묵이 탄생하고 호황을 누린다. 국민음식 '부산어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1950년대에는 영도 봉래시장 삼진식품(창업자 박재덕)과 영주동시장 환공어묵 등이, 1960년대 이후는 초량시장 영진어묵(창업자 박병수)을 비롯해 미도, 효성, 대원어묵 등이 부산어묵의 서민화를 선도했다. ▼<sup>3</sup> 초기 부산어묵 공장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었고 조리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썩은 생선을 사용한다든가 부패한 기름을 사용한다는 문제였다. 우후죽순 생겨난 어묵공장에서 낮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한 것도 부산어묵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가세했다.

고창이 한 개에 500원에서 600원 정도하는 어묵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서민음식이다. 그래서 어묵집은 IMF 시절에도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원자재 가격 인상과 사업장의 영세한 사정으로 인해 어묵 업체들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부산시는 2007년 '부산 명품 수산물 브랜드'에 간고등어, 기장미역, 다시마와 함께 어묵을 포함하여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대한 '품질 보증'에 나섰다. 주재료인 '풀치', '갇치'라는 생선의 순살 코기에 '조기'와 '도미'를 섞어 탄력을 더하고, 갈치를 섞어 맛을 더 좋게 했다. 또한 업체들이 생



선살 70% 이상이라는 품질기준을 엄격히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부산어묵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어묵에 비해 잘 풀어지지 않고 탱탱한 형태를 유지하며 그 맛도 매우 뛰어난 음식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부산어묵’이라 하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다. 부산어묵은 해방 후 일본인이 남기고 간 공장에서 혹은 일본인의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발전시켜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부산의 음식이다. ▼<sup>4</sup>

어묵은 멸치 다시 국물에 다시마, 무, 꽃게, 파, 청양고추를 넣은 국물 맛이 더해져 더 구수하고 쫄깃쫄깃한 맛을 낸다. 기다란 꼬챙이에 어묵이 한 개씩 꽂혀 있고 이것을 간장에 찍어 먹는다. 간장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떡볶이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

부산에 온 여행객들은 부산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묵 포장마차의 수에 한 번 놀라고 그 국물 맛에 두 번 놀라며 어묵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사실에 세 번 놀라게 된다. 부산에서 어묵은 시장, 학교 앞, 포장마차, 역 앞, 골목 어귀 등 빨리 먹고 갈 길을 가야 하는 그 길목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 납작한 어묵을 고불하게 접어 꼬챙이에 끼운 어묵만 본 사람이라면 많은 종류의 부산어묵을 맛보는 재미에 쏙 빠질 것이다.

최근 부산어묵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진 데에는 어묵이 사람들의 변화하는 입맛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둥글고 길쭉한 막대 어묵과 고불이 어묵 외, 여성들의 다이어트 인식을 반영한 가래떡과 곤약이 가세했다. 여기에 부산어묵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조리과정에서 다양한 재료와 결합한 야채 어묵, 땡초 어묵, 만두 어묵, 잡채 어묵, 유부 어묵이 생겨났다.

연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어묵 포장마차를 지나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한겨울의 저녁, 출출한 퇴근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을 술꾼들도 지나칠 리 없다. 따끈한 국물로 술꾼들을 유혹하는 어묵집은 테이블 가운데 어묵통을 두었다. 어묵집은 어묵통에 다양한 어묵이 있고 그 주위를 삼삼오오 둘러싸고 앉아 국물과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곳으로, 고상할 것 없는 선술집 분위기이다.

최근 들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가정용 부산어묵의 수요가 크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베이커리형, 수제형 등으로 다양화되며 저가 음식이 아니라 프리미엄 선물세로 추세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계기는 베이커리 개념을 최초 도입하여 부산역에서 운영했던 S사 어묵가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부산어묵에 대한 자부심이나 지역 전략산업 식품으로써의 기대 등 긍정적 인식이 높아, 창의성에 기반 한 부산어묵의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sup>4</sup>

▼1 최원준, 2018, 「부산 탐식 프로젝트 맛있는 음식 인문학」, 산지니, p.170.

▼2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부산어묵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pp.56-58.

▼3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부산어묵사」, (재)부산연구원, pp.108-111

▼4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의 음식, 생성과 변화」, (재)부산연구원, pp.72-76.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및 기록 자료



부평깡통시장의 부산어묵 거리



베이커리 개념과 접목된 부산어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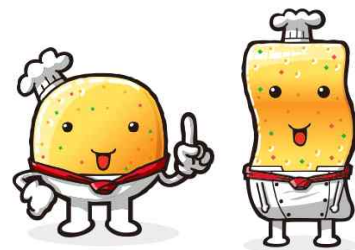
어묵 제조기



삼진어묵역사관 내 어묵제조 과정 모형



어묵을 제조 공정 모습



동글이

사각이

부산어묵 캐릭터

©부평어묵특화거리



배 합

손질된 각종 재료와 어육을 정해진 비율 (밀가루대비 80% 이상 어육배합)로 배합하는 과정.



성 형

만들어진 반죽을 기계 / 도구를 활용하여 각 제품의 특성에 맞게 모양을 만드는 과정.



튀 김

성형된 반죽을 정해진 식물성 기름(중심온도 85℃ 이상)에 튀겨내는 작업.



냉 각

튀겨낸 고온의 어묵을 냉각기를 통해 포장작업 전 식혀내는 과정.



포 장

식혀낸 어묵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포장하고 검출기를 통해 최종점검.



출 하

포장 완료된 신선한 제품을 분류하여 각 지역으로 안전하게 배송.

어묵의 생산공정

©미도어묵



▷ 논문 및 저서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의 음식, 생성과 변화」, (재)부산연구원.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부산어묵사」, (재)부산연구원.
- 최원준, 2018, 「부산 탐식 프로젝트 맛있는 음식 인문학」, 산지니.

▷ 신문기사

- 2011.03.10. 부산일보, 「[부산의 老鋪] ① '부산어묵' 삼진식품·영진식품」
- 2016.03.15.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9> 오뎅과 어묵(하) 부산어묵, 보물이 되다」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부산어묵'
- 지역N문화 홈페이지(<https://www.nculture.org/>)
  - 1) 우리집의 맛과 향, 향토음식 <부산 특유의 명물 식품으로 도약하다, 부산어묵>
  - 2) 우리집의 맛과 향, 향토음식 <어묵의 새 변화, 고급 간식이 된 어묵>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0 기장 대멸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1) 개관

대상	기장 대멸치	소재지	기장군 기장을 해변리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30호
형성시기	-	형태	유형 - 특산물 *무형 - 멸치털이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멸치는 18세기 이후 저술된 어류학 관련 서적과 토산물을 소개하는 서적에서 행어(行魚), 멸아(鰵兒), 멸어(鰵魚), 추어(鰵魚) 등으로 칭한 사실을 통해 조선시대부터 다량으로 어획했던 어류로 정의됨</li> <li>기장 대멸치에 대한 공식 기록은 1910년 발행된 「한국 수산지」를 통해 확인 가능(기장의 주요 수산물 중 조기, 갈치, 청어, 복어와 함께 멸치(정어리)를 소개)</li> </ul>		





### 보존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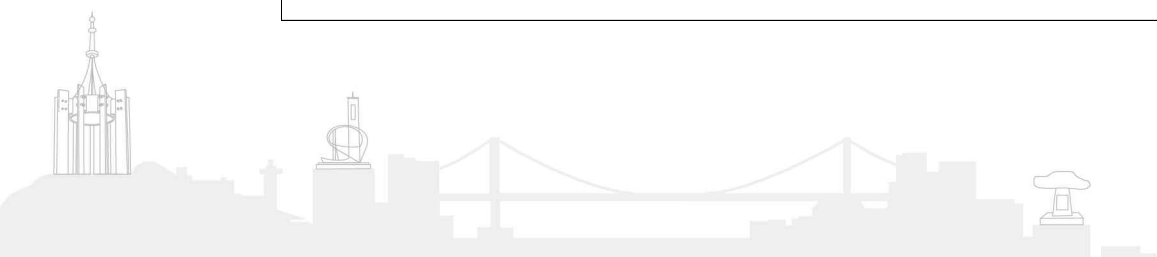
- 기장 대변항의 특산물인 기장 멸치는 10~15cm에 달하는 대멸치로서, 멸치잡이 방식은 기선 유자망 방식으로 봄어기(3월 중순~6월 초순)와 가을어기(12월~1월)에 어획함
- 그물 채 신고 온 대멸치는 항구에 접안 후 '멸치털이' 작업으로 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멸치들을 소금에 절여 젓갈로 담그거나 멸치회 등으로 요리함
- 멸치젓갈은 생멸치와 소금을 8:2로 즉석에서 버무려 판매하는데, 밀반찬, 김장용 양념, 각종 무침에 전통 발효 조미료로 사용함
- 갓 잡은 대멸치는 수협이 경매로 멸치털이 후 도매인에게 바로 판매되어 대변 음식점에서 화·찌개·조림 등으로 요리해서 바로 판매되기도 하고, 인근 노점에서 횡감이나 건조용 멸치로 판매하기도 함
- 기장멸치축제는 1997년 이후 매년 4~5월에 진행
- 기장 대멸치는 2019년 기준 총 271만 7,160kg을 생산, 위판하여 어민 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 대변의 대멸치는 전통 음식문화의 상품화로 대부분 멸치젓갈로 소비되고 있으며, 대멸치와 멸치젓은 지역 명물로 평가 받고 있음
- 멸치잡이의 성어기인 4월에 대변멸치축제가 열려서 멸치 아지매 선발대회, 무료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멸치회를 맛보거나 멸치젓갈을 구매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정도로 기장 대멸치는 지역 특산물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음

### [설명문]

‘기장 대멸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에서 채취되는 멸치를 이른다. 기장 대멸치는 기장군 민의 삶에 깊이 녹아들어 있는 대표적 특산품으로, 그들의 역동적인 삶을 상징하는 기장군의 물고기(군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장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멸치과의 바닷물고기로, 주요 생산 항구는 대변항이다.

멸치는 조선시대부터 다량으로 생산되었던 어종이며,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의 행어(行魚), 1803년에 김려(金鑣)가 지은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에서의 멸아(鰈兒), 1814년 정약전(丁若銓)이 지은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는 추어(鰈魚) 또는 멸어(蔑魚)라고 불렀다.

기장의 멸치잡이 방법은 그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고정자망과 유자망으로 나뉜다. 고정자망은 물에 그물을 고정시켜 지나가는 멸치를 잡는 방식이고, 유자망은 배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멸치의 이동로에 그물을 쳐 잡는 방식이다. 멸치의 조업 시기는 봄과 가을로 나뉜다. 봄에는 3월부터 6월, 가을에는 10월부터 설날까지다. 멸치잡이 어선은 과거 20~30년 전에는 30~40척에 달했으나, 오늘날에는 규모가 커진 대신 어선 수는 13척 정도로 줄었다. 어부들이 잡는 멸치는 중매상의 손을 거쳐 젓갈 생산자 혹은 소비자에게로 넘어간다.





대변항에서 잡히는 멸치는 주로 젓갈, 멸치 회, 멸치 찌개 등의 방식으로 소비된다. 전통적으로는 멸치젓이 유명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음식 문화로서 멸치 회와 찌개가 자리를 잡았다. 멸치젓의 경우에도 봄에 잡는 멸치는 주로 소금 간을 하여 액젓을 만들고, 가을 멸치는 굵기 때문에 육젓으로 주로 활용한다. 과거에는 마을 곳곳에 멸치젓을 담아 숙성시키는 시설이 많았으나 현재 옛 모습은 남아 있지 않다.

대변항에서는 멸치잡이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가 매년 음력 1월 5일을 전후해 열린다. 이웃한 바닷가 마을과 연합으로 돌아가면서 준비하는데, 최근에는 7년에 한 번씩 책임을 맡는다. 일주일 정도에 걸쳐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마을 회관에서 시작하여 4~5곳의 사당을 찾아다니면서 제를 올린다. 축제는 매년 4~5월에 진행되며, 1997년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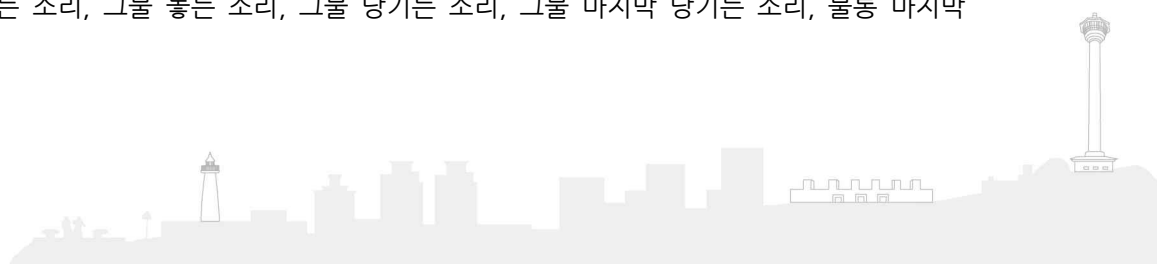
## 2) 관련 내용

후드득, 후드득' 멸치가 튀어 오른다. 봄날, 기장 대변항의 오후. 항구의 멸치배 옆으로 한 무리의 어부들이 그물의 멸치를 털고 있다. 힘찬 후리질로 멸치를 후리는 것이다. 그물을 후릴 때마다 멸치가 하늘로 튀어 오른다, 봄 햇살에 은빛 비늘이 새파랗게 반짝인다.

기장 대변항은 멸치의 고장이다. 전국 멸치 어획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때문에 대변에서는 다양한 멸치음식을 맛볼 수 있고, 깊고 구수한 맛의 멸치젓갈을 사시사철 구입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멸치젓갈 산지이자 유통시장이기때 그렇다. 하여 전국적으로 '대변'하면 '멸치', '멸치'하면 '대변'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특히 젓갈용 '대멸(멸치 성어)'을 어획하기에 '멸치젓갈'의 본고장이다. ▼<sup>1</sup>

기장 대멸치에 대한 기록은 1910년 발행된 「한국수산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는 주요어항으로 기장 대변을 소개하는데, 이 무렵 대변에는 가구 수가 77호인데, 어선이 10척에 이르렀다. 대변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는데, 일본인도 이주해 와 정착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이미 1892년 무렵부터 이주해 왔다. 어장이 넓어 성어기에는 먼 곳에서 와서 고기를 잡기도 하였다. 주요 생산품은 조기, 갈치, 청어, 멸치(정어리), 복어 등이었다. 그런데 일본 측 자료에는 대체로 정어리와 멸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일본어 '鰯(いわし)'은 두 가지를 모두 혼용해서 사용한다. 1942년 출판된 「조선 어업 조합요람」(220쪽)에서는 기장의 중요 어류로 정어리(まいわし)와 멸치(ひしこいわし)로 완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멸치잡이 방법은 그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고정자망, 유자망으로 나뉜다. 고정자망은 물에 그물을 고정시켜 지나가는 멸치를 잡는 방식이고, 유자망은 배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멸치의 이동로에 그물을 쳐 잡는 방식이다. 이 방식 또한 배 한 척을 사용하느냐 두 척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변에는 주로 배 한 척이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멸치 이동로에 그물을 쳐, 멸치가 그물코에 걸려 잡는 방식이다. 기계를 이용하여 그물을 감아올린 후 물으로 와서 그물을 털어 멸치를 얻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어부들에게는 힘든 그물털이를 잊게 해주는 노동요도 만들어졌다. 이 노동요는 기장군 내 장안, 임랑, 월내 등 여러 포구에서 전해지며, 예를 들어 월내의 '후리소리'는 노 젓는 소리, 그물 놓는 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 그물 마지막 당기는 소리, 불통 마지막



후는 소리, 후리 소리, 고기 퍼내는 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소리는 멸치를 후리는 각 과정에 가창되는 메기고 받는 선후창 형식으로 불린다.

① 노 젓는 소리

여-사/ 여-사/ 이여란차 여-사/ 이여란차 여-사.

② 그물 놓는 소리

여-차/ 여-차.

③ 그물 당기는 소리

여-차 여-차/ 힘차기 땡기봐라/ 후리 얼른땡기소/ 얼른땡기라/ 여-차 어서땡기라/ 더디땡기라/ 여-차 문전에 학탄선가/ 오락가락 왕래하네/ 여기여차 돌리보소/ 얼른얼른 돌리보소/ 오동추 만사춘은/ 가지가지 봄빛이요/ 만학천봉 높은봉에/ 두견이 발을갈고/ 삼신산 불로 초로/ 여기저기 심었더니/ 문전에 학탄선가/ 오락가락 왕래하네.

④ 그물 마지막 당기는 소리

여-사/ 여-사.

⑤ 불통 마지막 후는 소리

어-어사/ 어-어사/ 가래여.

⑥ 후리 소리

예-사/ 예-사/ 어랑성/ 가래여/ 가래여/ 이 가래가/ 누 가래고/ 이 가래는/ 기장군 가래로다 /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정든님 따라서/ 어서 가자.

⑦ 고기 퍼내는 소리

어영창 가래야/ 어랑성 가래요/ 천낭판도 여게서난다/ 만낭판도 여게서난다/ 진사급사도 여게서난다/ 정승판서도 여게서난다/ 서발조끼 다드간다/ 먼데사람은 구경만하소/ 짚에서 람은 일만하소/ 어랑성 가래요. ▼<sup>2</sup>

멸치의 조업 시기는 봄과 가을로 나뉜다. 봄에는 3월부터 6월, 가을에는 10월부터 구정까지인데, 멸치잡이가 없는 중간에는 오징어, 가자미 등도 잡는다. 멸치잡이 어선은 과거 2,30년 전에는 3,40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규모는 커졌으나 어선 수는 13척 정도로 줄었다. 어부들이 잡는 멸치는 중매상의 손을 거쳐 젓갈생산자 혹은 소비자에게로 넘어간다.

멸치젓의 경우에도 봄에 잡는 멸치는 주로 소금간을 하여 액젓을 만들고, 가을 멸치는 굵어 육젓으로 주로 활용한다. 과거에는 마을 곳곳에 멸치젓을 담아 숙성시키는 시설들이 많았으나 옛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sup>3</sup>

대변에서는 멸치잡이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를 매년 음력 1월 5일을 전후하여 진행한다. 이웃한 바닷가 마을과 연합으로 돌아가면서 준비하는데, 과거에는 4년마다 준비했으나 최근에는 7년에 한 번씩 책임을 맡는다. 풍어제는 마을단위로 준비하는데, 과거에는 가장 깨끗한 사람을 찾았으나, 요즘에는 마을에서 의논하여 결정한다. 일주일 정도에 걸쳐 마을 안녕과 풍어를 기원한다. 마을회관에서 시작하여 4-5곳의 사당을 찾아다니면서 제를 올린다.



기장 대멸치는 멸치회 축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기장의 멸치회 만드는 방법은 「한국 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편)」(1972, 483쪽)에 최초 소개된 것으로 알려진다.

“7-8월에 잡는 길이 10cm되는 생멸치를 소쿠리에 담고 녹두알만한 모래알을 한데 넣고 소쿠리를 잘 붙들고 흐르는 물속에서 흔들면 멸치의 은빛이 다 벗어지고 살이 빨갱게 드러난다. 이 멸치를 술지게미를 푼 물에 잠깐 담갔다 건지면 기름기가 빠진다. 멸치 한 마리씩 대가리를 붙들고 두 쪽으로 죽 찢어 뼈를 발라낸다. 배보에 차곡 차곡 겹쳐 싸서 땃돌로 잠시 누르면 짭 붙는다. 이 회는 쭉갓과 곁들여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다. 술안주로, 밥반찬으로 매우 훌륭하다. 이 법으로 회를 만들면 비린내가 나지 않고 천하일미라 자랑한다. 동래사람이 잘 해 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현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있으나 모래알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과 차이가 난다.

기장멸치축제는 1997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4~5월에 진행한다. 멸치축제는 축하공연, 체험 행사, 상설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 수차례 부산시 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이 축제는 대변항 일원의 청년회, 부녀회, 상가 번영회, 멸치유자망협회, 해조류양식협회, 소형선박협회 등 대부분 지역민들이 참여한다. ▼<sup>4</sup>

그런데 멸치는 바다에서 건져 올리면 스트레스를 받아 이내 죽고 상해버리는 습성 때문에 서울이나 육지에서는 싱싱한 맛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 성격 급한 멸치의 습성 때문인지 멸치는 부산 사람의 기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맑은 혼을 가진 머루치(부산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은 생선은 ‘바다 고래’와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며, 파도보다 더 힘 센 독심을 자랑할 수 있다. 즉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기장 머루치는 곧 죽어 젓갈이 되는 급한 성격을 자랑하지만, 독심 있고 잔정 많은 부산 사람을 대변한다는 점이다. ▼<sup>5</sup>

▼1 2017.04.11.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52> 기장 대변 멸치의 향연」

▼2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기장군 월내 후리 소리’

▼3 김대갑, 2005, 「(영화처럼재미있는)부산」, 산지니, pp.81-82.

▼4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428-430.

▼5 박훈하, 2010, 「부산의 음식 생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부산발전연구원, p.207.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및 기록 자료



멸치를 말리는 기장 어민

©국제신문



제23회 기장멸치축제 포스터(2019)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멸치찌개와 멸치회 한상차림

©국제신문



기장멸치축제 작업

©부산광역시



기장 멸치축제에서의 멸치 잡기

©연합뉴스



기장 대멸치

©중앙일보



### ▷ 논문 및 저서

- 김대갑, 2005, 「(영화처럼재미있는)부산」, 산지니.
-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 박훈하, 2010, 「부산의 음식 생성과 변화」, 부산발전연구원.

### ▷ 신문기사

- 2017.04.11.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52> 기장 대변 멸치의 향연」
- 2021.04.12. 부산일보, 「100만 인파 기장멸치축제… 올해도 코로나19로 취소」

### ▷ 기타 자료

- 기장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tour/>) '기장멸치'
- 기장군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 '멸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기장 멸치와 멸치젓'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기장멸치축제'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기장 멸치'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기장군 월내 후리 소리'
- EBS <세상의 모든기행> '바다의 명장들 5부 유자망에 바친 멸치 인생'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1 구포은행



옛 구포은행

©파이낸셜뉴스

#### 1) 개관

대상	구포은행	소재지	북구 낙동대로 1686 일원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31호
형성시기	1909년	형태	유·무형 - 은행, 청운 윤상은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9년 윤상은, 장우석 등을 비롯한 경남 일대에 거주하는 67명이 합자하여 자본금 25만원(당시 자본금 2만 5000엔, 총 주식 수 500주)으로 구포저축 주식회사 창립</li> <li>· 1911년 임시 주주 총회에서 자본금 50만원, 총 주식 수 1만 주의 은행 업무를 신청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2년 구포저축을 구포은행(자본금 50만원, 총 주식 수 1만 주)으로 전환, 한국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으로 영업을 개시, 구포저축 해산</li> <li>· 1915년 금융 영업을 확장하고자 상호를 구포은행에서 경남은행으로 개칭하고, 부산부 초량지점을 본점으로 정함</li> <li>· 1928년 대구은행과 합병, 경상합동은행으로 개편</li> <li>· 1941년 한성은행과 통합</li> <li>· 1943년 동일은행과 통합하여 조흥은행으로 개편</li> <li>· 2002년 우리은행 구포지점으로 개칭</li> <li>· 2018년 위대한 복구유산 40선에 선정</li> </ul>
<b>보존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선 개통 후 구포역 일대의 상업과 무역업이 발전하며, 상업 자본의 축적을 위해 객주들의 저축계를 발전시켜 설립한 것이 구포저축주식회사이며, 상거래가 활발했던 구포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임</li> <li>- 구포은행은 구포저축주식회사를 모체로 지방에 세워진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음</li> <li>- 주로 부산지역의 무역상을 상대로 한 어음 할인을 주요 업무로 하여 상업 자본을 구하기 힘들었던 한국인들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음</li> </ul>
<b>비고</b>	최초의 명칭인 ‘구포저축’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 [설명문]

‘구포은행’은 개항기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지역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민족계 지방 금융기관이다. 개항 후 새로운 경제질서에 적응하려는 조선인 자본가들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백동화 인플레이션 해소 및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1905년 화폐(재정) 정리사업을 계기로 조선인에게 더욱 필요해진 은행의 설립과 운영은 냉혹한 자본주의화를 위한 과정이었다. 자본이 부족한 상인들은 크게 피해를 입게 되었고, 부산 지역 내 일본인 은행의 지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등 일본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경제 전반에 드리워지게 되었다. 은행경영은 성숙한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심과제였다. 금융 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조선 상인들은 상업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포저축을 설립하게 되었다.

1909년 1월 15일 11시 구포시장 내 은행 사무실에서 구포저축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09년 2월 11일 윤상은, 장우석 등을 비롯한 김해, 양산, 초량, 수정, 부산진 등 경상남도 일대에 거주하는 67명이 합자하여 자본금 25만 원(당시 자본금 2만 5000엔, 총 주식 수 500주)으로 구포저축을 창립하였다.

국권 강탈 이후, 일제가 1911년 회사령을 공포함에 따라 구포저축은 주된 업무를 대부업에서 은행업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하였지만, 1912년 은행령 공포 이후 구포저축은 대부업자로서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었다. 때문에 1912년 6월 23일 구포저축을 구포은행(자본금 50만 원, 총 주식 수 1만 주)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9월 21일 한국 최초의 민족계 지방



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구포은행의 설립과 더불어 구포저축은 해산되었고, 그 자금은 구포은행으로 인계되었다. 구포은행은 자본금 50만 원, 총 주주 수 240명으로 발족하였다. 이 과정 중에서 참여 주주의 근거지가 구포를 넘어 부산 지역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구포은행의 기능 역시 구포지역에서 더 나아가 도시의 상업 이윤을 공유하는 쪽으로 변화하였고, 은행의 경영진 역시 구포 중심의 경영인에서 부산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구포저축은 한국인의 상업 자본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설립 주체는 지역 내 대지주와 상인,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었다. 구포저축은 상인 및 지주를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였으며, 후신인 구포은행은 주로 부산지역 무역 상인을 상대로 한 어음 할인을 주요 업무로 하여 상업 자본을 구하기 힘들었던 한국인들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관련 내용

낙동강은 바다와 내륙을 오르내리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고대 신라가 김해 가야를 정벌할 때 낙동강을 건너기 위해 군사를 집결시켰던 곳이다. 조선전기 삼포의 왜관에서 생활하던 일본인이 서울을 오갈 때 집결하기도 했고, 조선시대 한양으로 보내던 상품들을 모아둔 창고들이 있던 곳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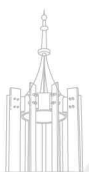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개항과 함께 낙동강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부산 개항장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 상인들도 모여들었다. 낙동강 교통로를 통해 부산항에서 수산물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공산품이 내륙으로 올라가고, 내륙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낙동강을 따라 부산항으로 들어왔다.▼<sup>1</sup>

개항 후 새로운 경제 질서에 적응하려는 조선인 자본가들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1905년 화폐(재정)정리사업을 계기로 조선인에게 더욱 필요해진 은행의 설립과 운영은 냉혹한 자본주의화를 위한 과정이었다. 은행 경영은 성숙한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심과제였다. 때문에 조선인 자본가들은 1910년대 보통은행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sup>2</sup>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낙동강과 기차의 연결점에 위치한 구포가 낙동강권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 내륙과 부산 쌍방의 물자를 중간 거래하는 객주가 많았다. 자본을 축적한 구포 객주는 근대적인 은행이나 학교 설립에도 투자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근대 초기 은행은 상인들의 상업자본을 조달하는데, 학교는 근대적인 생각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항기 구포의 위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지방에 세워진 최초의 민족계 은행, 구포은행의 설립이다. 각 포구에 모여든 조선인 상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상업자본의 조달이었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은행이 있었지만 조선인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기에 철도 개통 후 교통로서 중요해진 구포에서 상업자본 충당을 위한 노력이 펼쳐졌다.▼<sup>3</sup>

당시 설립된 은행들을 살펴보면, 부산의 은행들도 은행령을 전후한 시기와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구포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은 은행령 공포를 계기로, 동래은행과 주일은행은 전쟁 특수로 인한 호황기에 설립된 것이었다. 부산에 설립된 4대 은행 중에서 부산의 본점은행 시대를 연 최초의 은행은 한국계 구포은행이었다. 구포은행은 은행령 이후 신설된



한국인 최초의 (지방)은행이기도 했다. ▼<sup>4</sup>

구포은행을 설립한 윤상은은 구포 출신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근대적 인물인 박기종의 막내 사위였다. 박기종은 개항 전 일본인을 상대로 한 통역관으로 개항 후 조선인 상인들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위해 상업회의소를 만들었으며, 부산 최초의 경찰관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과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낙동강을 운항하는 기선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업적은 최초로 민간인 철도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부산 근대사를 설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sup>5</sup>

	구포(경남)은행	부산상업은행	동래은행	주일은행
설립신청 (설립인가일)	(1912.4.19)	1912.7.29	1918.4.27 (1918.8.3)	1917.6.8 (1918.4.11)
영업개시일 (창립일)	1912.9.21 (1912.6.23)	1913.4.21 (1913.3.6)	1918.8.14 (1918.8.3)	1918.6.25 (1918.6.25)
공칭자본금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불입자본금	125,000원	125,000원	125,000원	125,000원
발기인	張禹錫, 姜信鎬, 金錫準, 尹相殷, 申永祚 등	萩野彌左衛門, 李圭直, 주로 일본인 수십명	尹柄準, 秋鍾樺, 朴仁杓, 吳太煥, 金炯贊 외 16인	金弘祚, 崔演國, 孫永瞰, 金錫準
주요임원	두취(李圭直)/전문취제역(張禹錫)/취제역(李圭直, 張禹錫, 尹相殷, 金福太, 大池忠助)/상담역(迫間房太郎), 감사역(尹相殷, 吳道甚吉)	대표취제역(萩野彌左衛門)/취제역(竹下佳隆, 山本純一, 小倉胖三郎, 張吉相, 萩野竹之助, 樺山助市)/감사역(松前才助, 豊泉徳次郎, 吉岡卯一郎, 松尾重信, 李圭直)	두취(尹柄準)/전문취제역(秋鍾樺)/취제역(尹柄準, 秋鍾樺, 朴仁杓, 吳太煥)/감사역(朴致瑛, 金炯贊, 金容祚)	취제역(金弘祚, 崔演國, 孫永瞰, 金錫準)/감사역(金尙憲, 嚴柱元)
본점 주소	부산부 좌이면 구포리 362번지→ 부산부 초량동 619번지(경남은행)	부산부 금평정 17번지	경남 동래군 동래면 복천동232번지	부산부 초량동 553번지
합병 은행	대구은행 (1928.8)	조선상업은행 (1935.6.22)	호남은행 (1933.7.20)	경남(구포)은행 (1919.12.26)
비고	한국계 1915년 1월 24일 경남은행으로 개칭	일본계	한국계	한국계

1910년대 설립된 부산은 4대 은행

출처: 金浩範, pp.94-97

東亞經濟時報史,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pp.11-13, p.17.

徐光云, 韓國金融百年, pp.664-667, pp.710-711.

朝鮮總督府, 1913.4.25., 관보.

朝朝興銀行, 朝興銀行百年史, pp.154-155, pp.160-161, pp.208-209, pp.331-335.

朝朝興銀行, 朝興銀行六十年誌, Pp.303-304.

韓國商業銀行, 韓國商業銀行沿革史, pp.23-24.

韓國商業銀行, 韓國商業銀行七十年史, pp.58.



구포은행은 1909년 1월 15일 11시 구포시장 내 은행 사무실에서 구포저축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09년 2월 11일 윤상은, 장우석 등을 비롯한 김해, 양산, 초량, 수정, 부산진 등 경상남도 일대에 거주하는 67명이 합자하여 자본금 25만 원(당시 자본금 2만 5000엔, 총 주식 수 500주)으로 구포저축을 창립하였다. 구포저축주식회사의 설립 주체는 대체로 구포와 그 인근지역의 지주 및 상인, 지역 유지들이었으며, ▼<sup>6</sup> 조선인 상업 자본의 형성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국권 강탈 이후, 일제가 1911년 회사령을 공포함에 따라 구포저축은 주된 업무를 대부업에서 은행업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하였지만, 1912년 은행령 공포 이후 구포저축은 대부 업자로서 은행업을 겸영할 수 없었다. 그러자 윤상은이 기존 정관 영업 목록에 은행업을 더하여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은행령에 따라 유사 은행이 대부업과 은행업을 겸할 수 없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되었다.

구포저축은 1911년 12월 9일 임시 주주 총회에서 자본금 50만 원, 총 주식 수 1만 주의 은행 업무를 신청하기로 합의하고, 지역 경제인들이 모집한 6천 주와 대구, 진주 등 영남 지역 내 4천 주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1912년 6월 23일 구포저축을 구포은행(자본금 50만 원, 총 주식 수 1만 주)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9월 21일 한국 최초의 민족계 지방 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구포은행의 설립과 더불어 구포저축은 해산되었다. 구포저축의 자금은 구포은행으로 인계되었다. 구포은행은 자본금 50만 원, 총 주주 수 240명으로 발족하였다. ▼<sup>7</sup> 구포은행 설립 시 은행장인 두취(頭取)역에는 이규직(李圭直)이 맡았고, 실상 은행의 산파였던 장우석은 전무역, 윤상은은 감사역을 담당하였다. ▼<sup>8</sup>

1912년 구포은행으로 바뀌면서 부산의 상인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1915년 제1차 세계 대전에 따른 호황기에 접어들어 금융 영업을 확장하고자 하여 상호를 구포은행에서 경남은행으로 개칭하고, 부산부 초량지점을 본점으로 정하였다. 주 영업대상은 부산의 상인들이었다. ▼<sup>9</sup>

구포은행은 구포와 그 주변의 상인 및 지주를 상대로 하는 대부업이 주목적이었다. 구포은행은 부산지역 무역상인을 상대로 한 어음할인이 주요 업무였고, 은행 이익에서도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1920년대 초 불경기로 어음할인의 비율은 줄어들고 어음대부가 증가하였으나 낮은 대부이자 때문에 은행 수익의 대부분은 여전히 어음 할인에 의존하였다. 한편 예금은 안정적인 자금 공급 방법이었던 정기예금은 아주 적은 상태였고, 어음결제에 필요한 긴급자금인 당좌예금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구포은행의 예금과 대출 구성에서 철저히 상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구포은행의 본점이 구포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고, 중심세력이 구포사람에서 부산사람으로 바뀐 것은 구포를 중심으로 한 민족자본의 기반이 부산을 기반으로 한 일본자본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즉 일본인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자본을 키우려 했던 구포은행의 목표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윤상은은 빼앗긴 경영권 회복에 매진했다. 낙동강 하류 뿔 발이었던 맥도를 매입하여 개간하여 2천 석 토지로 만들어 자본을 확보한 뒤 1917년 1,001주로 최대주주가 되고, 전무로 실무를 맡게 된다. 윤상은이 경영권을 되찾은 후 마산과 하동에 지점을 설치하고, 부산진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만큼 경남은행은 영업 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sup>10</sup>

1918년 주일은행 합병을 계기로 부산에서 상업회사에 종사하기 위해 물려든 경남 지역의 지주들이 대거 가세했다. 이 시기에 참여한 주주들은 은행의 대주주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상업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 초 경기침



체로 이들은 사업에서 실패해 부산에서 활동을 중지하면서 주주 대열에서 탈락해 갔다. 반면 부산 인근의 밀양, 대구 등 대지주들은 대주주로서 주식을 늘이거나 새롭게 참가하면서 은행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sup>11</sup>

1920년대 초 경기침체의 상황은 구포은행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적립금의 증가, 예대율의 안정, 차입금 감소 등 안정성 있는 경영실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와 조선은행은 강제로 대구은행과 통합을 단행하였다. 1928년 7월 31일 통합된 경상합동은행은 본점을 대구에, 부산에는 지점을 두었다. ▼<sup>12</sup>

이처럼 부산의 민족은행이 없어진 것은 조선인들의 성장기반이 없어졌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후 부산에서 조선인 자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일본인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갔다. 결과적으로 조선인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런 이유는 해방 후 부산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자본가 층의 형성을 가로막은 요인이 되었다. ▼<sup>13</sup>

- ▼ 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pp.174-176.
- ▼ 2 차철욱 2001,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제9호.
- ▼ 3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pp.174-176.
- ▼ 4 김호범 외2명, 2009, “식민지기 본점은행의 설립과 해체: 부산 3행의 경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권 4호, pp.684-685.
- ▼ 5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pp.174-176.
- ▼ 6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구포저축’.
- ▼ 7 차철욱, 2001,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제9호.
- ▼ 8 부산근대역사관, 2010, 「부산의 근대 자본가 청운 윤상온의 일생」, 부산근대역사관, p.62.
- ▼ 9 차철욱, 2001,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제9호.
- ▼ 10 부경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 202p, 선인, 2004년.
- ▼ 11 차철욱, 2001,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제9호.
- ▼ 12 경상합동은행은 이후 조흥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오늘날의 우리은행으로 이어졌다.
- ▼ 13 차철욱, 2001,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제9호.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우리은행 구포지점(옛 구포은행)의 모습



우리은행 후면



정초



북구유산 명패



구포은행 명패



윤상언이 사용했던 도장들  
©부산근대역사관



경남은행 기념품 은잔  
©부산의 근대 자본가 청운 윤상언의 일생





▷ 사진 기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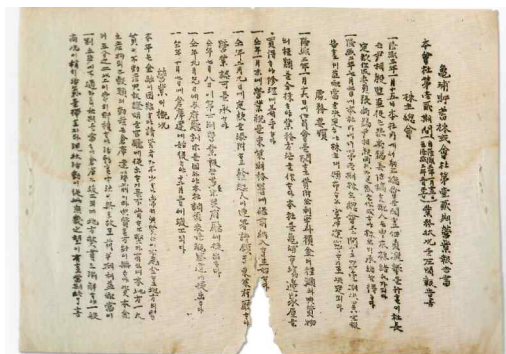
20대 시절의 청운 윤상은

©부산근대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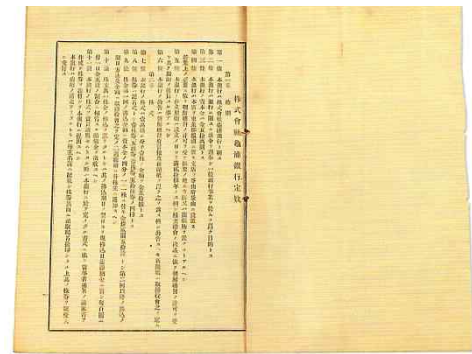
언론에 비친 윤상은(국제신문)

©부산의 근대자본가 청운 윤상의 일생



구포저축주식회사 제 1·2기영업보고서

©부산의 근대자본가 청운 윤상의 일생



주식회사구포은행 정관

©부산의 근대자본가 청운 윤상의 일생



구포은행과 경남은행의 영업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청



▷ 논문 및 저서

- 김호범 외2명, 2009, “식민지기 본점은행의 설립과 해체: 부산 3행의 경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권 4호.
- 차철욱, 2001,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제9호.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 부산근대역사관, 2010, 『부산의 근대 자본가 청운 윤상은의 일생』, 부산근대역사관.
- 부경역사연구소, 2004,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 선인.

▷ 신문기사

- 2010.07.02. 부산일보, 「“윤상은 아시나요?”」
- 2016.05.18. 부산일보, 「[류승훈의 부산 돋보기] 구포은행과 윤상은」

▷ 기타 자료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윤상은’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구포저축’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2 근대 조선업 발상지



근대 조선 발상 유적지 비

#### 1) 개관

대상	근대 조선업 발상지	소재지	영도구 절영로 82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32호
건립시기	1887년	형태	유적비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87년 10월 다나카 와카타로(田中若太郎)는 최초 근대적 조선회사인 '다나카(田中)조선철공소'를 설립</li> <li>· 대포포 매축 후 1920년대에 현 우리조선㈜ 자리로 조선소를 이전</li> <li>· 1989년 11월 부산 조선업에 종사하던 실업인 친목 단체인 반류회(伴流會)는 현 대평초등학교 자리가 한국 조선 산업의 기원이 된 곳임을 확인</li> <li>· 회원 37명의 뜻을 모아 '한국근대조선발상유적지(韓國近代造船發祥遺跡地)'라는 이름의 유적비를 건립</li> </ul>		
보존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설립지</li> <li>· 비록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조선소이지만 한국 조선산업을 이루는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였음</li> <li>· 우리나라가 수리조선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근거로 볼 수 있음</li> </ul>		



## [설명문]

우리나라의 ‘근대 조선업 발상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65번지에 있는 대평초등학교 교정이다.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설립지임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있다. 1989년 11월 17일 부산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던 실업인 친목 단체인 반류회(伴流會)는 영도구 남항동 2가에 있는 대평초등학교 자리가 한국 조선산업의 기원이 된 곳임을 확인하고, 회원 37명의 뜻을 모아 ‘한국근대조선발상유적지(韓國近代造船發祥遺跡地)’를 건립하였다. 비록 일본인 회사였지만, 1887년 10월 다나카 와카타로(田中若太郎)가 그곳에 설립한 다나카조선철공소(田中造船鐵工所)는 소형 목선을 건조했던 국내 최초의 근대적 조선회사였다.

한국근대조선발상유적지 비석은 직사각형의 오석으로 가로 180cm, 세로 90cm, 폭 24cm이다. 앞면에 비명, 뒷면에 비문이 새겨져 있다. 1세대 조선 기술자이자 한국 조선업의 역사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서울대 김재근 교수가 비문을 작성하고, 당시 반류회 회장이었던 윤종근이 글씨를 새겼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살아온 우리는 예로부터 해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배 만들기에 능숙했다. 신라의 장보고 대사, 고려의 최무선 도감, 조선의 이순신 장군 등이 바다에서 활약한 우리 역사에는 원나라와 연합하여 일본에 원정할 때 만든 튼튼하기 그지없는 고려식 군선, 임진왜란 때 종횡무진 활약한 거북선 등 훌륭한 배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런 유구한 전통이 오늘날 되살아나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 강국이 되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일찍이 새로운 조선 기술이 도입된 이후 조선인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이 땅에 근대식 조선소가 처음으로 들어앉은 시기는 조선조 말엽 고종 24년(1887)이고 그 자리는 부산 영도 섬의 해변이 매립되기 전의 남항동 2가인 이 지점이다. 그것이 비록 외국인의 손에 의해 설립된 목선 조선소이기는 하나 조선 한국을 이루는 한 이정표가 된다. 조선 및 관련 분야의 발전에 힘쓰고 있는 우리 반류회(伴流會)는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한국 근대 조선 공업이 발상한 이 자리에 이 빗돌을 세우다.’

비록 어떤 흔적도 없이 최근에 건설된 유적비만이 남아 있지만, 세계 최강 한국 조선산업의 발상지이자 역사적 기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적지이다.

## 2) 관련 내용

영도는 중심부에 자리 잡은 2개의 산(395m의 봉래산, 250m의 태종산)으로 인해 남서 사면(바다 쪽)은 급경사이고 북동 사면(내륙 쪽)은 완만한 지형을 이루는, 약간 길쭉하며 둥근 형상이다. 그래서 남서 사면과 북동 사면의 쓰임새가 전혀 다르고, 육지 쪽과 바다 쪽의 모습이 180도 달라 보인다. 결과적으로 영도는 완만한 사면의 내륙 쪽만 심하게 개발된 특이한 모습이 되었다.

▼<sup>1</sup>

영도에서도 특히 대평동은 갈고리 모양으로 육지 깊숙이 파고 들어온 바다와 갯벌로 인해 풍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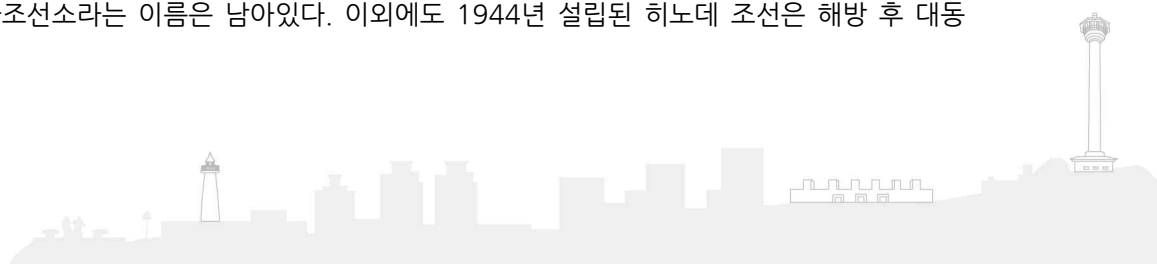
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배들이 왕래하고 바람이 불면 피하던 항구가 있었다. 이름도 '대풍포'라 불렸다. 이곳은 소형 조선소 단지로 적합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북항과 남항 일대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매축공사와 부두시설공사도 이후 영도를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일본과 조선을 오가는 배들이 늘어나면서 간단하게나마 그 배들을 수리할 곳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sup>2,3</sup>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다나카철공조선소의 이름이 생소한 이유는 '다나카'가 일본인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고베 출신 일본인 조선사업자인 '다나카 와카타로(田中若太郎)'는 1987년 부산으로 건너와 남포동 자갈치 해안에서 목선 제조업을 시작한다. 그러던 1912년, 지금의 영도 대평초등학교 자리에 목선을 만드는 '다나카 조선철공소'를 설립했고 이후 1916년부터 1926년까지 10년에 걸친 대풍포(대평동 강강이마을의 옛 이름) 매축공사 후에는 현재 우리조선(주) 자리로 조선소를 옮긴다. 다나카는 원래 남포동 자갈치 해안에 자리를 잡았다. 물살이 제법 세다는 자갈치 해안에서 배를 수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다 그는 자갈치 해안 맞은편에 있던 대풍포로 공장을 옮기게 된다. 이곳에 최초의 조선소가 입지한 이유는 예전부터 조선시대 목선을 수리하는 소규모 전통조선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일부자료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sup>4</sup>

다만 대풍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임진왜란 때부터 사츠마보리라는 지명으로 불리며, 임시로 배를 정박하기 위한 피난정박항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낚시 바늘 모양의 모래톱 지형이었던 대풍포는 안쪽 깊숙이 만이 형성되어 있어 풍랑의 피해가 거의 없는 천연 방파제 같은 곳으로 조선업을 하기 알맞은 곳이었다. 이러한 피난정박항의 기능으로 배가 정박할 동안 운항에 필요한 수리 등이 병행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형조건 또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하여 배의 수리가 가능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sup>5</sup>

대풍포에 다나카 조선소가 설립된 이후 다른 조선소들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부산항(지금의 북항) 일대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매립공사와 부두 시설공사로 이를 대체할 만한 선박 건조 및 수리 지역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었다. 대평동으로 옮긴 다나카 조선철공소에서는 바람이나 증기가 아닌 엔진으로 동력을 얻는 목조 선박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하게 된다. 대평동을 일컬어 '대한민국 근대 조선산업 1번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비록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한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로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게 한 발판이 되었다. 1938년경에는 일제의 전시 공업화 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직공 100~200명 규모의 대규모 조선소로 성장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귀속기업체로 접수되었고 1956년 한국인에게 270만 환에 불하되어 대양조선철공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 후에도 구일조선, 남양조선, 유진 등 여러 번 사명과 주인이 바뀐 끝에 현재는 '우리조선'으로 이어지며 그 역사를 계속 써 나가고 있다. ▼<sup>6</sup>

다나카철공조선소가 설립된 후 대평동 일대에는 크고 작은 조선소와 수리조선소 60여 개가 들어섰다. 나카무라조선소와 나카모토조선소 등이 대표적이다. 나카무라 규조는 1893년 부산으로 이주하여 남포동에서 철공소를 운영하다가 1902년 대평동으로 옮겨 조선소를 설립했다. 이곳에서 '조선기선'이라는 새로운 선박을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 마쓰후지·사에구사 조선소와 통합되어 동아조선이 되었다가 해방 후에는 미군정의 귀속 업체로 지정되었다. 1951년 오재원·김동문 등 4명에게 공동 불하된 이후 몇 번 주인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동아조선소라는 이름은 남아있다. 이외에도 1944년 설립된 히노데 조선은 해방 후 대동



조선공업으로 넘어갔고, 이후 2001년부터 마스텍 중공업의 한 부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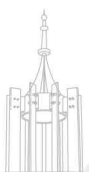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다나카철공조선소가 설립되었을 때 한국의 전통 조선소와 새로 설립된 일본의 조선소는 서로 병립하는 형세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전통적 조선방식을 고집하던 한국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일본 조선소가 독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30년대 말에는 일본의 대륙 침략을 계기로 한반도에서도 전시체제가 구축되고 공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일본인 조선소들은 더욱 성장했으며 대형 공장들도 점차 들어서게 되었다. 선박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했지만 동력선, 무동력선 모두 양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각 조선소마다 선박 건조 기회가 많아졌다. 이는 기술의 발전을 불러와 소형 엔진 같은 경우 자체 제작도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대형 선박은 간단한 수준의 정비만 아니면 대부분 일본에서 해결했다. 1940년대 들어 일본의 전세가 악화됨에 따라 조선업도 위기를 맞았다. 1945년 해방 이후 영도의 일본인 조선업체들은 껍데기만 남기고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소형 조선소는 3~4개씩 통합되어 한국인에게 불하되었다.

다나카철공조선소 역시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총독부 ‘전시계획조선(戰時計劃造船)’에 참가하여 전쟁물자 운송과 병력동원을 위한 선박을 만들었다. 그러던 중 다나카철공조선소의 운명도 일제의 패망과 함께 끝난다. 해방으로 미군에 의해 접수된 다나카 조선소 시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관되어 주두홍(朱斗洪)이라는 민간인에게 불하된다. 이후 대양조선철공, 구일조선, 남양조선, 유진조선, SNK조선(株)로 사업자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다가 현재는 우리조선(株)라는 이름으로 이어오고 있다. 해방 이후 다나카 조선소를 비롯해 대평동에 있던 조선소를 불하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갯강이마을을 7~80년대 수리조선업의 메카로 성장시켰다. ▼<sup>7</sup>

대평동 일대에서 시작된 조선업은 점차 영도 북부 봉래동과 청학동으로 확산되었다. 1920년대 부산항 곳곳에서 항만 매축 공사가 성행할 때 영도의 봉래동과 청학동 일부에도 산지 개간과 호안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37년 7월 ‘조선중공업’이 이 터에 들어섰다. 이때는 일제의 침략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으로, 함정 및 군수물자 수송선 등 대형선박의 수리 시설과 강철 선박 건조가 절박했다. 대평포는 주로 소형 선박을 육지로 끌어 올려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선박의 수리에는 적합하지 못했다. 대형선은 선거(船渠) 시설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가운데 설립된 조선중공업은 대형 선박을 수리하고 2,000톤급 이상의 대형 강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선소였다. ▼<sup>8</sup>

1941년 군국주의 일본이 도발한 하와이 진주만 기습사건으로 시작되는 태평양전쟁은 모든 조선업체를 군수공장으로서 강제 징발하기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설비 규모가 컸던 다나카철공조선소는 수송선 건조를 비롯한 군수경기를 타면서 단단히 한몫 보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기세등등하던 일본이 전쟁 2년이 지나면서 폐색이 길어가던 1943년 겨울밤, 다나카철공 조선소에 까닭 모를 불이 나서 급기야 큰불로 변하고 군수공장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되어버리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시기적으로 이 시기는 1937년에 시작한 중일전쟁이 1941년의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국가(敵對國家)가 되어 피비린 내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을 무렵이어서 타나카 조선철공소 화재사건은 엉뚱하게도 부산에 정착한 화교들에게 화살이 쏠린다. 이들 화교 40여 명은 주로 청요리집이나 호떡집을 경영하면서 밤늦은 시간이면 서로의 영업점을 찾아 서로 위로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었는데 일본 헌병대는 적성국가 사람인 이들에게 엉뚱하게도 어처구니없는 허위 날조 사건을 꾸며 올가미를 씌었다. ▼<sup>9</sup>





조선중공업은 해방 후 1950년 1월 대한조선공사로 재탄생했다. 기존의 설비에 새로운 기술과 시설을 더하여 제법 선진화된 조선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72년 1만 8,000톤급 ‘판코리아호’를 건조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 미래 조선 강국을 선포한 이래, 한국의 조선 산업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자타 공인 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라는 이름으로 이어가다가 경영 악화로 매각 절차를 밟았다. 2020년 12월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 NH, 오피스프라이빗에쿼티 등으로 구성된 동부건설컨소시엄을 한진중공업 지분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130년 역사의 대평동 수리조선소길 4km에는 아직도 선박정비 부품업체들이 가득하며 해안에는 수리를 위해 정박해 있는 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구할 수 없는 부품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고장 난 부품이나 수리 중 떨어져 나온 쇳덩이는 또다시 고철이 되어 재활용된다. 동네 곳곳에 유난히 고철상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히 바다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되곤 한다. 그러나 이곳 대평동의 바다는 다른 어떤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불꽃 튀는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 가운데 우렁차게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기름때 낀 선박 부품들을 들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이리저리 잔 걸음을 하는 부품업체 직원들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곳만의 풍경이다. ▼<sup>10</sup>

우리나라 최초로 발동기(엔진)를 장착한 근대식 목선을 만든 다나카철공조선소(현 우리조선<sup>(주)</sup>)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다나카철공조선소의 낡은 외벽은 ‘거리박물관’으로 변했다. 1890년대 영도에 나룻배가 다니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강강이마을 수리조선 산업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마을 연대기도 작성되어 있다. 달과 프로펠러 등 버려진 오브제로 사라져 간 강강이마을의 흔적을 담은 우징 작가의 ‘철로 소리를 만들다’도 인상적이다. ▼<sup>11</sup>

- ▼ 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pp.36-37.
- ▼ 2 부산광역시, 2020,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 3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pp.36-37.
- ▼ 4 강강이예술마을, 2017, 「강강이예술마을 교양서 2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산업」, 영도구, pp.42-43.
- ▼ 5 배연한, 2015, “부산 영도의 도시경관 변천 : 문화경관적 관점”,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2.
- ▼ 6 강강이예술마을, 2017, 「강강이예술마을 교양서 2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산업」, 영도구, pp.42-43.
- ▼ 7 강강이예술마을, 2017, 「강강이예술마을 교양서 2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산업」, 영도구, p.44.
- ▼ 8 부산광역시, 2020,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 9 주경업, 2008, 「부산이야기 99, 부산민학회, p.404.
- ▼ 10 부산광역시, 2020,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 11 김은영, 2018 “ ‘강강이마을’ 에서 발견한 ‘마을회’ 의 힘 ”, 「부산발전포럼」, 170호, p.64.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최초 근대식 조선소(옛 다나카 철공조선소)인 우리조선(주) 전경



강강이마을을 탐방 중인 학생들



강강이마을의 거리 풍경



우리나라 최초 2000톤급 이상 생산이 가능했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옛 조선중공업)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대한민국 1번 도크 상징 조형물



▷ 사진 기록 자료



1926년 다나카철공조선소의 모습

©한국저작권위원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대평포 매축 전, 다나카철공조선소가  
대평초등학교 터에 위치했던 상황 (1911년)



1942년 다나카조선철공소 전경

©부경근대사료소, 강강이예술마을



▷ 논문 및 저서

- 갯강이에술마을, 2017, 「갯강이에술마을 교양서 2 갯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산업-, 영도구, 영도구.
- 김은영, 2018, “갯강이마을’에서 발견한 ‘마을회’의 힘”, 「부산발전포럼」, 170호, pp.62-67.
- 배연한, 2015, “부산 영도의 도시경관 변천 : 문화경관적 관점”,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부산광역시, 2016, 「부산 속 들여다보기」,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2020,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경업, 2008, 「부산이야기 99」, 부산민학회.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 갯강이에술마을사업단, 2017, 「갯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신문기사

- 2012.02.14. 국제신문, 「부산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6> 부산서 출발한 한국의 근대화」
- 2012.11.13. 국제신문, 「[이야기 공작소 <2-3> 영도 스토리텔링 보물 캐기- 영도 조선소 테마거리」
- 2021.10.14. CNB뉴스, 「[데스크칼럼] 동부건설 품에 안긴 한진중공업, 지역경제 거목으로 우뚝서길」

▷ 기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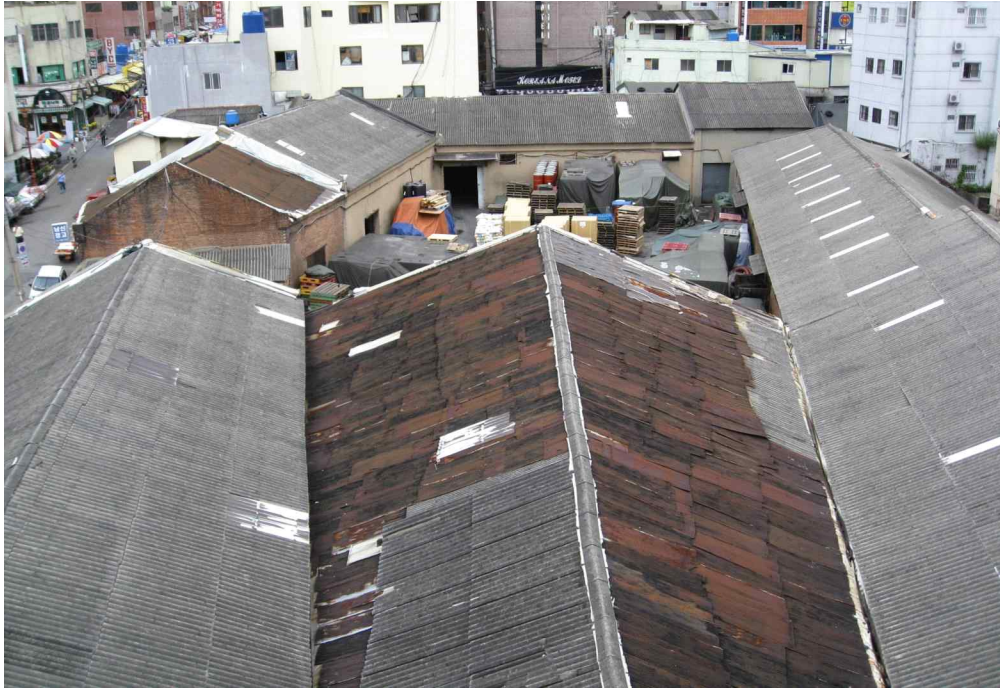
-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스토리아카이브(<http://www.storybusan.com/>) ‘조선소 테마거리’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3 남선창고



#### 1) 개관

대상	남선창고	소재지	동구 초량로13번길 53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33호
건립시기	1900년	건립용도	유형 - 부두창고 (현존하지 않음)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0년 부두 창고 회흥사(會興社) 설립</li> <li>· 1904년 창흥사로 명칭 변경</li> <li>· 1910년 북어창고로 명칭 변경</li> <li>· 1914년 북어창고주식회사로 전환</li> <li>· 1920년 북선창고주식회사로 명칭 변경</li> <li>· 1926년 남선창고주식회사로 명칭 변경</li> <li>· 1937년 이병진 개인 소유로 전환</li> <li>· 해방 이후 공업제품, 합판, 신발, 러시아보따리 상인들의 짐, 가전제품 등을 위탁보관</li> <li>· 2008년 말 철거 시작</li> </ul>		



### 보존 필요성

- 2009년 4월 철거 완료
- 현재 남선창고 담장 일부만 남아 있음
-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적 창고로서, 우리나라 근대 창고업의 효시
- 냉장고가 없던 시기에 명태를 보관하던 창고로 출발
- 조선인의 자본과 물자를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주주와 경영진 모두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1900년대 당시 조선인 상인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 개항기 부산과 함경도를 연결하는 유통망, 한국인 객주들의 성장과 활동을 살필 수 있음. 개항 이후 부산항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유산임

### [설명문]

‘남선창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던 부산지역 최초의 근대적 창고로, 해상을 통해 운반한 명태 등의 수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때문에 ‘초량 명태고방’이라 불리기도 한다. 냉동고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창고의 저장 방식은 바닥에 수로를 만들어 물기를 제거하고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에는 함경도와 서울 간에는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명태의 저장을 위한 창고가 필요했다. 1900년(고종 37)에 초량 객주인 정치국(丁致國)이 함경도 객주들과 힘을 합쳐 부두창고회사인 회흥사(會興社)로 설립하였다. 1910년(순종 4)에 북어창고(北魚倉庫)로 개칭하였고, 1914년에는 북어창고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1914년에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수산물이 직접 서울로 수송되었고, 창고는 부산지역의 객주들만이 이용하게 되었다. 1920년에 북선창고(北鮮倉庫)로 개칭하였고, 이후 경원선이 생기며 뒷지방에 북선창고가 만들어지자 1926년에 이름을 남선창고(南鮮倉庫)로 변경하였다. 1937년까지 초량객주들의 공동 소유였으나 이후 이병진의 개인 소유가 되었다.

2008년 12월에 남선창고 건물이 해체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에 철거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고 창고의 벽돌 벽면만이 보존되어 있다. 남선창고는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적 물류창고로서, 우리나라 근대 창고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 2) 관련 내용

남선창고는 동구 초량동(현 초량로13번길 53)에 위치했던 부산 최초의 근대식 물류창고이다. 1900년 지어져 100년이 넘게 창고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창고 건물들이 철거되면서 현재는 붉은 벽돌 담장만이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

초량은 조선후기 초량 왜관에 인접한 곳이었고, 부산이 개항한 후에는 일본인 전관거류지와 가까워 일본인들과의 무역을 위한 경제적인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sup>1</sup> 개항장으로 일본 상인들이 모여들고, 이들과 조선 상인을 연결시켜 유통을 완성시키는 초량객주들이 모여들었다. 흥정을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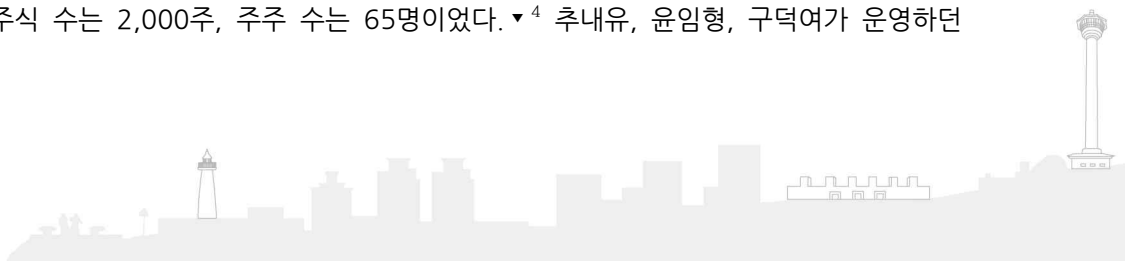
이고 수출입하는 물건을 맡아두는 것이 모두 객주의 역할이었다. 일본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부산은 매력적인 도시였다. 이미 초량왜관이 있었던 곳이라 낯설지 않고, 그들이 살기에 좋은 마을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개항장 주변에 조선인 객주들이 있어 이들을 통해 조선 내륙의 상인들과 연결이 가능했다. 또한 부산이라는 입지가 거래하기에 좋아 상인이라면 부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낙동강이 있어 강을 이용해서 바로 내륙으로 물건을 팔 판로가 있었고, 동해와 남해를 접하고 있으니 해운도 뛰어났다. 1905년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관부연락선 항로가 생겼는데 같은 해 경부선까지 완공되어 서울까지 물품 이동도 쉬웠다. 그러므로 부산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업이 발달하게 되고 창고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나타났다.

1900년 초량에 함경도와 부산 초량 상인들이 부산 최초로 1천여 평이 되는 해산물 보관창고를 세웠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부산토박이 정치국(丁致國) 등이었다. 정치국은 동구 초량동 출신으로 개항 후 객주업을 하다가 인천으로 옮겨가 객주업과 중개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초량의 상황을 잘 아는 정치국은 1900년 초량에 창고를 세우는 ‘창고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때 창고 이름은 회흥사(會興社)였다. 회사는 조선인 자본으로 설립되었고 주주와 경영진도 모두 조선인이었다. 게다가 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 또한 조선인들이 애용 하는 명태와 미역이 중심이었다.

1906년에는 함경도 상인들이 창흥사라는 회사를 세우면서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상인들이 부산항에 있는데, 우리나라 상인의 공동 이익을 보호함을 중요한 뜻으로 창흥사를 조직한다’라고 회사 창립의 취지를 밝혔다. 당시 밀려오는 외국 자본에 맞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스스로 회사를 세우고 뭉치고자 한 내용이다. 함경도 북청 등 명태(북어) 생산지는 창흥사의 지점이 되었다. 부산의 창고에서 명태와 해산물을 보관하였다가 경부선으로 서울로 보내는 루트가 안전하고 빨랐다. 그로부터 5년 후 1911년에는 회흥사의 정치국과 창흥사 창립멤버인 최군천이 자본금을 합쳐 ‘북어수출상조합’을 세우고 1914년에 다시 창고업과 운송업을 하는 ‘북어창고주식회사’란 이름으로 회사를 등기하였다. 상인들은 창고에다 선박으로 운송 되던 함경도 지방의 해산물을 보관하였다. 당시 함경도의 특산물인 명태를 비롯한 해산물은 해상을 통하여 선박으로 부산항까지 운송되었고, 다시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여 경상도와 충청도 등 각 지방으로 보급되었다. ▼<sup>2</sup> 1917년 원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곧 원산지점을 본점으로, 부산본점을 지점으로 변경하였다. 1920년에는 회사의 이름을 북선(北鮮)창고주식회사(북선창고)라고 하였다. 명태를 보관하는 창고라고 해서 ‘명태고방’으로도 불렸다. 오늘날에도 이 창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명태고방’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1914년 서울과 원산 사이를 잇는 경원선(京元線)이 개통되면서 함경도 상인에게 유용한 교통망을 제공했고, 경성이라는 커다란 시장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sup>3</sup> 함경도 명태는 열차를 통해서 소비지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부산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갔다. 함경도 명태가 철도로 서울로 직송될 무렵 함경도 명태 상인들은 전국 명태유통의 경유지로서 매력을 잃은 부산을 떠나 원산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후 부산 객주(중개인)들은 1926년 북선창고 부산지점을 매입하여 남선(南鮮)창고주식회사(남선창고)를 설립하였다. 남선창고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면서 회사의 경영진들은 부산에 활동기반을 두고 위탁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조선인 상인들이었다. 남선창고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민족기업이자 부산 향토기업이었던 셈이다.

출범 당시 주식 수는 2,000주, 주주 수는 65명이었다. ▼<sup>4</sup> 추내유, 윤임형, 구덕여가 운영하던



시절 남선창고는 주주들의 개인별 주식 보유량은 20주, 30주, 46주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 주주가 균등하게 보유했다. 그런데 1939년 이후부터 불균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장경택부터 기존 체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해방 이후 이병진 - 이태조 - 이종배(현 사장)라는 일가족 직계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지배구조가 완전히 굳어졌다.

남선창고는 목조 건물 5동과 47,250톤의 장치능력을 보유하여, 부산 내 다른 사설창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다. 회사가 설립되던 1926년 무렵 자본금 규모를 보면 부산공동창고(주), 대지회조점이 각각 50만 원인데 비해 1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무렵 조선인이 설립한 백산무역주식회사(안희제, 100만 원)를 제외하고는 조선해조주식회사(김좌성, 25만), 관동상회(장경택, 10만)와 비교해 자본금 10만 원의 남선창고는 조선인 회사 가운데서 나름대로 위상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산상업회의소 평의원 선거에서 남선창고 관계자의 지분이 확보되어 있었다. 남선창고 이전 북선창고 시절 이 회사는 1916년 부산의 조선인상업회의소와 일본인상업회의소가 통합할 당시 회원 자격을 영업세 25원 납부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조선인 회사 가운데는 북선 창고밖에는 해당 사업체가 없을 정도로 조선인 회사 가운데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sup>5</sup> 1930년대까지 남선창고가 취급한 상품의 대부분은 수산물이었다.

부산의 다른 사설창고들이 대부분 일본 수출용 쌀과 일본 수입 직물류를 취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것 또한 남선창고만이 지닌 특징일 것이다. 1942년을 넘어서면서 취급 상품의 종류가 크게 바뀌었다. 종전 명태와 미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물이 소수 취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되는 공산품들로 대체되었다. 견직물, 면직물, 교직물, 실 종류 등 직물류, 미싱, 족담기 같은 기계류, 그 외 맥당, 어망, 도기 등 다양한 잡화들이 창고에 기탁되었다. ▽<sup>6</sup>

남선창고에 대한 기록과 해체되기 전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당을 가진 여섯 채의 벽돌 창고였다는 점, 바다와 초량(내륙)을 직접 연결했던 요충지에 자리 잡은 창고였다는 점, 해운(배)과 육운(철도)의 통합화물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북항 매립 전) 수월한 하역작업을 위한 필로티(벽이 없는 건축구조)형 창고였다는 점, 명태 건조와 보관을 위한 대나무 벽이 실내에 있었다는 점, 습기 방지를 위해 바닥 수로와 펌프 시설을 설치했던 수산물 전문창고였다는 점, 그리고 국내 최초로 증권을 발행했던 창고였다는 점 등이다. ▽<sup>7</sup>

필지와 가로패턴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는 1936년 발행지도(釜山府市街圖)와 2004년의 수치지도를 중첩·비교한 결과, 남선창고 일대는 물론 초량지역 전체의 가로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선창고 남측을 지나가는 세가로는 옛 해안대로로 추정되는데, 이 해안로 근처에 배를 정박하고 어물(명태)을 하역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남선창고 동측에 있는 초량천의 복개와 일부 세가로의 변화 이외에는 당시의 도시조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창고 자체의 경우에도 매립으로 인한 창고 수송시스템의 변화(배->화물차량)와 저장물품(명태->다양한 물품)이 외에는 지난 백여 년 동안 창고의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sup>8</sup> 또한, 단 한 차례도 창고 이외 용도로는 전용되지 않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산물, 쌀, 축산물, 신발, 합판, 러시아상 보따리, 전자제품에 이르는 보관 물품의 정확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남선창고는 부산 물류 100년사의 산증인이었다. 즉, 남선창고는 수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조선인이 건립했던 뜻 깊은 창고이자, 2009년까지 부산지역에 현존했던 가장 오래된 최고의 근대식 창고였던 것이다. ▽<sup>9</sup>



100년이 넘는 남선창고의 역사 속에는 항구도시 부산, 항구를 끼고 살아가는 부산사람들의 오롯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도 남선창고는 2008년 12월에서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완전히 허물어졌다. 결국 부산은 이 상징적인 건물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창고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덩그러니 남아 있는 붉은 담벼락만이 창고의 유일한 흔적이다. ▼<sup>10</sup>

부산의 원산업은 수산업과 물류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남선창고는 부산의 원산업을 상징하는 최고의 증거물이었다. 근대도시 부산의 정체성이 오롯이 내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아직 그 터에 자리한 건축물이 임시형 시설이고 관련 건축도면들이 남아있기에 복원을 위한 염원은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이른 상태이다. 항구도시이자 물류도시인 부산산업사의 원형을 되찾기 위한 도전은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

- ▼ 1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87-89.
- ▼ 2 부산광역시, 2020,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 3 차철욱 2007, “일제강점기 남선창고주식회사의 경영자료와 성격” 일제시기 지역사 연구를 위한 《부산일보》기사의 목록화 및 전산화팀 공동학술발표회.
- ▼ 4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87-89.
- ▼ 5 차철욱, 2010, “일제시대 남선창고주식회사의 경영구조와 참여자의 성격”, 「지역과 역사」, 26호, pp.268-269.
- ▼ 6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87-89.
- ▼ 7 2012.04.29. 국제신문, 「남선창고, 아직 잊지 않으셨지요?」
- ▼ 8 강동진, 2008, “부산 남선창고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도시설계학회지」, 9권1호, pp.68.
- ▼ 9 2012.04.29. 국제신문, 「남선창고, 아직 잊지 않으셨지요?」
- ▼ 10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87-89.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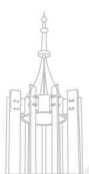
옛 남선창고주식회사 전경(2006년)



철거 중인 남선창고(2009년)



철거 이후 모습(2010년)



▷ 현장 사진 자료(해체 전)



옛 남선창고주식회사



벽돌조 벽체



남선창고의 옛 돌출형 간판



남선창고 터 벽돌벽과 파편



남선창고의 옛 간판



남선창고 내의 목구조





▷ 논문 및 저서

- 강동진, 2008, “부산 남선창고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도시설계학회지』, 9권1호.
- 차철욱, 2007, “일제강점기 남선창고주식회사의 경영자료와 성격” 일제시기 지역사 연구를 위한 《부산일보》기사의 목록화 및 전산화팀 공동학술발표회.
- 차철욱, 2010, “일제시대 남선창고주식회사의 경영구조와 참여자의 성격”, 『지역과 역사』, 26호.
-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 부산광역시, 2020, 「原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신문기사

- 2012.04.29. 국제신문, 「[시론] 남선창고, 아직 잊지 않으셨지요?」
- 2012.10.13. 부산일보, 「최학림의 근현대 부산 옛보기」 6) 초량과 남선창고」
- 2019.08.29., 국제신문, 「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향해하다 <32> 명태와 정어리: 남선창고 터에서」

▷ 기타 자료

- 동구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www.bsdonggu.go.kr/tour/>) ‘근대건축물 시간여행 명태고방 남선창고’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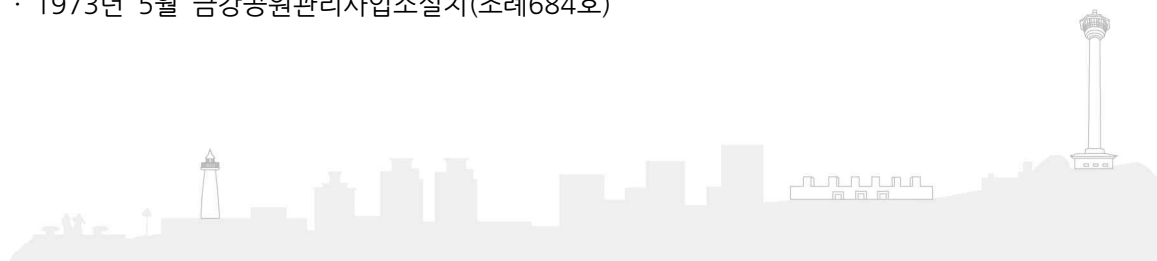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4 금강공원



#### 1) 개관

대상	금강공원	소재지	동래구 우장춘로 155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34호
건립시기	1965년	형태	유형 - 공원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0년대 초 일본인 자본가 히가시 바라(東原嘉次郎)가 금정산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개인정원을 조성함</li> <li>· 1933년 동래 시가지 계획으로 철거된 망미루, 독진대아문, 내주축성비, 이섭교비 등을 정원으로 옮겨옴</li> <li>· 1939년 히가시 바라(東原嘉次郎)가 개인정원을 동래읍에 기증함</li> <li>· 1940년 11월 금강원으로 명명함</li> <li>· 1965년 4월 공원 지정(건설부 1544호)</li> <li>· 1966년 9월 케이블카 개통(1260m, 우리나라 최장)</li> <li>· 1967년 동래동물원 개원(규모 3만 1600㎡)</li> <li>· 1972년 6월 부산광역시 문화재(기념물 제26호) 보호구역 지정</li> <li>· 1973년 5월 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684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3년 6월 입장료 징수</li> <li>· 1982년 4월 공원조성계획 수립</li> <li>· 1982년 6월 공원지적고시(부고 1804호)</li> <li>· 1993년 5월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임진동래의총, 내주축성비, 망미루, 독진대 아문, 이섭교비 제외)</li> <li>· 1998년 1월 시설관리공단 금강공원사업소</li> <li>· 2002년 동래동물원 폐쇄(180여 마리의 동물들은 대전동물원으로 이동)</li> <li>· 2004년 7월 금강공원 무료 개방</li> <li>· 2013년 금강공원 드림랜드 조성사업 추진</li> <li>· 2014년 망미루, 독진 대아문, 이섭교비, 내주축성비의 동래부 동헌 부근 및 원래 자리로 이전 복원</li> </ul>
<b>보존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방 이후 부산의 첫 근린공원으로서 주변 문화시설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임</li> <li>· 공원이란 공간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계절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과 치유의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성이 있음</li> <li>· 금강공원에는 식물원·박물관·예술관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체육관 등의 생활문화시설 및 여러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부산 시민들이 공통된 기억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손색없음</li> </ul>

### [설명문]

‘금강공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역사적인 공원이다. 일제강점기에 온천장에서 여관을 하던 일본인이 온천욕을 즐기던 손님들을 위하여 개인정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이후 1930년대 동래읍 시가지 정비과정에서 망미루, 독진대아문, 이섭교비, 내주축성비 등을 이곳으로 이설한 후 1940년 11월 10일 금강원이라고 이름을 정하였다. 1965년에 시민공원으로 개방하면서 금강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66년에는 공원과 금정산을 잇는 케이블카를 1967년에는 동래동물원이 개원되었고, 1972년에 부산직할시 지정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다. 1973년 5월 12일 금강공원관리사업소가 설치(조례 684호)되었고, 6월 1일부터 입장료가 징수되었다. 1982년 4월 28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6월 8일 공원지적고시가 이루어졌다. 1993년에는 부산직할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2004년 7월 1일자로 금강공원은 무료 개방으로 전환되었고, 2000년대 들어 관람객 감소와 재정난으로 놀이시설들과 동물원은 폐원하였다.

금강공원의 면적은 국유지 2.04㎢, 사유지 96만 7446㎡, 시유지 8만 4099㎡로 총 3.09㎢이다. 시설은 놀이시설, 교양문화시설, 기념유적,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1966년 개통되어 1972년부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프웨이(케이블카)는 우리나라 최장(1260m)이자 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교양문화시설로는 부산민속예술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금강식물원이 있다. 공원내 문화재로는 지방문화재기념물인 임진동래의총이 있으며, 주변에는 소림사, 국민 호텔이 있다. 또한 비석으로는 자연보호헌장비, 일제만행희생자비, 이영도시비,



송촌지석영비, 최계락시비, 허중배선생기념비, 이주홍문학비 등이 있다. 1930년대 이설해 온 4개소의 지역 문화재는 2012~2014년에 걸쳐 원래 자리로 이전 복원하였다.

공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금강 공원 로프웨이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부산 민속 예술관은 부산민속예술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은 연중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주변에는 금정산성, 동래 온천, 우장춘 기념관, 복천박물관이 있다.

## 2) 관련 내용

금강공원은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금정산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970~1980년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시민공원이다.

금강공원이 자리해 있는 동래지역의 온천은 신라시대부터 이름이 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성은 개항 후 일본의 온천문화와 연결되면서 동래지역 일대는 1898년부터 온천 운영과 함께 여관, 요릿집, 별장 등이 성행했다. 한 때 동양 최대 규모의 여관이자 목욕탕으로 명성이 높았던 '봉래관(蓬萊館, 현재 허심청 부지에 위치)'이 가장 유명했다. 일본인들은 동래온천을 휴양지로 개발함과 동시에 1910년대 금정산을 배경으로 하는 공원 개발을 계획하였다. 동물원,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여 동래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묶어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였다. 하지만 사업비 문제와 참여자들의 이견으로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1920년대 중반 개인정원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1915년 도심에서 연결된 전차가 개통되며, 동래온천의 활력은 더해갔다. 전차종점과 온천으로 가는 길목에는 다양한 기념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상점과 요릿집이 생겨났다. 유명 요릿집은 오늘날처럼 패키지 상품권을 만들어 단골손님에게 제공했으며, 음식뿐 아니라 수제 과자를 직접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목욕을 즐긴 손님들은 뒤편에 마련된 금강공원에 올라 휴식을 취했다. ▼<sup>1</sup>

금정산에는 기암괴석과 깎아 세운 듯한 절벽들이 성체와 같이 둘러싸서 절경을 이루고 있어 흔히 소금강이라고도 불리어 왔고 금강공원이란 이름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sup>2</sup>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1925년 1월)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기행문에 금강원 이야기가 나온다. 투고자였던 타케이(武井友次郎)의 눈에 크고 작은 돌을 이용해 공원을 조성하고 있던 모습이 보였다. 따라서 금강원이 탄생한 시기를 1925년 무렵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정원의 주인은 히가시바라(東原嘉次郎)라는 일본인이었다. 이 사람은 부산에서 담뱃잎 장사로 돈을 번 부자였다. 그는 정원 입구에 '東萊金剛園(동래금강원)'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고, 그 위에 '靑龍潭(청룡담)'이라 부른 연못을 만들었다. 연못 가운데로 돌다리를 만들어 연못을 건너다닐 수 있는 전형적인 일본식 정원이다. 연못 위로 등산로 사이의 가파른 곳에 '後樂塔(후락탑)'이라는 글을 새겨 넣은 석탑을 만들어 정원의 멋을 더하기도 했다. 히가시바라는 1933년 무렵 동래읍내의 시가지계획 과정에서 철거되는 망미루, 독진대아문, 이섭교비, 내주축성비 등 동래지역의 역사문화재를 이곳으로 옮겨 조경용으로 삼았다. 그는 1930년대부터 일반인들에게 정원을 개방하고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1939년 동래읍에 기증했고, 이를 기념해 동래읍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금강원의 연혁을 커다란 바위에 새겨 지금까지 전해지도록 하고 있다.



1940년에 이곳은 금강원이라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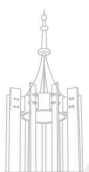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 금강공원은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해 공원 내에 무허가건물 등이 난립하여 주변의 경관체계가 무질서하게 변화되었음은 물론 사유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의 법적근거가 없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 이에 1964년 9월 1,654,972㎡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적인 조치로서 무허가건물의 난립을 제한하고 이듬해인 1965년 4월 건설부고시 제 1544호로 장전동, 온천동 일대 1,555,000㎡와 장전동 일부 483,000㎡를 각각 금강공원과 장전도로공원으로 신설·고시하였다. ▼<sup>3</sup>

1967년은 공원으로서 모습을 갖추는 시기였다. 1,260m의 길이를 자랑하고, 금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케이블카가 개통되었다. 같은 해 국내 최초의 민간 동물원인 동래동물원이 개장되었다. 코끼리와 호랑이 등 140종 860여 마리를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동물원으로, 1971년 암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새끼 세 마리를 순산하기도 했다. 또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 했던 코끼리 삼돌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태어난 ‘국내산 코끼리’였다. 1980년대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의 개장과 시설 노후 등으로 이유로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2001년까지 명맥이 유지되다가 2002년 문을 닫았다. ▼<sup>4,5</sup>

금강공원은 한 때 부산 최고의 도심 공원으로 사랑을 받았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복치고, 장구 치면서 부산 사람들이 흥을 내며 즐기던 명소였다. 1972년 경향신문 기사에는 금강공원이 한 지역 인파로 최고인 20만 명을 기록했다고 알리고 있다. 당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던 서울의 경릉, 창경원, 경주의 불국사도, 부산의 태종대, 해운대, 송도해수욕장 등도 금강공원의 위세를 따라올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을 노린 범죄 사건도 적지 않았다. 공원에 모여든 시민들은 먹을거리 마실거리를 준비해와 소풍을 즐겼다. 그러다보니 ‘절주하자’라는 전단을 돌리며 계몽운동을 펼치는 어머니회 혹은 소풍도덕양양선도반원 같은 단체들도 있었다. 사복경찰들이 관광객을 감시하는 일도 있었다. ▼<sup>6</sup>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누각인 망미루는 한때 금강공원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망미루는 동래부 사청 동헌 앞에 세워졌던 문루로, 1742년(영조 18) 동래부사 김석일(金錫一)이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1920년대 말 동헌 중앙으로 길을 내면서, 현재의 수안치안센터 맞은편에 있던 망미루가 금강공원 내로 옮겨와 긴 시간 동안 금강공원의 상징물이 되기도 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동래구 수안동 동래부 동헌 복원 구역 내로 이전하기까지 금강공원의 입구 역할을 해냈다. ▼<sup>7,8</sup>

70~80년대 부산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대부분 망미루 앞에서 찍은 사진 한두 장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유치원생을 비롯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의 소풍이나 견학장소로, 금강공원은 유명했고, 망미루 앞에서의 단체사진은 그 시절 금강공원을 들른 사람에게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때로는 갓 선을 본 청춘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황혼의 데이트를 즐기러 온 중년 남녀의 추억의 장소로, 동래파전에 막걸리 한사발이 곁들인 대학의 청춘들도 80년대까지의 금강공원 입구에 서 있던 망미루 아래를 넘나들던 사람들이었다. ▼<sup>9</sup> 또한 1970~1980년대 공원문화의 상징이었던 각종 놀이기구들도 2000년대 들어 해체되었다. 한때 놀이기구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와 기계소리는 금강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비 불량과 잦은 사고소식, 관람객의 축소는 이들 놀이기구가 오히려 공원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흉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금강공원은 이처럼 단순한 시민들의 놀이공간이 아니었다. 동래부사를 지낸 정현덕(鄭顯德·1810~1883)의 금강원시비가 자리한다. 동래 사람인 그는 고종 때 7년 동안 동래부사를 지냈고, 메이지 신정부의 국교 재개 교섭을 거부하고, 동래읍성 개축, 동래부동헌 대문인 독진대아문(獨鎭大衙門) 중수 등 외교와 목민의 발자취가 뚜렷한 사람이다. 그는 문인의 능력이 뛰어나 임진왜란을 회고하면서 금정산성에서 영도까지 유적지를 돌아본 감회를 노래한 ‘봉래별곡’(蓬萊別曲·여기서 봉래는 동래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문인적 자질과 목민관으로서의 다짐이 금강공원에 ‘금강원시비’(金剛園詩碑)로 남았다. ‘정묘년에 내가 동쪽으로 오니 이 고을 백성과 물자가 번성하구나’로 시작하는 이 시엔 목민관으로서의 자신감과 인생을 관조하는 여유가 담겼다. 정묘년은 그가 동래부사로 부임한 1867년(고종 4)이다. ▼<sup>10</sup>

이외에도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 싸우다가 사망한 동래사람들의 무덤인 임진동래의총(壬辰東萊義塚, 임진전망유해지총(壬辰戰亡遺骸之塚)이라고도 부름)은 1974년 동래 복천동에서 이곳으로 이장해 왔다. 무덤 앞으로는 동래 사람들이 만든 동래부사들의 선정비 20여 기가 줄을 지어 서 있다. 이 외에도 부산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동래사람들의 기개를 상징하는 다양한 시설과 기념비들이 위치하고 있다.

- ▼ 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p.190.
- ▼ 2 주경업, 2008, 「부산이야기 99」, 부산민학회, p.25.
- ▼ 3 조성태, 2012, “부산시 정주활동의 변천과 특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4-135.
- ▼ 4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347-350.
- ▼ 5 김문겸, 2012, 「사건과 기록으로 본 부산의 어제와 오늘」,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p.31.
- ▼ 6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347-350.
- ▼ 7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249-253.
- ▼ 8 주경업, 2008, 「부산이야기 99」, 부산민학회, pp.25-26.
- ▼ 9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249-253.
- ▼ 10 2020.08.17. 국제칼럼, 「정상도, 금강공원, 두 비석 앞에서」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금강공원 입구



금강원시비



임진동래의총



임진동래의총(선정비)



금강공원의 로프웨이



로프웨이 로고



추억이 된 금강공원의 놀이기구들





▷ 사진 기록 자료



1920년대 온천동 금강공원 입구 망미루  
©한국저작권위원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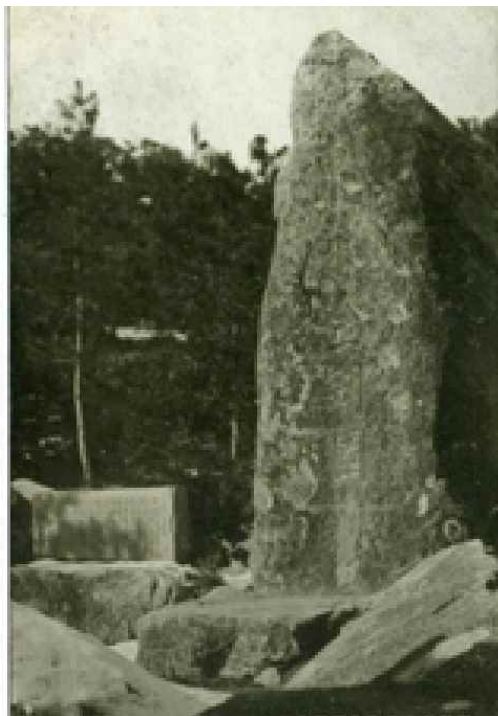
동래동물원에 소풍 온 유치원생들  
©부산일보



우리나라 최초로 사자 새끼를 순산했던  
금강공원 동물원  
©동아일보



금강공원의 코끼리와 상춘객들(1995.3.1.)  
©부산일보



1910년대 금강원시비와 동래금강원 표지석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재의 금강원시비와 동래금강원 표지석



### ▷ 논문 및 저서

- 조성태, 2012, "부산시 정주활동의 변천과 특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겸, 2012, 「사건과 기록으로 본 부산의 어제와 오늘」,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 주경업, 2008, 「부산이야기 99」, 부산민학회.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 ▷ 신문기사

- 1971.06.19. 동아일보, 「사자새끼 3마리 우리나라 최초로 순산」
- 1972.05.08. 경향신문, 「전국서 127만 인파 5월 첫 휴일 여름을 즐겨」
- 1973.11.04. 조선일보, 「부산금강공원 표범 순산」
- 2013.06.28. 부산일보, 「[공원아, 놀자!] ② 금강공원」
- 2013.07.02. 국제신문,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2> 휴식과 일탈의 공간, 금강공원」
- 2020.08.17. 국제신문, “금강공원, 두 비석 앞에서” 「국제칼럼」(정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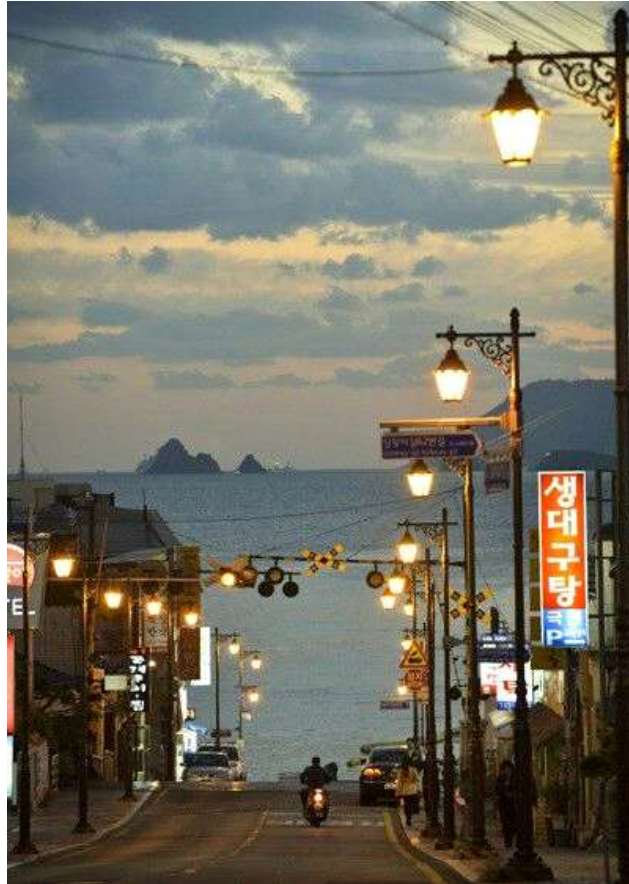
### ▷ 기타 자료

- 금강공원 홈페이지(<https://www.bisco.or.kr/geumgangpark/>)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금강공원’, ‘온천장에서 목욕하고, 금강공원에서 소풍하던 부산 사람들’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스토리아카이브(<http://www.storybusan.com/>) ‘금강공원’
-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스토리아카이브(<http://www.storybusan.com/>) ‘금강공원 차밭골 이야기’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5 동해남부선



#### 1) 개관

대상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소재지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 ~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 경계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35호
형성시기	1930년대	형태	유형 - 철도 (폐선부지만 현존함)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5년 철도망 확충을 위해 '조선철도12년계획' 실시</li> <li>· 조선총독부의 동해북부선 우선 정책으로 인해 1930년 공사 시작</li> <li>· 1930년 부산진~해운대 구간 착공 후 1934년 개통</li> <li>· 1934년 해운대~좌천 구간 개통</li> <li>· 1935년 좌천~울산 구간 개통</li> </ul>		



### 보존 필요성

- 1936년 울산~경주 구간 개통
  - 1945년 경주~포항 구간 완공
  - 1990년대 들어 부산, 울산 일원에 대한 광역철도 구상 등장
  - 1993년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본격화
  - 해운대-송정 구간의 협소한 지형으로 인해 복선 전철화의 난제 발생
  - 2013년 동해남부선 본선이 장산 내 터널을 통과하는 새로운 선로로 이설
  - 2014년부터 산책로, 쉼터, 녹지조성을 위한 그린레일웨이 사업 시행
  - 2016년 동해남부선은 동해선에 편입
  - 2016년 부전역~일광역 구간의 복선전철 영업 개시
  - 2021년 12월 완공(부전역~태화강역)
- 동해남부선은 동래·울산 등지로의 여객 이동, 동해안의 석탄과 목재·광물·해산물 등의 이송, 부산-경주 간 관광열차 등으로 사용되며 지역의 근현대사 애환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부산-경주 간 노선의 위락시설과 자연 풍광, 역사유적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유람과 관광열차로서의 역할도 하였음
  - 구 송정역, 구 동래역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일제강점기 철도역사 건축의 가치 보유
  - 폐선부지와 연계된 해운대-송정 간의 자연풍광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함

### [설명문]

‘동해남부선’은 1936년에 준공한 부산의 부산진역과 경북 포항의 포항역 사이를 연결하며 동해안을 따라 부설된 철도이며 총 길이는 145.8km이다.

1930년 7월 10일 부산진 일대에서 공사 착수하여 1934년 7월 16일에 부산진~해운대간 18.9km가 개통되었고, 1934년 12월 16일에는 해운대~좌천 간 22.3km가, 1935년 12월 16일에는 좌천~울산 간 31.8km가 개통되었다. 조선철도주식회사 소속 사설철도였던 울산~경주 간 41km의 경동선(慶東線, 1921년 10월 25일 개통)이 대구~학산 간 107km와 함께 매수되어 1935년 6월 광복궤도 공사에 착수하였고, 1936년 12월 1일 준공하였다. 이어 경주~포항간도 광궤로 개축되어 동해남부선이 확정되었다. 노선은 단선이며 중간 정차역은 모두 31개이다. 부산진역에서는 경부선과 연결되고, 범일역에서는 가야선, 부전역에서는 부전선, 경주역에서는 중앙선 등과 연결된다.

1990년대 들어 동해남부선의 부전역~울산역 구간은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총연장 65.7km에 22개역(부전~태화강)을 연결하는 전철복선화 사업이 2021년 12월에 완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폐선부지(해운대-송정 구간)에 위락시설들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철도시설공단과 해운대역의 소유자인 코레일 등의 관광개발 정책에 맞서는 (폐선구간을 온전히 시민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한)시민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 2) 관련 내용

동해남부선(東海南部線)은 부산광역시 부산진역과 경상북도 포항시의 포항역 사이, 동해안을 따라 부설된 철도로, 길이는 145.8km이다. 과거에는 동해남부선의 여객 열차는 부산진역에서 시종착하거나 경부선을 거쳐 부산역까지 운행했으나, KTX 운행 이후 부산진역의 여객 영업이 중단되고 화물전용역으로 전환되고, 부산역은 경부선 열차가 늘어나 동해남부선 열차까지 처리할 여유가 없어짐에 따라 모든 여객 열차가 부전역에서 시종착하게 되었다. 1993년부터 복선 전철화 공사가 진행되어, 2021년 12월에 완공되었다.

192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는 철도망 확충을 위해 '조선철도12년계획'을 세워 실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석탄, 목재, 광물, 해산물의 반출 및 부산과 함경선의 연결을 위하여 동해선 건설이 추진되었다. 1930년 7월 10일 부산진 방면에서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1934년 7월 16일에 부산진~해운대간 18.9km가 개통되었고, 1934년 12월 16일에는 해운대~좌천간 22.3km가, 1935년 12월 16일에는 좌천~울산간 31.8km가 개통되었다. 조선철도주식회사 소속 사설철도였던 울산~경주간 41km의 경동선(慶東線, 1921년 10월 25일 개통)이 대구~학산간 107km와 함께 매수되어 1935년 6월 광복궤도 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12월 1일 준공하여 동해남부선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어 경주~포항간도 광궤로 개축되어 동해남부선이 확정되었다.

'조선철도12년계획'에 포함된 동해선 중 동해남부선(부산 포항 간)은 계획대로라면 1927년에 기공을 시작하여 1934년에는 완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선로는 뒤늦은 1930년 7월 부산에서부터 기공에 들어갔고, 1934년 7월에야 부산진 해운대간 18km의 개통을 보았다. 이어 그해 12월에는 좌천간이 개통되었고, 1935년 12월에는 울산간이 개통되면서 신설 구간은 완공되었다. 이후 동해중부선의 광궤선 개축을 통한 동해남부선화 작업에 들어가 1936년 12월 울산 경주간이 개통되었고, 1939년 공사에 들어간 경주 포항 간은 1945년 7월에야 개통될 수 있었다. 철도 기공과 개통이 늦은 것은 조선총독부의 철도 정책에 기인 한 바 컸다. 조선총독부는 처음부터 동해선 중 동해북부선 건설에 집중 했다. 나아가 1931년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탄생에 따른 정세 변화로 다시 '북선 개발'을 위한 '북선중심주의'를 채택했다. 또한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대륙병참선의 신설을 위한 중앙선(1936~1942년) 개발에 집중했다. 따라서 동해선, 특히 동해남부선은 다른 철도 건설에 희생되었다. 이에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래, 울산, 경주 등 동해남부선 연선 지역은 개별 또는 기존의 기성회를 통해 연합하여 남부선 기공촉진을 위한 진정 운동을 조선총독부는 물론 일본 본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더불어 경상남북도, 강원도 3도의 20개 도읍이 포함하는 '동해선철도기성회'까지 조직하여 진정운동을 확대했다. 그 결과 뒤늦었지만 1930년 부산 측 기공으로부터 1936년 경주까지 개통될 수 있었다. ▼<sup>1</sup>

한편, 동해남부선 건설과 개통은 지역 간의 경합도 초래했다. 부산 해운대간의 노선 확정을 둘러싸고 동래군 동래면과 남면이 경합했다. 동래면의 전방위적인 진정운동과 철도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동래면을 통과하는 노선이 확정되었다. 또한 동해남부선은 경상남북도를 대표하는 부산 상권과 대구 상권의 경쟁장이었다. 경동선의 동해중부선 매수로 상권의 수성을 추구하던 대구와 동해남부선 노선 확대에 따라 상권의 확장을 추구하던 부산 간의 상권 경쟁이 울산-경주-포항간 광궤 개축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식민지 판도 내의 부산 측 힘의 우위와 새로운 간선망인 중앙선의 출현으로 대구 측의 희생으로 일단락되었다. 결국 조선총독부와 지역, 지역과 지역 간에 이루어진 '지역정치'에 따라 '지역의 이해'는 일부 수용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국의 이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는 동해남부선 운영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동해남부선 부산 경주 간 여객 및 화물 수송을 통해 볼 때, 부산진역을 포함할 경우 화물 중심 철도였지만 포함하지 않을 경우 여객 중심 철도였다. 일단 경부선과 합쳐진 통계이기에 부산진역의 여객 및 화물 수송을 제외하고 동해남부선의 여객 및 화물 수송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객의 경우 연 선 지역의 교통망으로써의 역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동래, 울산, 경주 등의 위락시설, 역사유적지를 유람·관광하는 열차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화물의 경우 미곡류의 부산진역 집하와 잡곡류의 연선 집하로 대별되는 전형적인 조선인 농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열차였다. 또한 화물 수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화물 수송의 수위를 차지한 철도용품의 수송은 자원 유출과 대륙병참선의 건설을 위한 철도 건설이라는 '제국의 이해'에 철저하게 복무한 철도였음을 잘 보여준다. ▼<sup>2</sup>

기장 사람들에게는 기차는 단순한 탈것 이상이었다. 생활의 현장이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방편이었다. 동해남부선은 부산 등 도회 사람들에게는 바다와 낭만과 사랑을 찾아가는 일탈의 길이었다. 서울 젊은이들이 춘천 가는 기차를 타듯 부산의 경춘선 노릇을 한 게 동해남부선이었다. 대도시가 아닌 동해남부지역 주민에게는 이 길이 한 편으로는 희생과 굴종의 길이기도 했다. ▼<sup>3</sup> 또한 동해남부선 개통과 함께 '동래해운대의 遊樂, 울산의 古戰場, 경주의 大古跡' 등은 지역문화와 경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여객 수송과 관련해 부산의 번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sup>4</sup>

동해남부선은 포항 남쪽 효자에서 과동선(槐東線)과, 경주에서 중앙선과, 울산에서 울산항선 및 장생포선과 연결된다. 또 남창에서는 온산선(溫山線)과, 부전에서는 부전선(釜田線)과 이어지며 부산진에서는 경부선과 우암선(牛巖線)에 접속된다. 해운대~부산과 경주~울산 등이 빈번했다. 지난 80여 년 동안 일일 상하행선으로 모두 40회 운행하며 연 200~250만명의 여객을 수송하고, 35~40만톤의 비료·광석·자동차 등 화물수송을 담당했던 연안간선철도로서의 기능했다. 또한 '제2의 종관철도'이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선으로서의 역할까지 부여받았던 철도였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미개통선이 전체의 51%를 상회할 정도로 불완전한 철도였다. 따라서 동해남부선은 북부선과 분리된 채 지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에서 이 철도가 지닌 의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993년 이후 동해남부선의 복선 전철화사업의 추진으로 총연장 65.7km에 22개역(부전역~태화강역)을 연결하는 사업이 2021년 12월에 완공되었다. 2013년 12월에는 해운대-송정 간의 아름다운 해안풍광을 자향하는 해안철도 구간이 장산 내 터널로 이설되었고, 2014년 11월 5일에는 부전-안락 구간이 고가로 이설되었고 2016년 12월 30일부터 부전역-일광역 간의 구간이 동해선 본선이 됨과 동시에 복선전철 영업을 개시하였다.

해운대-송정 간의 폐선부지는 '그린레일웨이'로 개발되었다. 그린레일웨이는 올림픽교차로~기장동부산관광단지 경계(9.8km)의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산책로, 전망대, 쉼터, 녹지 등을 조성한 사업이다. 2014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를 넘겨받은 부산시는 공사 구간을 3곳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올림픽교차로~부산기계공고 1.6km 구간 1단계와 부산기계공고~미포 3.4km 구간 2단계는 각각 2016년과 2017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미포에서 옛 송정역까지 4.8km의 3차 공사 구간은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아닌 온전한 시민공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시민운동이 전개되며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시민운동의 취지는 이러했다. 폐선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철도공단(철로구간)과 코레일(역)의 관광개발에 맞서 80여 년 동안 철도에 의해 막혀있던 해안풍경(해운대 미포~송정역 4.8km 구간)을 시민들이 맘껏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폐선부지는 일제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공공재’이기에 ‘향유권’과 ‘환경권’이라는 시민 권리에 대한 주장이었다. ▼<sup>5</sup> 더군다나 지역의 언론과 방송사가 개발에 참여하는 등 시작에서부터 3단계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에 100% 시민들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외침은 크게 반영되지 못한 채 결국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연결된 모습으로 그린레일웨이 사업은 완공되었다. 그나마 시민들의 외침으로 그린레일웨이 사업은 수차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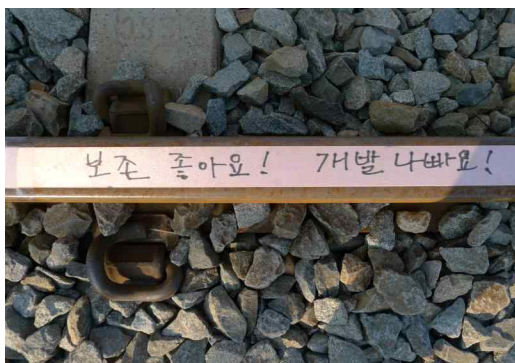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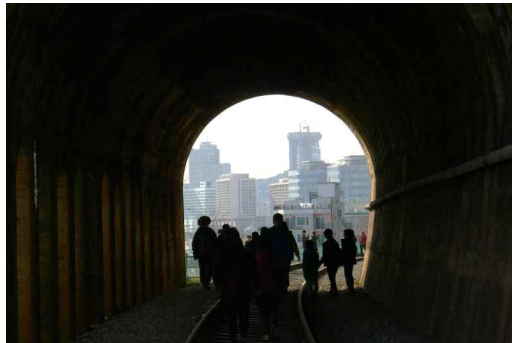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은 데크에 불과하여 공공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역의 해안풍광과 개발사 측의 계획 수정과 보완으로 그린레일웨이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폐선부지를 ‘생활 속 숲길’로 탈바꿈시킨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2021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up>6</sup>

- ▼ 1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동해남부선’
- ▼ 2 전성현, 2017, “일제강점기 동해남부선의 식민성과 지역정치”, 『부산경남사학회』, 104호, pp.157-193.
- ▼ 3 임성원, 2019, 「차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 산지니, pp.255-263.
- ▼ 4 전성현, 2021, 「식민지 도시와 철도」, 선인, pp.241-286.
- ▼ 5 2014.04.09. 국제신문, 「동해남부선 기차길 : 정도(正道) vs. 정도(政道)」
- ▼ 5 2020.11.06. 연합뉴스,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산책로 조성 7년 공사 마무리」
- ▼ 6 2021.10.12. 연합뉴스, 「폐선부지서 산책로로…해운대 그린레일웨이 ‘조경대상’」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미포~송정구간)의 옛 풍경(2013년~2016년)





▷ 현장 사진 자료



개발 후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동해남부선 주변의 정경들



동해남부선 주변의 정경들



### ▷ 논문 및 저서

- 전성현, 2017, “일제강점기 동해남부선의 식민성과 지역정치”, 『부산경남사학회』, 104호.
- 윤일성, 2015,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도시사회학”.
- 임성원, 2019, 「자치분권 시대의 로컬미학」, 산지니.
- 전성현, 2021, 「식민지 도시와 철도」, 선인.
- 문철진 외 1명, 2009, 「진짜 부산 100」, 미디어 샘.

### ▷ 신문기사

- 2014.04.09. 국제신문, 「동해남부선 기차길 : 정도(正道) vs. 정도(政道)」
- 2016.12.27. 한겨레, 「동해선 철길, 81년 만에 복선화 시대 열려」
- 2016.12.28. 부산일보, 「“(옛 동해남부선 & 동해선) 그린레일웨이 1차 구간 가 보니”」
- 2020.08.20. 파이낸셜뉴스, 「공원으로 창업센터로… 안쓰는 철길, 주민 품에 돌아오다 [철도시설공단,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
- 2020.10.09. 연합뉴스, 「해운대 옛 동해남부선 폐선 7년…마지막 미개발지에 쏠린 눈」
- 2021.10.12. 연합뉴스, 「폐선부지서 산책로로…해운대 그린레일웨이‘조경대상’」
- 2020.11.06. 연합뉴스,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산책로 조성 7년 공사 마무리」

### ▷ 기타 자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동해남부선’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6 제뢰등대



#### 1) 개관

대상	제뢰등대	소재지	남구 감만동 626-1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36호
형성시기	1905년	형태	유형 - 등표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일전쟁(1894-1895) 이후 일본 함선의 통항을 위해 한반도 전 해안에 등대 설치위치 조사 시행</li> <li>· 1901년 '한일무역규칙 및 해관세목'에 한국정부가 등대를 설치하도록 조약을 체결</li> <li>· 1905년 6월 '까치여울', '오리여울'로 불리던 수중 암초 위에 제뢰등대 건립</li> <li>· 등대의 구조는 석조 원형으로 높이는 2장 3척(6.97m), 색상은 홍색과 흑색을 횡선하고 상부에는 백색을 도장함</li> </ul>		



- 등대의 불빛은 가스등을 사용하여 백색 부등등으로 나타냄
- 1998년 부산항 북방파제 등대로 개명
- 2001년 신감만 부두건설 매립공사로 바위섬이 육지와 연결되고, 인근 무인 등대인 감만부두등표가 새로 건립되며 등대 기능을 마감
- 2004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역사적 보전 등대'로 지정
- 2006년 '등대문화유산 23호'로 지정(해양수산부)
- 2014년 부산항대교가 건설되고 제뢰등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

#### 보존필요성

- 부산은 '등대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등대가 가장 많은 도시임
- 그 중에서 제뢰등대는 현존하는 부산의 등대 중 가장 오래된 등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
-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건축미가 뛰어남
- 부산항 대교 건설로 등대의 원형적인 역사적 가치와 입지성, 경관성 등은 크게 훼손되었으나, 북항과 연결한 친수적인 가치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 더 이상의 파괴와 훼손이 없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설명문]

‘제뢰등대’는 1905년 6월, 대한제국정부가 ‘까치여울’, ‘오리여울’로 불리던 수중 암초 위에 건립한 등대다. 제뢰등대는 높이 약 7m의 돌로 쌓은 원형 건물로서, 외벽은 붉은색과 검은 색의 가로선으로 채색되었다. 당시 등대의 백색 불빛은 가스등을 사용하였으며, 돔 형식의 지붕과 2개의 3단 원형 띠를 두르고 있다. 또한 민기등 형태의 안정된 구조를 사용하여 전형적인 근대식 등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1998년 부산항 북방파제 등대로 한차례 이름이 바뀌었고, 2001년 신감만부두건설매립공사로 바위섬이 육지와 연결되고 인근에 무인등대인 감만부두등표가 새로 건립되면서 등대의 역할을 마감되게 되었다.

제뢰등대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로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건축미 또한 뛰어나서, 2004년 해양수산부의 역사적 보전 등대로 지정되었다. 부산항대교 건설로 인해 등대로서의 입지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바다에서의 조망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다만, 부산항대교 건설과 함께 등대 일대가 수변의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낚시, 산책 등으로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 2) 관련 내용

1905년 6월에 세워진 제뢰등대는 부산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식 등대로서 남구 감만부두 내 수변공원에 자리한다. 제뢰는 ‘두견이(접동새) 제(鷓)’와 ‘여울 뢰(瀾)’가 합쳐진 이름이다. ▼<sup>1</sup>





부산에는 3기의 오래된 유인 등대보다 훨씬 많은 무인등대가 세워져 있다. 더욱이 이 유인등대들 보다 먼저 부산 최초로 무인 등대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905년에 세워진 ‘제뢰등대’가 바로 그것이다. ▼<sup>2</sup>

대부분 사람들은 영도 등대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지만 사실과 다르다. 바다에서 보자면 영도등대와 오륙도등대 중간 쯤, 즉 두 등대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 감만항에 백 년을 훌쩍 넘은 제뢰등대가 서 있다. 제뢰등대보다 수 년 전인 1904년에 초랑 고관 앞에 세워졌던 등대는 매몰되면서 사라졌고 제뢰등대만이 남았으니 부사 최고령 등대가 항구 구석에 보물처럼 남아 있는 것이나 정작 부산 사람들도 그 소중한 제뢰등대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sup>3</sup>

예로부터 ‘까치 여울’ 또는 ‘오리 여울’로 불리던 위도 35-06.3 경도 129-04.2의 수중 암초였던 이곳은,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에게 위험요소가 되었다. 때문에 1887년 이곳에 돌을 쌓아 입표를 설치하였으나 불빛을 비추는 등화가 없어 밤에는 선박 통항이 불편하였다. 하지만 사실 등대 설치 무렵 부산항의 항만시설은 예전 부산시청 자리인 용두산 밑에 자그마한 방파제에 둘러싸인 약 7,000여 평의 선박계류장과 우암천, 못골, 적기의 포구 및 감만의 군영이 전부였기에 등대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청일전쟁(1894-1895) 이후 일본 함선의 통항을 위해 한반도 전 해안에 등대 설치위치를 조사하고 1901년 "한일무역규칙 및 해관세목"에 한국정부가 등대를 설치하도록 조약을 체결한 후 건설비는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건설은 일본 해군과 한국정부에서 나누어 시행하였다. ▼<sup>4</sup> 이에 따라 1905년 현재와 같은 콘크리트 등탑을 세우고 등화를 설치하면서,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밤에도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게 되었다.

제뢰등대는 높이 약 7m(2장 3척, 6.97m)의 돌로 쌓은 원형 건물로서, 외벽은 붉은색과 검은색의 가로선으로 채색되었다. 등대의 백색 불빛은 가스등을 사용하였으며, 돛 형식의 지붕과 2개의 3단 원형 띠를 두르고 있다. 또한 민 기동 형태의 안정된 구조를 사용하여 전형적인 근대식 등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등대는 1905년 6월 점등했으며 정확히 말하면 등대라기보다 이곳에 위험한 암초가 있다는 걸 알리는 등표였다. 그러다 1998년 부산항 북방파제 등대로 한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2001년 신감만 부두 건설 매립 공사로 바위섬이 육지와 연결되고 인근에 무인 등대인 감만 부두 등표가 새로 건립되면서 등대의 역할을 마감되게 되었다. 2001년 등대 기능을 마치고 영구 보존돼 있다. ▼<sup>5</sup>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제뢰 등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영도 등대나 오륙도 등대 같은 명소도 아니고 항구의 번잡스러운 크레인과 짐 싣는 화물차량, 어선도 아닌 화물선과 정부기관의 배들만이 빼곡하게 들어찬 감만항에서, 아무리 수변공간이라고 설정해놓았다곤 치더라도 한가롭게 찾아오는 이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산의 등대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제뢰 등대에 헌사를 올리는 것은 거꾸로 제뢰등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뒤로 미룬 것이기도 하다. 제뢰 등대, 이는 부산 등대의 출발이자 우리나라 등대사의 출발이기도 한 것이다. ▼<sup>6</sup>

1998년 부산항 북방파제 등대로 한차례 이름이 바뀌었으며, 이후 2001년 방파제 축조와 부두 건설로 인해 주변이 육지화되며 제뢰등대는 그 기능을 멈추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다행히 해양수산부는 제뢰등대를 바로 철거하지 않았고, 등대의 건축적 역사성과 원형적 가치를 반영하여 2004년 해양수산부의 ‘역사적 보전 등대’로 지정하였다. ▼<sup>7</sup>



연이어 2006년에는 ‘등대문화유산 제23호’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보존·관리하고 있다. 또한 역사가 있는 등대 스탬프 투어 대상에도 선정되었다. 현재 제뢰등대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다. 제뢰등대 주변은 지역 주민들의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산해사고등학교의 배와 기타 중소 규모의 배들이 정박해 있다.

부산항대교 건설이 추진된 2006년부터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논의되었다. 남구 감만동~영도구 청학동을 잇는 부산항대교 건설현장의 감만동 쪽 교량 시작 지점 밑에 제뢰등대가 있어 공사로 인한 훼손 우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대교 완공 시점에 맞춰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이곳에 제뢰등대를 옮겨 보존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 중에 등대로서의 역사적인 원형적 가치와 암초 위 수중 등대라는 입지성, 그리고 북향을 향한 경관성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2020년 태풍 ‘하이선’에 제뢰등대 주변 친수공간의 조형물이 파손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등대 주변을 정비함과 동시에 편의시설, 모자이크 벽화타일, 포토존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sup>8</sup> 제뢰등대가 있는 감만부두 시민공원은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대형선박을 직접 보면서 야경과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인근에는 명승인 오륙도, 국가등록문화재인 재한UN기념공원, 부산시지정문화재인 신선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관광지가 있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기에도 적합하다.▼<sup>9</sup>

▼1 국립등대박물관(<https://www.lighthouse-museum.or.kr/>) ‘밤바다의 별이 된 부산항의 역사, 제뢰등대’.

▼2 제뢰등대 현판 인용.

▼3 부산학연구센터 부산발전연구원, 2021,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재)부산연구원, pp.240.

▼4 주강현, 2007, 「등대」, 생각의 나무, p.294.

▼5 강영조, 2008, 「부산은 항구다」, 동녘, pp.78-79.

▼6 주강현, 2007, 「등대」, 생각의 나무, p.297.

▼7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제뢰등대’

▼8 2021.03.05. 부산일보, 「부산 최고령 제뢰등대, 힐링공간 재단장 6월 개방」

▼9 2021.06.30. 부산제일경제, 「해수부, 이달의 등대로 부산 남구 제뢰등대 선정」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수중암초, 감만부두등표와 공존했던 제회등대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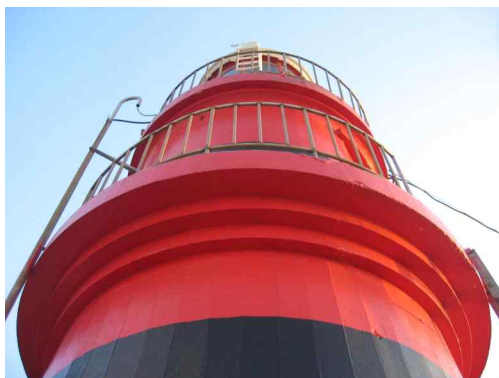
방파제 건설로 육지화가 된 제회등대  
(2004년)



부산항대교 공사로 간혀 버린 등대  
(2021년)



제회등대 등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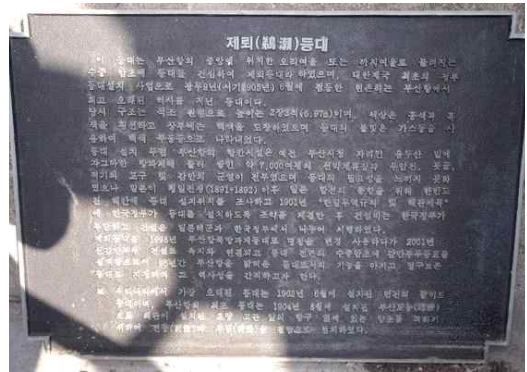
제회등대 상세(콘크리트 무늬)



## ▷ 사진 기록 자료



부산항을 밝히던 제뢰등대의 옛 모습(왼쪽)  
©부산일보



제뢰등대 동판



1952년 부산항 제뢰등대 앞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산항대교 공사 당시 훼손 방지를 위해  
철골구조를 둘러싼 제뢰등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021년 07월 이달의 등대  
©해양수산부



### ▷ 논문 및 저서

- 강영조, 2008, 「부산은 항구다」, 동녘.
- 주강현, 2007, 「등대」, 생각의 나무.
- 부산학연구센터 부산발전연구원, 2021,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재)부산연구원.

### ▷ 신문기사

- 2013.07.25. 부산일보, 「(시가 있는 부산 등대) 31. 제뢰등대」
- 2013.12.09. 부산일보, 「부산 최고령 '제뢰등대'에 친수공간 조성」
- 2021.03.05. 부산일보, 「부산 '최고령' 제뢰등대, 힐링공간 재단장 6월 개방」
- 2021.06.30. 부산제일경제, 「해수부, 이달의 등대로 부산 남구 제뢰등대 선정」
- 2020.08.28. 다이내믹부산, 「아니, 부산에 등대가 이렇게 많았어」

### ▷ 기타 자료

- 국립등대박물관 등대와 바다 이달의 등대 '밤바다의 별이 된 부산항의 역사, 제뢰등대'  
([https://www.lighthouse-museum.or.kr/sea/article/history\\_light/detail/764](https://www.lighthouse-museum.or.kr/sea/article/history_light/detail/764))  
(<https://www.lighthouse-museum.or.kr/sea/article/lighthouse/detail/1158>)
- 다이내믹부산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7 녹산 제1수문



## 1) 개관

<b>대상</b>	녹산 제1수문 (녹산수문)	<b>소재지</b>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 일대
<b>선정연도</b>	2020년	<b>인증번호</b>	부산미래유산 제37호
<b>형성시기</b>	1934년	<b>형태</b>	유형 - 수문
<b>이력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부터 낙동강하구에 제방공사관련 기록이 있음</li> <li>· 1930년경 낙동강 직선화 공사 시작</li> <li>· 1931년 낙동강 제방축조공사 착공</li> <li>· 1934년 4월 하구둑 수문(녹산수문) 완공</li> <li>· 1992년 녹산 제2배수문 준공(녹산수문은 녹산 제1배수문으로 개칭)</li> </ul>		
<b>보존필요성</b>	· 서낙동강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제방공사가 계속되어 왔으나 자주 범람하여 홍수의 피해가 심했던 곳임		



-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낙동강 하구 제방부터 녹산수문의 건설까지 옛사람들이 자연을 극복한 불굴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최초의 하구둑 수문으로 공학적·시설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농업문화재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 [설명문]

녹산 제1수문(옛 녹산수문)은 1934년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에 설치된 수문이다. 낙동강 하류 서낙동강 끝 노적봉 옆에 있으며 1930년경에 낙동강 직선화 공사로 시작하여, 1934년 4월에 완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강과 바다를 가르는 하구둑 수문이다. 녹산 제1수문은 바다의 짙물을 차단하여 농업용수를 가능하도록 하며 홍수나 여러 날 집수로 수문 안쪽 강물 수위가 바닷물보다 아주 높게 되면 안 강의 강물을 방류하여 농지의 침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수문의 부족한 배수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 1992년 6월에 노적봉 동쪽에 녹산 제2수문을 만들면서 기존 녹산수문은 녹산 제1수문으로 개칭되었다.

녹산 제1수문은 넓이 10m, 높이 4m로 10개의 수문이 연달아 만들어져 배수 면적은 11만 2,450㎡이며 초당 960톤의 물을 바다로 내보낸다. 수문마다 통제실이 있어 이곳에서 수문 개폐, 수위 조절과 각종 재해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홍수나 갈수기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대저 취수문과 녹산 수문은 모두 강서구청 농산과에서 통제하고 있다.

녹산 제1수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하구둑 수문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새만금 방조제 수문의 원조라고 할 만큼 시설 공학적, 시설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김해평야를 이루게 한 중요한 농업문화재이다.

## 2) 관련 내용

녹산 제1수문(옛 녹산수문)은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과 노적봉 사이를 연결하며 해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대동수문과 더불어 서낙동강 김해평야의 관계배수와 조절배수 역할을 하고 있다.

1934년에 완공된 녹산 제1수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폐식 수문(開閉式水門)으로 배수문비는 10련으로 1련의 문비당 높이 4m, 너비 10m이며, 수문의 총중량은 25톤, 전동기 15마력(10대에 각 1대)이다. 배수 면적은 11만 2,450㎡이며 초당 960톤의 물을 바다로 내보낸다. 10개의 수문이 연달아 만들어져 수문마다 통제실이 있어 이곳에서 수문 개폐, 수위 조절과 각종 재해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홍수나 갈수기 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대저 취수문과 녹산 수문은 모두 강서구청 농산과에서 통제하고 있다. 녹산 제1수문과 함께 길이 118m, 높이 14m, 너비 10m인 녹산교도 동시에 만들어져 부산-진해간 국도 2호선으로 이용하였다.



녹산 제1수문이 위치한 서낙동강은 1934년 일천식 공사로 낙동강 하류가 동·서로 나뉘어져 이  
름 붙여진 강이다. 원래 서낙동강 일대는 대부분이 갈대밭이었고, 삼각주에 위치한 삼차강이라  
불리우는 세 갈래의 물줄기는 자주 범람하여 홍수의 피해를 빈번입어 매년 연례행사가 되었다.  
이에 낙동강 본류의 하폭을 넓히고 높은 제방을 축조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는 한편 서낙동강 분  
기점에 수문을 막아 김해평야에 관개용수를 흘려보내는 한편 하류에 바닷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  
남쪽에 수문을 만들었다. 즉, 대저취수문으로부터 싱거운 낙동강 물을 받아들여 수문을 이용하여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농경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수문이 부식되어 벌어진 틈으  
로 짚물이 새어들어 염도가 높을 때, 대저 취수문으로 낙동강 물을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염도  
가 높은 녹산 수문 쪽의 물을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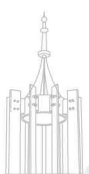
1931년 낙동강 제방축조공사가 착공하였고, 제방축조는 강바닥을 낮추고 강폭을 넓히기 위하여  
축조용 토양을 강변의 하천부지에서 채토(採土)하여 임시로 가설한 철로를 이용하여 바퀴가 달  
린(일천식(一軌式)) 궤짝에 담아 운반하는 큰 공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sup>1</sup>

1930년대에 이르러 낙동강 일천식 공사가 시작되고부터 사람의 왕래가 많았고, 성산마을의 위  
용이 커지며 광복 후에는 성산장이 5일장으로 크게 번창하기도 하였다. 하중도에서 생산되는 채  
소들이 나룻배를 타고 성산장에 모였다. 채소 수확기에는 성산장이 파시를 이루었다. 1950년대  
개설된 녹산동 5일장은 부산~진해를 잇는 관문으로서 서낙동강과 남해 바다가 맞닿는 요충지라  
는 배경에 힘입어 김해 일대에 형성된 재래시장 중 김해읍장 다음으로 상권이 크게 번성하였다.  
녹산수문 북쪽 산기슭 주변은 ‘대흥관’, ‘부산관’ 등 객주업이 번성하였고, 남쪽 해변은 막걸리 주  
정공장, 어전, 동쪽 시장 중심부는 목재소, 소전, 양철 땀쟁이, 약장수, 옹기전 등 이 1970년대  
말까지 열렸다. 이후 생곡로를 확장하면서 마을의 주택들이 많이 철거되어 성산1구의 동세가 불  
품없이 축소돼버렸다. 5일장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국도 2호선 부산~  
진해를 잇는 관문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강과 바다의 물막이가 되는 노적봉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산마을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김해읍지」는 순조 32년(1832년) 이곳을 녹도(蓀島)로 표기하고 있다. 또 김해에서 20년 간 귀  
향살이 한 이학규(李學逵)의 금관죽지사(金官竹枝祠)에도 녹도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녹도(蓀  
島)는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노적봉’으로 기록될 정도로 민족사의 애환을 간직 한 채 그 긴 세  
월동안 바다 속의 아픔이 되고 있다. ▼<sup>2</sup>

녹산 제1수문의 시설 노후화와 작은 규모로 인해 서낙동강 일대의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및 가옥 등의 침수 피해가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2년 녹산 제2수문을 축조하게 되었  
다. ▼<sup>3</sup> 이와 함께 노적봉에서 명지 쪽으로 제2녹산교가 추가로 개설되어 기존의 제1녹산교와 일  
직선으로 왕복 4차선의 새 다리가 놓였다. 또한 2009년에는 녹산 제2수문과 연계하여 녹산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여 강서지역의 모든 배수펌프장을 제어하여 강서 들녘이 물에 잠기는 걱정을 들  
어주고 있다. 펌프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홍수로 강물이 불어 마루에까지 차오르면 한없는 조바심  
으로 몇 날을 지새우기도 했다. ▼<sup>4</sup> 녹산 제2수문을 지나면 ‘순아’라는 어부의 딸이 왜군에 능욕  
당하고 골짜기에서 죽었다는 처녀골, 즉 순아도 마을이 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에코델타시티 조  
성공사로 그 형상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녹산 제1수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하구둑 수문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새만금 방조제 수문의 원조  
라고 할 만큼 시설 공학적, 시설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김해평야를 이루게 한 중요한  
농업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sup>5,6</sup>



- ▼ 1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 '낙동강 독과 수문'.
- ▼ 2 표용수, 2010,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pp.106-107.
- ▼ 3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5, 「“부산연구” ,신라대학교 창학 50주년 기념 특집호」, 2호, 소들이 나룻배를 타고.
- ▼ 4 부산 강서구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bsgangseo.go.kr/visit/>), “그때 그 시절 ‘노적봉’ ”
- ▼ 5 2019.09.02. 다이내믹부산, 「낙동강나루터, 형산진과 녹산 수문 바로알기」
- ▼ 6 2020.07.24. 강서구보 강서칼럼, 웹진 298호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녹산 제1수문 전경



성산마을에서 본 노적봉과 녹산 제1수문



수문의 측면



수문 앞 안벽과 정박장



수문의 도르래 1



수문의 도르래 2





## ▷ 사진 기록 자료



녹산수문과 성산마을 포구 전경(1950년대)

©한국콘텐츠진흥원



녹산수문 앞 나룻배에서 기념사진 찍는 형제들

©한국콘텐츠진흥원



녹산수문의 옛 모습(1950년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녹산수문의 전경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 논문 및 저서

-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5, 「“부산연구” 신라대학교 창학 50주년 기념 특집호」, 2호, 소들이 나룻배를 타고.
- 표용수, 2010,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선인.

## ▷ 신문기사

- 2019.09.02. 다이내믹부산, 「낙동강나루터, 형산진과 녹산 수문 바로알기」

## ▷ 기타 자료

- 강서구보(<https://www.bsgangseo.go.kr/news/>)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www.kocca.kr/>)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낙동강 독과 수문’
- 부산 강서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www.bsgangseo.go.kr/visit/>) “그때 그 시절 ‘노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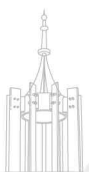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8 부산터널



#### 1) 개관

대상	부산터널	소재지	중구 영주동 ~ 서구 동대신동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38호
형성시기	1961년	형태	유형 - 터널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착공 후 해방으로 인해 공사 중단</li> <li>· 1956년 다시 공사를 착수하여 1961년 9월 15일 준공</li> <li>· 당시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다고 해서 영주터널이라는 명칭 사용</li> <li>· 부산항 화물 물동량 증가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1988년 제2부산터널 준공(이후 부산터널이라는 명칭 사용)</li> <li>· 준공 연도에 따라 제1부산터널과 제2부산터널로 구분</li> <li>· 처음에는 외굴 방식으로 지어졌으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쌍굴식으로 지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터널은 영주동에서 대신동쪽으로 일방통행로가 되었고, 제2터널은 반대 방향의 일방통행로가 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li> </ul>
보존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6년 개통한 여수터널이 국내최초의 터널이지만 군사용 터널이 아닌 일반 차량용 터널은 부산터널이 국내 최초임</li> <li>· '부산최초'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의 차량용 터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li> <li>· 부산항의 화물 물동량 대부분이 부산터널을 통과하였으니, 국가 근대화의 중요한 상징물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음</li> <li>· 현재까지도 부산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li> </ul>

### [설명문]

‘부산터널’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연결하는 660m 길이의 쌍굴 터널이다. 1961년 9월 제1부산터널이 준공되었을 때는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다고 해서 영주터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가, 1988년 제2부산터널이 준공되면서 부산터널이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터널은 1945년 이전에 착공했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중단되었으나 1956년 공사를 재개하여 1961년 9월 15일에 준공되었다. 중구에서 부산터널을 통과하면 동대신동 교차로와 서대신동 교차로를 지나 낙동대로와 연결된다. 도심에서 서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청로에서 구덕로로 멀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과 부산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1980년대 들어 부산항 화물 물동량 증가로 늘어나는 차량 통행량을 감당할 수 없어 1988년에 제2부산터널이 추가 건설되었고, 준공 연도에 따라 제1부산터널과 제2부산터널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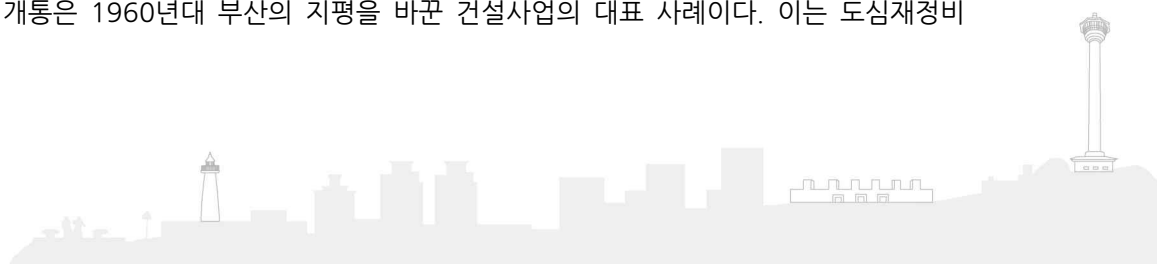
## 2) 관련 내용

부산의 지형은 대부분 산지이고, 부산의 원도심도 산기슭과 매립지에 형성되어있다. 한편 교통이 많아지면서 부산은 교통지옥의 대명사 같은 도시였다. 이의 해결책은 산을 뚫는 것이었다. ▼<sup>1</sup>

부산터널은 부산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잇는 총연장 660m의 부산 최초의 터널이다. 구봉산과 보수산이 이어지는 산기슭을 뚫어 두 지역을 연결하였으며, 본래 영주동에 있어 영주터널로 불리다가 1988년 제2터널 완공으로 부산터널로 개칭하였다.

부산터널은 일제강점기인 1945년 4월에 착공되었으나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공사가 연기, 중단되다가 1956년 공사를 재개하여 1961년 8월에 준공되어 9월 15일에 개통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터널의 착공부터 개통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이다. 부산터널은 지금은 쌍굴터널이지만 개통 당시에는 길이 640m, 너비 8.5m, 높이 6m의 편도 1차선 2차로의 외굴 터널이었다.

부산터널의 개통은 1960년대 부산의 지평을 바꾼 건설사업의 대표 사례이다. 이는 도심재정비



와 성격이 전혀 다른, 또는 그것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당시 부산의 도심에 벌어진 것이었는데, 이 터널은 당시 부산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동네이자 법원 · 검찰청 · 교도소 같은 사법집행기구가 권역을 이루고 있던 대신동과 부산 도심을 이으면서 ‘지리적 호명’이라고 하는 국가 통치술의 공간적 구현을 담당한다. ▼<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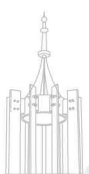
부산터널 개통식은 1961년 9월 15일에 열렸다. 부산 첫 터널이고 광복 이후 첫 터널인 만큼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이 직접 테이프 커팅을 했다. “개통식 하는 날 박정희 최고위원이 온다고 해서 단체로 나가 태극기를 흔들었지요.” 건축 관련 일을 하는 김문철 기술사는 이 무렵 초등학교. 박 의장 환영 인파에 섞여 태극기를 흔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개통되기 전 터널 안은 탄광 같았으며 물이 질퍽질퍽한 길을 걸어서 중간쯤 갔다가 되돌아온 추억담도 들려준다. ▼<sup>3</sup> 터널 개통식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1961년 터널 개통식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참석할 정도로 당시 기술력으로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던 듯하다. 터널 개통식 행사장에는 그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마지막 행사로 테이프를 절단하려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쨍그랑! 하고 무엇인가 땅바닥에 박살이 났다고 한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단상의 많은 배석자들이 의장 전용의 방탄 연설대 뒤에 혼비백산 엎드려 숨는 꼴들과,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도 의연한 의장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리는 경축용 비둘기와 오색종이를 가득 담아 넣어둔 대바구니 속의 큰 쟁반이 땅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면서 난 것이었다. 쟁반은 어떤 사람이 대바구니 속에 있는 경축용 비둘기가 테이프 절단식 때 배고파서 날지 못하면 어쩌나 염려하여 비둘기 모이를 담아 대바구니 속에 넣어 두어둔 것이었다고 한다. 그 사건은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그때 박 의장의 태연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sup>4</sup>

개통 당시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했던 것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던 때이므로 지나다니는 차량 수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의 왕래가 잦았다. 터널의 개통으로 두 지역을 오가는 데에 훨씬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단축되었다. 또한 터널을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걸어서 이를 관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지금은 흔한 것이 도로터널이지만 당시로서는 신기한 것이었다. 여수의 마래 제1, 2터널이 1926년에 개통되어 도로터널로서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터널이 일제의 군사용 도로로 사용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부산터널이 도심지 내에 개통된 자동차용 도로터널로서는 거의 우리나라 최초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때 중구 영주동에 위치한다고 해서 영주터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점차 교통량 증가로 1986년 5월에 부산터널 옆에 제2터널을 착공하여 1988년 6월 25일에 총길이 660m, 너비 9.5m, 높이 5m의 제2터널이 개통되었다. 부산터널이 서구와 중구를 최단 시간에 연결하여 출퇴근시간 정체가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제2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쌍굴터널이 된 부산터널은 영주동에서 대신동으로 가는 2차선의 일방통행로를 제1터널로, 새로 뚫은 터널을 반대로 운행되는 제2터널로 하였다. 터널의 이름도 애칭으로 부르던 영주터널에서 부산터널로 개칭하였다. 부산터널 준공으로 격증했던 교통량이 흡수되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산항의 화물수송도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물류운반비 절감 등에 기여하였다.

이후 영주터널은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1988년 제 2터널이 개통되면서 부산터널로 개칭하게 되었는데, 부산항의 물류를 서부지역으로 이어 주는 터널이다. 영주터널은 부산의 서구지역과 동



구지역을 이어주는 가장 빠른 길로 기록되고 있다. 영주터널이 없었으면 부산시민은 항상 남포동지역을 통해 동구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sup>5</sup>

부산터널 주변에는 우리나라 근대사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있다. 부산터널 입구에서 대청로 국제시장 입구 사거리로 이어지는 메리놀병원 앞 고개는 한국전쟁 때 부산에 상륙한 유엔군이 군용목적으로 아스팔트로 포장한 부산 최초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제1호였다. 이 고갯길을 영선로(현 중구로) 라고도 하고 유엔도로 또는 유엔고개라고도 한다. 도로 중간에는 한국전쟁 때 피란민의 무료 진찰과 치료를 하며 생명 사랑을 실천했던 메리놀병원과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된 코모도호텔 등 유서 깊은 곳들이 있다.

부산터널 주변의 영주동 산비탈에는 유난히 많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모두 판잣집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던 곳이다. 해방 이후 귀환동포, 한국전쟁 피란민이 몰려들면서 판잣집들이 지어진 뒤에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눌러앉아서 생겨난 동네들이다. 당시 부산항으로 입항한 외국인들이 판자촌에서 새어나오는 아름다운 야경에 놀랐다가, 다음날 아침 그것이 초라한 판자촌이었다는 사실에 두번 놀랐다고도 하는 일화가 있다. 범천동, 초량동, 수정동 등의 산비탈 집들도 이와 같은 사연으로 생겨난 동네들이다.

- ▼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21,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재)부산연구원, p.157.
- ▼2 전국조, 2015, 「터널과 다리의 도시, 부산」, 비온후, pp.86-87.
- ▼3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87-89.
- ▼4 다이내믹부산, 2014, 「1961년 영주터널로 개통, 국내최초 차량 터널」.
- ▼5 대인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2012, 「사건과 기록으로 본 부산의 어제와 오늘」, 부산학연구센터,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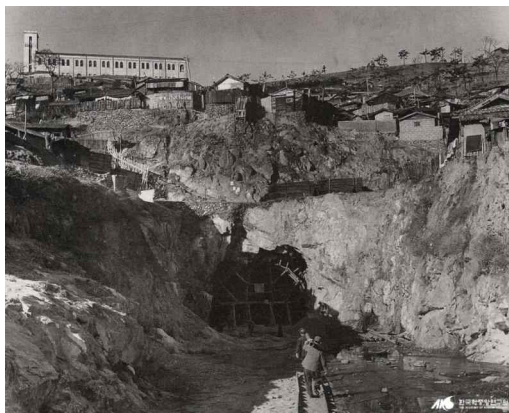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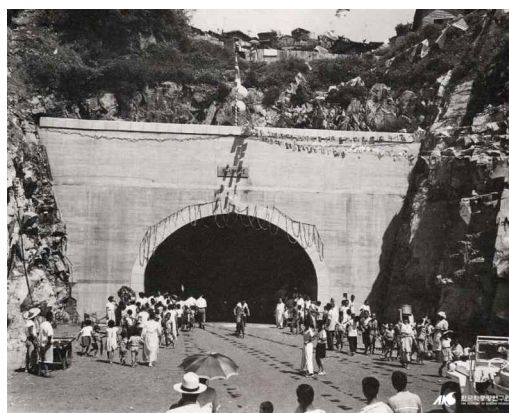


현재 부산터널 전경

#### ▷ 사진 기록 자료



부산터널 공사현장(1961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터널 개통식(1961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터널 개통식 내부(1961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제2부산터널 개통식(1988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 논문 및 저서

- 대인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2012, 「사건과 기록으로 본 부산의 어제와 오늘」, 부산학 연구센터.
-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21,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전국조, 2015, 「터널과 다리의 도시, 부산」, 비온후.

### ▷ 신문기사

- 2014.02.06, 다이내믹부산, 「1961년 영주터널로 개통, 국내최초 차량 터널」
- 2017.01.22. 부산일보, 「도로 좁고 컴컴하고 시설 방치… 대형사고 날라」.
- 2018.09.17. 국제신문, 「터널도시 부산」.
- 2017.01.22. 부산일보, 「서부산 관문터널(부산·대티·구덕터널) 리뉴얼하자」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다이내믹부산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 1. 유산별 심화연구

### 1.19 송도해수욕장



#### 1) 개관

대상	송도해수욕장	소재지	서구 암남동 일대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39호
형성시기	1913년	형태	유형 - 해수욕장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3년 송도유원을 설립하면서 해수욕장으로 개발, 일본거류민을 위한 수정(水亭) 휴게소를 설치, 해안가를 해수욕장으로 조성하여 한때 '동양의 나폴리'로 불림</li> <li>· 1961년 여름 국제신보사 주최 '바다의 카니발'과 '제16회 광복절과 부산터널 개통 기념행사' 등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li> <li>· 1964년 송도해수욕장 서쪽 진정산 자락과 거북섬을 지나 송림공원으로</li> </ul>		



	<p>이어지는 케이블카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5년 거북섬 위에 구름다리 설치</li> <li>· 1970~1980년대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지로 유명</li> <li>· 1987년 7월 케이블카 운행 중단</li> <li>· 2000년 수중 방파제 설치</li> <li>· 2000년~2005년 송도 연안 정비 사업(이안제, 양빈사업 등)</li> <li>· 2002년 5월 구름다리 철거</li> <li>· 2013년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li> <li>· 2017년 케이블카 복원</li> <li>· 2020년 구름다리 복원</li> </ul>
<b>보존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으로 역사성을 지니기에 보존 필요성이 큼</li> <li>· 1960~70년대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의 추억과 낭만을 간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음</li> <li>· 1987년, 2003년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이후 정비사업을 통해 송도해수욕장의 대표적인 놀이시설들을 복원하고 연안 정비 사업을 실시하면서 부산의 중요한 명소로 재차 자리 잡음</li> </ul>

### [설명문]

‘송도해수욕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해수욕장이자, 우리나라 제1호 공설해수욕장이다. 송도해수욕장은 부산 도심에서 약 3km 정도 거리에 이격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도심 관광지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한국전쟁기의 송도해수욕장은 전쟁의 고통과 피란살이의 힘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해방구의 역할에서 1960~70년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케이블카, 구름다리, 다이빙대, 포장유선 등)을 갖춘 낭만이 가득한 곳으로 그 장소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송도해수욕장은 1913년 송도유원을 설립하면서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었다. 거북섬과 인근 산자락에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어 송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남으로 바다를 끼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해수욕장이다. 송도해수욕장은 진정산~장군산~천마산으로 이어지는 산록부와 거북섬과 이어지는 송림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64년 4월 송도해수욕장에는 동쪽의 거북섬을 특화하는 케이블카와 구름다리가 설치되었다. 이후 다이빙대와 보트까지 설치되며 1970~1980년대까지 관광위락단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다가 거북섬의 놀이시설이 폐쇄되고 송도 바닷물의 오염과 백사장 면적 감소 등으로 점차 외면 받으며 침체를 겪었다. 케이블카는 1987년 7월에, 구름다리는 2002년 5월에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2000년부터 5년여 동안 송도해수욕장의 재생을 위한 대대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하여 반



복되는 태풍 피해와 모래 유실을 막는 수중방파제 및 이안제를 설치하였고, 그 결과 사계절 해변 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좁고 갈라졌던 자갈 마당 같던 연안은 회고 고운 넓은 모래사장이 되었다. 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2016년 3월 23일 착공, 2017년 6월 20일 준공 개장하여 29년 만에 복원되었다.

## 2) 관련 내용

191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장된 송도해수욕장은 울창한 원시림과 자연 그대로 보존된 기암괴석, 묘박지를 배경으로 한 조용한 바다 절경이 특별하다. ▼<sup>1</sup> 송도해수욕장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최초 해수욕장으로 개장 100주년을 맞이하였고, 오랜 역사와 함께 도심 가까운 곳에 위치한 채 현재까지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부산의 송도해수욕장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sup>2</sup>

송도해수욕장은 부산 서구 암남동 장군 반도 남단에 위치하였으며, 면적은 301,131m<sup>2</sup>이다.(사장면적 9,900m<sup>2</sup>) 옛날 이곳에 송림(松林)이 많이 우거져 있다고 해서 송도(松島)란 지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송도의 자연 지리적 조건을 살려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서였다.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던 대신동, 암남동과 가까운데다 수심이 얕고 깨끗한 송도가 해수욕장으로 적당한 곳이라 여긴 일본인들은, 일본인 고위 공직자들을 접대할 장소도 필요하였기에 이곳을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조선 속 일본문화를 기록한 「일선통교사」(1916년 간행)에는 송도가 백사장이 회고 물이 깨끗하여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본인 자본가 23명이 '송도유원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정(水亭)'이라는 휴식소(휴게소)를 설치하고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개장 이후, 부산에 사는 일본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행락객이 늘어났고, 1920년대 송도 윗길에 자동차도로로 개통되고 매시간 운항하는 도선까지 생기면서 더욱 많은 사람이 송도를 찾았다. 그 시절에 탈의장과 세면실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1934년 7월에 20만 명이 송도를 찾은 것을 보면 전국에 그 명성이 자자했음을 알 수 있다. ▼<sup>3</sup>

송도해수욕장의 대명사였던 다이빙대는 1925년 7월 만들어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신식 다이빙대는 원산해수욕장에만 있었는데 송도에서도 1925년 7월 10여 명의 선수가 일제히 다이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송도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시설 확충과 부산일보사의 여러 가지 노력에 힘입어 1933년 7월 24일 부일데이(釜日デー) 경우 송도에 3만 명이 모이는 대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sup>4</sup>

송도해수욕장은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으로서 그 명성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그리고 해수욕장으로서 각종 시설을 완비해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배, 자동차, 버스 등의 교통이 준비되어 있어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김천 등 전국 각지에서 피서객이 찾아와 매년 대성황을 이룬 최고의 해수욕장이었다. ▼<sup>5</sup>

송도해수욕장은 60~70년대에는 부산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해수욕장이었다. 송도해수욕장은 부산에 사는 장년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산 최초이자 우리나라 제 1호 해수욕장,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며 당시 전국에서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송도가 최고의 유흥지로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고급 숙소인 덕성관을 비롯하여, 요정, 여관 등이 잇달아 들어섰기 때문이다. 덕성관은 박정희 대통령도 묵었다 갈 정도로 당시 가장 유명한 호텔이었다. 당시 해운대해수욕장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어촌이었고,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서 사람들이 찾긴 했지만 송도와 비견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송도해수욕장 개장 이후 학교 차원에서 송도해수욕장을 많이 이용했던 이유는 근대 초기 일본에서 학생들의 운동회와 소풍, 군사체조 등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결합된 형태로 학교 밖 바닷가나 강변 둔치, 언덕빼기 등에서 행사들이 많이 열렸던 교육관습과 관련이 있었다. ▼<sup>6</sup>

1964년 4월 송도의 서쪽 산언덕과 동쪽 거북섬을 잇는 420m 거리에 우리나라 최초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었고, 거북섬과 송림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는 유명한 관광명소였다. 해수욕장의 다이빙대가 인기를 더했고, 250여척의 보트가 송도 앞바다를 가득 채워 청춘남녀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다. 게다가 70년대 초반 송도 아랫길에 개통되면서 송도해수욕장에 가기가 쉬워졌고, 청춘남녀의 데이트 코스와 신혼여행 장소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흰 천막이 드리워진 유선을 타고 송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필수 코스였는데, 음료수와 간식을 싣고 다니는 해상매점이 인기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도시의 팽창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근 위락시설에서 배출되는 해수오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사장이 좁아져 해수욕장으로서의 인기는 식기 시작했고 점차 송도해수욕장은 뱃놀이와 생선회 등을 즐기는 유원지로 변모해갔다.

2000년에 이르러 5년여간의 대대적인 연안정비사업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피해와 모래유실을 막는 수중방파제와 이안제가 설치되었고, 삭막하던 해변은 아름다운 분수와 함께 친수공간이 되고, 좁고 갈라지고 자갈마당 같던 사장은 회고 고운 모래사장이 되었다. 2007년 9월 송도해수욕장 앞 해상에 전국 최초의 해상조각작품인 고래 조형물을 설치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야간경관 조명과 분수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해안선과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밤바다 분위기를 연출한다. 송도는 여름바다축제로 그 빛을 더하는데, 해마다 현인가요제가 열려 화려한 음악선율과 함께 밤바다를 즐길 수 있다.

송도해수욕장은 2012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한국관광 기네스' 국민투표에서 총 12개 명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는데, 국내 해수욕장으로는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기념하여 서구청은 1월 7일에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 조형물을 세웠으며, 2016년 3월 23일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착공하여, 2017년 6월 20일 준공, 개장하여 29년 만에 복원되었다. 케이블카의 총연장 길이는 1.62km(터미널→ 거북섬→ 송도해수욕장→ 암남공원→ 터미널)로 소요시간은 약 8분 30초이며,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운행 탑승기 39기(8인승) 중 13기는 바닥을 투명하게 만들어 발아래 아찔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최고 86m 높이의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은 맑은 날인 경우 일본 대마도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sup>7</sup> 송도해수욕장 100년의 역사는 부산 사람들 추억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재정비 사업을 거쳐 부산 사람들의 추억의 장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 ▼1 김승우, 2020,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호밀밭, p.36.
- ▼2 김승, 2013, “동양의 나폴리, 송도해수욕장의 형성과 변천과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8호, p.121.
- ▼3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18-21.
- ▼4 김승, 2013, “동양의 나폴리, 송도해수욕장의 형성과 변천과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8호, pp.124-136.
- ▼5 손환 외 1명, 2019 “일제강점기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24권 2호, p.13.
- ▼6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18-21.
- ▼7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송도해수욕장’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대한민국 제1호 공설해수욕장을 알리는 홍보물과 타임캡슐



거북섬과 케이블카의 전경



현재의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다이내믹부산



현재의 송도 해상케이블카  
©한경닷컴



## ▷ 사진 기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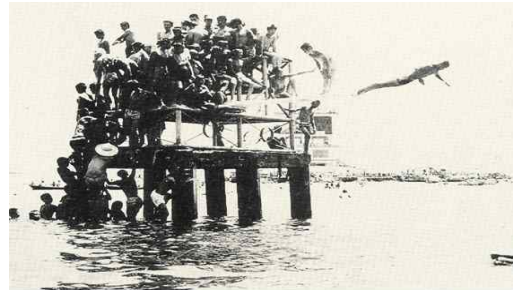
1910년대 초 송도해수욕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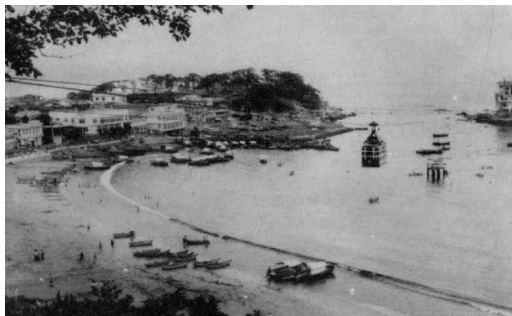
1920년대 송도해수욕장 전경  
©부산광역시 서구청



1930년대 송도해수욕장과 다이빙대  
©한국저작권위원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50년대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부산광역시 서구청



1965년 송도해수욕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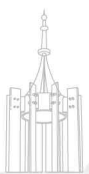
1970년대 송도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서구청



2000년 정비 전의 송도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서구청



2004년 정비 중인 송도해수욕장  
©네이트



### ▷ 논문 및 저서

- 김승, 2013, "동양의 나폴리, 송도해수욕장의 형성과 변천과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8호.
- 손환 외 1명 2019, "일제강점기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24권 2호.
- 김승우, 2020, 「101가지 부산을 사랑하는 법」, 호밀밭.
-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 ▷ 신문기사

- 2013.07.16. 국제신문, 이상봉,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4> 추억의 송도해수욕장」
- 2019.10.23. 서구신문, 「우리가 몰랐던 서구 이야기 1.송도해수욕장」
- 2013.07.08. 「다이내믹부산, 송도해수욕장 명물, 다이빙대 다시 섰다」

### ▷ 기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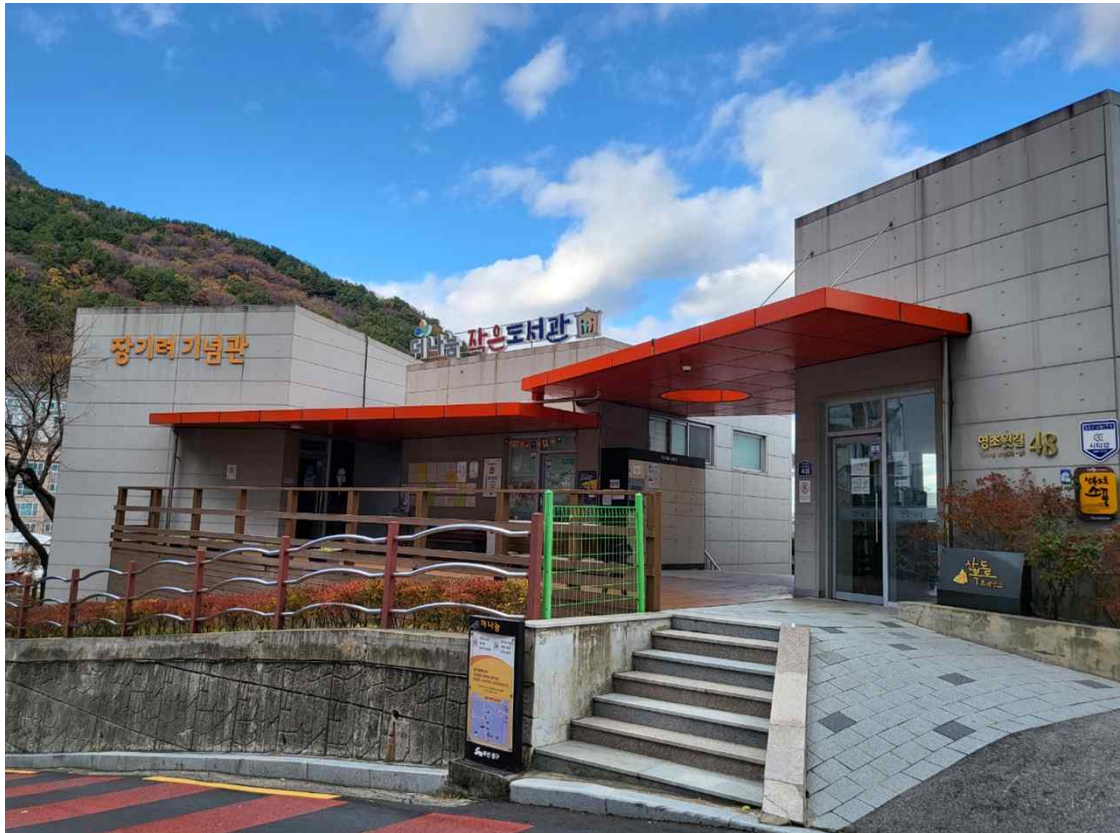
- 다이내믹부산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송도해수욕장’, ‘부산 놀이 문화 일번지 송도의 추억’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 부산 서구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bsseogu.go.kr/tour/>)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0 장기려기념관



#### 1) 개관

대상	장기려기념관 (장기려기념 더 나눔센터)	소재지	동구 영초윗길 48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40호
건립시기	2013년	형태	무형 - 장기려 박사 유형 - 기념관
이력사항	<p>〈장기려 박사 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1년 8월 평안북도 용천군 출생</li> <li>· 1923년 평안북도 용천 의성소학교 졸업</li> <li>· 1928년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졸업</li> <li>·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li> <li>· 1940년 평양연합기독병원(기흥병원) 외과 과장 부임, 일본 나고야제국대학</li> </ul>		



	<p>의학박사 학위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의 설상절제수술 성공</li> <li>· 1945년 11월 북한 제1인민병원(평양도립병원) 원장 재직</li> <li>· 1947년 평양의과대학 외과교수로 재직</li> <li>· 1950년 12월 월남하여 부산 정착, 부산 제3육군병원 외과 근무</li> <li>· 1951년 7월 제3영도교회의 복음진료소(현 고신대병원 전신)에서 진료시작</li> <li>· 1959년 한국 최초 대량 간 절제수술 성공</li> <li>· 1968년 현 의료보험제도의 효시이자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청십자의료보험조합 설립 (20년 동안 연인원 788만 명이 혜택 받음)</li> <li>· 1969년 간질환자회(장미회 전신) 설립</li> <li>· 1975년 청십자 의료원 설립</li> <li>· 1976년 청십자사회복지회 설립</li> <li>· 1976년 제1회 부산시 '선한 시민상' 수상</li> <li>· 1979년 8월 라몬 막사이사이 상(Ramon Magsaysay Award) 사회봉사 부문 수상</li> <li>· 1995년 12월 85세로 별세</li> <li>· 199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li> <li>· 2006년 허준에 이어 두 번째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li> </ul> <p>&lt;장기려 기념관(장기려기념 더 나눔센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4월 부산과학기술협의회·장기려기념사업회·복음병원·청십자조합·부산 YMCA 등 장기려 기념 더 나눔센터 개관</li> </ul>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한국 간 외과학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장기려 박사를 기리기 위한 장소라는 점에서 미래적 가치를 지님</li> <li>·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이자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효시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한 인물임</li> <li>· 한평생 봉사와 나눔을 실천했던 장기려 박사의 인간존중 철학이 있는 보건·복지·문화의 복합 공간임</li> </ul>
비고	<p>장기려 박사의 정신 계승을 위해, 단순 기념관이 아닌, '장기려 유적'으로의 미래유산의 명칭 수정 고려</p>

### [설명문]

2013년 개관한 동구 초량동의 '장기려기념 더 나눔센터'는 평생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한 성산(聖山) 장기려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다. 장기려 박사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의사이자 사회 활동가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의료보험의 시초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동구 지역에 설립하였다.





장기려는 1911년 음력 8월 14일 평안북도 용천군 양하면 입암리에서 한학자이던 안동장씨 장운섭과 최윤경의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당시 외과계의 권위자 백인제 교수의 제자로 경성의전 외과학교실의 조수가 되었다. 1940년 9월 나고야(名古屋)대학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45년 11월부터는 평양 도립병원, 평양의과대학에서 근무하였다. 6.25전쟁 때는 둘째 아들 장기용만 데리고 남하하였다가 1950년 12월 부산 제3육군병원에 근무하면서 부산에 정착하면서 의료, 사회봉사, 후학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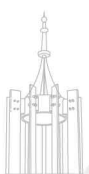
1951년 6월에는 영도구 남항동에서 천막병원을 차려 무료병원을 열었다. 1956년 10월에는 송도에 250평 규모로 복음병원을 지었다. 현재의 고신의료원이다. 1976년 6월까지 인술과 봉사와 박애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 카톨릭대학교의 의과대학 및 부산복음간호전문대학 등지에서도 후학을 양성하였다. 1959년 2월에는 간의 대량절개수술을 성공하였으며, 그 선구적 공로를 인정받아 1961년에는 대한의학협회의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1968년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로, 소외계층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주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발족하였으며, 1975년에는 의료보험조합의 직영으로 청십자병원을 설립하고, 1976년에는 한국청십자사회복지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털어 주었으며, 가불이 금지되자 뒷문으로 도망치게 도와주기도 하였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신만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제자들이 자신의 흉상을 제작할 때 화를 내기도 하였다 한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절반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청진기를 놓지 않았다.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지 말고 화장해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1995년 12월 숨을 거뒀다. 떠나는 날, 통장에 남아있던 천만 원마저도 간병인에게 선물로 쥐 버리고 빈손으로 떠나갔다. 평생 집도 없이 병원 한구석 방에서 무소유를 실천하였다.

모란공원에 세운 그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은 선량한 부산 시민, 의사, 크리스천, 이곳 모란공원에 잠들다”

1997년 7월에는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쪽방 무료 진료소 이어 청십자 무료 진료소를 부산에 개소하였으며, 2001년부터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의 해외 의료봉사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동창회에서 장기려 의도상(醫道賞)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산지역에서 청년장기려 의학상이 제정되었다. 간질환자 치료활동 단체인 장미회는 활동영역을 해외까지 넓히고 있으며, 장기려기념의료선교센터의 의사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sup>1</sup>

## 2) 관련 내용

"이 환자에게 닭 두 마리 값을 내주시오." 가난한 환자가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의사는 처방전을 이렇게 썼다. 처음에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던 간호사들도 차츰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수술비가 없는 환자에게 자기 월급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았다. 병원비를 낼 수 없는 딱한 사정을 듣고는 원무과 직원이 모르게 환자를 야밤에 탈출시킨 적도 있다. 한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가난한 이를 위해 의술을 펼친 성산 장기려(聖山 張起呂·1911~1995) 박사의 이야기다 ▼<sup>2</sup>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성산(聖山), 기창(起昌). 1911년 8월 14일 평안북도 용천군 양하면 입암동 793번지에서 아버지 장운섭(張雲燮)과 어머니 최윤경(崔允卿)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장기려(張起呂)의 집안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독교를 신앙하였는데, 특히 할머니 이경심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장기려에게 종교적 영향을 미쳤다.

장기려는 1923년 고향에서 아버지가 세운 의성소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 교실 백인제 교수의 조수로 의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1940년 평양연합기독병원[기흥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부임하여 본격적인 의사 생활을 시작하는 한편 일본 나고야제국대학[名古屋帝國大學]에서 「급성 충수염 및 충수염성 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45년 11월 북한 제1인민병원[평양도립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1947년에는 김일성대학의 초빙을 받아 강의하였으며, 김두봉 등과 함께 북한 최초로 수여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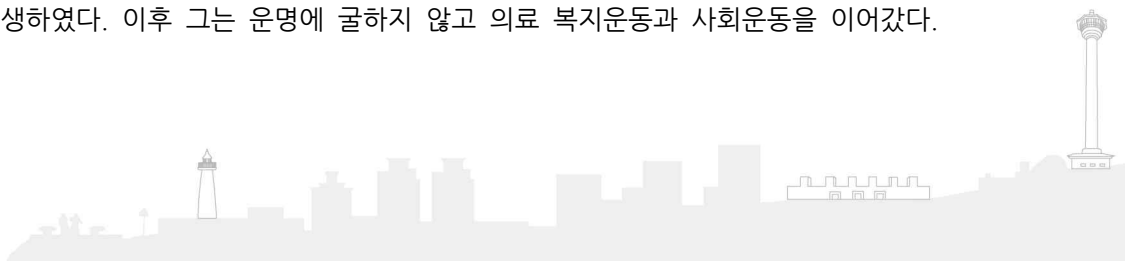
6·25전쟁 초창기에 그는 김일성대학 부속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미군의 폭격으로 소위 ‘친자 폭탄’의 파편이 박힌 환자를 하루에만 49명을 수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기려는 후퇴하는 북한군의 퇴로를 따르지 못하고 평양에서 체류하다 평양에 들어온 국군병원과 유엔 민사처의 병원에 근무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동기로 작용하여 장기려는 1950년 12월 3일 월남하여 부산에 정착하였다. 부산에서 그는 제3육군병원 의사로 재직하는 한편 미국에서 귀국하여 고려신학 계통의 장로교회에 ‘경남구제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던 전영창(全永昌,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을 만나게 된다.

전영창에게서 무료 구제 병원의 설립과 원장 직을 제의받은 장기려는 그와 함께 1951년 7월 1일 복음병원[고신대병원]을 설립하였다. 복음병원은 처음에 영도구 남항동에 설립하였다가 서구 암남동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 옮겼다. 장기려는 1976년까지 복음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sup>3</sup>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듯, 그는 복음병원을 세워 ‘인술평화’를 실천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 가난한 성자(聖者). 장기려를 수식하는 말들은 그가 살아온 삶을 대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1932년 경성의전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장기려는 1940년 평양 기흥병원(Hall Memorial Hospital)에 부임한다. 그가 부산으로 남하한 것은 6·25 전쟁 때문이었다. 수많은 피란민들이 가난과 질병을 안고 부산으로 몰려왔다. 장기려는 1951년 영도구 영선동에 ‘복음병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무료 천막병원을 세운다. 당시 환자들은 대부분 피란민이거나 행려병자들이었다. 가난한 형편 탓에 입원비나 치료비를 내지 못하자 그는 무료 치료라는 처방전을 썼다. 1956년 송도로 복음병원을 지어 옮겼을 때는 무료 병원을 계속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1968년 5월 만든 것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었다. 국내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다. 동구 초량 텍사스 거리 입구에 있던 고신 복음병원 초량분원에서였다. 청십자 의보조합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이가 사회운동가 채규철이다. 채규철은 장기려의 집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하던 ‘부산모임’에서 덴마크 유학 기간 중 경험한 사회 보장 제도를 소개했고, 청십자의 실무적인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운명은 냉혹했다. 채규철은 1968년 10월 교통사고 폭발 사고로 팔다리가 온전하지 못할 정도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으나 장기려의 도움으로 27번의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소생하였다. 이후 그는 운명에 굴하지 않고 의료 복지운동과 사회운동을 이어갔다.



청십자 의보조합은 초기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스웨덴 아동구호연맹의 지원으로 2,700여 세대 1만 2,000여 명을 청십자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부산이 실험한 민간 의료 보험 조합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십자 의보조합은 1975년 청십자의원을 열었고 1981년 손익 분기점 으로 보는 조합원 3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1983년엔 조합원이 10만 명에 이르렀다. 1988년에는 청십자 소비조합을 열었다. 그러다 1989년 전 국민 의료 보험이 실시되면서 청십자 의보조합의 이상이 실현되자 발전적으로 해체했다. 당시 조합원 24만 명에 연 15억 이상의 흑자를 냈고, 지정 의료 기관이 480여 곳에 달했다. 6·25 전란을 딛고 장기려라는 성자 같은 의사가 앞장서 일군 청십자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장엄한 복지 서사시 같다. 복지 개념의 한국 의료보험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된 것은 장기려가 뿌린 청십자 씨앗 덕분이다. ▼<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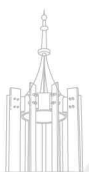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1968년, 환자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식구들처럼 생각하는 그의 과묵한 사랑의 인술 실천은 마침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지극한 신앙적 개인윤리가 보편적 사회윤리로 접목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여기에서 본다. 그 해 5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83년 10월까지 원장을, 그 후에는 명예 원장으로 숨 많은 극빈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돌봤다. 의사 두 사람으로 시작한 이 진료소는 1975년 초량역전에 청십자 병원으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발전하였다. 외과 수술은 물론 장 박사의 몫으로 명의의 이름이 인근에 퍼져나갔다. 누구나 조합원비 600원만 내면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이야기이다. ▼<sup>5</sup>

그는 한 세기를 품미한 뛰어난 의사였다. 6·25 전쟁 이전에는 평양 김일성대학을 대표하는 의대 교수였고, 월남해서는 명의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1943년 국내 처음으로 간암 환자의 암 덩어리를 떼어내는 수술에 성공했다. 일제강점기 일본 의학계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수술을 국내에서 성공시킨 것이다. 1959년에는 국내 최초로 간의 70% 가량을 들어내는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하는 등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 중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일상적인 삶은 너무나 서민적이고 초라했다. 한평생을 집 한 채 없이 고신대 복음병원 옥탑방에 기거한 이야기는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다. ▼<sup>6</sup>

언제 누가 지었는지, 그에게는 ‘성산(聖山)’이란 호가 주어져 있다. 기독교 정신에 평생 투철했던 그의 봉사 정신은 그야말로 그의 존재를 ‘성스러운 산’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었으니, 알맞은 호가 아닐 수 없다.

장기려는 1995년 12월 25일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기독교에 독실했던 의사 장기려로서는 기독교의 명절에 세상을 하직한 것도 우연치고는 기억하기 좋은 일이란 생각도 든다. 지난해 그의 기념사업회와 부산의 고신대 등에서는 그의 10주기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복음병원 원장을 하면서 치료를 거의 마친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고, 자기의 농사일은 돌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는 밤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라며 병원 뒷문을 열어 놓은 일 도왔다는 얘기로도 유명하다. 농부의 사정을 딱히 여긴 그는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밤에 문을 열어 놓을 테니 살짝 도망치세요.” 환자의 도망을 방조했던 의사 장기려는 말년을 그가 봉직했던 복음병원의 10층에 있는 20평 남짓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평생 검소한 삶을 살다간 모습을 여기서도 엿보게 된다.

1985년 9월 그는 정부로부터 북한 방문을 제안받았다. 남북고향 방문단 및 예술단이 서울과 평



양을 오갈 때 그에게 특혜를 주려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내가 평양에 간다면 그곳에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남쪽에서 살 수 있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면 가겠지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이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이 많은데 자신만이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도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아내에게 전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것은 두고 온 2남 3녀의 자식들을 잘 키워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만남을 기약한다는 내용이었다. ▼<sup>7</sup>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을 향한 그의 봉사 정신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1979년 라몬 막사이사이 사회봉사상을 받은 것은 특기할만하다. 1996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고, 2006년에는 임상 의사로는 허준에 이어 두 번째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그러나 장기려에게 돌아간 영광은 대부분 사후 그의 아름다운 영혼이 잠든 뒤의 일이었다. 송도 고신대 복음병원에는 장기려 옥탑방이 있다. 올라가는 계단은 아주 좁고 가파른 층계다. 계단 벽에 온화한 모습의 장기려 박사 사진이 걸려 있다. 이 옥탑방은 원래 복음병원 7층 건물 옥상에 전화 교환수들이 근무하던 방이었다. 이 병원에서 25년간 병원장을 지낸 장기려 박사를 위해 병원 측에서 좋은 관사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장 박사가 한사코 거절해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방이라고 한다. 방안에는 책상과 허름한 소파, 풍금이 있다. 책상에는 친필 진료일지와 의학 서적, 성경책, 메모지 등이 놓여 있다. 누군가 장 박사에게 선물한 그림 액자 속의 시구가 눈길을 끈다.

'새야 새야 작은 새야/너는 내친구 나는 네 동무/내 무덤에 달빛 외롭거든/깊고 고운 목소리로/내 슬픔을 잠재워다오.' 성자는 떠나고 유품만 남았다. 장기려의 희생과 봉사 정신은 후대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동구와 장기려 기념사업회는 2013년 동구 초량동 산복도로에 장기려를 기념하는 '더 나눔' 기념관을 세웠다. 이곳에는 장기려의 나눔 활동, 업적, 일화들이 이야기 형태로 전시돼 있다. 고신대 복음병원과 부산 서구는 2015년 3월 병원 앞 감천로 구간 822m를 '장기려로(路)'로 지정해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sup>8</sup>

예수처럼 살고 싶었던 장기려는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평생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벗’임을 자처하며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다간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칭송받았다. ▼<sup>9</sup>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신조였고 또한 그가 후학들에게 물려준 그의 철학이기도 했다. 우리가 존경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보여준 진가일 것이다. ▼<sup>10</sup>

그의 비문은 아름다운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909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나시고 1995년 서울에서 승천한 의학박사 장기려 그는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선량한 부산시민, 의사, 크리스천.’ ▼<sup>11</sup>

▼1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장기려’

▼2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7, 「〈2017 부산학 시민 총서〉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재)부산연구원.

▼3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장기려’

▼4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7, 「〈2017 부산학 시민 총서〉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재)부산연구원.

▼5 조형균, 2004, “성산(聖山) 장기려(張起呂) 박사(1909 - 1995) - 그 생애의 비밀을 찾아서”, 「신학연구」, 46권, p.304.



- ▼ 6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7, 「〈2017 부산학 시민 총서〉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재)부산연구원.
- ▼ 7 박성래, 2006,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 「과학과 기술」, 39권 6호, p.103.
- ▼ 8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7, 「〈2017 부산학 시민 총서〉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재)부산연구원.
- ▼ 9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2021, 「부산학 거의 모든 부산」, 함향, pp.120.
- ▼ 10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2016 부산학 교양 총서〉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재)부산연구원, p.277.
- ▼ 11 장병호, 2006, 「이걸음 이대로 성산(聖山) 장기려 박사의 삶」, 부산과학기술협의회, pp.112.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장기려 기념관 입구



장기려 기념관 내부



장기려 기념관 층별 안내도

#### ▷ 사진 기록 자료



장기려 박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 현판 앞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 회진 모습  
©고신대복음병원



장기려 박사 수술 모습  
©고신대복음병원



진료를 보는 장기려 박사  
©조선일보 DB



장기려 박사 장례식  
©국제신문

## ▷ 논문 및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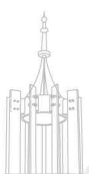
- 박성래, 2006,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과학과 기술』, 39권 6호.
- 조형균, 2004, “성산(聖山) 장기려(張起呂) 박사(1909 - 1995) - 그 생애의 비밀을 찾아서”, 『신학연구』, 46권.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2016 부산학 교양 총서〉 부산의 생활문화 유산」, pp.277, (재)부산연구원.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7, 「〈2017 부산학 시민 총서〉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재)부산연구원.
-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2021, 「부산학 거의 모든 부산」, 함양.
- 부산광역시, 2004,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Ⅰ)」, 부산광역시.

## ▷ 신문기사

- 2016.04.05. 따지일보, “[사회]장기려 박사와 의료보험,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 2018.01.07. 크리스천투데이, “장기려 박사의 도움 못 잊어 50년만에 찾아온 ‘기부천사’”
- 2019.01.04. 다이내믹부산, “김혜민, “주말 아이손 잡고 가기 좋은 곳, 장기려 박사기념관”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장기려’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장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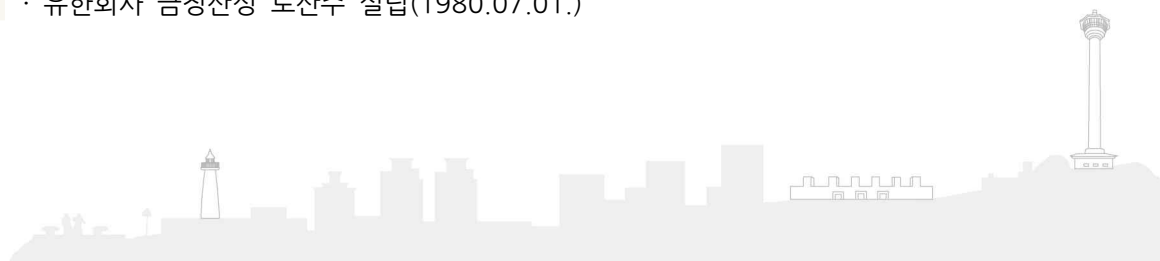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1 금정산성 누룩방



#### 1) 개관

대상	금정산성 누룩방*	소재지	금정구 산성마을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 미래유산 제41호
형성시기	미상	형태	유·무형 - 개인 누룩방, 제조기술
이력사항	<p>&lt;금정산성 막걸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정산성 막걸리의 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구전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산성마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함</li> <li>· 문헌기록은 조선 숙종 때 금정산성 증축공사와 관련된 기록에 전함</li> <li>· 1960-70년대 누룩제조 금지 및 밀주 단속에도 산성마을 내부에서 누룩제조와 막걸리가 은밀하게 유통된 것으로 기록됨</li> <li>· 150여명의 주민들이 금정산성 토산주생산조합 설립(1979.01.12.)</li> <li>· 대한민국 민속주 1호(1979.07.01.)(대통령령 제 9444호)로 지정</li> <li>· 유한회사 금정산성 토산주 설립(1980.07.01.)</li> </ul>		





- 막걸리 제조 판매 허가(1980.07.02. 동래 세무서)
- 막걸리 판매 시작(1980.09.05.) : 상품명 : 부산산성 토산주/ 알코올 도수 8도/ 가격 한도 620원 : 제조생산지역 한)
- 금정산성 토산주의 판로가 부산 전역으로 확대(1990.08.20.)
- 2001년 이후 외부 출하 가능,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
- 부산금정산성막걸리(2010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현재 판매 상품으로는 금정산성 막걸리((유)금정산성토산주)와 금정산성 옛날막걸리(산성누룩종가)가 있음

#### 〈누룩방〉

- 금정산성마을의 누룩은 밀을 거칠게 빻아 만든 전통 막누룩(租麴)으로 막걸리와 청주의 원료로 가장 대중적인 누룩에 해당함
- 금정산성 내 산성누룩은 생곡류 가루에 물을 섞어 자연적으로 누룩종균을 발효시켜 만들
- 일제강점기 누룩공장(1929년 8월. 1차 곡자집약제- 6곳/ 1932년 2차 곡자집약제 1곳)이 들어선 이후 가정 내 누룩제조 금지
- 해방 이후, 누룩제조가 금지임에도 집집마다 생계수단으로 누룩을 비밀리에 생산함
- 산성마을 누룩제조는 집집마다 누룩방을 두어 누룩을 만들고 판매하는 자가 제조 방식에서 공장형으로 변화해 옴
- 현재 자가 제조 누룩방 2곳(금정산성막걸리 제공)과 산성누룩공장에서 누룩을 생산하고 있음

#### 보존 필요성

- 금정산성 마을 500년 누룩종균은 역사성·지역성·전통성을 지닌 미래적 자산의 가치를 지니며 이를 생산하는 누룩방의 가치는 매우 높음
- 산성마을에 체화된 누룩종균의 특이성(곰팡이 20속 101종, 효모 17속 65종, 세균 15속 39종 등)이 밝혀지면서 그 가치를 주목함
- 금정산성 막걸리의 누룩제조, 발효의 과정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통 민속주 1호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

#### [설명문]

‘금정산성 누룩방’은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에서 만드는 민속주 ‘금정산성 막걸리’의 핵심 재료인 누룩을 생산하는 곳이다.

금정산성 막걸리의 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구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국씨(鞠氏)와 두씨(杜氏) 성씨를 가진 두 가족이 산성마을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의해 막걸리가 제조되었다고 전해진다. 금정산성 막걸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703년(숙종 29) 금정산성을 개축할 당시 동원되었던 경상도 71주 주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면서’라고 「부산의 자연마을」 6권에 언급되어 있다.

금정산성 막걸리는 산성마을에서 빚은 산성누룩과 고두밥, 금정산의 지하 암반수를 섞어서 주조되는 빚은 쌀막걸리로서, 1979년 7월 1일 대통령령(제9444호)으로 대한민국 민속주 1호가 되어 양성화되었다. 1980년 7월 1일 유한회사 금정산성토산주가 설립되어 금정산성 막걸리는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었고, 지하 182m 깊이에서 나오는 금정산 지하수로 인하여 똑같은 재료와 공정을 거쳐도 다른 지역에서는 맛을 흉내 낼 수 없다고 한다. 금정산성 막걸리는 백국균, 황국균, 흑국균, 홍국균 등 다양한 균주들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새콤 달콤한 맛과 감칠맛이 매우 뛰어나다.

금정산성 막걸리 맛의 비결은 누룩에서 시작된다. 누락방이 있는 마을은 금정산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싼 분지 형세라 군주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누룩 성형은 발로 밟고 밀어내는 수직 및 수평 방식을 교차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룩틀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발로 디며 누룩을 성형하고 있다. 발로 디며 누룩 한 장 만들 시간에 기계로는 누룩 세 장을 만들 수 있는데,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발로 밟아 누룩을 만들어야 밀기울이 찰지게 다져져 누룩 곰팡이 균이 깊숙이 잘 숙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현재 9.9㎡(3평) 크기의 5곳의 누룩방에서 누룩을 생산하고 있다.

매년 5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스포원 파크(금정체육공원)와 산성마을(금성동)에서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행사가 열리고 있다.

## 2) 관련 내용

산성마을에서 생산되는 ‘금정산성 막걸리’는 산성마을에서 빚은 누룩과 고두밥, 금정산의 지하 암반수를 섞어서 주조된다. 산성막걸리는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전래하여 왔는데, 산성마을의 화전민들이 생계 수단으로 누룩을 빚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숙종 32년(1706년)에는 왜구의 침략에 대비해 금정산성을 축조했는데, 당시 전국 곳곳에서 징발된 인부들이 이 막걸리 맛에 반해 입소문을 냄으로써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전한다. ▼<sup>1</sup>

동래부사가 일부러 군졸을 시켜 날라 마셨다는 동래의 별미, 금정산성 막걸리맛을 본 인부들은 축성공사가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그 새콤한 맛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금정산성 막걸리는 500년 전 막걸리 맛 그대로입니다. 집안 대대로 똑같은 균류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막걸리 맛이 변할 수가 없죠. 우리 막걸리를 마셔보시면 일반 막걸리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전통방식 그대로의 막걸리입니다.” 대대로 막걸리를 만들었던 집안에서 14대째 가업을 이어 온 유청길 명인이 설명이다.

금정산성 막걸리는 금정산 기슭의 물과 500년간 전해져 온 누룩으로만 만들어진다. 금정산은 산 정상에서 솟아나는 금샘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물이 맑고 깨끗한 것으로 유명하다. ▼<sup>2</sup> 산성 마을 유래 전설에도 나타나듯 천혜의 자연환경 이 빚어낸 그들의 삶은 누룩꽃(누룩종균)을 피워 내고 술을 빚는 것에서 부터 출발했다. 금정산성의 누룩과 막걸리는 농지가 턱없이 부족했던 산촌마을에서 생존을 위한 동앗줄이었던 셈이다. ▼<sup>3</sup>



산성마을은 예로부터 토질이 척박하여 이렇다 할 농사가 없었다. 따라서 산성마을 사람들은 오랜 기간 막걸리의 원료인 누룩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어 왔다. 일제강점기 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이 황국균 누룩은 만주, 일본까지 팔려 갈 정도의 특산품이었다.

지금도 산성마을에서는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서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누룩은 쓰지 않는다. 때문에 산성마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수제 '누룩방'이 있다. 산성마을의 여인들이 직접 발로 꼭꼭 밟아 누룩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발효가 제대로 되기 때문이다. 발효가 잘된 누룩은 몸피 전체에 곰팡이가 하얗게 슬어있다. 그들 말로 '잘 뜯 누룩'이 술맛 좋고 향이 진한 막걸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산성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 발로 디며서 누룩을 만드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유한회사 금정산성 토산주' 대표 유청길 씨의 모친인 전남선 여사가 '산성누룩'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은 그의 딸들이 맡아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9.9㎡(3평) 크기의 누룩방 5곳에서 누룩을 생산하고 있는데 누룩방 한 곳에 누룩 360장, 총 1800장을 만든다. 일간 360장, 산성 막걸리 1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sup>4</sup>

금정산성 막걸리를 제조하기 위해 먼저, 잘 띄운 누룩을 칼로 잘게 쪼아 부순다. 잘게 부순 누룩을 백미를 불려 시루에 찐 고두밥에 넣고 섞는다. 고두밥에 누룩을 섞을 때에는 누룩을 물에 타서 갠 후, 미지근할 정도로 식힌 고두밥에 섞는다. 이를 큰 술독에 넣고 물을 부어 따뜻한 방안에 이불을 덮어 5일간 두어 발효시킨다. 발효 기간은 술독에 뜬 용액이 누렇게 변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발효가 다 된 술은 알코올 도수 약 8도 2부가 되게 물을 타면서 체에 걸러 찌꺼기를 제거한다.

현재 산성 마을에는 전통방식으로 자가제조(自家製造)하는 누룩방을 운영하는 곳이 두 곳, 현대식 기계로 누룩을 제조하는 누룩공장 한 곳이 있다. 두 곳의 자가제조 누룩방은 죽전에 있다. 죽전에 있는 누룩방은 '금정산성막걸리'에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금정산성막걸리'대표 유청길의 모친인 전남선 할머니가 딸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나의 누룩방은 손경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으로 오랫동안 이곳의 누룩을 고집했던 단골 상인들에게 주로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금정산성막걸리'에 공급하기도 한다. 이들 두 곳의 누룩방에서 생산하는 누룩은 반죽에서부터 밀기울 성형과정이 대부분 전통 공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누룩방 운영자들이 연로하여 누룩을 담는 일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기에 마을 주민 중 누룩 제조가 가능한 이들을 그때그때 고용해 제조하고 있다. 현재 산성 마을에서 지금도 누룩을 밟고 있는 이는 5명으로 남경자(72세, 중리)·전덕순(71세, 중리)·박춘자(75세, 중리)·김윤선(67세, 죽전)·김석순(86세, 공해) 등이다. 이들은 옛 누룩 디디기 품앗이 전통에 따라 두 곳의 누룩방을 번갈아 돌며 누룩을 만들고 있다. 이들 중 전덕순·김윤선·김석순 할머니는 이곳에서 나고 자라 어릴 때부터 누룩과 함께한 분들이고, 남경자·박춘자 할머니는 산성으로 시집을 오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누룩을 밟기 시작한 분들이다. ▼<sup>5</sup>

금성동을 둘러싸고 금정산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싼 분지 형태라 군주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기도 하다.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금정산 물과 예전 그대로 이어진 누룩으로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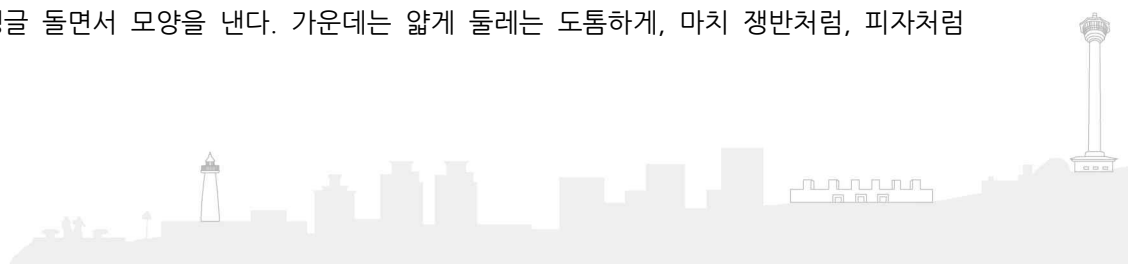
었으니 맛이 그대로 일밖에. 또한, 유청길 명인의 말대로 금정산성 막걸리는 다른 막걸리와 맛이 판이하게 다르다. 눈으로 보기에다 걸쭉한 금정산성 막걸리는 구수한 다른 막걸리와는 달리 새콤달콤한 맛과 감칠맛까지 가미되어 있다. 차이는 누룩, 백국균으로만 만드는 시중 막걸리와는 달리 금정산성 막걸리는 백국균, 황국균, 흑국균, 홍국균 등 국내에 자생하는 모든 균주를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500년째 내려오는 이 누룩은 유청길 명인의 보배다.

막걸리 한 병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수고가 들어간다. 매일 아침 누룩 장인이 전통 족타식(발로 밟아 누룩을 빚는 것)으로 누룩을 빚고 누룩방에서 일주일씩 발효하고 건조시킨다. 이때, 가운데는 얇고 테두리는 두툼하게 해서 수분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2주 뒤, 누룩 위에 꽃핀 곰팡이를 털어내고 차갑게 식힌 고두밥과 부순 누룩을 섞어 버무리고 물을 넣어 치댄다. 이를 술에 넣은 후 면포를 덮어 온도를 25-26도로 유지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번씩 술독을 저어 주고 체에 걸러 병에 담으면 완성. 별다른 첨가물 없이 전통방식을 고수했기에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금정산성 막걸리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 덕분에 김치처럼 서서히 발효가 된다. 처음 병에 담았을 때는 새콤달콤한 맛이 덜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김치가 익어가듯 새콤한 맛이 배어나온다. 그렇기에 금정산성 막걸리의 유통기한은 일주일로 짧다. 갓 만들어 낸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금성동을 찾는 사람이 줄을 잇는 이유이기도 하다. ▼<sup>6</sup>

산성막걸리는 전통식품 명인 제 49호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탁주 분야에 식품명인으로 선정되었다. 금정산성 막걸리는 입국을 사용하지 않고, 부산의 금정산성 안에 있는 누룩마을에서 만들어진 누룩으로 술을 빚는다. 산성누룩은 보통 누룩처럼 도톰하게 빚지 않고, 베보자기에 싸서 둥글납작하게 빚는다. 이렇게 빚어진 누룩을 짚을 간 누룩방에 48~50도 정도가 되게 하여 1주 정도 띄운다. 누룩에 곰팡이가 피면 공기창을 열고, 누룩이 마른 다음 곰팡이를 제거한다. 밀을 부셔서 곰팡이를 띄우는 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된다. 술의 도수는 8도로 이다. 금정산성막걸리는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만큼 750ml병을 기준으로 6천병 가량이 하루 최대 생산량이다. ▼<sup>7</sup>

산성마을 누룩방의 누룩종균 생명공동체가 산성마을에서 살아온 역사를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누룩종균(현재까지 밝혀진 누룩의미생물은 곰팡이 20속 101종, 효모 17속 65종, 세균 15속 39 종 등이다. 그러나 아직 동정되지 못한 미생물이 많다)들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성마을 누룩만의 독특한 누룩종균이 포진한 생명공동체가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고, 산성마을 사람들의 삶이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해 왔듯이 산성마을 누룩방의 누룩종균 역시 생명공동체로서 생존을 위한 진화와 변신을 꾀해 왔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대를 이어 누룩을 만들고 있는 차세대가 누룩방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누룩종균이 그 어느 때보다 꽃을 잘 피워내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 산성마을에 체화된 누룩종균 생명공동체의 강인한 생명력도 감지 할 수 있었으리라. 산성마을의 누룩종균 생명공동체가 산성마을의 또 다른 자연 환경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차세대의 경험에서 재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sup>8</sup>

누룩 디디기는 빵은 생밀은 황토를 개듯 뜨거운 물에 개면서 시작된다. 예전에는 바지를 걷어 올린 아낙네들이 종아리를 드러내고 밀을 차지게 밟아냈으나, 최근에는 반죽기를 도입하여 아낙네들의 종아리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반죽이 잘 되어 덩어리진 누룩을 한 삽씩 메주만 하게 떠서 던져주면, 이것을 면보자기에 싸서 발로 디द्या 한다. 뒷짐을 지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팽이처럼 연신 뱅글뱅글 돌면서 모양을 낸다. 가운데는 얇게 둘레는 도톰하게, 마치 쟁반처럼, 피자처럼



둥글납작하게 만든다. 다른 지방의 누룩들은 누룩틀을 이용하는데, 이곳은 누룩틀도 없이 면보자기 한 장과 받침판뿐이다. 난이도가 높아서 처음 해보는 사람은 따라 하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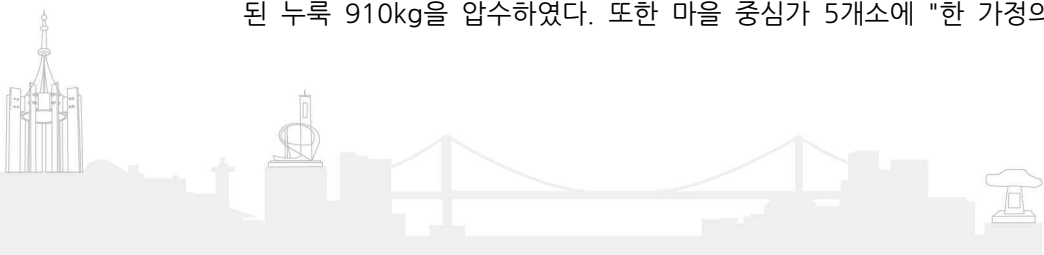
이렇게 빚어진 누룩은 밀폐된 누룩방으로 들어간다. 누룩방은 황토로 온돌을 간 창문 없는 방으로, 중앙 통로 양옆으로 층층이 받침대가 있었다. 그 받침대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대발로 만들어졌고, 바닥엔 짚이 깔려 있었다. 짚 위에 누룩을 올려놓은 뒤 군불을 땀다. 온도가 40℃에서 30℃를 오르내리게 하여, 누룩 안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 곰팡이가 내려앉기 좋도록 한다. 누룩위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얇은 천으로 덮어주는데, 이들이 지나면 누룩 위에 하얀 눈송이처럼 흰 곰팡이가 소복이 내려앉는다. 그렇게 15일 동안 누룩방에서 잠을 자고 나면 누룩에 희고 노란 곰팡이 꽃이 야무지게 앉는다. 이것을 다시 누룩방 바닥에 세로로 세워서 1주일간 바짝 말리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금정산성마을에서 빚어내는 토산주의 맛은 오랜 연륜을 지닌 누룩에서 나온다. 누룩은 단순한 밀기울 덩어리가 아니다. 그 속에는 그 지방의 물과 공기와 햇살과 바람이 들어 있다. 사람의 발끝과 손끝을 거치기는 하지만, 그 지방에서만 떠도는 곰팡이들이 빚어내는 작품인 것이다. 그래서 누룩은 지방마다 다른 빛과 맛을 지닌다. 우리는 어느새 조상들의 피와 살이 되어주던 그 곰팡이균을 잊고 지내고 있지만, 금정산성마을 사람들만은 그 곰팡이균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정산성마을 토산주는 원래 쌀과 누룩을 7:4의 비율로 섞어서 빚었으나 요즘은 누룩의 양을 조금 줄였다. 밀술을 만드는 데 4일, 숙성 시키는 데 6일이 걸린다. 백국균으로 만드는 보통의 막걸리와 달리 완전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들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누룩의 사용량도 많고 완전히 숙성시킴으로 일반 막걸리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8도로 높게 나온다. 술은 노릇하니 진하고, 탁하고, 텁텁하다. 요사이 막걸리는 맑고 가벼워졌지만 금정산성 막걸리는 무거운 편이다. 구수한 누룩향이 풍기고 감칠맛이 돌면서 다음 잔을 재촉하게 된다. 금정산성마을 토산주, 이 술이야말로 전통 누룩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에 이른 우직한 막걸리다. ▼<sup>9</sup>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누룩 제조 방법을 보존하여 이곳 막걸리가 민속주로 지정되는 데까지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해방 후, 쌀이 부족하여 나날이 쌀값이 치솟게 되자 정부는 양곡의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밀주, 떡, 엿, 과자 기타 쌀을 원료로 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술, 엿, 떡의 제조·판매 금지」 조치는 60년대, 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60년 무렵부터는 산성마을에는 밀주 단속을 위해 누룩 단속반이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단속반과 마을사람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누룩쟁탈전이 벌어졌다. 마을사람들은 단속반에게 누룩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벌금, 집행유예와 같은 온갖 곤혹을 다 치렀지만, 누룩과 막걸리 생산은 산성마을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막걸리, 누룩 생산에서 쉽사리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산성마을 토박이인 전남선 여사는 몰래 빚은 누룩을 구포장에 가서 내다 팔다가, 그만 세무서 단속반에게 발각되어 갇난아기는 땅에 팽개치고 누룩만 들고 달아났다가 아기가 우는 바람에 단속반원이 누룩 압수를 포기했던 당시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분노세례를 주기가 일쑤였고 욕설, 돌팔매질에 단속반은 두 손을 들고 번번이 쫓겨났다. 그래도 누룩 단속이 갈수록 심해지자, 산성마을 사람들은 산중턱 깊숙한 곳에 땅굴을 파서 누룩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3월 동래세무서에서는 ‘누룩땅굴’의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산성마을 ‘누룩소탕전’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비밀 땅굴 6개소를 적발하고 이곳에서 밀조된 누룩 910kg을 압수하였다. 또한 마을 중심가 5개소에 “한 가정의 밀조주가 나라살림을 줌



먹는다."라는 뜻말을 설치하였다. 당시 적발 된 땅굴은 1개소마다 10년생 소나무 등을 1백여 그루씩 베어낸 후, 넓이 3~4평에 깊이 3m 정도를 파고 만들거나 통나무 기둥을 세우고 흙을 발라 만든 토담으로 되어 있었고, 이곳에서 연탄불로 누룩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누룩단속이 심해지고 그 결과가 신문 등에 보도되자 산성마을 밀조누룩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갔다.

그런 와중에 평소 막걸리를 즐겨 마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재직 시절 산성마을을 찾아 이곳 막걸리를 즐겨 마셨다. 이후 산성마을을 방문한 대통령은 산성막걸리를 다시 빚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술을 합법적으로 생산, 금정산성 안에서만 팔도록 하였다. 산성막걸리는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1979년 대통령령(제9444호)으로 대한민국 민속주 제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1980년에는 3백여 가구 산성마을 전 주민들이 모여 주민 1가구 당 1구좌 5만원씩을 출자하여 「금정산성토산주생산조합」을 구성, 1천여 만 원의 자산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동래 세무소로부터 주류 생산허가를 얻어냈다.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한 산성마을 양조장인 (유)금정 산성토산주에서는 그 오랜 산성 누룩의 전통을 지금도 면면히 이어가고 있다. ▼<sup>10</sup>

현재 산성막걸리는 '산성마을막걸리'에서 '금정산성막걸리'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전에는 수입산 쌀을 썼지만 이제는 100% 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 대량으로 빚으면서 수제 누룩을 사용하는 곳도 이곳이 유일하다. 또 '금정산성막걸리'의 안주로 등장한 음식이 구운 염소고기이다. 최근에는 금정구청이 중심이 되어 '금정산성막걸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금정구청은 산성막걸리의 단체표장 등록에 나섰다.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품질을 공인받은 만큼 '브랜드 마케팅'이 가능해져 국내외 판로 개척이 쉬워지고, 유사 상표 출현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정구청은 산성막걸리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술의 역사를 입증할 문헌기록 수집에도 나서고 있다.

산성마을에서는 2011년부터 '금정산성막걸리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금정산성의 숨결 따라, 전통의 향기 따라'라는 슬로건으로 금정산성과 스포원파크, 금성동 일대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누룩 밟기·막걸리 동창회 등의 행사뿐만 아니라 산성막걸리 명품화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sup>11</sup>

산성마을 누룩방에서는 근래 점차 기계화 방식으로 누룩을 제조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로 디며 누룩을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발로 디며 누룩을 만든 속도는 기계로 누룩을 만드는 속도에 비할 바 못 된다. 발로 디며 누룩 한 장 만들 시간에 기계로는 누룩 세 장을 만들 수 있다. 이해타산을 따져보면 기계로 누룩을 만드는 것이 수월하다는 사실이 자명한데 굳이 전통 방식 누룩 제조를 고집하는 이유는 발로 밟아 누룩을 만들어야 밀기울이 찰지게 다져져 누룩 곰팡이균이 깊숙이 잘 숙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발로 디며 누룩을 만드는 곳은 비단 산성마을 뿐만 아니다. 한국의 전통주로 이름 난 곳에서는 여전히 발로 디며 누룩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산성마을처럼 누룩틀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발로 디며 성형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안동소주'의 경우는 원형 누룩틀을, '진도홍주'는 사각 누룩틀을, '김천과하주'와 '김제 송순주' 역시 누룩틀을 사용해 누룩을 빚고 있다. 더욱이 수제 누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구시 달성군의 자가 누룩제조장 역시 사각형의 누룩틀을 사용하고 있다. 산성마을에서 지금까지 누룩을 디디고 있는 최고령 할머니가 알려준 비법(?)은 이제 산성마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누룩 성형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곳은 산성마을 뿐일 것으로 본다. 누룩들은 그저 밀기울을 틀 안에 채워 다지는 수직적 방식이라면 발로 밟아 성형하는 것은 밟고 밀어내는 수직적 방식과 수평적 방식이 적절히 교차되는 방식이다. 수직과 수평 그 교차지점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누룩꽃의 전통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이제 산성마을이 유일하다. ▼<sup>12</sup>

유청길씨는 지금도 누룩을 발효제로 사용하는 전통방식을 고수한다. 현재 누룩을 사용하던 우리의 전통 양조방법은 흑국, 황국 등의 일본식 배양균을 사용하는 입국법이 퍼지며 거의 사라졌다. 전통의 맥이 끊어질 위기인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서 발효전문가들이 찾아와요. 돈은 원하는 대로 줄테니 일본에 가서 1년만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조금 편하다는 이유로 전통을 버리고 있어요. 너무 아쉽죠, 대기업들도 문제예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불하려 하지 않아요. 누룩을 제조하기 위한 종균이 생성되려면 적어도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 누룩방의 종균실은 지금도 50년 이상 된 갈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sup>13</sup>

“원래 금성동 사람들이 전부 누룩을 빚던 사람들이예요. 온 마을이 누룩을 빚다가 힘들다며 하나 둘씩 그만두기 시작하더니 저만 남은 거죠.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금정산성 막걸리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누룩 아카데미를 열어서 누룩 장인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유청길 명인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막걸리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공장 견학, 막걸리 빚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막걸리 체험을 위해 찾아오지만 특히 일본에서 많이들 찾아온다고. 일본에서도 금정산성 막걸리에 사용되는 균주로 곡주를 만들기 때문이다. 유청길 명인의 아들인 유혜수 씨는 현재 일본 벳부대학 발효식품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한다. 발효과학을 배워 맛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균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 데이터를 가지고 제조하겠다는 것이다. 유청길 명인은 수백 년간 전통을 계승하며 가업을 지켜 온 장인들이 준비한 일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이 대우받는 날을 꿈꾼다. 그러기 위해서 옛것을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진다. 오늘도 금정산성에는 500년 전 그대로, 누룩 향기가 그윽하다. ▼<sup>14</sup>

산성막걸리는 척박한 토지에 밀을 심어 그것으로 누룩을 만들어 고두밥과 함께 발효시켜먹던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금정산성 개축 당시에는 인부들이 먹던 노동음식이었지만 현재에는 웰빙 음식의 바람을 타고 주류이지만 건강한 주류로 인식되어 내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발효음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막걸리의 전통을 잇는 사람들은 음식이 배를 불리고 입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걸리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산성막걸리는 단순히 술로써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산성막걸리가 가지는 브랜드의 이미지나 가치는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여기에 막걸리의 역사가 더해졌을 때 부산의 장소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 산성막걸리의 탄생 배경에는 지난 시절 배고픔을 해결해야 했던 민초들의 애환이 담겨있지만, 현재 부산의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은 산성막걸리는 양질의 토지에서 나는 곡식과 청량한 물맛이 어우러져 탄생한 지역 색이 짙은 음식임을 알 수 있다. ▼<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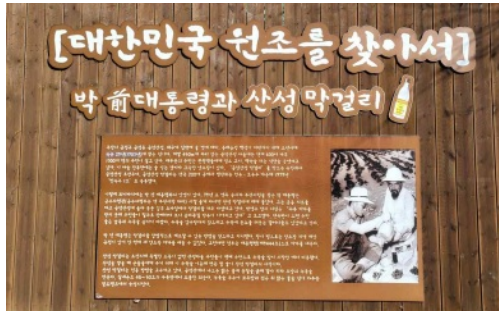


- ▼ 1 2017.07.04.,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58> 산성마을 누룩과 산성막걸리」
- ▼ 2 편집실, 2018, “500년 전 그때 그 맛 그대로, 금정산성 막걸리”, 「지방재정」, 3호, pp.177-179.
- ▼ 3 부산학연구센터, 2014, 「<2014 부산학 미래연구>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재)부산연구원, pp.8.
- ▼ 4 2017.07.04.,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58> 산성마을 누룩과 산성막걸리」
- ▼ 5 부산학연구센터, 2014, 「<2014 부산학 미래연구>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재)부산연구원, pp.138-139.
- ▼ 6 편집실, 2018, “500년 전 그때 그 맛 그대로, 금정산성 막걸리”, 「지방재정」, 3호, pp.177-179.
- ▼ 7 이승은, 2016, “전통주의 특성에 따른 음식과의 조화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12.
- ▼ 8 부산학연구센터, 2014, 「<2014 부산학 미래연구>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재)부산연구원, p.141.
- ▼ 9 허시명, 2010, 「막걸리, 넌 누구냐?」, 21세기북스, pp.137-139.
- ▼ 10 2017.07.04.,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58> 산성마을 누룩과 산성막걸리」
- ▼ 11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424-427.
- ▼ 12 부산학연구센터, 2014, 「<2014 부산학 미래연구>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재)부산연구원, pp.144-146.
- ▼ 13 강대석 외 2명, 2010, 「대통령의 맛집」, 21세기북스, pp.77-78.
- ▼ 14 편집실, 2018, “500년 전 그때 그 맛 그대로, 금정산성 막걸리”, 「지방재정」, 3호, pp.177-179.
- ▼ 15 유진아, 2019, “부산의 장소성과 향토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지역과문화」, 6권 4호, p.9.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산성막걸리 마을 입구금정산성 막걸리 전경



금정산성 막걸리 전경



전통 누룩방 외관



전통 누룩방 명패



누룩방에 누룩을 발효하는 모습

©국제신문



누룩방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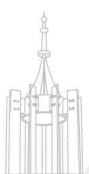
#### ▷ 사진 기록 자료



산성막걸리를 먹는 박정희 대통령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 산성마을 사람들」



누룩을 밍는 모습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 논문 및 저서

- 유진아, 2019, “부산의 장소성과 향토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지역과문화』, 6권 4호.
- 이승은, 2016, “전통주의 특성에 따른 음식과의 조화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편집실, 2018, “500년 전 그때 그 맛 그대로, 금정산성 막걸리”, 『지방재정』, 2018권 3호.
- 강대석 외 2명, 2010, 『대통령의 맛집』, 21세기북스.
-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 부산학연구센터, 2014, 『〈2014 부산학 미래연구〉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재)부산연구원.
- 부산학연구센터, 2014,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 산성마을 사람들』, (재)부산연구원.
- 허시명, 2010, 『막걸리, 넌 누구냐?』, 21세기북스.

### ▷ 신문기사

- 2017.07.04.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58〉 산성마을 누룩과 산성막걸리』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금정산성 막걸리’, ‘금정산성 막걸리를 만드는 장인’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산성막걸리’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산성 토속주’
- 지역N문화 홈페이지(<https://www.nculture.org/>) ‘우리집의 맛과 향, 향토음식 〈거리계의 큰 형님, 부산 금정산성 막걸리〉’
- 금정산성 막걸리 홈페이지(<https://sanmak.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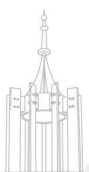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2 동래파전



#### 1) 개관

대상	동래파전	소재지	-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42호
형성시기	중세	형태	유·무형 - 음식, 제조기술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에 동래파전이 탄생했다는 설은 다양함</li> <li>· 일제강점기에 동래가 일본인들의 관광지역으로 바뀌면서 동래파전은 대중화 및 상품화가 됨</li> <li>· 6·25전쟁 후 동래기생들이 부산으로 진출할 때 이들이 경영하는 요정 술상에 동래파전을 올려 동래기생이라는 이름과 함께 더욱 알려짐</li> <li>· 1960년대 대중식당, 동래시장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기존의 고급스러운 음식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로 유명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도 ‘동래할매파전’을 부산 향토음식점 제1호로 지정</li> <li>· 2004년 ‘동래파전연구회’ 발족(동래구)</li> <li>· 2007년 이후 동래파전의 상표 등록(특허청)</li> </ul>
<b>보존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래파전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지금까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음식으로 그 역사성이 중요함</li> <li>·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부산지역의 지명이 들어가 향토성이 잘 나타나고 재료에 육지와 바다의 식재료가 들어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음식임</li> </ul>

### [설명문]

‘동래파전’은 부산시 동래구 일대에서 조선 쪽파를 주재료로 하여 지져 내는 향토음식이다.

동래파전의 유래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지역 노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선 시대 금정산성과 같이 국가적으로 성을 쌓는 등 큰일이 있을 때 부족한 밥 대신 끼니용으로 만들어 주었다거나 궁중요리를 하던 사람이 동래에 요리법을 전해서 기생들의 솜씨가 되었다고도 한다. 또 원로 소설가 최해군은 “동래가 조선시대 도호부일 때 대일 외교와 군사상의 요지로 조정 고관들의 왕래가 잦아 그들을 접대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안주로 내던 파전이 점차 발달해 지금의 동래 파전으로 정착된 것이 아닐까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동래파전은 서민들의 끼니용 또는 고급 술 안주용에서라는 완전히 상반된 유래가 있으나, 고급 안주용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좀 더 우세하다. 아무튼 동래 파전의 유래는 육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바다의 싱싱한 해산물이 많은 동래에서 오랜 날의 전통이 빚어 낸 향토 음식임이 틀림없다. 일제강점기부터 동래가 관광지로서 더욱 발전하면서 동래 파전은 양반들이 즐기던 화려하고 복잡한 전통요리방식을 벗어나 인기 있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변하였다.

동래파전은 과거부터 지역(기장) 일대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조선 쪽파와 쇠고기, 해물 등을 얹은 다음 찹쌀과 멥쌀을 갈아서 만든 쌀가루 반죽을 얹어 좀 질게 하여 차진 맛과 깊은 맛을 낸다. 재료도 한꺼번에 반죽으로 섞는 것이 아니라, 불의 세기에 따라 각각 다른 재료가 연하고 맛있게 익도록 차례대로 넣어 그 재료가 주는 향내를 살린다. 동래파전은 다른 지역의 전과 달리 해산물이 풍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산물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주로 간장이 아닌 초고추장을 곁들여 먹는다. 동래파전은 삼짇날(음력 3월 3일)쯤에 만든 것이 가장 맛이 있다.

## 2) 관련 내용

동래파전은 풍부한 해산물과 지역특산물인 동래 쪽파를 기름 두른 번철에 지져내는 전(煎)의 종류로 예로부터 동래의 명물 음식이다.



기름이 귀하여 주로 삶거나 부치는 정도였던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조리법에서 전은 독특한 음식 문화라고 한다. 특히 재료의 맛과 향, 빛깔을 간직하면서 손쉽게 일상의 간식거리나 밑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반상, 면상, 주안상, 교자상 등에 고루 놓이는 가장 일상적인 찬품이었다. 전은 궁중에서는 전유화(煎油花), 전유어(煎油魚)라하였으며, 「시의전서(是議全書)」 제물부에서는 제수(祭需)로 쓸 때에는 간남(肝南)이라고 하며, 민간에서는 부침개·지짐개·전·전유아·전야·저냐·전나라고 부른다. ▼<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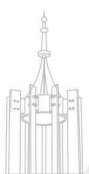
동래파전의 유래에 대한 문헌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사례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삼진날 임금께 진상한 음식(동래할매파전 <옥호> 음식점 주인의 구술)인 상류층 음식으로, 벚꽃 피기전의 초봄의 계절음식 및 재실음식(이씨 및 왕씨 부부, 추씨 등의 민간구술)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이로써 부산 향토음식임이 입증되었다. ▼<sup>2</sup>

동래파전을 언급한 조선 시대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래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곳에 내려오는 조정 대신들을 접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 동래 파전이라는 설이 있다. 동래파전은 워낙 맛이 좋아서 삼진날(음력 3월 3일)이 되면 동래 부사가 임금님께 진상하여 올린 음식이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동래 읍성을 쌓을 때 일꾼들에게 제공하던 밥이 부족하자 대신 부쳐주던 파전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그런가 하면 궁궐에서 파전을 부치던 방법이 민간에 전파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 외에도 동래파전의 유래에 관해서는 몇 가지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임진왜란 때 동래성에 침입한 왜군에게 파를 던져 물리치고자 했던 뜻을 살려서 먹던 음식이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동래기생들이 운영한 요정의 술상에 늘 빠지지 않는 고급 요리로 올려진 까닭에 동래기생과 더불어 동래의 두 가지 명물로 꼽혔다고 한다. 이들 중 어느 것도 명확한 근거자료는 없으나, 그렇다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옛날 동래 금정산 주위에는 파밭이 많았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쪽파는 맛이 달고 향긋한 향이 일품이라 그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조정에 진상품으로 바쳐졌다. 동래 쪽파는 사계절 모두 향긋하였지만, 특히 봄철에 나는 파가 가장 야들야들하고 단맛이 빼어났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곳곳한 봄철의 동래 쪽파에 부산포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물을 잘게 썰어 넣어 불에 살짝 구운 파전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동래파전이 상품화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한말~일제강점기에 동래장터와 기생들이 있는 요정에 의해서였다. 동래장터에서는 파가 부드럽고 맛있는 3월 삼진날을 전후해 점심요깃감으로 동래 파전이 등장하였다. 당시 장꾼과 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파전은 큰 인기를 끌면서 해방 전까지 인근 마을에서 "파전 먹는 재미로 동래장에 간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먹거리였다고 한다. 그리고 동래장터 동문 입구에 '진주관'이 문을 열고 동래부 관기들의 자치조직인 동래기생조합이 있었던 이곳은 당시 고급유흥가로 이름을 떨쳤는데, 고급 요리로 동래파전이 인기를 끌었다. 1960년대에 들면서 동래파전은 대중식당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고, 기존의 고급스런 전에서 값싸고 맛있는 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산 사람들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로 유명해졌다. ▼<sup>3</sup>

동래파전은 다른 전처럼 투박하고 향토적인 요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서양의 피자나 일본의 오고노미야끼를 닮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국적이고 화려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호박전, 경북지역의 배추전, 서해안 지방의 서대전 등은 지역의 향토에서 나는 단순하고 소박한 식재료로 전을 부쳐낼 뿐이다. 이러한 각 지역의 전들과 달리 동래파전은 풍성한 재료와 화려한 맛에서 그 어떤 전들과도 비교할 바가 없을 정도다.



동래파전은 멍쌀, 찹쌀가루로 반죽물을 만들어 파, 미나리, 대합, 홍합, 새우, 굴, 조갯살, 미나리, 소고기를 얹어 부쳐낸 것이다. 요리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래파전은 식물유 기름을 번철에 둘러 불에 가열한 후 다듬어 낸 파와 미나리를 다른 전들처럼 반죽해 넣지 않고 그대로 먼저 올려낸다. 그 위에 소고기와 해산물을 얹은 다음, 또 한 번 파와 미나리를 얹은 뒤에야 따로 만든 반죽물을 붓고 서서히 익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들이 익기를 기다려 계란을 풀어 얹고 뚜껑을 덮어 한 번 더 익혀내는 복잡한 요리과정을 거친다. 밀가루와 재료를 미리 반죽해 부치는 다른 전들에 비해 조리방법만 살펴봐도 그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다.

동래파전은 다른 전들보다 해산물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까닭에 바다의 재료가 주는 맛을 잘 살리기 위해서 간장이 아닌 초고추장을 곁들여 먹기도 한다. 동래파전은 쌀가루에 비해 더 찰진 찹쌀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쫄깃하면서도 질척한 맛이 있다. 이러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도 바삭한 튀김 같은 음식에 어울리는 간장보다는 초고추장이 더 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예로부터 번철에 넉넉하게 기름을 둘러 부치는 조리법은 민가에서 자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부잣집에 큰 잔치가 있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이어야만 전유어(생선, 육류, 채소 등의 재료를 얇게 썰어 밀가루와 달걀에 묻혀 기름에 지진 음식의 총칭)를 맛볼 수 있었다. 특히 동래파전은 파와 미나리의 푸른색, 해산물의 흰색, 쇠고기의 붉은색과 계란의 황색이 어우러져 색감이 화려하고 영양소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맛과 영양도 좋지만 음식 자체가 귀하고 화려한 까닭에 눈으로만 보아도 잔치의 흥을 절로 돋게 만드는 음식이 되었다.

풍성한 식재료 외에도 반죽물 만드는 방법까지 특별한 비법이 들어가 있는데, 쌀가루 반죽에 특별한 맛국물을 더해 반죽하는 것이다. 밴댕이(디포리)와 다시마 등을 우려낸 것인데, 다른 전에 비해 반죽 하나에도 바다와 육지의 맛이 조화되도록 정성을 다했다.

요리의 마지막에 솔뚜껑을 덮어 조리를 마무리하는 것 또한 흥미롭다. 이는 신선한 햇파의 향이 휘발되지 않고 음식에 배이고 갇은 재료가 고루 익도록 뜸을 들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부산(釜山)이라는 의미가 담긴 솔뚜껑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은 동래파전이 왜 부산 음식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셈이다. ▼<sup>4</sup>

동래파전의 전통을 지금까지 4대째 80여 년간 그대로 이어 내려오고 있는 곳이 있다. 1930년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동래할매파전'이 바로 그곳이다. 처음에는 상호도 없이 시작하여 시할머니 시절에 '제일식당'이라는 상호를 내걸었고, 70년대 들어 향토음식의 맥을 잇겠다고 생각한 시할머니가 '동래할매파전'으로 바꿨다고 한다. 현재 4대 주인 김정희(金貞姬, 전통문화보존명인장) 씨는 파전 만드는 방법만큼은 시어머니가 지켜온 그 비법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옛날 시골 장터에나 있을 법한 솔뚜껑 모양의 두꺼운 번철에 유채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파릇파릇한 쪽파에 미나리, 해산물, 쇠고기 등을 올린다. 여기에 찹쌀가루와 멍쌀가루, 밀가루를 섞어 만든 맛국물을 얹어 지지고 솔뚜껑을 덮어 익혀 오히려 찜에 가깝다. 김정희 씨는 동래파전의 맛을 '파의 향기와 해물의 시원함이 어우러진 봄날의 맛'이라고 말한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파전에 들어가는 쪽파를 비롯해 함께 들어가는 재료 역시 봄철에 가장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이든 손님일수록 봄에 식당을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다. ▼<sup>5</sup>

양반음식에서 술집 고급안주로, 시장에서 즐기는 별미로, 이제는 타 지역에서도 동래해물파전이란 이름으로 즐길 수 있게 된 동래파전은 지역에서 길러낸 햇파의 향과 강과 바다에서 갓 잡은 해물의 신선함, 부산의 향토적인 맛을 전하고 싶은 진정성을 잃은 초라한 음식이 되었다. 하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동래파전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동래파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할 수 있게 된 이유이다. 이제는 지역의 재료를 담아내지 못하는 음식이 되었더라도 지역을 생각하는 힘은 아직도 동래파전 안에 부산의 산, 들, 강, 바다의 의미로 여전히 녹아있다. ▽<sup>6</sup> 바다와 강, 평야 및 산에 둘러싸인 부산은 천해의 자연경관과 함께 사시사철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북쪽으로는 울산, 동쪽으로는 김해와 맞닿아있는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수륙의 공간으로써의 장소성을 지닌 부산은 동래파전과 같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향토음식을 탄생시켰다. ▽<sup>7</sup>

- ▽1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444-446.
- ▽2 김상애 외 1명, 2007, “부산 향토음식 동래파전의 조리표준화 및 영양분석”, 「한국영양학회」, 36권 11호, pp.1472-1481.
- ▽3 송영심, 2017,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속 조선 야사」, 팜파스, pp.305-306.
- ▽4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의 음식, 생성과 변화」, (재)부산연구원, pp.16-21.
- ▽5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444-446.
- ▽6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의 음식, 생성과 변화」, (재)부산연구원, pp.16-21.
- ▽7 유진아, 2019, “부산의 장소성과 향토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지역과 문화」, 6권 4호, pp.7-8.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동래 할매파전 향토음식점 전경

#### ▷ 사진 기록 자료



1. 파 다듬기



2. 쇠고기 및 해산물 양념



3. 파, 쇠고기, 해산물 섞기



4. 반죽물 붓기



5. 뚜껑 덮고 뜸 들이기  
동래파전 만들기



6. 완성 후 초고추장 곁들이기

©동래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동래할매파전 1대 할머니와 김정희 사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동래할매파전 3대 김옥자와 옛 동래할매파전 모습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 논문 및 저서

- 김상애 외 1명, 2007, “부산 향토음식 동래파전의 조리표준화 및 영양분석”, 『한국영양학회』, 36권 11호.
- 유진아, 2019, “부산의 장소성과 향토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지역과 문화』, 6권 4호.
-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 김상애.신은수, 2007, 『부산 향토음식 동래파전의 조리표준화 및 영양분석』, 『한국영양학회』 36집.
- 송영심, 2017,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속 조선 야사』, 팜파스.

### ▷ 신문기사

- 2015.03.02. 동래고을, 『동래의 맛과 전통 담은 동래파전』
- 2020.03.18. 인저리타임, 『[강희철의 문화칼럼] ‘동래파전’을 통해 보는 부산 이야기』
- 2019.02.26. 동래고을, 『동래할매파전 '백년가게' 선정』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http://busandabom.net/index.nm?contentId=198>) ‘동래파전’
- 동래구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tour/>)
- 지역N문화 홈페이지(<https://ncms.nculture.org/food/story/1731>) “우리집의 맛과 향, 향토음식 <조선의 경제외교도시 동래부가 낳은 '작은 산해진미', 동래파전>”
- 지역N문화 홈페이지(<https://ncms.nculture.org/food/story/1943>) “우리집의 맛과 향, 향토음식 <달착지근한 쪽파와 해산물을 찹쌀 반죽으로 지져야 동래파전>”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3 낙동강 재첩국



©채지형

#### 1) 개관

대상	낙동강 재첩국	소재지	-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43호
형성시기	근대	형태	유형 - 음식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첩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 없지만 재첩이란 이름은 낙동강 하구에서 1940년 이후에 널리 사용되었고, 낙동강 하구에서 재첩국 행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li> <li>·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부산으로 온 피란민들이 즐겨 먹었으며 가난한 피란민들은 재첩국 한 그릇을 사서 물을 넣어 양을 늘린 뒤 식구들이 밥을 말아먹었다고 전해짐</li> <li>· 1950년대부터 낙동강 하구 주변에 재첩국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생겨났으며 직접 낙동강 하구에서 재첩을 채취해 이를 국으로 만들어 판매했음. 그러나</li> </ul>		



	<p>낙동강 하구가 개발되면서 재첩을 파는 음식점이나 상인들도 거의 사라져 사상구 삼락동 지역을 중심으로 재첩거리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첩국 '아지매들'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삼락 재첩거리'가 2000년에 지정(사상구청)되었고 이들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간 재첩국은 2009년 부산향토음식으로 선정되었음</li> </ul>
<b>보존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전쟁을 지나면서 형성된 부산의 향토 음식</li> <li>·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인 부산의 지형에서 생산되어 만들어진 음식이며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음식</li> <li>· 향토음식 '낙동강 재첩국', 부산 사투리 '아지매'·'사이소' 등이 겹쳐지면서 강한 지역성을 환기함</li> <li>· 부산시민들에게 재첩과 재첩국은 삶과 그들의 지혜를 넘어 부산시민들의 기억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음</li> </ul>
<b>비고</b>	<p>‘낙동강 재첩국’의 명칭으로, 재첩잡이 등 생활문화 내용이 축약되었음. 필요에 따라 유산 명칭 변경 혹은 생활문화 내용 보완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 [설명문]

‘낙동강 재첩국’은 재첩 조개를 삶아 맑게 우려 낸 부산과 경상도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재첩국’ 또는 ‘재치국’이라고도 한다. 동아대 김경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재첩국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산으로 온 피란민들이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가난한 피란민들은 재첩국 한 그릇을 사서 물을 넣어 양을 늘린 뒤 식구들이 밥을 말아 먹었다고 한다. 당시 낙동강 하구인 사상구 삼락동과 북구 구포동 등은 재첩 산지로 이름을 날렸다.

재첩국은 19세기에 상업 활성화 과정 속에 행상들이 먹는 싸고 간편한 먹을거리로 팔려나가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까지 재첩국은 간단히 허기를 채우거나 해장을 하기 좋은 서민 음식이었다. 당시 재첩은 낙동강 하류인 하단·김해·명지·염곡 등의 강가와 수영강 인근에서 흔히 채취할 수 있었고, 낙동강 하구의 재첩이 가장 유명하였다. 하지만 재첩이 많던 낙동강 인근이 개발되면서 재첩이 거의 사라져 지금은 부산의 유명한 음식이었는데도 모를 정도가 되어 버렸다. 1970년대 재첩국 거리로 유명하던 낙동강 인근인 사상구 삼락동 지역에 소수의 재첩국 전문 음식점만이 모여 재첩국 거리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재첩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첩을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 해감을 하여 머금은 모래를 토하게 한다. 재첩을 깨끗이 씻고 물을 부은 다음 끓이다가 뚜껑이 열릴 정도로 끓어오를 때, 소금을 넣으면서 주걱으로 저으면 조개에 붙어 있던 재첩 알이 밖으로 떨어져 나온다. 재첩 알이 떨어져 나오면 국물과 알맹이를 껍데기와 분리한 후, 국물과 알맹이만 다시 한 번 더 끓이는데 이때에 부추나 파를 넣고 간을 맞추면 된다.



부산 곳곳에는 옛날 재첩, 섬진강(하동) 재첩, 할매 재첩 등의 이름으로 재첩국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재래시장마다 재첩국을 팔고 있는 가게도 많이 눈에 띈다. 부산의 재첩은 사라졌으나 아직도 부산 사람들에게 재첩의 맛은 잊히지 않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산에서는 아침이면 동네가 떠나갈 듯이 “재치국 사이소~”를 외치던 부산 아지매(아주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재첩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숙취 제거에 효과가 있어 해장국으로 사랑받고 있다. 1987년 낙동강 하구 독의 완공으로 자취를 감춘 재첩을 2000년대 초반 명지 지역의 어촌계에서 양식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 을숙도와 명지동 인근 유역에서 자연산 재첩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고, 낙동강 하구독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어 다시 재첩국의 명성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 2) 관련 내용

낙동강은 강원도 남부지역과 경상도의 중앙에서 남류하여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으로 북한의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어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긴 강이다. 섬진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많은 모래가 퇴적되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흔히 모래밭이라 하면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불모지라고 생각하지만, 물속의 모래는 오히려 다른 생명체들의 요람이다. 이 모래 속에 사는 조그만 조개들이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의 명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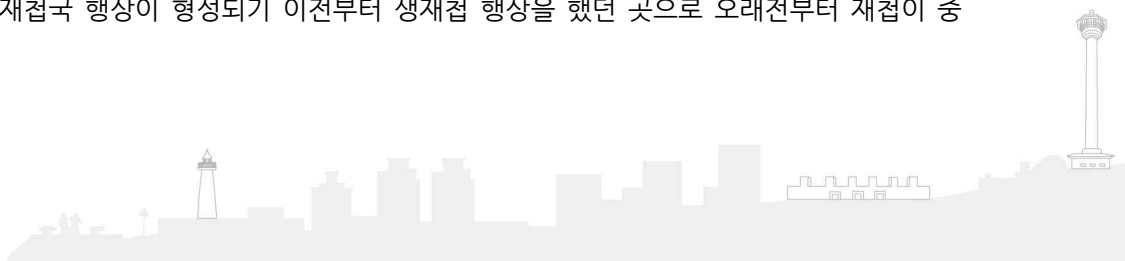
예로부터 부산의 낙동강과 수영강은 한강, 두만강, 압록강처럼 강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삶이 이루어져 온 곳이다. 낙동강과 수영강은 강의 하류가 바다와 이어져 다양한 생물들이 자랄 수 있었고, 풍부한 수산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해왔으며, 식수와 농업용수까지 인간의 문명을 유지하는 생명수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sup>1</sup>

낙동강 하구는 서해안으로 흐르는 한강·금강에 비해 조수 간만의 차이가 덜해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 많고 주변에 수심이 얕고 갯벌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닷물과 강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재첩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낙동강 하구에는 재첩의 어원에 대한 두 가지 설이 회자되고 있다. 하나는 재첩은 번식력이 좋아 하룻밤에 삼대를 본다 해서 재첩이라 불렀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한 남자[낙동강의 어부]를 섬겼던 조강지처와 첩이 지아비를 잃게 되자 함께 강물에 투신해 그 영혼이 재첩이 되었다는 설이다. 이 두설에 의하면 재첩은 번식력이 강한 특징을 드러내는 이름의 ‘재첩’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재첩이 한자어에서 비롯한 것인지 우리말에서 비롯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한편, ‘재치’를 재첩의 방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재치는 재첩국 행상을 했던 아주머니들의 “재치국 사이소” 또는 “재치국 사이소”라 했던 것을 오해한 것으로, 낙동강 하구 사람들은 재첩을 따로 ‘재치’라 부르지 않는다. ▼<sup>2</sup>

동쪽 강변마을들은 구포를 제외하고는 일찍부터 어민들의 재첩잡이가 이루어졌다. 동쪽 강변마을에서 어민들의 재첩잡이가 빨랐던 이유는 대저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농토가 적었을 뿐 아니라 재첩국 행상이 일찍 형성되어 재첩 판로가 넓었기 때문이다. 엄궁은 산비탈에 위치해 농토가 거의 없었던 빈촌으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했다. 어업이 주요한 생계수단이었던 엄궁에서는 재첩국 행상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생재첩 행상을 했던 곳으로 오래전부터 재첩이 중



요한 생계수단이 되었던 대표적인 마을이다.

특히 하단은 재첩국의 본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단장과 도선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재첩국집은 재첩국 대중화에 일정 정도 기여했으며, 이로부터 이후 자연스럽게 재첩국 행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sup>3</sup>

재첩은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먹어 온 조개류이다. 그러나 주요 식재료로 본격적인 어획을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부터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산으로 온 피란민이 즐겨 먹으며 대중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동강재첩은 구두약처럼 새까맣고 반들반들 윤기가 돌아 일본인들이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한때 재첩은 낙동강 하구에서 지천으로 잡히던 조개였다. 얼마나 많았으면 아이들이 강에서 물싸움하면서 '돌 대신 재첩을 굶어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흔한 재첩으로 낙동강 사람들은 밥을 대신하거나 밥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해먹었다. ▼<sup>4</sup>

부산의 진미 식재료로 손꼽히던 '낙동강재첩'. 맑은 물에서만 자라는 순한 성품의 재첩은 낙동강의 넉넉한 품속에서 자라나, 부산 사람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졌다. 낙동강이 키운 것 중 최고의 식재료였다. 가막조개, 재치, 애기재첩 등으로도 불렸는데, 모래나 모래진흙 등에서 주로 서식했다. 낙동강 권에는 하구의 김해, 명지, 엄궁, 하단 등과 물금, 원동에 이르기까지 널리 재첩을 채취했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고, 그 성장분포도 광범위했다. 그러나 1987년 낙동강 하구언이 축조되면서 거의 그 명맥이 끊어졌다. 낙동강 하굿둑은 1983년 4월에 착공하여 1987년에 완공되었는데 하굿둑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 재첩의 개체 수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해 하굿둑이 완공된 이후에는 낙동강 전역에서 재첩이 전멸했기 때문이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하굿둑 공사가 착공된 이후 재첩 채취량은 84년 2,649t, 85년 1,278t, 86년 276t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굿둑 착공 후로 불과 2년 만에 90% 가량 감소하여, 일부 갈미조개(북방개량조개)잡이 배에서 백합과 함께 간간히 보이는 정도로 그 명맥이 끊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명지의 일부 어부들이 하동에서 가져온 종패를 낙동강에 식재하여 양식함으로써, 낙동강 하구에서도 재첩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한때 재첩잡이를 했던 김천열 씨는 "명지 앞 백합등과 대마등 쪽에서 많게는 하루에 300kg까지 재첩을 잡았다"고 말했다. ▼<sup>5</sup>

낙동강 하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장터나 행상을 통해 판매하는 재첩을 '생재첩', 재첩국 장사에 판매하는 재첩을 '국재첩'이라 한다. 낙동강 하구에서 재첩잡이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재첩의 판로가 '생재첩'에서 '국재첩'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재첩 판로가 '생재첩'에서 '국재첩'으로 확대되면서 재첩을 잡아왔던 낙동강 강변마을에서는 어민은 재첩을 잡고 마을 주민은 재첩국 장사를 하는, 즉 마을주민 대다수가 재첩으로 생계를 꾸리는 재첩마을로 변화되어 갔다.

낙동강 강변마을에서 재첩국 행상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일까? 단언할 수 없지만 재첩국 행상은 1940년대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재첩'을 팔았던 어민, 대를 이어 재첩국 행상을 했던 '재첩국 아지매', 그 '재첩국 아지매'를 만났던 이들의 기억들을 소개한다.

덕두(덕두 본리 동방)마을에서 1940년부터 재첩잡이를 시작했다는 김허남 옹은 재첩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 사상 일대 재첩국 행상들에게 '국재첩'을 팔았다 한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계 살았어도 재첩 안 잡았고. 나는 17살 때부터 재첩 잡았는데 해방되기 전부터 잡았지. 나는 재첩 시작할 때부터 잡았어요. 내가 잡을 때도 여 사람들도 어쭙 다 잡았을 겁니다. 그때 조개[재첩] 잡으면 국 장사들한테 팔았어. 왜정 시대에도 국 장사가 있었어. 머리에





이고 땡기는 사람들. 왜정시대 때도 잡아가지고 사상 사람들에게 팔고. 사상 사람들이 여 사러 마이( 많이 ) 왔어/ 그 사람들이 부산가서 팔고. 그때 마이 했어요. 전쟁 나기 전에도 마이 했고. 김허남(남, 1924, 덕두)”

덕두(동방)마을은 1936년에 형성된 마을이다. 김허남 옹이 당시 재첩잡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사상 일대 재첩국 행상들과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으로, 1930년대 중후반에도 재첩국 행상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촌마을인 엄궁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어민들의 ‘국재첩’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다. “우리 아버지대도 재첩을 마이 잡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땡기면서 재첩 잡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생재첩 팔데가 마이 없었어요. 전부 국 장사들한테 팔았지. 옛날에도 국 장사들이 있었으니까 어른들이 재첩 마이 잡았지 생재첩 팔아가 지고는 돈이 안되니까 마이 안 잡습니다. 이영일(남, 1958, 엄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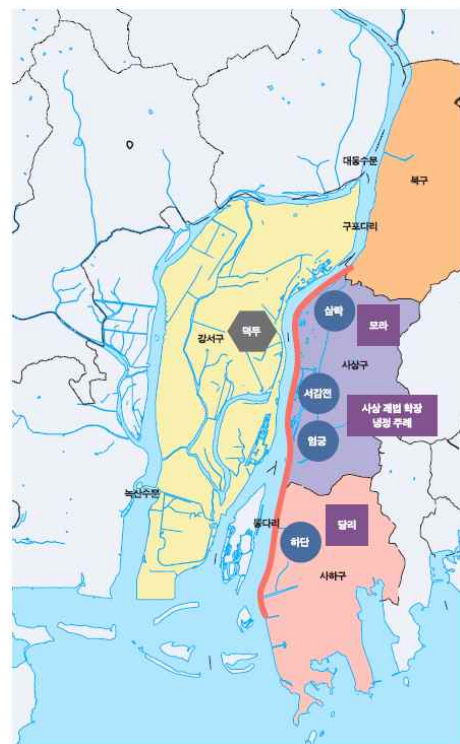
아쉽게도 1940년대 재첩국 행상을 했던 이들은 이제 찾아 볼 수 없다. 대신대를 이어 재첩국 행상을 했던 2세대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기억도 유사하다. 재첩국 행상에게 재첩국을 산 적이 있는 이들은 1950년대 이전에도 재첩국 행상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50년대 이전에 재첩국 행상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나 그 시기가 일제강점기로 소급되는지 광복 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재첩잡이 어민의 기억과 완월동이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었던 곳이었음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재첩국 소비층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한 소비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내륙의 중심에 위치한 초읍에도 1950년대 이전부터 재첩국 행상이 많이 찾았던 곳이라 한다. 당시 초읍은 한적한 농촌으로 일반 서민들 역시 재첩국 행상의 주 소비층으로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sup>6</sup>

불과 십 수 년 전까지도 강서구 쪽에서는 아침이면 동네가 떠나갈 듯이 “재치국(재첩국) 사이소!”를 외치던 부산 아지매들이 있었다. 재첩을 가마솥에 넣고 나무땃감으로 푹 끓여 재첩국을 만들어 팔았는데, 1970년대 낙동강 하구 유역 최초로 재첩국을 팔았던 덕성식당 유남순(작고) 씨는 새벽마다 명지인근(영강, 진목, 신포)을 돌며 재첩국을 팔았다.

“양찰도우(양철 물동이)에는 국을, 바케스에는 알을 넣어 이고지고 돌아다니며 팔러다녔지예. 양찰도우 위에 비닐 덮고 그 위에 무명천을 덮어 놓으면 새벽 내내 뜨끈한 재첩국을 팔 수 있었습니다.” 정 씨의 말이다. ▼<sup>7</sup>

1940년대 재첩국 장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어민들의 재첩잡이도 함께 활성화된 것인데, 당시 재첩국 행상의 주 소비층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재첩을 즐겨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장어와 더불어 복날 제철음식으로 젓배이 각광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도 재첩국을 즐겨 찾았을 것으로, 당시에도 재첩국 행상의 판로가 꽤



1940년대 낙동강 하구의 재첩마을

©황경숙

넓었을 것으로 주장된다.

위 기억들을 종합하면 1940년대 낙동강 하구에는 재첩잡이만 이루어졌던 마을, 재첩잡이와 재첩국 행상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마을, 재첩국 행상만 이루어졌던 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재첩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재첩마을 분포지역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른쪽 그림의 육각형 표시는 재첩잡이만 이루어졌던 마을, 원형 표시는 재첩잡이와 재첩국 행상이 함께 이루어졌던 마을, 사각형 표시는 재첩국 행상만 이루어졌던 마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낙동강 재첩마을은 동쪽 강변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인근 마을로 확대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sup>8</sup>

그 중 재첩국 행상들이 가장 많이 오갔던 대티고개를 일명 재첩고개라 불렀는데, 사실 낙동강변 마을과 부산 내륙의 경계에 있었던 만덕고개와 구덕령도 수많은 재첩국 행상들이 오갔던 재첩고개였다. 부산의 아침을 열던 재첩국 아지매의 행렬은 마을 어귀를 지나 부산 내륙을 잇는 재첩고개를 넘어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을 외치며 굽이치듯 부산 곳곳으로 퍼져갔다.

낙동강과 부산 내륙을 잇는 재첩고개는 재첩국 아지매들에게는 힘겨운 삶의 무게를 피할 수 없는 아리랑 고개였으나, 부산 내륙 사람들에게는 낙동강 재첩으로 하루를 열 수 있는 기다림의 고개이기도 했다. ▼<sup>9</sup>

재첩이 수출되기 전까지 재첩마을의 주 소급원은 재첩국 행상이었다. 그래서 어민들이 재첩을 잡는 시간, 재첩을 거래하는 시간이나 방식이 모두 재첩국 장사에 맞춰 이루어졌다. 재첩거래는 재첩국 장사가 새벽 장사를 마치고 마을에 돌아오는 시간대에 맞춰 11-13시 사이에 이루어졌고, 재첩 거래 시간에 맞춰 어민들의 재첩잡이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다. 재첩의 거래 방식 역시 재첩국 장사에 맞춰 재첩국 한동이를 끓여 낼 수 있도록 30kg 단위로 거래되었다. 이후 재첩국 장사와 거래가 중단된 뒤 2000년대 중반 20kg 단위로 거래 방식이 변한 것을 보면 재첩이 30kg 단위로 거래되던 관례는 재첩국 장사와의 거래에서 비롯된 것 같다. 직접 구매하기 힘든 겨우에는 어민들이 배달을 하는데, 이때는 배달비는 일정량의 재첩을 빼는 것으로 대신했다. 또한 국 장사와 직거래 했던 어민들은 재첩국 장사와의 단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명절이면 선물로 고객관리를 하는 등 그들만의 상거래 문화를 만들기도 했다.

재첩마을의 일상적 모습 역시 재첩국 장사들의 생활을 오롯이 담고 있다. 재첩마을은 재첩 거래가 끝나는 오후가 되면 재첩국 장사를 준비하는 이들로 분주하고, 마을 하천이나 우물에서는 재첩 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마을 주민들은 주로 하천에 재첩을 담가 발로 밟으며 재첩을 씻었다. 그래야 재첩 껍데기 윤선 사이 사이에 들어 있는 미세한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첩마을에서는 ‘신랑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말이 생겼다. ▼<sup>10</sup>



재첩을 자루에 담는 어민

©사하구청

재첩마을 재첩국은 간단 명료하다. 재첩 육수에 실파·버섯·다시마·호박 등 야채를 넣어 함께 끓여 먹는 강원도식 재첩국 과 달리 재첩 육수에 부추만 넣는다. 그래서 재첩마을 재첩국은 먹는



방식도 간단해 따뜻하게 먹어도 좋고 차게 먹어도 나쁘지 않다. 재첩 음식 중 가장 대중적인 재첩국도 지역과 나라에 따라(예를 들면, 일본의 스마시지루) 그 조리법이 조금씩 다른데, 재첩마을 재첩국은 투박하면서도 정감 있는 재첩국 아지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듯하다. 재첩국 아지매들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간 재첩국은 2009년 부산시가 선정한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선정되었다.

재첩이 사라지면서 재첩마을의 다양했던 재첩 음식들도 사라져갔다. 특히, 재첩국 아지매의 재첩국은 부산 사람들에게는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했던 추억까지 곁들여져 있어 재첩국 아지매의 재첩국이 사라져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재첩국을 파는 음식점은 부산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만, 재첩국 아지매의 재첩국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첩마을 재첩국 아지매의 속맛을 느낄 수 있는 삼락 재첩거리[2000년 사상구청 지정]의 재첩국 음식점을 찾는 이들이 많다.

아직도 재래시장에 재첩국을 파는 곳도 많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로서의 재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재첩이 많던 낙동강 인근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채취할 재첩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재첩을 파는 음식점이나 행상인들도 거의 사라져 낙동강 인근 강서구 삼락동 지역만 2곳 정도의 재첩국 전문점만이 남아 재첩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곳곳에 옛날 재첩, 섬진강(하동) 재첩, 할매 재첩 등의 이름으로 재첩국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아직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재래시장마다 재첩국을 팔고 있는 가게도 많이 눈에 띈다. 부산의 재첩은 사라졌으나 아직도 부산 사람에게 특별한 강만이 줄 수 있는 음식, 재첩의 맛은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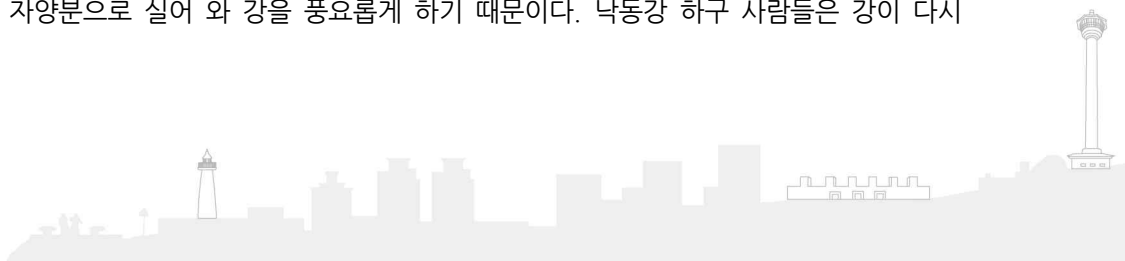
강이 주던 풍족한 선물인 재첩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해역을 가지고 있던 부산의 지형에서 생산될 수 있던 축복의 음식이었으나 이제 이러한 맛을 부산의 지형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향수가 되어 버렸다. 하굿둑이 조성된 후 낙동강 재첩어장이 황폐화되면서 재첩국 행상도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동강 재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 재첩은 살아 있고 전통 재첩잡이 방식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동강 재첩을 사라진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재첩 채취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명지 어민들은 재첩잡이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sup>12</sup>



현재 재첩 서식지와 재첩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황경숙

‘낙동강 재첩은 살아있으나 재첩을 잡을 수 없고, 재첩국 아지매의 재첩국은 있으나 낙동강 재첩국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하굿둑 밖 낙동강 재첩의 현주소다. 근본적으로 황폐화된 하굿둑 안 낙동강의 생태계를 복원해 재첩의 온전한 귀환을 이끌어 내야 다시금 우리는 ‘낙동강 재첩국’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 사람들은 홍수를 ‘시우(때맞춰 내리는 비)’라 하고, 홍수로 강 상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흙탕물을 ‘시웃물’이라 한다. 홍수를 시우라 부르는 것은, 홍수가 강물을 정화하고 새로운 자양분으로 실어 와 강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구 사람들은 강이 다시



흐르고 시우가 내리면 낙동강의 생태계가 복원되어 재첩이 다시 살아나고, 재첩이 다시 살아나면 지금 처한 낙동강의 암울하고 난감한 현실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sup>13</sup>

지금도 낙동강의 강물들은 여전히 바다로 흐르고 있고 그러한 지형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이기  
에, 강의 음식처럼 주인이 없고 누구나 채취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음식이 없어진 것을 옛이야기로  
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것이 점점 서민들이 살아가고 즐길 공동체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과 다르  
지 않아 재첩이 사라진 것은 단순히 생태계의 변화로만 보이지 않는다. 강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식수인 생명의 젖줄이기도 하거니와, 더 나은 공동체의 삶을 복원하도록 도와 줄 우리의 희망인  
것이다. ▼<sup>14</sup>

- ▼ 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의 음식, 생성과 변화」, (재)부산연구원, pp.35-38.
- ▼ 2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p.30-31.
- ▼ 3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p.42-48.
- ▼ 4 2016.03.29.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11> 낙동강 재첩(상) 재첩 음식 이야기」
- ▼ 5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p.51-55.
- ▼ 6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151.
- ▼ 7 2016.03.29.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11> 낙동강 재첩(상) 재첩 음식 이야기」
- ▼ 8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p.56-57.
- ▼ 9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61.
- ▼ 10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p.67-69.
- ▼ 11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p.72-73.
- ▼ 12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p.184-191.
- ▼ 13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p.210.
- ▼ 14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의 음식, 생성과 변화」, (재)부산연구원, pp.35-38.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삼락동 덕포시장  
©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삼락동 재첩골목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손틀어업 및 재첩국아지매의 도구들  
: 〈부산의 관문 그리고 사람 전시〉 중  
(부산박물관)





## ▷ 사진 기록 자료



1970년대 명지포구 재첩잡이배

©부산 강서구



구포 재첩잡이(1978)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낙동강 지킴이로 나선 어민들(1979)

©사상생활사박물관



재첩잡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 논문 및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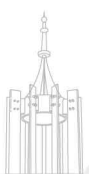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의 음식, 생성과 변화」, (재)부산연구원.
- 황경숙, 2020,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국립민속박물관.

## ▷ 신문기사

- 2016.03.29. 국제신문, 최원준,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11> 낙동강 재첩(상) 재첩 음식 이야기」
- 2016.04.05. 국제신문, 「시인 최원준의 부산탐식프로젝트 <12> 낙동강 재첩(하) 재첩잡이 이야기」
- 2021.05.09. 연합뉴스, 「[알쏭달쏭 바다세상Ⅲ](14) "마시지도 않은 술을 해장한 듯" 부산 재첩국」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재첩국', '삼락동 재첩골목'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seoul.go.kr/>)
- 부산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bdi.re.kr/>)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4 구덕운동장



#### 1) 개관

대상	구덕운동장	소재지	서구 망양로 57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44호
건립시기	1928년	형태	유형 - 공설운동장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8년 부산 공설운동장 건립</li> <li>· 1940년 동래 고등보통학교·부산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노다이 사건(부산항일학생의거의 시발점)</li> <li>· 1946년 6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열사 합동추도식 거행</li> <li>· 1971년 3월 구덕야구장과 실내체육관 건립</li> <li>· 1973년 8월 주 경기장 건립(10월 12일 전국체전 개회식 거행)</li> <li>· 1982년 1월 구덕운동장으로 명칭 개칭</li> <li>· 1988년 1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구덕운동장 직제 개정</li> <li>· 2017년 6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추진</li> </ul>		



**보존필요성**

- 2019년 3월 구덕야구장·실내체육관 철거 후 구덕체육공원 조성
- 부산 스포츠의 산실이자 부산 최초의 종합운동장으로서 건물 자체의 역사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음
- 일제강점기에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부산 시민들의 체육·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각종 운동경기와 갖가지 행사가 열려 부산 지역 체육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 구덕운동장이 위치한 공간의 유의미성과 가치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설명문]**

‘구덕운동장’은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이다. 원래 1920년 6월 조그만 동물원을 곁에 둔 넓은 빈터로, 주민들이 모이는 일이 많았으며, 마을 체육대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후 1928년 9월 부산공설운동장이 건립되어, 1982년 6월 구덕운동장으로 개칭되었다.

1940년 11월 동래고보, 부산상고 학생들이 민족의거사건(노다이 사건)을 이곳에서 일으켰고, 1946년 6월에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열사 합동추도식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6.25 전쟁 시 미군수송 부대가 주둔하여 서울수복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필요시 시민의 행사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구덕운동장은 1985년 사직운동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부산에서 유일한 시민종합 운동장이었으며 육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있고, 88올림픽 보조경기장, '97동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현재 주경기장은 프로축구 아 이파크, 실업축구 부산교통공사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덕야구장 및 구덕실내체육관은 재개발사업(2017~2018년)으로 철거하였고 그 자리에 3만5643㎡ 규모의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2019년 3월에 개장하였다.

**2) 관련 내용**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위치한 구덕운동장은 1928년에 본격 개장한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이다. 연제구 거제동에 부산종합운동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60년 가까이 부산의 유일한 시민종합운동장이었으며 현재도 부산의 주요한 체육시설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1928년에 건립된 이후 1973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주경기장과 야구장은 1980년대까지 부산의 주요 체육행사가 열리는 부산 체육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최고 인기 스포츠였던 고교야구와 실업야구를 비롯한 프로야구까지 열리던 장소였다.

1937년까지 전국에 총 48개의 남녀 중등학교 중에서 당시 구덕야구장 주변에는 부산제1공립상업학교(現부경고등학교), 부산고등여학교(現부산여자고등학교) 2개교가 있었고, 1942년에는 부산제2공립중학교(現경남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위에 언급된 물리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체육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스포츠를 접할 기회를 주었으며, 지역민에게는 학원 스포



츠를 비롯한 당시에는 흔치 않은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해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했다.

▼<sup>1</sup>

이곳에서는 전국체육대회 4회(1957, 1973, 1976, 2000), 전국소년체육대회 3회(1975, 1987, 2001), 제24회 서울올림픽 축구예선대회,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부산체육의 기반으로 활용됐다. 이후 '88서울올림픽 보조경기장, '97동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이로서 부산시 체육시설의 핵심으로서 활용되었다.'▼<sup>2</sup>

근대체육은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운동장 등의 시설을 필요로 한다. 근대체육은 갑오경장으로 설립된 각종 학교와 외국인 선교사들의 학교단체를 통해 보급되고, 일제강점기 예도 역시 학교, 교육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해 보급되었다. 따라서 운동장을 포함한 근대체육 시설은 이들 기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조선체육회의 설립과 각 지역별 한인 체육단체의 설립이 가져온 근대체육 붐은 운동장 시설의 부족함을 야기하였다. 조선총독부와 각 부(府)에서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였고, 그 첫 성과가 경성부에서 1925년 10월 15일 건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공설운동장인 경성운동장(구 동대문 운동장)의 탄생이었다. 이 이후 1934년까지 전국에 걸쳐 280여 개의 각종 경기장이 만들어진다.

부산의 공설운동장 탄생도 위와 같은 배경 아래 이루어졌다. 1920년대 부산부의 야구, 축구, 육상 경기는 부산중학교, 부산진보통학교, 부민보통학교 등 각 학교의 운동장 아니면 초량의 철도 운동장 등 기관의 운동장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유일한 대형 운동장은 1918년 7월 초장정(草場町, 현재 서구청 자리)에 개장한 대정(大正)공원의 운동장뿐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점점 확산되고 규격화해가는 근대체육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시설과 면적이 부족하였다.

이에 1926년 부산부도 종합운동장의 신설에 착수하여 서구 대신정(大新町)에 마을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빈터에 1930년을 완공목표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경성 운동장의 규모에는 조금 못미치지만 총 면적 72,086㎡(21,806평) 종목별 경기장을 갖추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설은 1928년 9월에 개장한 부산공설운동장이었다. 이곳은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근대식 공설 운동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설운동장 개장에 맞추어 전차도 대청동을 거쳐 오는 선과 남포동을 거쳐 오는 선이 부용동 앞을 지나 운동장 정문 앞 종점까지 운행하게 되면서 교통도 편리해졌다.▼<sup>3</sup>

부산공설운동장의 설비는 스포츠맨의 기대부응은 물론 부산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해 당시 조선에서 대표적인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운동장을 모델로 해서 각종 경기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부산공설운동장은 인구증가로 부산부의 발전을 고려할 때 체육보건 상 그 대세에 순응하고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대운동장을 필요로 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운동장의 위치는 북쪽에 구덕산, 남쪽에는 남항목지도(현재 영도)를 바라보고 지대가 높고 메말라 있으며 풍경이 좋아 운동장으로서 절호의 지역이다(釜山府, 1927: 44). 이처럼 부산공설운동장은 부산부민의 보건상 심신단련을 위해 운동장의 필요성을 느껴 건설하게 되었는데 지형상 운동장으로서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sup>4</sup>

한편 부산공설운동장의 수영장은 처음에는 전혀 계획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부산지방이 해안이어서 수영은 바다에서 할 수 있다는 논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수영연습은 바다보다는 담수가 좋다는 경남체육협회의 의견에 대해 부산부에서는 장래 예산의 사정이 좋을 때 수영장을 설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朝鮮時報, 1927. 1. 22). 이처럼 수영장의 설비는 부산이라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수영을 하는 데는 담수가 좋다는 판단 하에 설비를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sup>5</sup>

부산공설운동장에서는 체육행사 외에 경축행사나 궐기대회 같은 공공행사도 자주 개최되었는데, 1940년 11월 23일 '경남학도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에서 심판을 맡은 일본군 대좌 노다이(乃大)의 부정판정에 항의하던 동래중학교(현 동래고등학교)와 부산제이상업학교(이전 부산상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항의 끝에 시내까지 진출하여 민족의식을 분출한 역사적 사건(부산항일 학생 의거, 일명 노다이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공설운동장에서 촉발된 부산항일학생의거는 당시 일제의 삼엄한 통제가 극에 달했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일제말기 국내에서 전개된 최대 규모의 항일학생운동으로 부산지역 항일학생운동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현재에도 그 숭고한 뜻을 새겨 시민정신의 큰 뿌리로 승화시키고 있다. ▼<sup>6</sup>

또 하나의 기억되는 사건은 1946년 6월 15일에 있었다. 박열은 1946년 5월 15일 부산에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안고 도착했다. 의사들의 유해 발굴과 송환에 대한 백범 김구의 부탁을 받고 일본 형무소와 사형장 뒤쪽에 버려져 있던 유해들을 찾아 발굴해 고국으로 모셔온 것이었다. 꼭 한 달 뒤인 1946년 6월 15일 순국합동영결식이 부산공설운동장(구덕운동장)에서 개최됐다. 1946년 6월 16, 17일 자 동아일보에 '삼열사추도식 십오일엄숙집행(三烈士追悼式 十五日嚴肅執行)'과 '조국(祖國)에 한 몸 바친 삼열사부산(三烈士釜山)에서추념식(追念式)'이란 제호의 기사들과 대창정(大倉町)에 있던 유해 안치장에서 대청로와 구덕로를 거쳐 구덕운동장에 이르렀던 운구 행렬의 빛바랜 흑백사진들을 통해 어렵듯이 당시 정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땅이 젖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슬부슬 내리던 장마가 막 시작되었나 보다. 대청로 양옆으로 줄지어 서서 머리 숙인 학생들의 마음처럼 슬픈 비였다. 선두에 선 윤봉길 의사의 십자가 형틀과 만장들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 시민의 모습은 그날의 엄숙함을 대변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젊은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보냈다는 죄책감으로 의사들의 고국 송환을 염원했던 백범 김구의 비통한 목소리도 바로 곁에서 들리는 듯하다. ▼<sup>7</sup>

부산공설운동장은 해방과 함께 부산시에서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6.25전쟁 때는 미군 수송부대가 주둔하기도 하였지만 1954년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기능을 회복하였다. 1959년 7월 17일에는 국제신보사 주최 '시민 위한 행사의 밤' 도중 갑작스런 폭우로 3만 여 관중이 일시에 퇴장하면서 57명이 압사하고 백 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아픔도 있었다.

1971년 3월에 구덕야구장과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었고, 1973년 8월에 주 경기장이 건립되어 1978년 8월에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1982년에 사직 운동장이 건립되어 그해 6월에 구덕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7년 6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구덕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이 철거되고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구덕운동장은 현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육상 트랙은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민들이 조깅 및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씨름장은 부산광역시 씨름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sup>8</sup>

부산은 야구의 도시로 자타가 인정한다. 지금이야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편하게 즐기지만 그 옛날에는 라디오에서 중계하는 고교야구가 무척 인기였다. 부산에서 야구로 명문인 학교로는 경남고, 부산고, 경남상고, 부산상고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화랑대기, 청료기, 황금사자기, 봉황대기 같은 전국 대회 중계가 있는 날에는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그중 화랑대기는



부산에서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였다. ▼<sup>9</sup> 미국 보스턴의 펜웨이(Fanway) 지역과 펜웨이파크(Fanway park), 시카고의 리글리빌(Wrigley ville) 지역과 리글리 필드(Wrigley field)의 관계와 같이 야구장과 지역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도시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사례처럼, 부산에서도 구덕야구장은 시민들 간의 정서적 연결을 만들고, 부산과 서구의 정체성 형성과 활성화에 일조한 공간이다. ▼<sup>10</sup>

부산공설운동장은 부산에 만들어진 종합경기장으로서 경성운동장의 뒤를 잇는 최대, 최고 규모의 경기장이었다. 부산공설운동장의 건설은 그때까지 각종경기대회가 경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서 벗어나 지방 근대스포츠의 활성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지방 근대스포츠 뿐만 아니라 한국근대스포츠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sup>11</sup>

부산의 근현대 역사에서 특히 야구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형성되던 부산에 모인 다양한 배경의 도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만들어 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도심에 위치한 야구장에서 경기관람을 위해 1만명의 대규모 인원이 함께 경기를 보고 쌓은 공통적 경험이나 감정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게 만들고 동기화시켰으며 그들의 도시 생활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시민과 함께 호흡한 구덕야구장은 현재는 과거에 비해 침체된 상태이지만, 부산이라는 지역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 정의할 수 있다. ▼<sup>12</sup>

최근 부산시에 따르면, 시설이 노후화된 구덕운동장을 스포츠복합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경기장과 주차장 및 테니스장 일대를 모두 철거해 대형 스포츠복합타운으로 만든다.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해 체육과 문화, 상업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하반기 사업자를 모집해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된다면 구덕운동장의 역사적인 역할과 기억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의 산실이었던 서울의 동대문운동장과 야구장의 자리에는 현재 2개소의 조명탑만이 남아있다. 흔적으로는 남아 있지만 대한민국 근대 스포츠의 지난 역사의 현장은 모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의 전철을 똑 같이 밟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바보스런 짓이다. ▼<sup>13</sup>

▼1 최규덕, 2019, “부산 서구(西區) 신구장 건설계획”,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pp.14-15.

▼2 류춘호, 2015, “역시(직할시) 체육 50년과 도시발전 경로”, 「항도부산」, 31권, pp.6-7.

▼3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pp.69-72.

▼4 손환, 2015, “일제강점기 부산공설운동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4권 1호, pp.28.

▼5 손환, 2015, “일제강점기 부산공설운동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4권 1호, pp.32.

▼6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stadium/>).

▼7 2019.02.28. 국제신문, 「[강동진 칼럼]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8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구덕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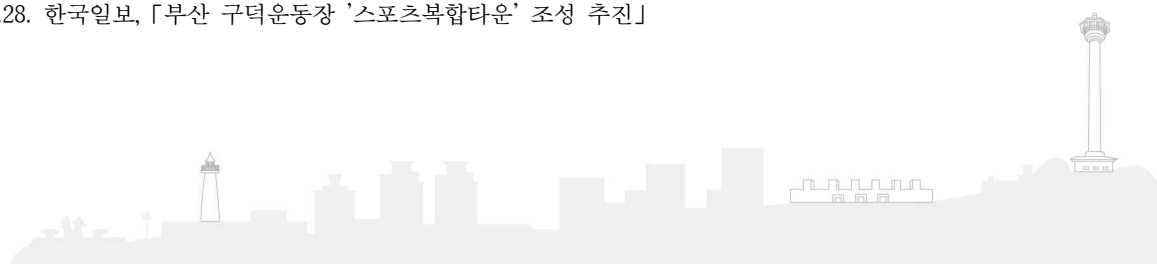
▼9 최윤식, 2020, 「사라진 건축, 잊힌 거리」, 루아크, pp.137.

▼10 최규덕 2019, “부산 서구(西區) 신구장 건설계획”,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pp.4-5.

▼11 손환, 2015, “일제강점기 부산공설운동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4권 1호, pp.35.

▼12 최규덕, 2019, “부산 서구(西區) 신구장 건설계획”,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pp.18.

▼13 2021.07.28. 한국일보, 「부산 구덕운동장 '스포츠복합타운' 조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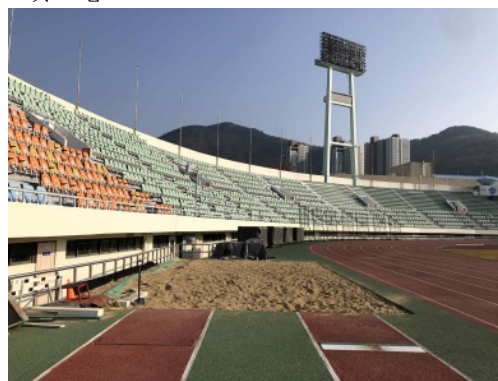


### 3)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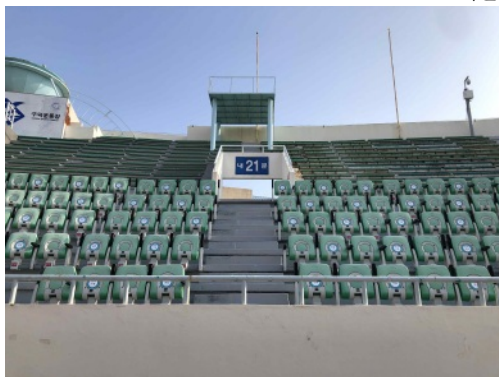
#### ▷ 현장 사진 자료



구덕운동장의 옛 모습



구덕운동장 내부



구덕운동장 내부



현 구덕야구장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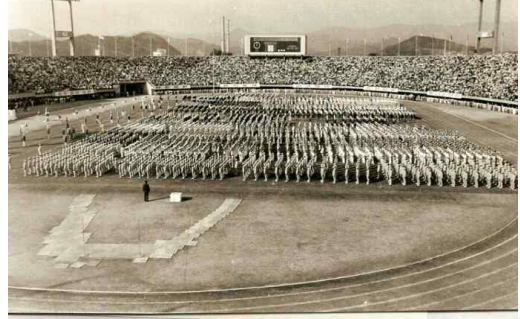




## ▷ 사진 기록 자료



1928년 부산 서구 서대신동 부산공설운동장  
©한국저작권위원회



1960년대 구덕운동장 전국체육대회  
©부산의기억1982년 구덕야구장 모습  
©부산일보



1982년 구덕야구장 모습  
©부산일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열사  
순국선열합동추도식(1946년 6월 15일) ©조선일보



구덕운동장 전경(년도미상)

©부산근대사료연구소



▷ 논문 및 저서

- 부산대학교, 2013, 「부산을 읽는 키워드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 류춘호, 2015, “부산광역시(직할시) 체육 50년과 도시발전 경로”, 「항도부산」, 31권.
- 손환, 2015, “일제강점기 부산공설운동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4권, 1호.
- 최규덕, 2019, “부산 서구(西區) 신구장 건설계획”,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식, 「사라진 건축, 잊힌 거리」, 루아크. 2020년.

▷ 신문기사

- 2019.02.28. 국제신문, 「[강동진 칼럼]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 2017.07.28. 한국일보, 「부산 구덕운동장 '스포츠복합타운' 조성 추진」
- 2021.10.25. 부산일보, 「사직엔 스포츠타운, 구덕엔 축구전용경기장」

▷ 기타 자료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stadium/>)
-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관광(<https://www.bsseogu.go.kr/tour/>)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5 청학성당



#### 1) 개관

대상	청학성당	소재지	영도구 태종로 340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45호
건립시기	근대	형태	유형 - 성당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90년 모이세 죠조(Moyse Jozeau) 신부가 청학동 절영동 성당에 부임함</li> <li>· 1891년 초량으로 본당이 이전하자 공소가 됨</li> <li>· 1907년公所 경당 및 강당을 건립함</li> <li>· 1932년 초대 주임신부 김선배가 부임하면서 본당으로 승격</li> <li>· 1956년 성전 및 사제관을 신축함</li> <li>· 1960년 강당을 신축함</li> <li>· 1998년 성전 리모델링을 실시함</li> </ul>		



**보존필요성**

- 부산 가톨릭의 발상지이자 범일성당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당이며, 천주교가 부산 지역을 선교하는 데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였음· 일제강점기 우리말 교육에 앞장섰고 해방 후 한국전쟁 중에는 피란민의 거처를 비롯하여 구호물자 배급에 힘썼음
-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그 궤적을 같이 해온 장소로서 한국사의 격동기에 가톨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음
- 1957년에 지어진 초기 바실리카 형식의 종교건축물. 절충주의 양식의 건축물로서 건립 당시의 모습과 디테일을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도 보존 가치가 있음

**[설명문]**

‘청학성당’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에 설립된 부산교구 소속 천주교회로, 영도구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대지 면적은 4,690㎡이며, 주요 건물은 성당·사제관·수녀원으로 건물 면적은 2,392㎡이다.

1890년 조조(Jozeau) 신부가 청학동의 절영동성당에 부임하고 1891년에 초량으로 본당이 이전하자 이곳은 공소가 되었다. 1907년에 공소 경당 및 강당을 건립하였고, 1932년 10월 30일 초대 주임 신부로 김선배(사도 요한)가 부임하면서 본당으로 승격되어 청학성당이 되었다. 해방 이전에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대개 병이 있는 신부의 휴양을 위한 성당으로 기능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피란민 증가와 구호물자 배급으로 인해 성당이 활성화되었다. 1956년 12월 20일 성전 및 사제관 축성식을 가지고, 1960년에 강당을 신축하였다. 1998년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학성당은 부산교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본당이 설립되고 사제가 거처한 곳으로, 한국의 근현대 역사를 거쳐 온 성당이다. 개항기 한국, 일제 강점과 해방, 6·25 전쟁, 공업화 성장의 과정에서 영도 지역의 수산업과 조선업의 발전의 길을 함께 걸었다. 신앙의 역사 안에서 한국 근현대 역사는 물론 부산교구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청학성당에서 영도 지역의 신선성당, 봉래성당, 태종대성당이 분가되어 설립되었다. 2022년은 본당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2) 관련 내용**

1932년 본당 설립을 승인받아 범일성당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당이다.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이듬해, 해당 조약이 비준되고 선교사들이 상주함으로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889년 2월 입국한 프랑스 선교사 모이세 조조(Moyse Jozeau, 한국명 趙德夏) 신부는, 그 시기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 전라도 일부까지 넓은 지역을 관할하며 홀로 선교활동을 이어가던 아실 폴 로베르 신부의 활동지, 신나무골로 부임하였다.

조약 이후 경상도에 신자가 늘어나고, 부산은 외국과의 관문인 개항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을 예상한 불량 주교는 1890년 초, 조조 신부를 부산 첫 본당 신부로 임명하였다. 당시 경상도 남부 지역의 공소(본당보다 작은 교회 단위, 본당 사목구에 속하여 있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이룸) 25개 신자 수는 888명이었다. 조조 신부는 부산 시내에 성당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시내 신자들을 잘 알지 못했고, 박해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청학동에 자리 잡았다. ▼<sup>1</sup>

부산지역으로 임명된 조조 신부는 절영도에 그의 첫 번째 부임지의 선교활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는 한옥(韓屋)을 사서 거처하려 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부산에 본당을 설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대구에서 동래로 내려가는 것을 거의 단념했을 때, 뜻밖에 부산항 맞은편 절영도(絶影島)에 사는 몇몇 교우 어부가 찾아와 우선 섬에 집 한 채를 마련하여 시작하고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자고 제의했다. 즉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교우들이 일을 시작했다. 한 달 반 만에 집이 완성되어 나는 절영도로 내려갔다. ▼<sup>2</sup>

이 서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다. 조조 신부는 처음부터 절영도(現 영도)에서 시작할 계획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부산에 본당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고, 시도를 하였다. 특히 동래 지역에 본당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뜻밖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당시 조조 신부의 본당 설립이 어려움을 겪으며 주춤하고 있을 때, 절영도의 신자들이 조조 신부를 맞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절영도에 있던 조내기 공소(現 청학동성당)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신자들이었다. 조조 신부는 이들의 청을 받아들여 동래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지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조조 신부는 왜 절영도를 선택하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敎區三十年史」에서는 조조 신부가 시내에 살고 있는 신자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사람이 많은 시내에 처음부터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며 본당 부지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추측한 데에는 일본인의 영향 때문인 듯하다. 부산에는 1400년대부터 일본과의 외교적 교류와 상거래를 위한 왜관(倭館)이 존재해왔다. 이 왜관이 '강화도조약'과 함께 일본전문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가 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를 해왔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釜山宣敎九十年史」에서는 "조 신부가 영도에 임시 거처를 정하게 된 것은 본래 영도는 절영도(絶影島)라 하여 전설이 많은 고도(孤島)였고, 1887년에는 산림이 울창했었던 곳으로 은거하기에 안전하였던 까닭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조조 신부는 동래 지역에 본당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영도를 선택하였다. 이는 조조 신부가 절영도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들이 살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성직자를 모시고자 하는 그 정성에 조조 신부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부산진 본당'은 절영도의 조내기 공소에서 시작되었다. ▼<sup>3</sup>

이렇듯 절영도의 조내기 공소(현 청학성당 수녀원 자리)의 김보운 회장을 비롯한 신자들이 조조 신부를 맞이하려 하여 이를 신부가 승낙하였고, 조조 신부가 청학동의 절영동성당에 부임하며



이 지역은 새로운 신앙중심지로 개척된다. 하지만 조조 신부는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사목활동의 어려움을 느껴, 곧바로 부산의 초량에 대지를 구입하여 1891년, 본당을 이전하게 된다. 본당이 이전하자 이곳은 공소가 되었다. 1907년에 공소 경당 및 강당을 건립하였고, 1932년 10월 30일 초대 주임 신부로 김선배 사도요한 신부가 부임하면서 본당으로 승격되어 청학성당이 되었다. ▼<sup>4</sup>

이후 1956년 12월 현재의 성전을 유럽식 고풍을 그대로 살려 신축하였다. 공간 구조는 교회의 초기 바실리카(고대 로마 시대 밀라노 칙령 이후 만들어진 교회 건축으로,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공건물의 역할을 담당한 건축물을 교회 건축의 모델로 삼아 지음. 공간 구성은 제대 부분, 복도 부분, 신자석 등으로 나뉘며, 직사각형의 평면으로 구성됨)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규모는 대지면적 4,159.28㎡, 연면적 416.88㎡, 건축면적 363.27㎡의 지상 2층 건물이며, 외부는 적벽돌로 치장되어 있고 조적조 구조로 박공지붕 형식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다. 배치 형식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축조 당시에 대지의 형태와 주변 조건에 의해 배치가 결정되었다. ▼<sup>5</sup> 1956년 12월 20일 성전 및 사제관 축성식을 가지고, 1957년 2월에 국제가톨릭복지협의회(N.C.W.C)의 원조로 성당 본당과 유치원 등을 건립하였고, 1960년에 강당을 신축하였다. ▼<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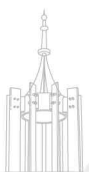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괴정성당을 제외하고는 NCWC의 원조로 건설되는 절충주의 성당은 벽돌을 이용한 조적조 구조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성당들은 대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제작해서 성당을 축조하였고, 대부분의 성당이 본당의 확보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건축전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언을 구할 여유가 없이 축조되었다.

복고주의 양식과 마찬가지로 절충주의 성당건축도 휴전 직후의 급증하는 피난민으로 인해 신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미사를 볼 수 있는 강당형 공간의 확보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성당의 이미지만이 가미된 집회공간의 확보로 인해 만들어진 성당건축 양식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두 개의 성당에서 볼 수 있듯이 절충주의 양식의 성당들은 복고주의 양식성당과는 달리 배치형식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아마도 성당건축의 축조 당시에 대지의 형태와 주변 조건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을 취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모두 초기 바실리카 형식의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sup>7</sup>

1973년 1월에는 사제관과 수녀원이 증축되었고, 1987년 5월 사무실과 교리실을 증축하였다. 1998년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도 건립 당시의 모습과 디테일을 간직하고 있으며, 성전 내부로 들어가면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설치되어 있다. 정면부에는 계단을 통해 접근하도록 되어 있으며 둥그스름한 기둥이 배열되어 있고 측면에는 구조골격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내부는 천장에 나무로 된 골격이 노출되어 있고 지붕의 박공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내부 정면에 Mezzanine Floor(매자닌 : 연극, 교회 등에서 연극자들이 활동하는 2층 마루공간)를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아직 미사 전 30분에는 성당 정면에서 왼쪽에 솟아 있는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종은 김유재 신부 때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단 것이다. 청학성당 건물은 영도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절충주의 양식의 건축물로서 가치가 높다. ▼<sup>8</sup>

본당 설립 이후 청학성당은 굴곡진 민중의 삶과 함께했다. 일제 강점기에 야학을 개설해 우리말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며 문맹 퇴치에 힘썼으나 일본 헌병대가 민족의식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야학을 폐쇄하기도 했다. 6·25전쟁 중에는 청학성당 근처가 피란민의 거처가 되고 당시 구호





물자의 72%를 담당했던 N.C.W.C(국제가톨릭복지협의회)의 구호물자가 성당을 중심으로 배급됐다. 1956년 지금의 성당을 지을 때는 전후의 궁핍한 생활에도 주민이 아껴둔 구호물자와 패물을 내다 팔고 직접 벽돌을 나르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청학성당의 차공명 전 주임 신부는 2012년 본당 설립 80주년 기념 감사 미사에서 "구한 말, 일제 강점기, 민주화 과정 등 가톨릭이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해온 때 청학성당도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격동기에 가톨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청학성당의 역사가 잣대가 될 것"이라며 "많은 이의 헌신과 공로로 지금에 이른 청학성당이 어떻게 더 발전된 미래를 열어갈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up>9</sup>

- ▼ 1 2012.06.15. 국제신문, 「부산 가톨릭 굴곡 이겨낸 청학동, 이제 미래를 연다」
- ▼ 2 「뤼텔문서」, 1891-1242, 죠조 신부가 뫼텔 주교에게 보낸 1890년 10월 8일자 서한
- ▼ 3 김종이, 2011, “부산 본당의 설립에 대한 고찰”,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3.
- ▼ 4 2018.02.11. 천주교부산교구 인터넷주보 2475호, 「조조(Jozeau, Moyse 1866-1894) 신부와 부산본당 설립」
- ▼ 5 청학성당 홈페이지 (<http://cheonghak.catb.kr>)
- ▼ 6 부산광역시 시립중앙도서관, 2015, 「사진으로 보는 부산의 근대건축」,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pp.64-67.
- ▼ 7 김의용, 2008, “1945년부터 1962년까지 부산 가톨릭 성당건축의 성격에 관한 연구-배치형식과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회」, 10권 1호, pp.6-7.
- ▼ 8 청학성당 홈페이지 (<http://cheonghak.catb.kr>)
- ▼ 9 2012.06.15. 국제신문, 「부산 가톨릭 굴곡 이겨낸 청학동, 이제 미래를 연다」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청학성당 내 성모마리아 상

© 청학성당



청학성당 현재 내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조조 신부 흉상



선교 100주년 기념비

#### ▷ 사진 기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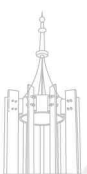
청학성당 본당 낙성식(1956)

©국제신문



부산본당 초대 주임 조조 신부

©가톨릭신문



### ▷ 논문 및 저서

- 김의용, 2008, “1945년부터 1962년까지 부산 가톨릭 성당건축의 성격에 관한 연구-배치 형식과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회』, 10권 1호.
- 김종이, 2011, “부산 본당의 설립에 대한 고찰”,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5, 「사진으로 보는 부산의 근대건축」,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 ▷ 신문기사

- 2011.07.03. 가톨릭신문, 「[한국교회 선교의 뿌리를 찾아서] 복음화의 구심점, 본당-부산교구 범일본당」
- 2012.06.15. 국제신문, 「부산 가톨릭 굴곡 이겨낸 청학동, 이제 미래를 연다」
- 2013.12.30. 영도구청, 「「행복 찾아 떠나는 영도기행」 - 제7탄 청학동」
- 2018.02.11. 천주교부산교구 인터넷주보 2475호, 「조조(Jozeau, Moyse 1866-1894) 신부와 부산본당 설립」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천주교부산교구 인터넷주보 (<http://www.catholicbusan.or.kr/>)
- 청학성당 홈페이지(<http://cheonghak.catb.kr>)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6 동광동 인쇄골목



#### 1) 개관

대상	동광동 인쇄골목	소재지	중구 동광동 4~5가, 중앙동 3~4가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46호
형성시기	1960년대	형태	유형 - 인쇄 골목 무형 - 인쇄 기술 및 기술자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대 초 신우정판과 동양정판, 자문정판이 효시가 되어 인쇄소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하였음</li> <li>· 1970년대 초부터 부산시청 주변에 있던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전세가 저렴한 동광동으로 이전해오면서 출판 관련 업체들이 밀집하게 되었음</li> <li>· 1990년대 이후 시청의 이전, 컴퓨터와 프린터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전문 인쇄 외의 인쇄 물량이 감소하여 인쇄골목이 침체되기 시작하였음</li> <li>· '골목길 콘서트', '거리 갤러리 미술제 공모전'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꾀하였음</li> <li>· 2012년 제2회 거리 갤러리 미술제가 열려 골목 벽면에 그림을 그리고</li> </ul>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골목 정비 사업이 이루어짐

**보존  
필요성**

- 동광동 인쇄골목은 부산의 인쇄 산업을 대표하는 골목으로 1970년대 인쇄 및 출판 관련 점포들이 몰려 있던 부산 인쇄의 총 본산지임
- 1970~1980년 번창기 때 부산지역 전체 인쇄 물량의 50%를 처리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인쇄골목이었음
- 1980년대 전후로 다양한 문화관련 산업 또한 몰려들어 '부산문화 르네상스'였던 '중앙동시대'가 열렸음
- 여전히 각종 인쇄관련용품의 판매와 더불어 읍셋, 마스트 인쇄와 기획, 제단, 제본까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제품이 신속하게 인쇄되고 있음
- 1980년대 말 이후 "여친소", "하류인생",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영화 촬영지의 배경이 되기도 하면서 새롭게 주목받음

**[설명문]**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4가·5가와 중앙동 3가·4가에 있는 인쇄 업체 밀집 지역으로, 1960년대 초에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의 신우정판과 동양정판, 대청동 서라벌 호텔(현 코모도 호텔) 뒤 자문정판이 효시가 되어 인쇄소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일대의 국제 시장, 중앙동 옛 부산시청 주변에 있던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전세가 싼 동광동으로 대거 이전해 오면서 출판 관련 업체들이 밀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는 인쇄 골목이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동광동 인쇄골목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의 40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측 길을 따라 중구 대청동의 코모도 호텔 뒤편까지 인쇄 골목이 형성되어 있다(300여 미터,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4·5가, 중앙동 3·4가 일원). 이곳에 인쇄, 출판, 기획, 제단, 지엽사 등 인쇄 관련 업소가 모여 있다. 2020년 12월 기준, 중구청에 등록된 업소로는 인쇄사가 75개, 출판사 119개 등이 있으며, 기타 인쇄 관련 업소들도 있다.

동광동 인쇄골목은 부산지역 전체 경인쇄(간편한 인쇄 방식의 총칭) 물량의 50%를 처리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인쇄 골목이지만 컴퓨터와 프린터의 대중화로 인해 전문 인쇄 외의 인쇄 물량이 감소한 상태이다. 달력 제작이 주요 업무인 영세 인쇄소는 경기 침체로 인해 달력 제작 부수가 줄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는 '골목길 콘서트', '거리 갤러리 미술제 공모전' 등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적 공간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2012년 10월 10일에 제2회 거리 갤러리 미술제가 열려 22팀이 참석, 골목 벽면에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골목정비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거리 갤러리 미술제는 2018년(제6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 2) 관련 내용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부산인쇄조합사」(2006)에 의하면 ‘부산에서 인쇄소가 모여서 인쇄 거리를 이루어 집단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라 기록한다. 신창동과 대청동에 인쇄소가 모이면서 식자·도안·제판·제본·재단 등이 집단화되더니 1970년경에는 동광동쪽에도 인쇄거리가 이루어졌다. 80년대에는 범내골 옛 해화여고 주변에도 인쇄촌이 생기면서 서면 북개천 주변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중반에는 보수동에도 인쇄소가 모이기 시작하여 지금은 상당한 수효의 집단촌이 이루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대청동·보수동 인쇄거리에서 계림인쇄소를 경영하던 이철(75세), 김선옥(70세)부부는 대청동 서라벌호텔 정문 자리에 하나 있었던 인쇄재료상 ‘문화당’이 1977년 경 이 거리 동광길로 옮겨 오면서부터 인쇄재료상을 중심으로 하나 둘 인쇄소가 모여들기 시작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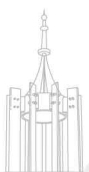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동광동에 인쇄거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우연만은 아닌 듯하다. 동광동은 왜관의 동관(東館), 일제의 압박에서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광복동(光復洞)을 의미하는 지명에서 보듯 일본과 깊은 연관관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sup>1</sup>

광복 후 부산에는 중구 부평동을 중심으로 한 신창동 일대와 옛 중앙동 부산역 앞 그리고 초량동 등지 등 몇 안되는 인쇄소들이 산재해 있었으나 1950년 6·25로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와 부산 임시수도시대가 오자 서울의 유수 인쇄시설들이 부산으로 피난 오는 등 부산에 인쇄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피난 온 인쇄인들은 임시수도의 정부청사가 있는 경상남도청을 중심으로 부민동, 부평동, 신창동, 대청동 등지에 자리를 잡고 정부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전 후 중앙정부가 서울로 환도하자 피난 인쇄소도 거의가 서울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라도 하듯 부산의 인쇄소들의 수효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 중·동구 뿐만 아니라 범일동과 서면, 동래 등지로 인쇄소가 부산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사실은 1962년 결성된 부산 인쇄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업체들의 분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부산에서 인쇄소가 모여들어 집단적으로 인쇄거리를 이루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다. 인쇄소들이 신창동과 대청동에 모이면서 식자와 도안, 제판, 제본, 재단소 등이 집단화되더니 1970년 경에는 동광동 거리에도 인쇄거리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범내골 옛 해화여고 주변에도 인쇄촌이 생기면서 서면 북개천 주변으로 그 세를 넓혀나갔다. 그리고 1990년 중반에는 동광동의 집세가 인상하자 이를 피하여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한 보수동으로 인쇄소가 모이기 시작하여 지금은 상당수의 집단촌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인쇄촌의 집단화 현상으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인쇄정보도 나누고 협업하여 경쟁력을 재고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up>2</sup>

중앙·동광동 소재 40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측 이면도로를 쭉 따라 대청동의 코모도 에스테이트 뒤편까지 300여m에 걸친 곳이 인쇄골목이다. 이 골목에는 지금도 인쇄, 출판, 기획, 재단, 지업사 등 인쇄관련업을 하는 가게가 200여 개소에 달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인쇄소와 부산 문화를 이끌고 있는 유명 출판사가 입주해 있으며, 그에 따른 부속 관련 업종들이 몰려있다. 이곳에서는 매일 디자인기획과 인쇄, 코팅, 실사출력, 제본, 스크린 인쇄, 지업 업무 등이 벌어진다. 때문에 각종 인쇄관련용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한곳에서 옵셋, 시링, 마스트 인쇄와 기획, 제본까지 다





양하고 수준 높은 제품을 신속하게 인쇄할 수 있으며 가격도 타 지역에 비해 20% 이상 저렴하다. 때문에 중·소상인과 직장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인쇄골목의 역사가 시작된 1960년대 초, 처음으로 문을 연 신우정판은 아직도 제일은행 뒤편에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당시 신우정판과 동양정판 그리고 대청동 코모도 에스테이트 뒤편의 자문정판이 효시가 되어 인쇄소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지난 1970년대 초부터 국제시장 대청동 입구와 옛 시청 주변에 있던 업소들이 전세가 싼 이곳으로 대거 이전해오면서 이 일대가 인쇄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sup>3</sup>

동광동 인쇄 골목에서 재료상만 30년째 하고 있는 ‘문화당 인쇄사’ 이병협(46세)씨에게 이곳 사정을 들어보았다. 최근에는 예전에 인쇄업소에서 하던 일을 개인이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할 수 있어 전문적인 인쇄 말고는 인쇄소에 맡기는 물량이 줄어든 탓도 있어 인쇄물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이씨는 "80년대 초에는 인쇄 물량이 많아 호황을 누렸지만, 요즘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인쇄업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전문화 특성화를 통해 동광동 인쇄골목이 더욱 번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sup>4</sup>

계림인쇄사는 1977년 전후에 문성당이란 이름의 상호로 바뀌어 대청동·보수동 인쇄거리에서 중앙동(현재 동아일보 자리)으로 넘어오게 된다. 김선옥의 회고에 의하면 그 무렵에 동광동 인쇄거리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계기가 된 것을 대청동 서라벌호텔 정문 자리에 있었던 인쇄재료상 문화당이 이 거리로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하였다. 당시 중앙동 문성당에서 인쇄재료를 사기 위해 대청동 문화당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치고 동광동으로 다시 찾아갔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확인을 위해 현재 인쇄거리 초입에 있는 문화당 주인 김종열(65세)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문화당은 원래 옛 서라벌호텔(현재 코모도 에스테이트 주상복합 건물 자리) 정문 자리에 있던 4층 건물이었다. 이 부지가 꼭 필요했던 서라벌호텔 측에서는 비싼 값에 문화당 건물을 사들였다. 김종열은 그 판매대금으로 같은 해 동광동 골목에 나란히 서 있는 일본식 2층 목조건물 2채를 사 들어왔다고 한다. 1977년의 일이었다. 현재 문화당 건물의 모습은 기존에 있던 2채의 집을 헐고 1988년에 재건축한 것이다. 지금도 서라벌호텔 정문 근처에 있었던 문화당의 담장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문화당이 처음 이 골목에 들어왔을 때 이미 들어와 있었던 인쇄소는 세기사 한 업체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화당이 들어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세기사는 없어졌다고. 인쇄소는 인쇄 재료를 중심으로 모여든다고 한다. 결국 동광동 인쇄거리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청동·보수동 인쇄 거리에 있던 인쇄소들이 재료상 문화당을 따라 하나 둘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1977년 이후로 볼 수 있겠다.

행정 지명이 동광길인 영선고갯길은 원래 부자동네였다. 양품점, 제과점, 구둣방, 미장원, 다방, 식당이 즐비했으며 골목은 현금으로 넘쳐났다. 골목 안에 사는 아가씨들만 해도 2천 명이 넘었다. 촘촘히 늘어선 작은 평수의 집들, 방 한 칸짜리 쪽방도 아침에 세를 놓으면 해가 지기 전에 나갔다. 아가씨들이 많으니 자연히 남자들도 들끓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돈이 돈다.

인쇄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영선고개 사람들이 말하였다고 한다. 인쇄거리가 들어서면 영선고개가 지금처럼 부자 동네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김선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뭐 그럴까. 인쇄업은 깨끗하고 식자층이 즐겨 찾는 곳이니 마을은 더 품격 있는 동네로, 더 잘 사는 동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골목 안 사람들의 우려는 사실이 되어 갔다. 전화로 주문하고



원하는 장소까지 납품,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갖춘 인쇄업은 사람들이 들끓는 직종이 아니었던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멋내는 모든 업종의 가게들이 인쇄소가 하나씩 들어설 때마다 하나씩 사라졌다. 썰물에 물 빠져 나가듯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었다. 골목 안 풍경이 달라졌다.

▼<sup>5</sup>

지나온 세월 동안 인쇄업을 하며 인쇄골목을 지켜온 이들과 새롭게 인쇄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서로 어우러져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광동 인쇄골목. 인쇄관련 업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up>6</sup>

300여m의 너른 길과 그로부터 자라난 골목들마다 자리한 크고 작은 인쇄소와 지역 출판사들, 기획, 제단, 지업사들 사이에는 문인들이 단골로 드나들었다는 술집과 찻집이 드문드문 숨어 있고,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군데군데 포진해 있다. ▼<sup>7</sup>

피란시절 부산, 경남지역에 머물렀던 문학인 100여 명은 광복동 일대의 다방을 주요 문학 공간으로 삼았다. 이들은 시를 쓰고 토론하며, 시화전,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부산이 문학의 중심지이고, 그 핵심에 중구가 있었다. 문인들에게 외국 문화의 유입과 접촉의 관문이며 새로운 문화예술세계가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중구 보수동 일대 책방골목이 형성되고, 전쟁 중에도 창간된 잡지가 있었다. 이 수요는 인근 동광동과 보수동 일대에 출판사가 인쇄소가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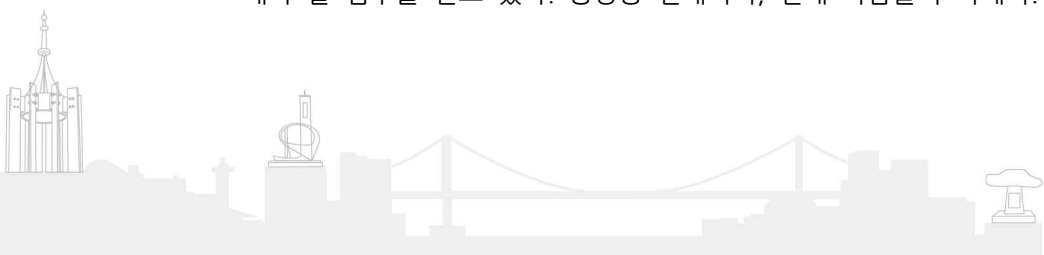
중구 일대는 시청 이전으로 공동화가 진행되며 빈 점포나 사무실이 늘어났다. 2010년부터 이러한 유휴공간들에 문화예술인들을 모아 창작공간으로 변모시킨 결과, 각종 문화예술 활동, 행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새로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쇄골목 곳곳에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뒤편의 북병산 올라가는 골목길에도 벽화가 한가득이다. 미로처럼 이어지는 골목은 6·25전쟁 때의 판자촌을 떠올리게 하고 번듯한 일본식 가옥은 일제 강점기, 이 일대에서 주인 노릇하던 이들을 생각하게 한다. 이곳 벽화 골목 전체를 ‘천지인 거리’라 한다. 천(天)거리는 북병산 마루에 있는 부산기상청으로 이어지는 고갯길이다. 지(紙)거리는 인쇄골목을 뜻한다. 그 사이에 인(人)거리가 있다. 조성한 지 몇 년이 흘러 그림은 흐려지고, 길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지만 문득 마주치는 재치 있는 그림들은 웃음을 준다. ▼<sup>9</sup>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프린터의 급속한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쇄소들은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 더구나 인쇄 주문이 많은 대학 인근에 각종 인쇄소가 생기면서 동광동 인쇄 골목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인쇄 골목에는 인쇄소 이외도 다른 업종의 점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쇄소들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기 인쇄의 완성은 오·탈자는 없는 출판물을 발간하는 것이었다. 그 시절 논문이나 학교에서 발행하는 교지를 맡기러 온 사람들은 발행 예정일에 인쇄가 완성되기를 독촉하고, 인쇄를 하는 사람은 예정된 시간 내에 오·탈자 없이 인쇄를 완료하기 위해 밤낮 없이 운전기를 돌렸다. 인쇄를 끝난 따끈따끈한 출판물을 인쇄소 안에서 읽는 것도 손님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 중 하나였다. ▼<sup>10</sup>

동광길 인쇄거리는 우리나라 근대 인쇄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되어 문화나 기술의 영역이 서로 넘나들고 있다. 인쇄술에 있어서는 기존 인쇄술의 범위를 넘어 컴퓨터 인쇄가 보편화되고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발전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인쇄물을 가진 인쇄강국 대한민국, 근대 인쇄술이 가장 먼저 상륙한 도시 부산은 인쇄업에 있어 새롭게 도약해야 할 임무를 안고 있다. 동광동 인쇄거리, 인쇄 사람들의 숙제다. ▼<sup>11</sup> 최근 동광동 인쇄골목



인근에는 ‘원도심 창작공간 또각또각’가 조성되며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sup>12</sup>

- ▼1 주경업 외 1명, 2017, 「골목, 부산사람 1 중구편」, 부산광역시 중구청, pp.256-293.
- ▼2 주경업, 2012, 「부산학, 길 위에서 만나다 2」, 부산민학회, pp.20-21.
- ▼3 2005.07.13. 오마이뉴스, 「부산 문화계의 산실, 동광동 인쇄골목을 지나다」
- ▼4 2017.02.10. 영남일보, 「[류혜숙의 여행스케치] 부산 중구 40계단과 인쇄골목」
- ▼5 주경업 외 1명, 2017, 「골목, 부산사람 1 중구편」, 부산광역시 중구청, pp.294-296.
- ▼6 나이스 중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 ▼7 2017.02.10. 영남일보, 「[류혜숙의 여행스케치] 부산 중구 40계단과 인쇄골목」
- ▼8 부산 중구청 블로그([blog.naver.com/bsjunggu](http://blog.naver.com/bsjunggu))
- ▼9 2017.02.10. 영남일보, 「[류혜숙의 여행스케치] 부산 중구 40계단과 인쇄골목」
- ▼10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재)부산연구원, pp.196.
- ▼11 주경업 외 1명, 2017, 「골목, 부산사람 1 중구편」, 부산광역시 중구청, pp.296.
- ▼12 2016.08.24. 부산일보. 「[속속들이 부산투어] - 중구피란살이 아픈 녹아 있는 도심 골목마다 역사 · 사연이 숨이 쉬네」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인쇄골목의 정경들



동광동 인쇄골목 점포



인쇄골목 입구 조형물



신우정판(현존 인쇄업체 중 가장 오래된 곳)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 사진 기록 자료



동광동 인쇄골목 벽화골목(2012년 조성)

©영남일보



동광동 인쇄골목의 오래된 점포

©하나투어



### ▷ 논문 및 저서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재)부산연구원.
- 조현주, 2012, 「Mad for Busan 부산에 취하다」, 조선앤북.
- 주경업, 2012, 「부산학, 길 위에서 만나다 2」, 부산민학회.
- 주경업 외, 2017, 「골목, 부산사람 1 중구편」, 부산광역시 중구.

### ▷ 신문기사

- 2005.07.13. 오마이뉴스, 「부산 문화계의 산실, 동광동 인쇄골목을 지나다」
- 2012.10.10. 연합뉴스, 「부산 동광동 ‘거리갤러리미술제’ 열려」
- 2016.08.24. 부산일보, 「[속속들이 부산투어 - 중구] 피란살이 아픔 녹아 있는 도심 골목마다 역사·사연이 숨 쉬네」
- 2017.02.10. 영남일보, 「[류혜숙의 여행스케치] 부산 중구 40계단과 인쇄골목」
- 2021.01.05. 부산일보, 「오래된 미래’ 원도심, 다양성 채워 ‘진행형 미래’로」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부산 중구청(<http://www.bsjunggu.go.kr/>)
- 나이스 중구(<http://www.bsjunggu.go.kr/>)
- 부산 중구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bsjunggu>)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7 부전동 공구골목



#### 1) 개관

대상	부전동 공구골목	소재지	부산진구 동천로95번길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47호
형성시기	1960년대	형태	유형 - 공구골목·특화거리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8년 육군형무소, 하야리아 기지 등 군 관련 시설과 부산진구 전포동의 차량 재생창 등의 시설에서 나온 자동차·기계 관련 부속품들과 인근 폐차장에서 나온 부속품들이 거래되면서 부속품 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음</li> <li>· 1960~70년대 당시 500여 개의 공구 상점들이 공구 골목을 이루고 있었으며 경남·울산 등 타지에서도 공구 부속품을 구하기 위해 모여들었음</li> <li>· 1988년대 사상구 괘법동에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가 들어서면서 상당수의</li> </ul>		





**보존  
필요성**

- 부품 상점들이 이전하였고, 골목 전체가 슬럼화가 되었음
- 2007년경부터 서면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청년들이 카페를 창업하면서 골목이 활성화되었음
- 일제강점기 공업단지로 편입된 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공구, 부품, 기계 업체들과 철물점이 모여 있는 곳이었음
- 많은 업체들의 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에서 부산 산업을 선도하였던 한 축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탈바꿈하여 활기를 되찾고 있음
- 공구가게를 완전히 허무는 대신 옛 모습을 유지하면서 음식점, 카페 등으로 탈바꿈하여 이색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있음
-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공구골목에서 청년들의 창업이 더해져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음

**[설명문]**

‘부전동 공구골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 형성된 공구상가 밀집지역이다. 서면공구골목, 공구상가 부속골목 혹은 서면기계부속골목 등으로 불린다. 1958년 육군형무소, 하야리아 기지 등 군 관련 시설과 부산진구 전포동의 차량 재생창, 신진(자동차)공업사 등의 시설에서 나온 자동차·기계 관련 부속품들과 인근 폐차장에서 나온 부속품들이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거래되면서 부속품 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1960~70년대 당시 태화 백화점(현 주디스 태화) 뒤쪽 현 부산진구 서전로 10번길에서 시작되어 동천로 95번길을 따라 500여 개의 공구 상점들이 공구 골목을 이루고 있었다. 경남·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구 부속품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 공구 상가에 모여 들었다고 한다. 1980년대 사상구 괘법동에 부산 산업 용품 유통 단지가 들어서면서 상당수의 부품 상점들이 그곳으로 이전하였고, 또한 IMF의 여파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에도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 공구골목은 인근 거리로 점점 분산되어 약 50여 곳이 영업 중이다. 판매하는 부속과 공구들은 베어링, 모터, 인버터, 체인, 자동 전압 조정기, 병원용 바퀴, 인덱스, 토크 렌치 등 가정용 공구를 비롯하여 공업용 공구와 부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에는 공구 상점들이 동천로 95번길에 몇 집, 북쪽 서전로를 건너 동천로 107번길과 동천로에 몇 집, 서쪽의 전포대로 255번길과 서전로 37번길 등지에 몇 집 등으로 분산되어 부산진구 서면의 중심지에서 점차 외곽으로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면 지역이 현재 부산 상권에서 최고 지가지역에 해당하는 점과, 서면이 변화가로 변화하여 유동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음식점 및 옷가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일어난 변화로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이 실시한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이 2013년 완료됨에 따라, 공구상들이 분포한 곳은 이 사업에 의해 쇼핑, 외식 등의 특화거리로 조성되었으며, 공구상들의 이전은 가속화되고 있다.



## 2) 관련 내용

서면교차로에서 밀리오레 뒤편에 이르는 부전동과 전포동 일대에 밀집해 있는 기계부속과 공구가게, 이들은 광복 직후부터 차량부속상이 모체가 되어 형성된 수백여 개의 점포로 자리 잡아 왔다. 자동차 부속과 공구, 철물이 가득가득 쌓여 있고 늘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광복 이후 부산 시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던 자동차 부품상이 하나둘씩 모여들다 1950~60년대 전포동 ‘차량재생창’과 ‘신진(자동차)공업사’가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주 고객은 자동차 정비업체나 카센터, 버스나 택시 등의 운수업체, 오너드라이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했다. 지역적으로는 부산 시내는 물론 마산·진주·울산·경주 등 경상도 지방과 제주나 호남 지역에서도 찾았다고 한다.

자동차 부품상의 경우,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부품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한 점포에서 모든 부품을 구비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소형차·대형차·특수차 등 분야별로 특정 부품을 취급하는 전문점이 많은 것도 유명세를 탄 계기가 됐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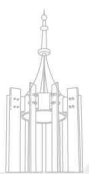
“부전동 공구골목▼<sup>2</sup>의 역사 말입니까? 내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과 같이 하지에~.”

사상 산업용품유통단지에서 대일기공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양우(2016년 기준, 65세) 씨의 말이다. 밀양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1970년에 서면 동보극장(현 중앙대로 704 동보프라자) 뒤편에 위치한 동아기공사에 취업하여 한 달 봉급으로 3천원을 받고 2년 동안 미친 듯이 일만 하였다. 그 당시는 기술만 배울 수 있다고 하면 밥만 먹여주어도 일하던 시절이었다. 이양우 씨는 용접봉 등 60~80kg의 공구를 자전거 바퀴에 의지하여 현 광안대교 용호동 입구 쪽에 있던 부산주공 뿐만 아니라 사직동, 동래, 영도, 사상 지역까지 배달하는 일로 점원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창원공단의 삼미특수강 등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가 일하던 동아기공사는 계속되는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1981년도 부도가 나게 되고, 이양우 씨는 이듬해 대일기공사를 부전동 공구골목에 개업하였다.

요즘의 부전동 공구골목은 젊은이들에게는 주점골목으로 더 유명한 곳이다. 1960~80년대 이곳은 하야리아 부대나 전포동 차량 재생창 등에서 나온 최신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인기 장소였다. 대한민국의 어떤 철물공구라도 구입할 수 있다 할 수 있을만큼 만물상들이 많았다. 특히 국산품이 대부분이었지만 미군부대 ‘차량재생창’ 등 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군수물자들도 상당히 있었다. 유압공구나 특수 베어링 등은 상당히 성능이 우수하여 잘만 거래하면 몇 배씩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공구골목 업체들은 너도나도 성능 좋은 미제공구물품들을 조금씩이라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김새를 눈치 챈 군특별조치반은 군수물자의 유입을 막고 미군물자의 유통경로를 캐기 위하여 한 달에 한번 꼴로 불시에 이곳을 단속하였다. 단속이 시작되면 공구골목 업체들은 우르르 셔터를 닫고 도망 다니기도 했고, 때로는 장물혐의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공구골목의 업체들은 대부분 도소매 사업체였으나 동력전달장치인 벨트 풀리 등을 직접 제작 가공하여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았다. 서면뿌리기아상사를 경영하는 김시혁 사장(2016년 기준, 62세)은 부산 토박이로 1977년 군대 제대 후 무작정 기술을 배우고자 부전동 공구골목으로 뛰어 들었다. 품삯이 넉넉하지도 못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경쟁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이곳에서 일하면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당시 점원이었던 김시혁은 체인 기어, V뿌리, 베텔기어를 제작하는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갔고, 이후 그가 일하던 서면상회가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게 되자 그동안 배운 기술을 밀천삼아 자신의 ‘서면뿌리기아상사’를 개업한다.

전국 각지의 철물공구가 모이던 부전동 공구골목은 1지구에서 4지구로 나뉘어 있었고 사업체 수가 약 150개가 넘었다. 이 상인들을 대표하는 서면철물상가연합회가 결성되어 상가의 야간경비와 소방 및 가게 주변환경, 문화의 개선에 대해 구청과 소방서, 경찰서에 대신 요구하였다.

활동이 왕성했던 공구골목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에 빠뜨린 IMF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다. 전체 상가의 30% 정도가 부도가 나거나 휴업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많은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땅값과 임대료가 비싸고 주차가 불편한 서면을 버리고, 점포 임대료가 싸고 사업하기 편리한 새로운 사업장소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부전동 공구골목의 터주대감격이었던 신창배아링 박화실 회장과 동명배아링, 대우기공사, 남광사, 을지전기, 전포상사, 한진배아링, 성진릿뿔, 국제발통, 산양배아링, 배영상사, 창원상사, 통운기공사 등이 주도하여 1985년 교통난 해소, 도시발전계획 기여 및 전문유통단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1990년 6월 ‘서면철물상가연합회 상가이전추진위원회’가 발족하게 된다. 1991년에는 1,000구좌 350억원(1구좌당 3,500만원)의 자금이 조성됨과 동시에 ‘부산사상철물판매업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부산시의 설립인가를 받는다. 1991년 12월에는 국제상사로부터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대지 68,936㎡를 구입하여, 1995년 신축기공식을 거행, 1998년 ‘사상산업용품 유통상가’를 준공하였다. ▼<sup>3</sup>

“전국에서 다 왔지요.” 부산경제진흥원 최현 센터장은 철물상가 근방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까닭에 육십 년대 후반 이곳 풍경을 기억한다. 상가가 노는 공휴일에 놀이터 삼아 놀던 이곳을 기억하고 없는 철물이 없어 수요자가 전국에서 몰려들어 ‘억수로’ 번성하던 시절을 기억한다.

최현 센터장 말대로 서면 철물상가는 전국에서 이름 날리던 상가, 지금은 서면에 가려, 서면의 빌딩에 가려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긴 해도 명성을 간직하고 영화를 간직한 상가다. 명성 덕분에 영화 덕분에 대 이어 철물을 파는 가게가 한 집 건너 한 집이다. ▼<sup>4</sup>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변 모습이 날로 썰렁해져 갔다. 고장률이 거의 없는 자동차의 출시로 고객이 날로 감소하는 데다 몇 평 되지 않은 비좁은 점포 면적, 차량 진입마저 불편한 도로 여건, 그리고 비싼 점포 임대료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사상구 괘법동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등지로 이전이 가속화됐다. 특히 부전동 일대 구간은 ‘서면특화거리’로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sup>5</sup>

부전동 공구골목은 사상 산업용품 유통단지가 생긴 이후 대부분의 공구상들이 이전하면서 그 수가 급감하고 있다. 대동상사, 명진공구상사, 태성기계 등의 점포들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으나, 공구상 바로 옆에 옷집, 음식점, 주점, 카페, 구두점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골목 한중간 덩그러니 자리한 노란색 공구 모양의 조형물과 바닥에 새겨진 공구 표식만이 이곳이 예전에 공구골목이었음을 말해 준다. 한때 부산과 창원, 김해, 울산 등지 제조업체의 철물공구 공급을 책임지던 ‘부전동 공구골목’의 명성은 사상산업용품유통단지에 빼앗기고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옛 동보극장 뒤편의 ‘부전동 공구골목’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아픔과 고통, 정열 등 한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사라지고 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부산진구는 2017년, 서면 근대산업유산 추억길을 조성하고, 도보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전동 공구골목은 제2코스, ‘서면 추억길’에 포함되어 그 역사와 기억을 다시금 이어가고 있다. ▼<sup>6</sup>



또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음식점, 주점, 카페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부전동 공구골목을 기점으로, 전포동에 위치한 공구골목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기도 하다. 이곳 또한 철물점과 공구상가 등이 즐비했던 거리지만, 공구 판매가 급감하면서 상가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점차 인적이 드물어졌다. 황폐해 가던 이곳에 어느 날부터인가 커피와 디저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카페를 열기 시작했다. 기존 상가의 고풍스러운 느낌을 살려 독특한 내부 장식을 하고, 이색적인 메뉴를 갖췄다. 이곳 카페들은 크지 않다. 테이블 서너 개 정도가 전부이지만, 안락하고 소담하다. 차별화된 분위기, 생소한 메뉴, 오래된 장난감처럼 개성있고 재미있는 모습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난 2017년에는 CNN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에 선정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전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정도로 손꼽히는 관광지가 된 현재, 서면의 공구골목들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sup>7</sup>

-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pp.16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년 10월.
-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pp.150-1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년 4월.  
해당 단행본에서 ‘서면철물공구상가’로 기재된 것을 모두 ‘부전동 공구골목’으로 수정, 통일함
-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pp.150-1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년 4월.
-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00가지 서면이야기」, pp.1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16년 6월.
-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pp.16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년 10월.
-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pp.150-1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년 4월.
- ▼7 2020.03.04. 다이내믹부산, 「서면, 그곳에 부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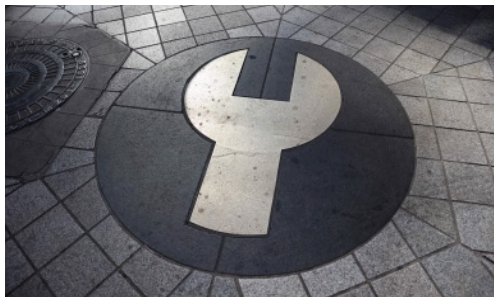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부전동 공구상가의 정경



공구 이미지의 바닥포장



기념 조형물



부전동 공구상가의 정경



부전동 공구상가의 가로 풍경





▷ 사진 기록 자료



서면에가면 도보투어지도

©부산진구



서면에가면 도보투어 제2코스 서면추억길

©부산진구



옛 부전동 공구골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전동 공구골목





### ▷ 논문 및 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0, 「내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 「100가지 서면이야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 ▷ 신문기사

- 2005.03.17. 국제신문, 「서면 공구상가의 변신」
- 2015.01.26. 부산일보, 「[도심을 바꾸자 '빅 하트 프로젝트'] 3. 근대도심 서면, 문화와 창업의 천국- 가능성」
- 2020.03.04. 다이내믹부산, 「서면, 그곳에 부산이 있었다..」
- 2021.06.17. 다이내믹부산, 「바쁜 일상 중 심포 하나, 도심 카페거리 풍경」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busanjin.go.kr/>)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 [서면공구상가, 그곳] 부산 서면 공구상가 다큐멘터리 (<https://www.youtube.com/watch>)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8 BIFF광장



#### 1) 개관

대상	BIFF광장	소재지	중구 비프광장로 36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48호
건립시기	1998년	형태	유형 - 거리 → 광장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3년 영화 상설관 행좌(幸座)와 송정좌(松井座) 등장</li> <li>· 1907년 부산좌(釜山座) 등장</li> <li>· 1920년대 행관, 보래관, 상생관 등이 남포동 일대에 위치</li> <li>· 1960년대 남포극장, 부산극장, 부영극장 등 여러 영화관이 밀집</li> <li>· 1996년 제1회 부산 국제 영화제 개최</li> <li>·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일대를 PIFF광장으로 불림</li> <li>· 1998년 PIFF광장 본격적으로 조성(중구청)</li> </ul>		



**보존필요성**

- 2010년 Pusan→Busan의 영향으로 BIFF광장으로 명칭 변경
- 일제강점기부터 극장들이 들어서면서 해방 이후 부산지역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음
- 해방과 전쟁 그리고 근대화로 극장들이 사라지고 기억들이 흐릿해져가지만 남아 있는 흔적과 광장의 조성을 통해 부산이 영화의 도시였음을 알려주고 있음
- 한국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된 공간으로, 국내 영화 발상지로서의 의미가 있음
- 부산의 영화 발상지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도시 공간의 새로운 문화적 의미 공간으로 변화함
- BIFF광장은 과거에 많은 영화관과 인근에 조선키네마주식회사가 있었던 장소로 부산영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면서 이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면서 공간에 대한 의미가 더욱 높아지게 됨
- BIFF광장은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축제의 공간으로, 일상적인 생활세계에서는 노동의 공간이면서 소비의 공간으로 공간과 공간들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의의가 있음

**[설명문]**

‘BIFF광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가에 있는 부산 국제 영화제 출범과 함께 생성된 영화 거리이다.

중구 남포동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영화의 거리였다. 1914년에 영화 상설관 ‘육관(旭館)’이 상설관 경영을 개시한 이후에 보래관(寶來館), 초량좌(草梁座), 행좌(幸座), 부산극장 등이 들어섰다. 특히 이곳은 1924년에 한국 최초의 영화 제작사였던 조선키네마주식회사가 설립되는 등 한국 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8·15 광복 이후에도 이곳에는 극장들이 자리를 잡아 1960년대에는 20여 개소의 극장이 밀집되었다. 1996년부터 부산 국제영화제[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개최되면서 극장가를 새롭게 단장하고 그 일대를 자연스럽게 PIFF 광장[1996년 8월 14일]으로 부르게 되었다.

1998년 9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PIFF광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하였다. 2010년에 부산의 영어 표기가 ‘Pusan’에서 ‘Busan’으로 바뀜에 따라 PIFF광장의 명칭도 BIFF광장으로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조형물 등이 많지 않았으나 중구청이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BIFF광장을 재포장하는 등 재정비하여 상징 조형물, 핸드 프린팅, 원형 스타 문양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2006년에 영화제 기간 중 야외무대가 해운대로 이전하였고, 2011년부터는 해운대 센텀 시티에 전용 극장인 ‘두레라움’이 건립됨으로써 중구 남포동에서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다. 중구 남포동에서는 BIFF 전야제 행사만 개최하고 있다.

BIFF광장은 중구 남포동에 소재하는 부산 극장과 대영 시네마가 있는 중심가에 위치한다. 구간은 구 충무동 육교에서 원형 광장을 지나 대영 시네마 쪽까지 428m에 이르고 있다. 보통 이 구간을 ‘비프 광장로’라고 부르는데, 특히 대영 시네마 앞쪽 도로를 ‘BIFF 거리’라



고도 한다. BIFF 광장과 영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거리에 느티나무, 물결 모양의 가로 등, BIFF 상징탑, 원형 스타 문양의 보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세계 유명 영화인의 손도장인 ‘핸드 프린팅’이 있는데, 메가박스 부산극장과 대영 시네마 앞 도로에 위치해 있다. 1998년부터 핸드 프린팅이 시작되었는데 이 해에는 씨에진[중국 감독], 제레미 아이언스[영국 배우], 웨인왕[미국 감독], 기타노 다케시[일본 감독 겸 배우],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이란 감독], 김기영[한국 감독] 등 6명이 등록하였다.

그 이후에도 2001년에 빔 벤더스[독일 감독], 2002년에 허우 샤오시엔[대만 감독], 2008년에 다리우스 메흐르지[이란 감독], 피터 그리너웨이[영국 감독], 2011년에 윌렘 데포[미국 남배우], 줄리엣 비노쉬[프랑스 여배우] 등 총 74명의 핸드 프린팅이 등록되었다[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김기영[감독], 유영길[촬영 감독], 유현목[감독], 황정순[배우], 신상옥[감독], 최은희[배우], 김수용[감독], 정창화[감독], 이만희[감독], 김승호[배우], 김지미[배우] 등이 있다. 2010년 이전에 BIFF 광장에는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 공연이나 영화제 관객들을 위한 거리 상점들의 할인 서비스, 영화제 게스트 및 관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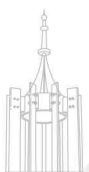
부산 국제 영화제의 대부분의 행사가 부산 해운대로 옮겨져 BIFF광장은 근래 그 명성이 예전 같지 않다. BIFF광장 주변에는 BIFF란 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고 가판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모습과 할리우드 영화 테마로 장식한 상가 간판들이 이곳이 영화제의 거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BIFF광장 주변에는 각종 쇼핑몰과 먹거리들이 있으며, BIFF광장 앞 큰 도로를 건너면 자갈치시장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여흥과 오락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BIFF광장에서 TV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의 배경이 되고 있다.

## 2) 관련 내용

매년 10월이면 세계 곳곳의 영화마니아들이 부산에 모여든다.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영화의 바다'가 된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2015년)로 20주년을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했다. 1996년, 한국 최초로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렸을 때 지금의 모습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부산은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성장했고, 2014년 12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분리되어 올해(2021년)로 16회째를 맞이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의 열기도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sup>1</sup>

1996년 9월 13일,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출범하였다. 총 9일간 진행된 영화제 기간 개막작으로 선정된 마이크 리 감독의 <비밀과 거짓말>을 비롯해 총 169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영화제 기간 남포동을 비롯한 극장가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감독과 배우를 향한 열렬한 환호와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새벽부터 장사진을 친 관객들의 모습은 이제껏 한국영화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 스스로 ‘문화 불모지’라고 자평할 정도로 문화적 자산이 부족했던 부산은 1996년을 계기로 단숨에 ‘영화의 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게 되었다. ▼<sup>2</sup>

부산은 1958년 한국 최초로 영화평론가협회가 만들어졌고, 1970년에는 한국 최초의 영화평론



서인 <영화와 비평>이 발간되기도 한,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 1996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남포동 극장이 일대에 BIFF광장이 조성되었고, 영화제는 아시아의 영화를 발굴·소개하며 아시아 영화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부산지역 영상산업 유치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부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영화제를 문화상품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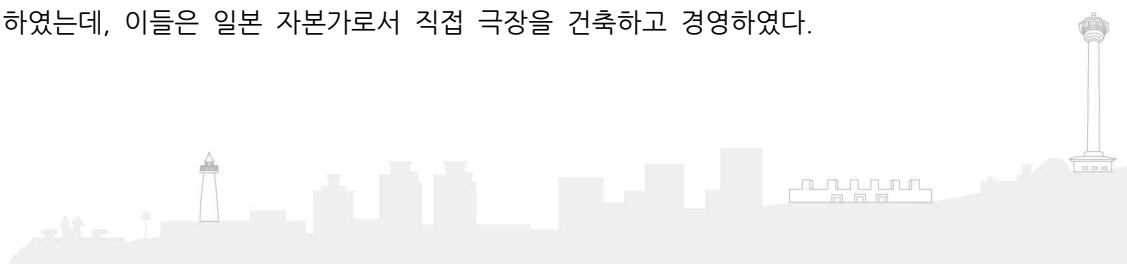
부산국제영화제 초기에는 남포동 극장이 일대에 형성된 BIFF광장을 중심으로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러나 해운대 메가박스과 CGV센텀시티가 세워지면서 상영장소가 옮겨졌고 2011년부터 영화의전당이 건립되자 그곳을 중심으로 영화제 문화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영화제 전야상영회는 BIFF광장에서 진행되며 '부산국제영화제의 고향'으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BIFF광장을 걷다 보면 바닥에 영화배우, 최초의 극장 행사, 영화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그러나 바닥을 보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걸으면 BIFF광장이라는 것 이외에 근대 극장·공연장 등과 관련된 어떠한 역사적 흔적도 느낄 수 없다. BIFF광장 일대는 1895년 전후부터 극장과 연예장, 공연장, 활동사진 영화 등이 들어섰던 곳이다. 부산 중구의 극장가는 이러한 초기 극장가의 모습이 중첩된 공간이다. ▼<sup>3</sup>

부산 BIFF광장 일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무대였던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일원으로, 자갈치역 북동쪽의 옛날 아카데미극장, 국도극장, 제일극장, 부영극장 등 부산의 주요극장이 위치했던 골목을 말한다. 1930~1940년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극장이 한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20여 개의 소극장이 밀집하면서 서울의 충무로와 같은 상징성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부산 BIFF광장은 이런 상징성으로 인해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무대로 선정되었다(정은혜, 2011). 옛날 소극장 주변, 현재 BIFF광장 일대에는 음식 노점상과 공산품을 판매하는 노점상, 사주나 타로 같은 운세를 봐주는 노점상 등 약 100여개의 노점상이 골목을 따라 밀집해 있다. ▼<sup>4</sup>

'행좌(幸座)'는 1903년 일본인 자본가 하자마 사타로(迫間房太郎)가 부산부 남빈정(현 중구 남포동 BIFF광장 인근 할매회국수 건물부지)에 세웠다고 전하는 부산 최초의 극장이다. 자세한 건물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일본에서 가부키와 같은 극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극장 같은 공간으로 추측되고 있다.

개관 이후 행좌는 1915년 '행관(幸館)'으로 신축되어 상설 영화관으로 운영되다 1930년 소실되었다. 부산영화상영관의 효시로 알려진 행관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아직 고증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일설에는 1902년 국내 최초의 극장으로 설립된 서울의 협률사(協律社)보다 앞선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영화 자료연구원의 홍영철 원장은 부산 영화사가 18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최근 발굴한 '대한제국 부산이사청 법 규류집'(1909년)의 극장취체규정(극장업과 흥행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제도화시켜 놓은 규정)이 1895년 7월 24일 제정된 점에 비춰 그 당시 행좌 또는 다른 극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산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극장이 세워진 곳이라고 한다.

행좌의 실체를 확인시켜준 자료는 '부산항 시가 및 부근 지도(1903년 12월)'로 지도 발행 이전에 이미 행좌가 극장으로 경영되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행좌가 경영되었던 시기에 문을 연 극장들은 송정좌를 비롯하여 모두 9개소에 달했다. 이 극장들은 주로 일제강점기동안 일본 거류민들의 주거 및 상업중심지였던 중구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당시에 건축된 22개 극장은 모두 일본인이 독식하였는데, 이들은 일본 자본가로서 직접 극장을 건축하고 경영하였다.





행좌와 더불어 1924년 부산지역 일본인들이 부산 중구 구청로 자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제작사인 '조선키네마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조선키네마는 초창기 한국 영화의 산실로서 춘사 나운규 등 많은 초기 영화인을 배출하였다. 현재 동광동 아랫길부터 영주동까지 나운규가 이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인들과 교류한 기록이 여러 곳에 있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의 도시로서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바탕으로, 현대 아시아 영화영상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정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부산의 위상과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 한국영화의 중심지로서 국내 최초의 영화제작사가 부산에 있었고, 일제강점기부터 행좌와 같은 많은 영화관들이 설립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 그 위에 부산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지금의 부산의 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sup>5</sup>

우리나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와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새롭게 단장하여 국제적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남포동 구)부영극장에서 충무동 육교까지 428m에 이르는 도로를 '스타의 거리'와 '영화제의 거리'로 나누어 조성하고 있다. BIFF 광장은 부산시민의 마음속에 문화적 공간으로 상징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BIFF광장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광장으로써 도시 내에서 지역민들에게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공연 및 각종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각종 임시 무대장치를 통해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광장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가로시설물 등에도 이러한 광장의 특징을 반영하여 디자인되어 있다. 광장의 형성보다 가로의 광장이 앞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심적 공간의 활용보다는 부분적인 공간의 활용이 있는 점으로 고려하여 BIFF광장은 행위 유형에 따른 도시광장의 분류 중 놀이마당으로 분류한다.

BIFF광장의 위요성은 영화의 거리라는 특성을 반영한 바닥패턴의 활용 통해 광복로에서부터 이어지는 가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또한 광장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가로에도 다양한 형태로 가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가로상점에는 통일된 패턴의 파라솔과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각적인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광장 입구 부분과 중앙 곳곳에 아치형 구조물을 통해 연속된 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한다.

BIFF광장의 교류성은 광장의 형성이 가로의 형성보다 늦어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해 국제 영화제를 비롯한 거리음악회 등과 같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무대를 설치하는 등과 같은 임시방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규모의 공간의 배치를 통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BIFF광장의 지속성의 측면에서는 지역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소비생활문화가 관광화 됨으로써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위주의 문화패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와의 결합을 통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sup>6</sup>

BIFF광장의 '공공성'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 및 설계에서 주로 다루는 대표적인 대상물 중 하나가 공공 공간이다. 특히 BIFF 영화제라는 도시 축제에 의해 거리의 이름이 붙여지고 영화라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된 곳으로서 주로 젊은 계층에 의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영화제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BIFF광장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응집된 곳으로 많은 다양한 계층



에 의해 인식되고 이용되고 있어 생기와 활기가 넘쳐 흐르는 곳이다. 지난 날 젊은 시절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BIFF광장은 추억의 장소이며, 젊은 계층에게는 활력이 넘쳐 흐르는 자유로운 곳이다.

BIFF광장의 ‘역사성’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IFF광장이라는 장소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 아니다. BIFF광장은 긴 시간의 축 상에 놓여 있어 현재의 BIFF광장이 있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의 누적을 필요로 하였다. 현재 BIFF광장 일대에는 근대역사박물관,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강동시장, 40계단, 영도다리, 보수동 책방골목 등과 같이 과거를 상기시킬 수 있는 다수의 흔적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BIFF광장의 ‘유용성’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IFF광장은 현재 BIFF 영화제 및 극장가들이 있어 지역주민 외에도 거리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영화의 거리로 인식되고 있어, 장소의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유용하며 이벤트 장소로서의 마케팅 설계에 대한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sup>7</sup>

- ▼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pp.83-85.
  - ▼2 김이석, 2017, 「부산, 영화로 이야기하다」, 비온후, pp.28.
  - ▼3 부산광역시, 2020,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pp.186.
  - ▼4 양윤서 외 1명, 2020, “도시 비공식성과 노점상의 공간정치: 부산 BIFF 광장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 23권 1호, pp.75-76.
  - ▼5 부산광역시, 2013, 「부산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pp.95-98.
  - ▼6 손기성, 2013, “지역 커뮤니티 활성을 위한 도시광장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부산시내 광장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0-82.
  - ▼7 김하나, 2010, “부산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 연구:피프(PIFF)거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7-58.
- \* 해당 논문에서 ‘PIFF거리’로 기재된 것을 모두 ‘BIFF광장’으로 수정, 통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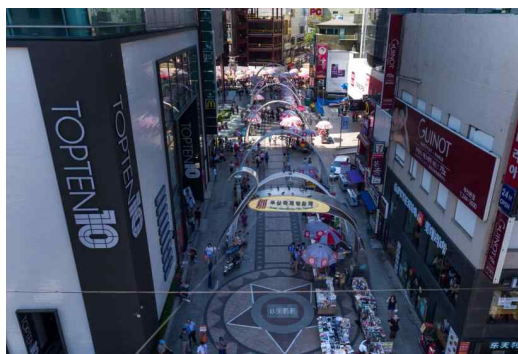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비프광장의 정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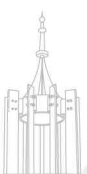
현재의 BIFF광장

©근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BIFF광장 문화거리 행좌 현판

©근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 사진 기록 자료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알린 동아일보  
1996년 9월 14일자 3면

©동아일보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부산국제영화제



1966년 중구 남포동 현 BIFF광장에서 충무동  
방향 거리 극장 모습

©한국저작권위원회



6.25전쟁 당시 영화관 및 다방지도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신문



BIFF광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연합뉴스



### ▷ 논문 및 저서

- 김이석, 2017, 「부산, 영화로 이야기하다」, 비온후.
- 김하나, 2010, “부산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 연구:피프(PIFF)거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기성, 2013, “지역 커뮤니티 활성을 위한 도시광장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부산시내 광장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윤서 외 1명, 2020, “도시 비공식성과 노점상의 공간정치:부산 BIFF 광장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 23권 1호.
- 부산광역시, 2013, 「부산 기네스 125選」, 부산광역시.
- 부산발전연구원, 2015, 「부산을 알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광역시, 2020, 「원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 ▷ 신문기사

- 2015.10.14. 시사저널, 「해운대-남포동은 공존 양립의 공간」
- 2017.09.13. 동아일보, 「[백 투 더 동아/9월 13일]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서막을 열다」
- 2018.04.11. 뉴스프리존, 「조경환의 지역 문화 관광 콘텐츠 탐방(14)\_ 부산국제영화제, 위 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 2021.10.03. 부산일보, 「‘BIFF 고향’ 부산 남포동, 전야상영회 2년 만에 열린다」

### ▷ 기타 자료

- 부산 중구 문화관광(<http://www.bsjunggu.go.kr/tour>)
- 부산국제영화제 ([biff.kr](http://biff.kr))
-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 근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 (<http://archive.much.go.kr/>)



## 1. 유산별 심화연구

### 1.29 요산문학관



#### 1) 개관

대상	요산문학관	소재지	금정구 팔송로 60-6
선정연도	2020년	인증번호	부산미래유산 제49호
건립시기	2006년	건립용도	유형 - 전시시설 무형 - 요산 김정한
이력사항	<p>&lt;요산문학관 연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사)요산기념사업회에서 요산 문학관 건립 사업 추진</li> <li>· 2006년 요산 문학관 개관</li> <li>· 2007년 사립공공도서관 등록</li> <li>· 2019년 등록 문학관 등록(부산시 등록문학관 2호)</li> <li>· 2019년 제22회 요산문학축전 개최(요산백일장, 요산문학기행 등)</li> <li>· 2019년 제36회 요산김정한문학상 시상식 개최</li> </ul>		





#### 〈요산 생가터 연혁〉

- 1997년 요산기념사업회에서 생가터 매입
- 2002년 부산의 작가들과 뜻 있는 인사들의 성원과 부산광역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퇴락한 집을 헐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공사 시작
- 2003년 생가 완공
- 금정산을 뒤로 하고 오륜대를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팔작지붕에 일자형의 전통 한옥

#### 〈요산 김정한 약력〉

- 1928년 동래고등보통학교 졸업
- 1930년 와세다대학 부속 제일고등학원 문학부 입학
- 1931년 「동지사」의 발기인으로 참가, 편집부 임원
- 1933~1940년 남해공립보통학교와 남명심상소학교 교사 재직
- 1940년 〈동아일보〉 동래지국 운영
- 1940~1945년 경남도청 상공과 면포조합 서기
-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 부산지부장
- 1947~1950년 부산중학교 교사
- 1950~1974년 부산대학교 교수
- 1974년 자유실천문학인협의회 고문, 1976년 국제엠네스티한국 고문, 1985년 5·7문학협의회 고문 등
- 1987년 민족문학작가회의 초대 회장과 〈한겨레신문〉 이사, 1994년 민족문학작가회의 명예 회장을 역임
- 1996년 향년 89세로 타계

#### 보존필요성

- 요산 김정한(1908~1996)은 현대 시대의 질곡과 민중의 고통을 소설로 형성화한 민족문학 작가임
- 생가 옆에 문학관을 건립하여 요산 김정한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와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의 문학정신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함
- 작가의 생가 터에 문학관을 건립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 생가와 문학관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소성의 의미가 높음
- 문학관 운영을 통해 김정한의 문학정신과 민족정신을 발전·육성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 정신 함양에 기여함
- 청룡초등학교부터 요산 김정한 생가, 요산문학관 구간에 '요산 문학로'가 조성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과 문화탐방객들에게 요산 김정한의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요산문학관은 부산 3대 문학관 중에 하나이며,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를 기념하는 문학관이고, 요산 김정한의 생가는 부산의 작가 중에 유일하게 생가가 복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설명문]

‘요산문학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요산 김정한(金廷漢)을 기념하는 공간이다.

김정한은 현대 시대의 질곡과 민중의 고통을 소설로 형상화한 부산 출신의 민족 문학인이다. 1908년 경상남도 동래군 북면 남산리(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에서 태어났으며, 동래고 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 재학 중 동맹 휴학에 참가하면서 문학에 눈뜨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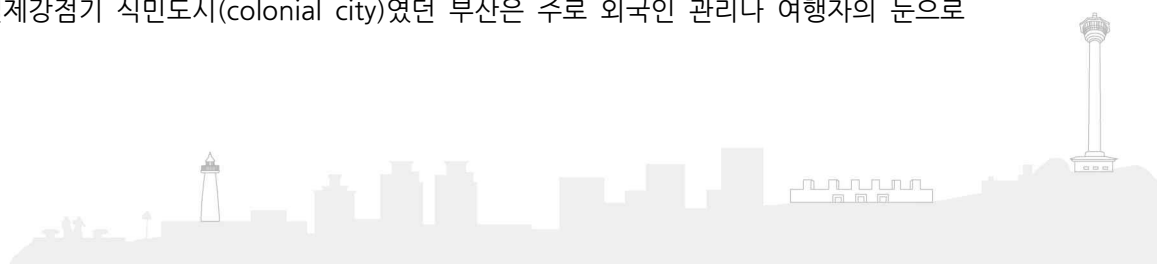
1928년 이후 김정한은 목원(牧園), 목원생(牧原生), 김추색(金秋色) 등의 필명으로 「조선 일보」, 「대조」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시와 시조를 발표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1932년 「문학 건설」에 첫 작품으로 「그물(罟)」을 발표하면서 소설로 전환한 뒤 1936년 「조선 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사하촌」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문단에 나섰다. 요산 문학은 작가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 체험의 서사화, 곧 경험적 글쓰기가 핵심이다. 작가 스스로 절필기로 규정한 일제 강점기 말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도 첫 소설집 「낙일홍」[1956]을 펴낼 만큼 문학적 열정이 컸을 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도 멈추지 않았다. 특히 4·19 혁명 시기에는 ‘이오산’이라는 필명으로 다수의 산문을 발표하여 국가 권력에 맞선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안착한 1965년 이후 창작 활동은 서사의 폭과 깊이를 더하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모래톱 이야기」, 「지옥변」, 「인간 단지」 등에서는 소외된 민중의 삶을 전경화하여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경계하였다. 그리고 민중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 낸 과정을 그린 장편 소설 「삼별초」를 내놓기도 하였다. 이 시기 ‘오래도록 지조를 지키며 살아라’는 아호의 뜻처럼 분단 극복과 민주 회복을 위한 사회 실천에도 앞장섰다.

이처럼 요산 문학은 근대사의 질곡 속에서 국가 권력의 폭력에 신음하는 민중의 삶과 부당한 현실에 눈길을 두었던 만큼 민중에 대한 연민과 연대 의식이 잘 구현되어 있는 셈이다. 요산은 민족사의 질곡과 소외된 주변부 인간의 현실에 맞서 싸웠던 지식인이자 평생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었다.

요산문학관은 요산의 문학 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육성시키며,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요산기념사업회에서 요산 문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20일 요산 문학관이 건립되었다. 66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학관에서는 주로 도서 자료와 요산에 관계되는 문건, 유품 등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요산의 유품 120여 점과 3,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단행본, 연속 간행물, 학위 논문, 학술 행사 자료와 요산의 작품, 요산에 대한 연구 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요산 문학에 관한 자료 수집·보존·진열·열람 및 제공뿐 아니라 소장품의 보관과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모사와 복원 작업을 하고 있으며, 문학 관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2) 관련 내용

근대문학에서 한국인이 부산을 묘사한 것은 소설가 이인직의 〈혈의 누〉(1906년)가 처음이다. 이전까지 일제강점기 식민도시(colonial city)였던 부산은 주로 외국인 관리나 여행자의 눈으로



묘사되어왔다. 이후 염상섭이 기행문 구조의 소설 〈만세전〉(1924년)을 통해 '조선의 상징이자 축소판'으로서의 부산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있고, 중일전쟁 시기였던 1938년에는 소설가 임화가 〈상륙〉을 통해 제국의 병참기지로 전략하는 부산과 영도의 비극적 풍경을 그리기도 했다. 부산 문학의 특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 청마 유치환, 요산 김정한, 향파 이주홍 같은 문학인들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이들은 각각 시, 소설, 아동문학의 영역에서 부산 문학을 이끈 주역들이다. 유치환과 김정한은 함께 동래고등보통학교(현재의 동래고등학교)를 나와 각각 서울과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이후 부산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요산 김정한 선생은 1940년에, 합천 태생인 이주홍은 광복 이후 1947년 부산으로 왔는데 특히 요산 김정한의 리얼리즘 정신과 작품세계는 이후 부산 문학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부산의 문인들은 그의 문학적 태도와 정신을 기리며 매년 요산문학제를 열고 있으며,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요산문학관(樂山文學館)'에 가면 그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sup>1</sup>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엔 동네 부근에 있는 범어사 경내의 사립명정학교를 다니며 만세를 불렀을 때가 12살이었다. 16세 때 서울 중앙고보에 입학했다가 17세에 부산 동래고보로 전학, 20세에 결혼한다.

21세인 1928년부터 교사생활을 하며 시와 시조를 투고한다. 일본에서 유학생생활하며 조선인 유학생회에서 발간하던 잡지 《학지광》 편집에 참가한다. 《조선시단》, 《신계단》 등에도 시와 단편소설을 발표한다. 29세인 1936년에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사하촌〉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다. 필명으로 응모했는데 신문에는 본명으로 발표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다. 소설 내용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반발하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한다. 김정한 작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중편 〈옥심이〉를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단편 〈항진기〉, 〈기로〉, 〈그러한 남편〉, 〈낙일홍〉, 〈추산당과 결사량들〉, 〈월광한〉 등을 발표하여 작가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sup>2</sup>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 경남지부에 참여하였고 건준위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된 뒤에는 문화부에서 활동하면서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의 부산지부격인 부산예술연맹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김정한은 이 무렵 좌파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미군정 하에서 고초를 겪는다는 내용의 「옥중회갑」과 「설날」을 발표했다. 또한 「민주신보」의 논설위원으로, 「대중일보」에 논설 및 칼럼을 기고하는 등 언론활동을 하였다.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 부산지부장과 1947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 부산중학 교사로 임용되면서 좌파 사회활동을 중단했지만, 단독정부 수립 후에는 피신 다녀야 했다. 한국전쟁 때에는 당시 낙동강과 엄궁으로 피신했다가 군수사기관에 체포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김정한은 대학교수로서 1959년에는 「부산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다가 검거되어 고초를 겪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도피와 구금의 연속이었고, 대학에서는 파면을 당하였고 부산대학교 복직은 1964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난과 고초는 잠자던 그의 문학적 열정을 폭발시켰다. 1966년 10월 낙동강변의 가난한 어민들의 삶과 역사적 질곡을 그린 「모래톱이야기」 발표를 시작으로 「수라도」, 「사뱃재」,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등 뛰어난 작품들을 썼다. ▼<sup>3</sup>

1967년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단편 〈과정〉, 〈입대〉, 〈곰〉, 〈유채〉, 〈축생도〉, 〈제3병동〉, 〈굴살이〉, 〈뒤틀기미나루〉를 발표하고, 중편 〈수라도修羅道〉로 주목을 받고 제6



회 ‘한국문학상’과 ‘부산시문화상’을 받는다. 1970년에 단편 〈지옥변〉, 〈독매〉, 〈실조〉, 〈어둠 속에서〉와 평론 〈역사와 사회의식에 주력〉 주목 받으며 제3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받는다. 1974년에는 소설문학사에 남긴 역작 〈인간단지人間團地〉에 이어 〈산거족山居族〉을 발표해 정년퇴직한 뒤 세 번째 창작집 《김정한 소설선집》을 펴내고, 1976년에는 《제3병동》으로 ‘문화훈장 은관’을 받았다고 하니 작가로서 명예로운 상은 다 받은 셈이다.

연보와 작품연보 아래에 글이 적힌 도자기와 친필원고, 미완의 장편소설 《세월》의 빛바랜 원고지가 눈에 띈다. 전시실 중앙의 유리관에는 작가가 쓰던 사무용품과 모자, 생필품 등의 유품들이 가득해 작가의 체취가 전해온다. 유품을 보면 작가가 젊은 시절에 향유했던 문화와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곧 우리나라 근대사의 모습이기도 하다. ▼<sup>4</sup>

김정한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을 무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소설에 담아내었다. 그의 작품을 한국문학에 우뚝서게 한 것은 한반도의 끝자락 낙동강 하류에 사는 민초들의 삶을 보편적인 한국근현대사의 고통과 저항의 모습으로 그려내었기 때문이다. 그 또한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1996년 11월 향년 89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하였다. ▼<sup>5</sup>

주로 핍박당하는 농촌 현실을 주제로 한 소설을 썼다. 등단작인 〈사하촌〉과 오랜 절필 끝에 내놓은 자신의 교사 생활의 경험을 담은 〈모래톱 이야기〉 등이 대표적이다. 낙동강 근처에서 태어나서 부산을 떠난 일이 없이 부산에 붙박고 살아온 삶이 소설 곳곳에 배어 있다. 그에게 ‘낙동강의 파수꾼’이란 별명을 붙은 것도 그 때문이다.

김정한 선생이 부산에 대한 애정을 소설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자. 〈모래톱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십년이 넘도록 내쳐 붓을 꺾어오던 내가 새삼 이런 글을 끼적거리게 된 건 별안간 무슨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가 아니다. 오랫동안 교원 노릇을 해 오던 탓으로 우연히 알게 된 한 소년과, 그의 젊은 홀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던 낙동강 하류의 어떤 외진 모래톱—이들에 관한 그 기막힌 사연들조차, 마치 지나가는 남의 땅 이야기나, 아득한 옛날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데 대해서 까지는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집이 저쪽 나루터에서 먼가?” 나는 갈대 그림자가 그림처럼 고요히 잠겨 있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예, 제북(제법) 갑니다.”

김정한 선생의 소설은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시절 부산의 문화 풍경이 살아 숨 쉰다. 선생은 부산이 겪는 아픔과 갈등,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약자들의 아픔에 동감한다. 낙동강 파수꾼이란 별명은 부산을 지켰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부산에 대해 과장도 비하도 하지 않고, 부산이 지향한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김정한 선생의 정신은 역사로 계승되어야 함은 틀림없다. 부산 금정산 자락에서 태어난 작가의 기와집 생가를 복원한 마당에 신축한 요산 문학관 입구에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선생의 목소리가 걸려 있다. 문학관의 구체적인 위치는 금정구 남산동 주택들이 밀집한 곳으로 문학관에 비치는 햇살과 문학관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따뜻하다.



2006년에 개관한 요산 문학관은 2002년에 설립된 (사)요산기념사업회가 운영하고 있다. 작가의 생가가 옆에 문학관이 있고, 지하 1층은 다목적 강당, 1층은 북카페, 2층은 도서관과 기념관, 3층은 집필실 겸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 문학관 내부는 작가 연보와 유품 3,000여 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다. 작가의 편지글, 안경, 만년필, 주민 등록증 등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작가의 글씨체와 꼼꼼함도 확인하는 순간 요산 선생을 직접 뵈는 착각을 느끼게 한다. 요산 문학관을 직접 운영하는 요산 기념사업회는 매년 10월에 요산문학축전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요산 문학기행, 요산 백일장,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 심포지움, 요산 문학상 시상, 요산 독후감 토론회, 요산창작지원금 수여 등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매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품으로 다시 보고 듣는 부산, 독서·영화 동아리 모임 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좌 등이 열리고 있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무국장은 부산 시민은 물론 부산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애정을 갖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최근 금정구청은 남산동 머드레 마을의 '요산 문학관 일원 스토리텔링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2017년 금정구 청룡동에서 요산 선생의 생가까지 663m 구간에 '요산 문학로' 조성을 완공했다. ▼<sup>6</sup>

2003년에 복원된 생가는 팔작지붕의 일자형 목조 전통 한옥이다. 옛집을 품으면서 새 전시관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 가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 안용대는 한옥 기와를 닮은 경사진 지붕선을 채택해 옛것과의 조화를 꾀하면서도, 벽돌 벽면에 다양한 형태의 창을 뚫어 현대적 디자인을 추구했다. 1층 출입구 앞 필로티는 잔디마당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뒷마당까지도 시선이 확장되는 개방감을 제공한다.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된 1층 북카페에서는 마당과 생가가 한눈에 들어온다. 2층 전시실의 한쪽 벽면에 뚫린 낮은 창으로도 마당과 생가를 내려다볼 수 있다. 2층 소규모 도서관은 직사각형의 공간이 의도적으로 안쪽 쏠림 벽으로 처리되어 외부 조망의 극적 효과를 더한다. 이에 대해 건축가는 “문학과 사회의 소통을 지향한 요산의 정신을 담으려 했다.”라고 말했다. 3층에는 방문하는 문인들에게만 개방하는 2개의 집필실을 두었고, 집필실에 딸린 테라스는 전면으로 아담한 옥상정원과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작은 돌출 난간이 있다. 여기에 서면 1층 유리벽에 요산의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적혀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붉은색 글귀가 환청으로 들리는 듯하다. ▼<sup>7</sup>

이주민의 땅 부산은 타자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품이 있다. 갈등이나 대립이 아닌 그저 품는 넉넉함이 바다를 닮았다. 물론 부산 사람들 스스로 지역적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청년들이 서울에 취직을 하거나 대학 진학을 하면 부산사람이라는 기호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개방성과 넉넉함으로 인식한다면, 언제나 바다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젊은 시절 부산을 잊고자 했던 그 사람들도 아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부산이다.

부산 문학 역시 한마디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그 가운데서 암울했던 식민지 시기, 해방공간으로서 부산, 피란 시절과 그 이후 근대사에 나타난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 문학의 거장 요산 김정한 선생이다. 이들은 한국 근대사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직면했다. 부산의 개방성과 넉넉함 그리고 아픔을 고스란히 나타내면서도 삶의 이정표를 문학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이들의 정신은 부산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들이 만든 공간이 요산문학관이다.

▼<sup>8</sup>



- ▼ 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015 부산학연구사업 시민총서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pp.122.
- ▼ 2 김미자, 2018, 「함께 떠나는 문학관 여행」, 글로세움, pp.304-307.
- ▼ 3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2021, 「부산학 거의 모든 부산」, 함향, pp.115-116.
- ▼ 4 김미자, 2018, 「함께 떠나는 문학관 여행」, 글로세움, pp.304-307.
- ▼ 5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2021, 「부산학 거의 모든 부산」, 함향, pp.115-116.
- ▼ 6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재)부산연구원, pp.206-209.
- ▼ 7 이승헌, 2016, 「부산 속 건축」, 안그래픽스, pp.51.
- ▼ 8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재)부산연구원, pp.206-209.



### 3) 관련 자료

#### ▷ 현장 사진 자료



요산문학관 명패



요산문학관 입구



김정한 선생 생가



김정한 선생 흉상



▷ 사진 기록 자료



요산 김정환 선생

©부산일보 DB



1973년 요산 김정환과 향파 이주홍

©요산문학관 홈페이지



문화예술상 시상식 및 〈人間團地〉 출판기념회

©요산문학관



제1회 요산문학상 시상식

©요산문학관



요산 김정환 선생 묘소 참배 고유제

©요산문학관



요산 문학로

©뉴스시스



### ▷ 논문 및 저서

- 김중하, 1997, “부산 현대문학의 큰 흐름”, 『항도부산』, 14권.
- 김미자, 2018, 『함께 떠나는 문학관 여행』, 글로세움.
- 이승현, 2016, 『부산 속 건축』, 안그라픽스.
- 부산광역시, 2005,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부산광역시.
- 부산발전연구원, 2015, 『부산을 알다』, (재)부산연구원.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재)부산연구원.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풍경』, (재)부산연구원.
-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2021, 『부산학 거의 모든 부산』, 함향.

### ▷ 신문기사

- 2017.01.21. 뉴시스, 「금정구, 남산동에 '요산 문학로' 조성」
- 2020.08.13. 부산일보, 「부산 근대정신의 뿌리, 요산과 범어사를 다시 생각한다」
- 2021.10.07. 국제신문, 「전다형의 시 돌레길 <7> 요산 김정환 작가 만나는 길」
- 2021.10.13. 부산일보, 「변종이 인간을 괴롭히는 시대, 요산의 문학정신을 되새겨 보다」

### ▷ 기타 자료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 부산연구원 홈페이지(<http://www.bdi.re.kr/>)
- 부산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시스템 '낙동강의 파수꾼, 김정환' (<http://busandabom.net/>)



## 2장

# 유산별 활용방안

- 1. 유산별 형태 및 보존 여부 분류 • 238
- 2. 유형별 활용 방안 • 240



## 2. 유산별 활용방안

### 2.1 유산별 형태 및 보존 여부 분류

연번	분야	명칭	형태		보존여부
1	역사	부산시민공원	유형	공원	현존
2		40계단	유형	계단	현존
3		백산기념관	무형	인물(백산 안희제)	-
			유형	기념관	현존
4		부산세관	유형	건조물	일부 보존
5		동래기영회	무형	조직	현존
6		조선방직 총파업	무형	사건(노동쟁의)	-
7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무형	조직	현존
8		부산부두 총파업	무형	사건(노동쟁의)	-
9	산업	어묵	유형	음식	현존
10		기장 대멸치	유형	음식(특산물)	현존
			무형	멸치털이	현존
11		구포은행	유형	은행	-
			무형	인물(청운 윤상은)	-
12		근대 조선업 발상지	유형	유적비	현존
13		남선창고	유형	부두창고	일부 보존
14	도시	금강공원	유형	공원	현존
15		동해남부선	유형	철도	일부 보존
16		제뢰등대	유형	등표	일부 보존
17		녹산 제1수문	유형	수문	현존
18		부산터널	유형	터널	현존



연번	분야	명칭	형태		보존여부
19	생활문화	송도해수욕장	유형	해수욕장	현존
20		장기려기념관	무형	인물(성산 장기려)	-
			유형	기념관	현존
21		금정산성 누룩방	유형	제조시설(누룩방)	현존
무형			제조기술	계승	
22		동래파전	유형	음식	현존
무형			제조기술	계승	
23		낙동강 재첩국	유형	음식	현존
무형			재첩잡이, 마을공동체	일부 현존	
24		구덕운동장	유형	공설운동장	현존
25		청학성당	유형	성당	현존
26		동광동 인쇄골목	유형	특화거리(인쇄)	현존
27		부전동 공구골목	유형	특화거리(공구)	현존
28	문화예술	BIFF광장	유형	거리 → 광장	(형태 변화 이후) 현존
29		요산문학관	무형	인물(요산 김정한)	-
			유형	기념관	현존



## 2. 유산별 활용방안

### 2.2 유형별 활용방안

#### 1) 유형유산

- 유형유산의 경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 그 형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에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는 유산 모두를 이룸

분야	명칭	형태	보존여부
역사	부산시민공원	공원	현존
	40계단	계단	현존
	부산세관	건조물	일부 보존
산업	근대 조선업 발상지	유적비	현존
	남선창고	부두창고	일부 보존
도시	금강공원	공원	현존
	동해남부선	철도	일부 보존
	제뢰등대	등표	일부 보존
	녹산 제1수문	수문	현존
	부산터널	터널	현존
생활문화	송도해수욕장	해수욕장	현존
	구덕운동장	공설운동장	현존
	청학성당	성당	현존
	동광동 인쇄골목	특화거리(인쇄)	현존
	부전동 공구골목	특화거리(공구)	현존
문화예술	BIFF광장	거리 → 광장	(형태 변화 이후) 현존



## ① 현장 보존을 통한 공간 체험 진행

### ▷ 기본방향

- 유산과 유산이 현존하고 있는 공간을 최초 형성·발생 당시, 혹은 현재의 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시민들이 해당 유산과 장소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함. 이를 통해 유산의 보존필요성을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음

### ▷ 세부 방안

- 장소형 유산 : 부산시민공원, 금강공원, 송도해수욕장, 구덕운동장, 청학성당 등 그 자체로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는 장소형 유산의 경우, 해당 장소를 보존하고 정비하는 것에 집중하며, 방문하는 시민들의 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험을 풍부화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관련 분야(역사, 종교, 체육, 여가 등) 프로그램 및 축제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과의 결합을 통한 대중적 행사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
- 거리형 유산 : 근대 조선업 발상지, 동광동 인쇄골목, 부전동 공구골목 등 한정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거리형 유산의 경우, 해당 유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필드형 뮤지엄 조성이 가능하며, 이와 연계한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함

### ▷ 참고사례

- 전일빌딩 245



건물에 탄흔이 보존되어 있는 전일빌딩245

©연합뉴스



내부의 다양한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도슨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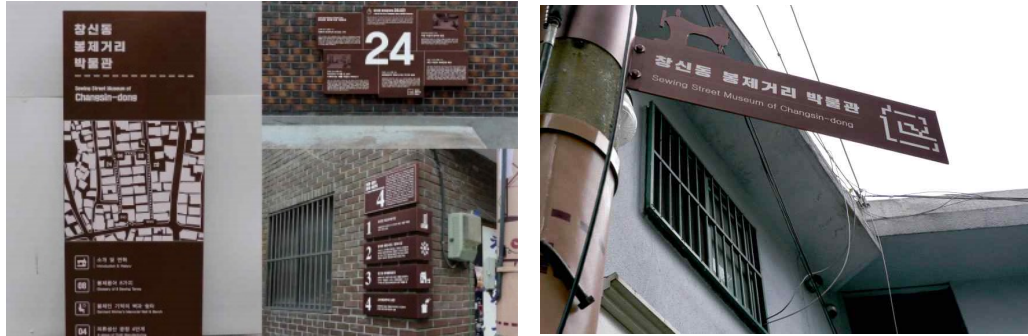
©중앙일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시설로 개관함. '역사의 공간에 시민들의 삶을 담아 미래 정신으로'라는 비전으로 광주의 과거를 기억하는 '19800518' 5·18 기념시설, 생활문화센터, 청년센터, 예술공방, 회의실, 디지털 전자도서관 등을 갖춘 '시민플라자', 콘텐츠 및 1인 기업 입주시설,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의 '광주 콘텐츠 허브'로 운영하고 있음



·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

1970~80년대 봉제업의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로 2007년 뉴타운지구로 선정된 창신동은 2014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고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 창신동 거리 일대를 봉제업과 관련한 역사, 주민의 삶이 기록된 박물관으로 조성하여 관련한 디자인, 스토리텔링, 역사관 설립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됨



©공공공간

## ② 복원 및 수복을 통한 정비 조치

### ▷ 기본방향

- 현재 그 일부만 형태가 보존되어 있거나, 형태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산세관, 남선창고, 제뢰등대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함. 기본적으로 옛 모습을 복원 및 수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유산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역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 세부 방안

- 세부 방안·실제적 복원 : 잔존하고 있는 유산의 일부 및 설계도면, 관련 사료(사진자료, 서면 기록, 관계자 구술 등)를 토대로 당시의 형태를 수리, 복원하여 사라졌던 유산의 정신을 새롭게 되살림
- 가상의 복원 : 제뢰등대와 같이 유산은 보존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장소에 복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AR·VR, 미디어 파사드 등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복원을 통해, 시민들이 옛 모습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함





## ▷ 참고사례

### · 2021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쇼

미륵사지는 전북 익산에 위치한 대한민국 사적 제15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백제 무왕 시절 지어진 백제 최대의 사찰 ‘미륵사’의 사찰터임. 조선시대에 들어 17세기경에 폐사(廢寺)된 뒤 서탑(西塔) 및 당간지주(幢竿支柱) 등의 일부 석물만 남았음. 원래 이곳에는 석탑인 서탑과 동탑, 그리고 그 가운데의 목탑까지 총 3기의 탑이 있었으나, 현재 석탑만이 복원된 상태이며, 사찰과 중앙의 목탑은 복원되지 못하였음. 최근 익산시는 ‘2021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쇼’를 진행, 프로젝션 맵핑과 드론을 활용하여 목탑을 가상 복원하고, 백제 무왕의 일대기와 미륵사 창건 설화를 시민들에게 재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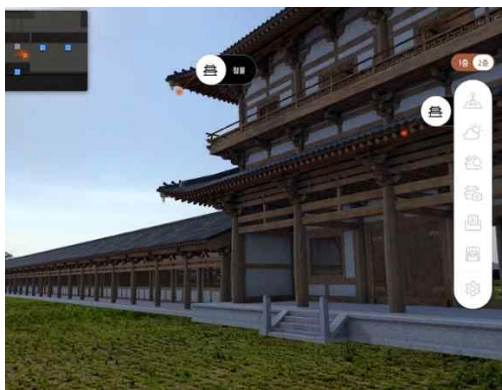


드론으로 구현된 미륵사지 목탑과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석탑 미디어아트

©전북일보

### · 경주 황룡사 증강현실 복원(2020)

황룡사는 553년에 지어진 신라 최대의 사찰이지만 몽골의 침입(1238년) 당시 불타버려 지금은 터와 초석 일부만 남아 있으며, 문헌 자료 외 황룡사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임. 때문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복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 중문과 남회랑 등을 디지털로 일부 복원하여 시민들이 그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후 복원 범위를 점점 늘려 나갈 계획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 복원 내용을 보완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한국일보



©BBS뉴스



### ③ 조형물, 기념관 조성 등을 통한 기억·기념화 사업 추진

#### ▷ 기본방향

- 녹산 제1수문, 부산터널 등과 같이 실제 공간에 대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나 동해남부선, 동광동 인쇄골목, 부전동 공구골목과 같이 특정한 거점공간이 없는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하나, BIFF광장 등 기념 조형물 등이 존재하나 그 설치시기가 오래되었거나 더 이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더불어, 이 방안은 '2.3. 무형유산'에도 해당될 수 있음
- 유형의 조형물을 인근 장소에 설치하거나, 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념관, 문화관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유산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임

#### ▷ 세부 방안

- 거리형 기념 : 기념관을 조성할 유휴 공간 마련이 어렵거나, 해당 유산이 거리·골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혹은 과거에 그러했던) 경우, 그 형태를 살려 거리형 기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기만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필요한 벤치, 조명 등 스트리트 퍼니처 형식의 아트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거리를 이용하고 쉬어가며 해당 유산에 대한 기억을 자연스럽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함. 거리의 환경 및 미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장소형 기념 : 유산 연관 장소 혹은 인근 유휴 공간 마련이 가능하며, 시민들이 체류하며 전시 관람이나 프로그램 체험 등을 할 거점공간이 필요할 경우, 해당 방안을 택하여 기념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틀에 박힌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점철된 기념관이 아닌, 보다 심층적인 조사·연구 아카이빙을 토대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공간 구성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문과 참여를 유도함

#### ▷ 참고사례

- 영도 갯강이에술마을 공공예술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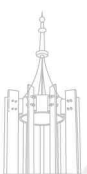
영도 갯강이에술마을 사업은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인 영도 대평동을 중심으로 2016-2018년 진행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영도도선복원 프로젝트,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문화사랑방 등 6개의 세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 그 가운데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의 특성과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로 지역의 작가와 협업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명, 아트벤치, 벽화 등의 작업을 진행함



갯강이에술마을 아트벤치 '두드림' (좌), 라이트프로젝트 '구름가로등' (우)

©갯강이에술마을

- 부산 동구 망양로 산복도로 전시관



망양로 산복도로만의 독특한 경관, 역사, 자연, 생활문화, 예술, 건축, 지형적 특성 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생활문화 전시관 조성사업으로 딱딱한 전시형태에서 벗어나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결합된 창의적인 예술체험공간으로 조성하였음. 아카이브존, 플레이존, 미디어아트존으로 구성되어 있음



망양로 산복도로 전시관 아카이브존(좌), 플레이존 및 미디어아트존(우)

©문화예술 플랜비

#### · 민주인권기념관

1970~80년대 대표적인 고문시설로 악명을 떨쳤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리모델링 및 개관 예정임(2023년)



옛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인권기념관 조감도

©민주인권기념관



## 2) 유·무형 복합 유산

- 유·무형 복합 유산의 경우, 유형의 유산과 연관성을 가진 무형 유산(인물, 제조·채취 기술, 마을 공동체 등)이 결합된 것을 말함. 크게 ‘인물 중심형’, ‘음식·기술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분야	명칭	형태		보존여부
역사	백산기념관	무형	인물(백산 안희제)	-
		유형	기념관	현존
산업	어묵	유형	음식	현존
		무형	제조기술, 업체	현존
	기장 대멸치	유형	음식(특산물)	현존
		무형	멸치털이	계승
	구포은행	유형	은행	-
		무형	인물(청운 윤상은)	-
생활문화	장기려기념관	무형	인물(성산 장기려)	-
		유형	기념관	현존
	금정산성 누룩방	유형	제조시설(누룩방)	현존
		무형	제조기술	계승
	동래파전	유형	음식	현존
		무형	제조기술	현존
	낙동강 재첩국	유형	음식	현존
		무형	재첩잡이, 마을공동체	일부 현존
문화예술	요산문학관	무형	인물(요산 김정한)	-
		유형	기념관	현존



## ① 공간 및 자산 연계 지역 투어프로그램 진행

### ▷ 기본방향

- 유형의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그와 연관된 무형의 인물, 음식, 특산물 등의 유산을 연계한 테마 투어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함. 무형 유산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 정신과 가치를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거점공간(유형유산)에서 그와 관련된 강좌, 콘텐츠,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접함으로써 전체 투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화함
- 해당 투어프로그램은 '2.1. 유형유산'에서 언급된 필드형 뮤지엄 조성, 기억·기념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함

### ▷ 세부 방안

- 인물 중심형 : 지역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을 중심으로, 그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연관된 조직·단체, 기업 등을 결합한 유산을 주요 대상으로 함. 대표적으로 백산기념관(안희제), 장기려기념관(장기려), 요산문학관(김정환)이 그것임. 이 경우, 기념관은 해당 인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소이므로 기념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물의 행적에 중점적으로 살펴 투어의 코스를 기획할 수 있으며, 기념관·문학관은 해당 투어의 시·종착점의 역할을 함
- 음식·기술 복합형 : 음식·특산물 유산의 경우, 많은 경우 관련 '골목'이 형성되어 있거나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가 있음. 이를 거점으로 삼아 유산의 역사를 들여보고, 그 자취를 따라 지역을 둘러보는 투어, 기술의 시범 및 체험으로 이어지는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 참고사례

### · 용인시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 스탬프 투어

2020년 천주교 수원교구와 용인시가 조성한 ‘청년 김대건길’은 용인 은이성지에서 안성 미리내성지를 잇는 10.3km 거리의 순례길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가 생전 사목활동을 위해 넘나들던 길이자, 순교 후 그의 시신이 옮겨진 길이기도 함. 용인시는 ‘청년 김대건길’ 내 은이성지, 골배마실성지, 고초골공소, 손골성지, 미리내성지 등 총 5개 명소를 둘러보는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를 운영하고 있음



용인 ‘청년 김대건길’ 전경

©용인시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 스탬프북과 스탬프

©용인시

### · 영도 강강이예술마을 투어

영도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은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인 영도 대평동을 중심으로 2016-2018년 진행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영도도선복원 프로젝트,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문화사랑방 등 6개의 세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 이 사업을 통해 해상 투어를 진행하는 ‘강강이유람선’과 근대 조선산업의 발전사를 볼 수 있는 ‘거리박물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강강이 생활문화센터(1층 마을다방, 2층 마을박물관)’ 등이 조성되었음. 또한, 마을박물관~강강이유람선~마을공작소 등지로 이어지는 마을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문화사랑방’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주민 마을해설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이끌고 있음



강강이생활문화센터

©강강이예술마을



주민 마을해설사 투어 진행 모습

©강강이예술마을





## ② 기술 전승, 장인 육성을 통한 생활문화유산 계승 및 강화

### ▷ 기본방향

- 음식 혹은 특산물과 이를 제조하고 채취하는 기술이 결합된 ‘음식·기술 복합형’ 유산을 대상으로 함. 어묵, 동래파전의 경우 현재까지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조기술이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기장 대멸치와 낙동강 재첩국, 금정산성 누룩방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채취·제조기술이 전수되어 오고 있음. 기술의 발전과 변화, 환경 오염 악화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기억과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유산을 기록하고 기술 전승 및 장인 육성을 지원하여 생활문화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함

### ▷ 세부 방안

- 기술 전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어묵의 경우, 관련 업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행사 등의 진행을 위한 제도·환경적 지원 및 개선 등을 통해 유산의 지속을 강화할 수 있음
- 소수의 업체,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술이 전승되고 있는 동래파전, 금정산성 누룩방, 기장 대멸치, 낙동강 재첩국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당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유산 관련 지역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장인들과 청년들이 밀접하게 교류하며 협업하거나, 전문 기술을 전승하여 해당 기술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술 장인들이 기술 전승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인’ 제도 마련, 후대에의 기술 전승을 장려하는 다방면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 참고사례

### · 서울 세운상가

서울 세운상가는 1970년대 현대 전자기술 문화의 기원이었던 곳으로, 2015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며 새로운 도심산업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음. 세운상가 2, 3층에 청년 스타트업과 예술가 그룹이 입주하도록 하고, ‘메이드 인 세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신기술을 접목한 세운상가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세운 기술중개’를 통해 기술적 해법이 필요한 창업자, 예술가들에게 세운상가의 기술장인을 연결해 주기도 함



기술 멘토로 활동중인 20년 이상 경력의  
‘세운 마이스터’ 들

©다시세운프로젝트

세운 기술중개

©다시세운프로젝트

### · 대구 북성로 공구골목

대구 북성로 공구골목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된 대구 북성로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기술생태계, 기술자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를 조성, 공업장인들의 기술과 예술가들의 협업 및 기술 전승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전문교육 ‘크래프트 캠프’를 운영하며 간단한 원데이 프로그램에서부터 청년기술자를 양성하는 심화 워크숍까지 다양한 층위의 기술전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내 전시관 ‘장인의 방’

©대구 중구청



크래프트 캠프 - 용접 ABC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 3) 무형유산

- 무형유산은 조직, 사건 등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니지 않은 유산을 말함

분야	명칭	형태	보존여부
역사	동래기영회	조직	현존
	조선방직 총파업	사건(노동쟁의)	-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조직	현존
	부산부두 총파업	사건(노동쟁의)	-

#### ① 스토리텔링 및 아카이빙 등 기록화작업의 추진

##### ▷ 기본방향

- 무형유산과 관련된 사료 및 문헌의 수집, 구술 기록 등 기초·심화 연구 작업으로, 모든 유·무형 활용의 기반이 되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함

##### ▷ 세부 방안

- 사건형 유산 : 조선방직 총파업, 부산부두 총파업과 같이 일시적 사건의 경우, 고신문, 지도, 사진 등 관련 기록을 아카이빙하여 유산의 중요성과 의의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단순히 서면으로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닌, 향후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 구성, 전시 및 기념화 사업, 콘텐츠 제작 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원형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함
- 인물·조직·단체형 유산 : 동래기영회,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등 무형의 조직인 경우, 앞서 언급한 사건형 유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존하고 있는 관련 인물들의 기억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시간이 경과할수록 관계자들과 그 기억이 보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연구자들을 투입하여 관련 개인 사료(사진 및 구술) 수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 참고사례

- 수영성문화마을 ‘마을박물관 프로젝트’(2015-2017)  
부산 수영구 수영동은 과거 경상좌수영이 위치한 지역으로, 4개의 무형문화재(수영아류, 수영농청놀이, 좌수영어방놀이, 수영지신밟기)가 전승되고 있어 풍부한 자산을 가진 지역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2015~2017년 ‘수영성문화마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6개 프로젝트 가운데 ‘마을박물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역사·생활문화를 심도 깊게 조사하여 마을 총서 발간, 마을박물관 조성 등을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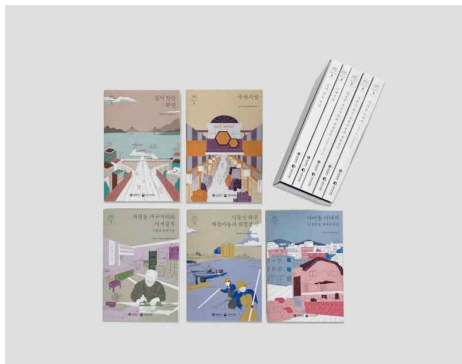




수영동생활문화조사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조성된 마을총서와 수영성마을박물관  
©수영성문화마을

· 국립민속박물관 ‘2021 부산민속문화의 해’ 사업

‘2021 부산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자 4명, 전 연구자 1명과 부산의 연구자 1명이 1년 반 동안 현장 조사와 집필 과정을 거쳐 영도의 근현대사와 도시 민속, 해양 민속, 구술 생애사를 기록함



‘2021 부산민속문화의 해’ 연구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조사 결과를 통해 구성된 전시  
‘부산, 바다와 물의 나들목’

©연합뉴스

## ② 시민참여형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 기본방향

-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 활성화하여 해당 유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함

### ▷ 세부 방안

- 간접 체험형 : 기록화작업을 통해 구축된 원형 콘텐츠, 관계자 네트워크 등을 연계하여, 인문학 강좌, 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시민들이 유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함
- 직접 체험형 : 미디어파사드, AR·VR,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이 유산의 과거 모습, 역사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제고



할 수 있음

▷ 참고사례

- 부산 동구 다행복교육사업 마을교과서 「동구와 나」(2021)

부산 동구는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재, 생활사 등과 같은 다방면의 영역을 체계적으로 구성, 독창적 일러스트를 통해 초등학교 3, 4학년 눈높이에 맞는 부산 동구만의 차별화된 지역학 교과서를 기획·제작하였음. 해당 교과서는 관내 6개 초등학교에 배부되어 교과과정과 연계한 수업 및 체험활동에 활용될 예정임



©문화예술 플랜비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들을 진행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상설전시관에 전시된 경천사 십층석탑의 경우, 국립박물관 전시안내 앱을 이용해 관람객에게 해당 유물의 역사를 설명하며, AR 기술을 활용하여 탑을 카메라로 인식하고 원하는 부분을 고화질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거나, 직접 퍼즐로 쌓아보며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서 국보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만나 사진을 찍거나 ‘힐링동산’의 초원에서 요가 혹은 명상하며 쉴 수 있게 하기도 함



경천사탑 AR 체험

©중앙일보



국립중앙박물관 메타버스 ‘힐링동산’에서 체험하는 반가사유상

©중앙일보





### ③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중화 작업 진행

#### ▷ 기본방향

- 축적된 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문학, 미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과 연계한 콘텐츠를 제작,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알릴 수 있음

#### ▷ 세부 방안

- 단순히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하고 즐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해당 작품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유산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일반 공모전 형식에서 벗어나 광역·기초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형태와 내용을 보장하여 생산되는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음

#### ▷ 참고사례

- 영화 ‘국제시장’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 지역 영화제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화 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영화 ‘국제시장’은 촬영 스튜디오 및 제작진 숙소 지원을 받은 작품으로, 큰 흥행을 이끌며 부산의 국제시장 등 지역의 역사적 장소들을 다시금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 동래읍성역사축제 뮤지컬 ‘외로운 성’

-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전투를 재현한 뮤지컬 ‘외로운 성’은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 공연되고 있음. 일반적인 역사적 사건 재현이 아닌, 시민 연극자가 직접 참여하는 창작 뮤지컬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작품임. 특히, 연극자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경우, 전문 연극자와 함께 수개월 간 작품을 연습하며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해당 작품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는 모습을 보임



영화 ‘국제시장’ 이 지원받은  
부산영상위원회 촬영 스튜디오

©부산일보



동래읍성역사축제 뮤지컬 ‘외로운 성’

©부산일보

